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제 1 호(53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4451
1248
1987:1-6

김 일 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대의원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과 더불어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날로 두터워지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은 한층 더 강화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맞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투쟁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

제 다그침으로써 자기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1

동지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이며 최고의 리상입니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숙망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의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은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력사적인 로정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다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며 이 과정에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고 광복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투쟁강령을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지체없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북반부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된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진군의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승리하고 완성되게 됩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첨예한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는 력사적변혁의 시기입니다. 과도기의 력사적임무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는데 있으며 온갖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권을 잡은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과도기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우리 인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과도기의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사회발전행정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완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에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회에 착취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은 계속되며 또한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됩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섰으나 사회주의건설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착취제도는 청산되였으나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회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투쟁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다고 하여 곧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계급적차이는 없어지지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일정한 차이는 계속 남아있으며 사회의 생산력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는 하나의 력사적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갔으며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우리가 건설하여놓은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여러차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습니다.

최근년간에 우리 인민은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제2차 7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나

라의 경제적위력이 한층 더 강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간개조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뒤떨어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는 극히 부분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습니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이러한 질적상태는 우리 사회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이 성숙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를 끝없이 신뢰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든든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개척된 조선혁명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멀리 전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2

동지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입니다.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계급이 생겨난 때로부터 사람들사이에 지배와 예속관계가 생겨났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력사적시기 그 어느 계급도 계급폐절의 구호를 들지 못하였으며 오직 로동계급만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계급폐절의 구호를 들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계급의 폐절과 무계급사회의 실현, 이것은 로동계급이 스스로 내세운 력사적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회주의혁명은 계급폐절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착취계급이 청산됨으로써 온갖 사회적불행의 화근인 계급적대립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만이 계급으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의 폐절문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여야 계급폐절의 력사적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존재하는것도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기때문입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농민의 로동계급화가 실현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는 다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기초를 이루는 사회주의적소유입니다. 집단주의는 소유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전사회적인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야 합니다.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전인민적소유의 단일한 경리에 망라되여 일하게 될 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원만히 구현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공업보다 약한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강령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먼저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은 소유관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공동로동과 집단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농촌경리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한편 농촌에서 성인교육사업과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농민들이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을 공업화하면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뜨락또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여야 하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최신농업과학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우리는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를 비롯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전인민적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에서 노는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입니다.

경제관리는 소유관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촉진할수 없습니다. 오늘 농업협동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고 농업생산이 날로 현대화되여가고있는 현실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철저히 계획화하고 조직화할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농업지도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킴으로써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협동농장들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적지도를 잘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철저히 관철되여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될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될것이며 그에 따라서 모든 사회관계가 완전히 로동계급적인것으로 개조되게 될것입니다.

3

동지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해서만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 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경제건설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빨리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다음해부터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합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

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입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와 현실적요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합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제3차7개년계획은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입니다.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하여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한 목표들은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지금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대규모의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당의 구상과 지도 밑에 진행되는 중요대상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특히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중요대상건설을 맡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공사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해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것을 요구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제3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4

동지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아래서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고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됩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사상과 기술, 문화로 일색화하는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변혁과정이며 그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만 성과적

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는 곧 자주성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치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야 하며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와 각급 정권기관들은 자기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활동에서 계급로선을 관철하여야 인민정권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인민정권이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사회생활이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로동계급적생활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자본주의, 수정주의적 사상독소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려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이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될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

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에 규정된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사회생활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나라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전체 성원들이 규률있고 질서있게 행동하는것은 조직화된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동행동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에 무질서하고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모든 사회성원들의 의무적인 행동규범이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입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모든 근로자들이 공화국의 법을 성실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국가행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전반적인 국가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사회생활을 더욱 조직화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며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맞게 사회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는것은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인민정권이 나라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운영하여야 모든 자원과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나라의 모든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해당지역과 단위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인민봉사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국가적

요구와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잘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였으며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사업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5

동지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온 겨레가 민족의 분렬로 인한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나라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는 오늘의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념원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입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

전을 마련하는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4년초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련이어 여러가지 북남회담을 발기하고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 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소동이 전례없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를 비방하다 못하여 사리에 맞지도 않는 거짓을 날조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우리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미자주화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우리와 련결시켜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남조선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애국투쟁입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우리와 련결시키려는것은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생억지이며 그들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는것은 반공의 구호밑에 감행되는 반인민적, 반민족적 책동입니다.

반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분렬하여 통치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무기입니다. 반공에 물젖으면 주체를 잃고 애국과 매국을 가려볼수 없게 되며 민족의 자주성과 리익을 지켜낼수 없습니다. 반공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거부하는 대결과 분렬의 리념이며 전쟁의 리념입니다. 오늘 남조선《국회》에서까지 《반공국시》가 문제시되고 《통일국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

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군사적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남조선에 미군무력을 급격히 증강하였으며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온 남조선땅을 핵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는 남조선에 《랜스》미싸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핵운반수단들이 련속 투입되고있으며 대규모의 핵저장고들이 새로 건설되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대대적으로 벌리고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전후방을 항시적인 동원태세에 두고있는것입니다.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이러한 험악한 사태는 그들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이 전쟁준비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남침위협》에 대하여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우리가 1988년올림픽경기를 앞두고 《남침할 계획》을 짜놓고있다느니, 우리의 금강산발전소 건설이 《수공작전》을 위한것이라느니 하는 허황한 말까지 퍼뜨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침하지 않겠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러한 립장은 우리의 수많은 평화제안들에 의하여 명백히 담보되고있으며 지난 수십년간의 력사적사실에 의하여 이미 그 진실성이 확인된것입니다.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평화적인 건설로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낄 근거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갖 《수공작전》을 위하여 그처럼 방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공사를 벌릴 어리석은 사람도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재난을 당하는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금강산발전소 건설을 시비할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들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이 멸살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조국강토가 미국의 핵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며 아울러 조선반도를 하루빨리 핵무기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대치상태는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만일 오늘의 첨예한 대치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은 더커지고 대결은 날로 격화될것이며 결국은 조선땅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져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온 겨레의 생사운명이 경각에 이르고있는 오늘 량심있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도 엄혹한 현실을 외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는 하루빨리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심각한 불신은 주로 정치군사적대치상태로부터 생기고있으며 그것을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쌍방의 정치군사실권자들의 노력여하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는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협의되여야 할것이며 이와 함께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긴장완화조치들이 협의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스위스, 스웨리예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외에도 정치, 군사 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남조선측이 내놓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 쌍방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회담에 쌍방의 고위당국자들과 함께 군사실권자들도 참가하여

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민족적단결과 조국통일로선의 구현이며 우리의 평화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우리의 새 제안에는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우리와 함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것을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의 이 성의있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쌍방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 국면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면 북과 남사이에는 수십년동안 쌓여온 불신의 감정이 풀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움트게 될것이며 좋은 분위기속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도 성과적으로 추진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여러 분야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을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자면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를 완전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우리와 미국, 남조선당국의 회피할수 없는 의무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장비들을 철수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방안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입니다.

북과 남이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으며 온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려면 어차피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

으로 나라를 통일하는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이 정당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총의를 모을수 있는 전민족적인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족적대화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에 언제나 이러한 민족적대화의 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전반적국제정세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대외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외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갈것이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고수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혁명의 강력한 보루이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

하여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국가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적교류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류공동의 념원입니다.

오늘 인민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바라고있지만 핵우위로써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인류의 평화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습니다.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현시기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는것입니다. 지구우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가셔질수 없으며 인류는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과 함께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막으며 여러가지 핵무기를 축감하고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는것은 핵군축을 실현하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평화적제안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발칸반도와 구라파의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이 지역 인민

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와 중근동,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가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굳은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새로운 승리와 위훈으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1987년을 맞이한다.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진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접한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안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앞두고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것은 참으로 우리 혁명발전과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헤아릴수 없이 큰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이며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의 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의 합법칙적로정을 전면적으로 명시해주시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높은 봉우리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리론, 주체적인 전략과 전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완전승리,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지난해는 우리 인민이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뜻깊은 한해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이 깊이있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더한층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차 넘치고있습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7페지)

당사상사업이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가슴깊이 새겨졌으며 당의 사상의 지대로만 사고하고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도 두터워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

일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특히 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는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선거 결과와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진행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순결성과 일심단결을 이룩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자랑스러운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지난해에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이 내세운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한층 튼튼히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의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세계적인 대건설공사인 서해갑문이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였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상징으로 된다.

우리의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당의 부름을 받들고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많은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으며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여러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986년에 이룩한 이러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참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전진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것은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갔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접근해가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며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로 된다.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의 폐절문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하여야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으로 나서며 그 해결을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

계급적차이의 근원으로 되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사회관계를 완전히 로동계급적인 것으로 개조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제도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해서만 끊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빨리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우리는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우리 당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은 1.4배이상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이 완수되면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완수하는데서 그 첫해인 1987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과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한해이다.

전례없이 웅대한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환의 해인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과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1987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1987년 인민경제계획의 중심과업은 연료, 동력 공업과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늘이고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우리는 석탄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광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생산을 빨리 늘이고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교통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교통운수의 발전이 우리 인민경제의 진군속도를 다그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인민생활문제를 보다 원만히 푸는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화학화,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고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중요전선건설은 새 전망계획을 완수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장들의 건설을 다그치며 새 발전소들의 건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 건설, 단천지구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확장공사, 간석지건설과 도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며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87년의 전투적과업이 제3차7개년계획수행에서 가지는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인간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한 근본문제이며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건설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례없는 진군속도와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는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열쇠는 보통때보다 몇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것이다. 이러한 진군속도를 창조하는데서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오직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건설공사를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빛나게 완수하는 세기적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천리마조선의 위력의 과시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새를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대중운동의 불길을 높이는것은 우리의 진군속도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조직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여 새 전망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더욱 강

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정권기관들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문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풀어나가는데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구국방안은 현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비상히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오직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고 고무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위대한 당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조국땅우에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놓은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에 영원히 충성다할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지키며 당중앙의 명령과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수령관과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끝없이 충직한 불패의 혁명대오가 있으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은 공산주의적인간 육성의 위력한 수단

고 봉 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내세우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주체사상교양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중요한 사상교양이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은 인류의 최고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의 물질적부의 창조에 선행하여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우리 당이 수행하는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중요하게는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의 물질적변혁과정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거창한 사업이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과 투쟁을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으로부터 출발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으로 일관되게 할 때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며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력사적 변혁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떠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주체사상교양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게 하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주체의 혁명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방법론을 소유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옳바른 세계관, 혁명관을 가졌는가 못가졌는가 하는것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소유할 때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출수 있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한다.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는것은 과학적인 세계관확립의 근본요구이다.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확립할 때 사람들은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질수 있다.

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자연과 사회를 구성요소로 하고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을 주체의 철학적원리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과학적리해를 가지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현실세계를 옳바로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해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우선 세계관의 사상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내세우게 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질 때 자연과 사회에 주동적으로 대하게 된다.

사람의 근본요구와 지향,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 자연과 사회에 대하는 사람들의 주되는 사상인것만큼 그것은 현실세계에서 서로 다른 두개의 대립되는 사상으로 표현되게 된다. 그 하나는 자연과 사회에 구속되게 하고 사회적예속에 순종하게 하려는것으로 표현되며 다른 하나는 주위세계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활동하려는것으로 표현된다. 주위세계에 맹목적으로 매여있으며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하려는 요구와 지향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없다는 주장을 가지게 하며 반대로 주위세계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며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변혁하려는 요구와 지향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현실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요구와 지향, 계급적리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세계관의 사상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또한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를 반영함으로써 세계관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사람과 객관세계와의 호상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주되는 두 측면의 관계이며 사람과 객관세계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개조자와 피개조자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계를 밝혀준다. 그리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철학적세계관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

함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가지게 함으로써 세계관의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해준다. 그것은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적원칙을 세울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세계를 대하는데서 어떤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리익과 활동을 기본으로 삼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기본으로 삼는가 하는데 따라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방법론이 달라지게 된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사람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과학적세계관확립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게 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개조변혁에 대하게 하는 가장 옳바른 사람중심의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지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사람들에게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운동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고 당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성 그리고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의 투쟁기풍, 조직성과 규률성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참답게 지니게 된다.

주체사상교양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리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주체의 령도방법을 소유할수 있다. 또한 그들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세계관, 혁명관의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적수령관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가 지니고있는 모든 사상정신적 특질을 가장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사상적바탕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인민대중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체의 수령관을 안겨준다.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인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혁명의 최고뇌수, 근로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고무자이며 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떠나서는 참다운 세계관, 혁명관의 확립과 발양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주체사상교양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는 혁명의 고유한 합법칙성과 근본진리를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원만히 갖추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급임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해주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입니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자면 누구나 다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5페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고상한 풍모의 소유자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풍모를 더 잘 갖추게 되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받아안게 된다.

사람의 숭고한 풍모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자주성을 떠나서 말할수 없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존과 발전을 규정하는 생명이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 자연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며 발전하는 사회적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지향과 요구, 의지를 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자주적사상의식에 기초하고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주위세계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지향과 요구, 의지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은 가장 철저한 자주적인 사상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려는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된다.

한편 사람은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짐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을 확고히 간직하고 빛내일수 있다. 조직성은 사상성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작용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사회정치적생명 그자체가 자주적인 사상의식,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적조직생활에 의하여 키워지고 빛내여지는 생명이

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조직성을 결합시킴으로써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굳건히 지니고 빛내이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된다.

오늘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의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상과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를 이루고있다. 주체사상에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진수와 기본내용이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져있을뿐아니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가장 값높게 담보해주는 사상정신적원천이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한다. 또한 그들에게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의지,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지니게 한다. 사람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혁명적 신념과 의지, 높은 정치사상성과 철저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질때 참다운 사회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일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의 높은 존엄과 영예를 지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살아나갈수도 투쟁할수도 없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게 하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함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육성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였다.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극복되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열의가 남김없이 발휘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와 혁신이 이룩된것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린 결과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혁명사상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하여야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심원한 원리들을

전개하고 체계화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만들게 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를 깊이있게 파악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위한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우리 당의 문헌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깊이 연구학습하고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하는것은 현시기 주체사상교양에서 모를 박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구호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사상은 그 어떤 정세와 정황속에서도 주체의 기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살며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 정신이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그를 구현한 당의 정책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당정책적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무한한 헌신성과 절대성, 무조건성을 가지고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하여 이룩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모든 사업을 철저히 그것을 고수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 내놓은 구호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과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원래 그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당사상사업의 주되는 목적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자는데 있다. 실천에 복무하지 않고 실천과 동떨어진 사상사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라는것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리론만 가지고 학습시키라는것이 아니다. 주체사상교양은 어디까지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참다운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리 준 섭

오늘 우리 당은 혁신반전의 요구에 맞게 당 멋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참다운 혁명가의 기본표징의 하나이며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룬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나가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으며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보람찬 삶을 누려갈수 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확고히 지니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참다운 혁명가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아니라 로동계급과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 그들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는 여기에 참된 혁명가의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은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은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입니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진다는것은 로동계급과 인민의 충복이며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닌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개인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본분으로 삼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상한 풍모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켜 처리해나가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서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타난다. 그것은 특히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데서 높이 발현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 하고있기에 대중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영원히 빛내인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

무정신이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철저한 로동계급적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근본정신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계관은 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로동계급과 인민을 대하는 관점을 규제한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철저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지닐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수도 있게 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세계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옳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있다. 참다운 혁명가들의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은 바로 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그렇기때문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한 참다운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로동계급과 인민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처리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을 철저히 가지게 되며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참된 혁명가들의 기본정신의 하나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떠나서는 참다운 혁명가들의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을 규정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의 하나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나선 투사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근원들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이 거창한 변혁과 창조 과정에 혁명가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철저히 지녀야 한다.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보다 더 큰 리익은 없으며 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와 보람은 없다. 그러므로 참된 혁명가들은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풍모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풍모를 높이 발휘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간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데 대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해준다.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참다운 혁명가의 중

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철저히 지니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들이며 관료배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들이다. 우리 일군들은 모두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고 당원으로, 혁명가로 되였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인민들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된 우리 일군들은 간부가 되고 생활이 풍족해졌다고 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눈물겹던 생활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오늘의 사명에 대하여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되며 관료화를 반대하고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간부가 된것을 그 무슨 타고난 팔자와 같이 여기면서 낡은 사회에서의 관료배들처럼 행동한다면 대중으로부터 리탈되게 되며 나중에는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커다란 부정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관료화를 반대하고 자신을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해나간다는것은 중요하게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고상한 풍모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군들은 진정으로 로동계급과 인민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철저히 지닐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5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설계도인 제3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며 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에게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부족하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게 되고 조직사업

과 생산지휘를 깐지게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닌 일군만이 거창한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부딪치게 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웅대한 제3차7개년계획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철저히 지니는것은 당의 의도대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혁명적인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에는 위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꾸려져있으며 튼튼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어있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과 수산물, 쌀과 고기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며 이미 마련된 조건과 가능성을 얼마나 효과있게 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구상대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려면 모든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철저히 지니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과 식료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중요대상 건설을 빨리 끝낼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로동계급과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산을 늘이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강서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남포시안의 여러 단위의 일군들도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 앞에서 맡은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킴으로써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태천발전소에 놓을 대형발전기들을 비롯한 발전설비들을 앞당겨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틀어쥐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2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과제를 단 5개월에 끝내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강서탄광종합기업소 책

임일군들은 공업의 식량을 보장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와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매달, 매분기, 매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으며 남포항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항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상하선작업의 기계화수준과 부두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임으로써 당중앙의 높은 평가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한편 강서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을 옳바로 세우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었으며 룡강군 성암리일군들은 알곡생산과 함께 고기생산을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를 짜고드는데 있다는 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철저히 지니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무시켜나가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혁명적군중관점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는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근본관점이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바로 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중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주체사상학습을 심화시키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대중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학습과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될 때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된다.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할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원리대로 사업하고 행동하며 혁명적군중관점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나감으로써 언제나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철저히 지녔다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답게 실속있게 일해나갈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일군들이 자신을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분으로 내세우시고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더욱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면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고매한 풍모를 따라배워야 우리 일군들모두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관점을 튼튼히 확립할수 있으며 자신을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할수 있다.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적인 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며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배려가 제때에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따라배워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기 위한 투쟁과정은 우리 일군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과정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동시에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 것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적극 따라배워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자신이 직접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일군이 실제적으로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참된 혁명가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계획을 앞당겨실현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혁명의 지휘성원인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을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일군들을 옳게 교양하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참다운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게 할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게 할수 있다. 지난기간 일군들속에서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높이 발현된 단위들의 경험은 모두 당조직들이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한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인민의 충복이며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을 배격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대로 일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철저히 지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은 그들을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직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을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애국정신

권 중 영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끝없이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로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부강한 조국건설에 구현되고있는 애국정신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발휘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의 빛나는 계승이며 그 높은 발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숭고한 애국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는것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다.

우리 인민의 항일혁명투쟁로정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혁명가, 애국자의 참다운 전형을 창조하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영웅적투쟁행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할 때에 늘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권, 237~238페지)

참다운 애국자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나라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귀한 사상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애국심은 일반적으로 자기 민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되는 사상감정이며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표현되는 사상감정이다.

력사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처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싸우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참다운 애국자로 되는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간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숭고한 애국심을 지닌 사람들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따라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자기 민족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 제국

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 투쟁하게 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 이야말로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자들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 혁명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은 다운 애국자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창 하고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영예롭게 친 혁명투사들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강도 일제를 때려 시는 무장투쟁의 길에서 가장 귀중한 은 조국이고 가장 값있는 사랑은 조 에 대한 사랑이라는것을 절감하고 항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애국자의 슬 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이 칭송하는데는 그들이 지녔던 애국 신의 숭고성에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무엇보다먼저 조국에 대한 사랑이 혁명 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밀 접히 결합된 애국정신이라는데 그 근본 특징이 있다.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강토나 고향 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국은 선조의 뼈가 묻혀있고 나서자란 정든곳 일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 는곳이다. 비록 나서자라기는 하였으나 참된 삶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나 고향은 조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강점으로 말 미암아 우리 인민에게는 나서자란 고향 은 있었지만 강토와 이름도, 력사와 문 화도, 말과 글도 다 왜놈들에게 빼앗김 으로써 진정한 조국을 가질수 없었다.

예로부터 한민족으로 단란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의 참다운 삶은 여지없이 짓 밟히우고 우리 나라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없는 망국의 력사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자기의 참다운 삶을 찾아보 려고 이 땅우에 울분을 터치며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도 벌려 보았고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선혈을 뿌 리며 조선사람의 넋을 지키기 위해 싸 워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 람들은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고 망국노의 설음을 안은채 주저앉 고말았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올 랐던 이 수난의 시기에 우리 겨레의 가 슴속에 조국광복의 홰불을 지펴준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 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혁명의 새시대 를 열어준 때부터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로동계급의 탁 월한 령도자에 의하여 개척되고 빛나게 되며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번영에 대하여 결코 생 각할수 없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 광복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 에로 이끄시였다.

지난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속에 서 헤매이던 조선의 열혈청년들과 인민 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으며 수령님의 품은 인간의 참다운 삶과 행 복을 안겨주는 따사로운 품이였다. 조국 광복을 위한 위대한 령도의 력사가 펼 쳐지고 애국자의 존엄이 빛날수 있게 됨에 따라 애국애족의 길에 나선 사람 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 시는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섰다. 이 순 간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 님께 충성다하는데 조국을 찾는 유일한 길이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달려있 다는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굳게 간직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떠나서 조국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 었으며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떠나 서 참다운 조국애에 대하여 달해본적이 없었다. 15성상의 피어린 무장투쟁과정 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안녕을 지키는데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날아오는 적탄도 막아나섰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사령부를 보위하는 사업만은 사소한 빈틈도 없이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 이것은 조국광복의 길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의 첫째가는 의무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데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면서 집행하여야 할 임무도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나가며 수행해야 할 과업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군님의 사상과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나가는것을 가장 신성한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조국해방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신념과 의리로 굳세여지고 혁명가적기풍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것을 고귀한 사상정신적특질로 하고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성의 길에서 참다운 조국애의 력사가 꽃펴나게 되였다.

이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하나로 굳게 결합되여 형성된 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의 숭고한 높이가 있고 그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또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헌신하려는 숭고한 량심과 결합된 애국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가들의 량심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의 무한한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성과 인내성에서 표현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혁명적지조를 지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자》, 단행본, 5페지)

애국정신이 숭고하고 고상한 애국주의로 되려면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려는 높은 목표를 담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애국정신이 부르죠아애국주의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한 참다운 애국주의로 될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과 나라의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애국주의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항일성전에 나선 항일유격대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였다.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를 받으며 살아온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을 통하여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자면 일제를 타도할뿐아니라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은 빼앗긴 조국을 찾고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려는데 지향되였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애국적헌신성과 무비의 희생성,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고 견결히 싸워나가는 애국자의 숭고한 모범이 창조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류례없이 간고한 로정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던 무장투쟁의 나날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헌신하려는 애국적량심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고 나라찾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빛나게 장식하여왔다.

불뿜는 적화점을 가슴으로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연 김진동지, 자기의 허[illegible]어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조직의 [illegible]

밀을 고수한 마동희동지,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며 놈들과 견결히 싸운 최희숙동지, 그들이 바란것은 오직 광복된 조국땅우에 새 나라를 세워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것이였다. 이러한 고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애국의 량심이 있었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시시각각으로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한반자욱도 물러섬이 없이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과 단두대우에서도 그리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속에서도 비관과 락망을 몰랐으며 애국적헌신성과 무비의 희생성으로 조국해방의 영웅적투쟁의 서사시를 아로새길수 있었다.

이렇듯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세게 싸울 불굴의 의지를 안고 애국자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혁명적량심과 결합된 여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의 숭고성이 있고 그 본질적특징이 있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또한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지리를 잘 알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과 결합된 애국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조국의 강토와 부원을 잘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웅대한 리상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27페지)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력사와 문화, 도덕과 풍습을 가지고있으며 일정한 강토와 부원을 가지고있다. 매개 나라의 력사는 민족이 걸어온 로정과 그 발전과정에서 이룩된 자랑찬 열매와 심각한 력사적교훈들을 생동히게 펼쳐보이는 나라와 민족 발전의 산 교과서이다. 그리고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는 문화와 조국의 자연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귀중한 유산이며 밑천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모든 재부가 깃들어있는 자기 조국을 진정한 어머니와 비기며 참된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여긴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게 되는 애국정신은 바로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며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체적이고도 깊은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시며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를 잘 알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해나가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부대들의 군정학습을 조직지도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산판에서 울려오는 도끼질소리를 들으시고도, 압록강, 두만강우로 떠내리는 떼목을 보시고도 조국의 귀중한 자원들이 강도 일제에게 빼앗기고있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나라찾는 싸움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굳은 의지와 각오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교양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나라의 모든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닐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풍만한 부원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 이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인민의 보람찬 행복의 요람으로 전환시키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살며 억세게 싸워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의 쉴참이나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자기 고향땅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향가》를 부르면서 조국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였다. 그들은 조국진군의 나날에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길가의 조약돌에서도 조국의 아름다움을 뜨겁게 느끼였고 산판에서 구슬프게 들려오는 노래가락에서도 짓밟힌 겨레의 숨결을 가슴아프게 느끼며 기어이 조국을 찾으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그리고 숙영의 날을 보낼 때에는 한그루의 나무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숙영지를 꾸리였으며 인민들이 보내준 하나의 후방물자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면서 조국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키워왔다.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땅에 진군하였던 력사의 나날을 통해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이 얼마나 숭고하였는가를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압록강기슭에 곱게 핀 조국의 진달래를 한품에 그러안으시고 한떨기의 진달래를 정히 꺾으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시였다.

진달래의 향기를 오래동안 맡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북돋아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북받쳐오르는 감격에 못이겨 나무를 그러안고 돌아갔고 흙을 움켜쥐고 볼에 비비기도 하였으며 풀밭에 나딩굴기도 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맑은 물 출렁이는 삼지연못가에 이른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의 물을 마음껏 마시며 산좋고 물맑은 조선의 긍지와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진군작전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조국에 대하여 잘 알고 조국의 모든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빛내이려는 사상감정과 결합되여 깊이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그처럼 진실하고 숭고한 높이에 이를수 있었다.

조국의 광복과 미래의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며 나라의 재부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과 결합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애국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형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전인미답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정신도덕적재부로 된다. 항일의 혁명전사들이 지녔던 조국애의 정신이 오늘과 래일에도 끝없이 빛나게 되는것은 바로 그 기초와 생명력이 비길데없이 공고하고 위력한 정신이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님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왔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애국자의 숭고한 풍모를 창조하고 조국광복의 위대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힘있게 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

백두밀림에서 뿌리내리고 숭고한 높이에서 형성된 애국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의 고유한 전통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위대한 조국건설에서 그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였다.

조국이 광복된후 지난 40여년간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적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고 번

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온 투쟁로정은 그대로 항일혁명투쟁시기 높이 발휘되였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계승되여온 영광의 로정이기도 하였다.

우리 인민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력사적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사수하였다. 그리고 전후 그 간고한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애국적열정과 영웅적기상을 발휘하여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으며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켰다. 한생을 조국에 묵묵히 바치며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자랑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밀림에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던 때로부터 우리 혁명이 멀리 전진한 오늘에도 그들이 지녔던 애국정신은 주체위업의 진군길우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빛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의 손길아래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은 전체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만년터전이다. 이 영광스러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이 땅우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실지체험을 통하여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조국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 신조를 간직하였다. 이 신조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조국의 품은 곧 당의 품이다.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떠나서 참다운 조국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에 충성다해나감으로써 피로써 찾은 우리의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우리 민족은 남만 못지않으며 자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적자존심,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는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지니고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벌려 민족의 주체성을 고수하고 조국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며 일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인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향토의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졌던 우리 조국이 어떻게 구원되고 오늘과 같은 륭성번영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고 자기가 살며 일하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보다 아름답게 꾸리며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인민이 피어린 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이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사업체계확립의 원칙적요구

고 갑 종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세워야 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의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이 확립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그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이다.

* *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위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여야 한다. 사람의 몸에서 뇌수의 유일적지배하에 모든 세포조직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듯이 로동계급의 당도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갈 때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안에 여러가지 이색적인 사상이 존재하고 유일적인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그러한 당은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체계 확립의 원칙적요구로 제시하시고 그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94페지)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이다. 다시말하여 당으로 하여금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하게 하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활동

선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보장한다. 따라서 당은 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당사업과 당활동을 원만히 전개할수 있고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다.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체계,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도록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를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그런것만큼 당은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는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전당이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굳게 결속되여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일치하게 움직여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과 령도는 구체적으로 당사업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런것만큼 당은 마땅히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세워야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의 사상외에는 그 어떤 잡사상도 모르고 오직 수령의 사상만을 유일한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천석같은 신조로 삼게 할수 있다. 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업체계확립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게 함으로써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게 한다.

또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명령지시에 따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업체계를 확립할 때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령도의 통일성이 보장된 당만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함께 수령의 령도가 전당에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당, 이러한 당만이 바로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본성을 고수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이처럼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당건설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당안에서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다. 그리고 국가, 경제기관 및 근로단체들이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질서를 세울수 없다.

당중앙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만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당안에 강한 중앙집권적규률을 전제로 한다. 당안에 강한 중앙집권적규률이 서야 수령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설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해설침투하는것은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을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첫공정이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령도가 보장되게 하자면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의 내용과 본질, 그 요구와 자기가 해야 할 과업을 똑똑히 알며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할 때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따라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하는 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가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강한 중앙집권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근본목적은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 수령의 의도대로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가는데 있다. 당의 이러한 근본목적은 바로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그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사업체계는 반드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그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적인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

으로서 활동한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사업에서 자립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사업을 조직전개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사업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과 인전대의 호상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활동원칙이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려면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 경제 기관과 협동단체, 교육문화기관, 사회단체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해당 당위원회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한데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을 체계적으로 장악지도하는 혁명적인 사업질서를 세우는것이다.

장악과 지도는 당적지도를 실현하는 기본형식이며 당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사업질서를 세워야 전당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업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통제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의 침투로부터 그 집행정형을 정확히 료해할수 있으며 각이한 부문에서 벌어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한 위력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2페지)

우리 당은 당사업체계를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을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당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 당안에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

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정확한 방향과 뚜렷한 목표밑에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당건설방침을 내놓았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을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내용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원칙적요구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다. 당의 기초를 다지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의 전투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사업 질서와 기풍이 수립되게 되였으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사업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지금 우리 당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이름떨치고 있는것은 바로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여있고 강철같은 규률이 진저히 서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사업체계와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도록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가 확고히 서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투쟁하는 당, 수령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고수하고 령도해나가는 우리 당 사업체계의 면모이다.

우리 당 사업체계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전당의 모든 활동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다. 여기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위력한 제도와 질서로서의 우리 당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까지 지체없이 침투되고 아래의 의견이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되고있으며 전당이 당중앙의 의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행동하고있다.

우리 당안에 선 당사업체계는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에 대한 그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 사

업체계는 무궁무진한 힘과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사업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의도와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일단 결론된 문제는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영예로운 임무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와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일단 당이 지시한 문제는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라 해도 빛나게 수행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한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기적은 바로 이러한 사업체계가 낳은 결실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자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공고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우리 당을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그들모두를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키워냄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사상과 령도를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령도체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당이 전투력있는 조직된 부대로 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없다.

우리는 전당에 당의 유일적인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 조선혁명의 오늘과 래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더욱 공고화하는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당의 령도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적당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함으로써 당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작풍

정 효 선

겸손성과 소박성은 당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당사업작풍이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져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고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9페지)

일반적으로 일군들은 생활과 행동에서 정신도덕적기질과 습성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품성을 가지게 된다. 일군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가지 품성은 그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발현되게 된다. 일군들의 품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그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고 사업작풍으로 구현되는 당일군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을 통하여 당일군들의 사업작풍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닌다는것은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고 학생이라는 립장에서 자기를 내세울줄 모르고 군중과 혁명동지들을 존중하고 예절바르게 대하며 사업과 생활을 검박하고 소탈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서의 겸손성과 소박성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사업과 생활에서 소박한 사람은 군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하며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사람은 항상 생활을 소박하게 해나가게 된다. 결국 겸손성을 가져야 소박하게 생활할수 있으며 검박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여야 사람들을 겸손하고 소탈하게 대할수 있는것이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공고성은 당이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와 신뢰를 받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들속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신념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을 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생겨나고 공고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그것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당일군들이 어떤 품성과 작풍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해나가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당일군들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들은 바로 당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아안게 되며 당조직과 당일군들을 거쳐 우리 당중앙과 련결되게 된다. 당일군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곧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의 높은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다.

따라서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과 작풍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일상 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과 련결되여있는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지 못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틀을 차리고 세도를 부리며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전방지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당일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결국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도와 직권으로써는 결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게 할수 없으며 강요로써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수 없다. 당일군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며 군중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그들과 친숙하게 어울리면서 대중이 생활하는대로 평범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게 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조직이며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본분으로 하는 정치활동가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당일군이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자면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료해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첫공정으로 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알기 위하여서는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허물없이 어울려야 하며 그러자면 작풍이 원만하고 품성이 좋아야 한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당일군들이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어울리기 위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품성이다. 사람들은 소탈하고 너그러우며 자기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에서 자기들과 잘 어울리는 당일군을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 때문에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항상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사람들의 마음속깊이에 들어갈수 있고 대중이 찾아와 속을 털어놓을수 있으며 군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꽃이 향기로우면 그 어디에 피여있어도 여러가지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듯이 당일군들의 경우에도 겸손하고 소탈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되며 속에 품고있던 진정을 다 말하게 된다.

만일 당일군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면서 전방지게 행동하거나 사람들을 협애하고 까다롭게 대하면 그들이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고 당일군들을 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들

이 사람의 진짜속을 알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이 사람의 사상상태와 준비정도, 지향과 요구를 모르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할수 없게 된다. 오직 겸손하고 소박한 작풍을 가진 당일군만이 사람들을 정확히 료해파악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친숙하게 어울리고 허물없이 지내면서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될 때 인간정신의 기사, 인간심리의 전문가가 되여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령도적권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 당일군들앞에는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로숙하고 원만하게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는 행정에서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대중속에서 당의 권위가 높아지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당일군들의 사업작풍을 바로잡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당일군들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겸손하고 소탈하게 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당과 수령이 지닌 공산주의적풍모와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을 원만히 갖출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한 인민적품성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인민들과 대원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조그마한 간격도 없이 지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시며 인민들과 같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도, 흙묻은 농민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수수한 멍석자리나 통나무의자에 앉으시여 나라일도 의논하시고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인민의 수령,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령도자가 지녀야 할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완전무결하게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공산주의적인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자신께서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검박하고 소박하게 일하고 생활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일을 잘할 대신에 틀부터 차리고 멋부리기 좋아하

면 우리 당이 생기발랄한 당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업과 생활에서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부리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였으며 자신께서 몸소 겸손하고 소탈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은 가장 참답고 고결한 인민적 품성의 빛나는 전형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와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모범을 몸땅 그대로 받아안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의 진정한 충복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세도를 부리고 틀을 차리지 않으며 너그럽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는것은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해야 하며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틀과 세도,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의 창발성과 혁명적열의를 마비시키며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유해로운 사업작풍이다. 원래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며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착취계급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며 따라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당기관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당일군은 세도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세도는 혁명하는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당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량립될수 없다. 때문에 우리 당의 일군들에게는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는 현상이 결코 있을수 없으며 그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이 맡고있는 직책은 당적분공이며 인민대중앞에 지닌 사회적임무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자기의 직책을 타고난 벼슬처럼 생각하지 말고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아야 하며 인민의 참된 충복, 성실한 심부름군으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또한 너그럽고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너그럽고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며 사람들이 믿고 따를수 있도록 처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어느때 누구든지 마음놓고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며 올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가벼운 마음을 안고 웃으면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을 뜨겁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웃는 낯으로 반갑게 인사할줄 알아야 하며 어디서나 례의도덕을 잘 지키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서 행동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기다려지고 만나고싶으며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믿고 의거하게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이 모든 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사람들의 존경과 신입을 받을수 있으며 군중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일군이 될수 있다.

사람들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중하

게 대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대하며 즉흥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은 실수의 전제이다.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전개하거나 제기된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하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절대로 편협하고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사람문제처리에서는 공정하고 또 공정하여야 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끝에 제기하는 의견에 대하여서도 겸손치 못하게 그자리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결론해버리거나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묵살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다 들어보고 옳은 의견은 지지해주고 명확하지 못한것은 더 연구해보고 해답해주어야 하며 잘못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이 잘 깨닫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업에서는 원칙적이고 생활에서는 틀이 없고 겸손하며 제기된 문제처리에서는 어느때나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로숙하게 처리할줄 아는 당일군이 되여야 한다.

지난 기간 개성시당위원회는 일부 당일군들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앞세우면서 군중과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하지 못하고있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는 한편 모든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뜨겁게 대하고 아량있게 포섭하면서 군중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특히 우리는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분계연선지방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당일군들이 예절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겸손하고 소박하게 대하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였으며 군중이 제기하는 애로와 요구를 사소한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체없이 풀어주어 사람들속에서 당일군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중한 당적주목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일군들이 누구보다도 검박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배려와 혜택이 인민들에게 제때에 골고루 미치게 함으로써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일상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깊이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은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신중하고 로숙하게 하는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자면 또한 사업과 생활에서 가식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솔직하여야 한다.

사람들호상간의 참다운 관계는 허식과 겉치레가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에 있다. 허식과 겉치레는 하나의 가식이며 허세를 부리고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것이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웃는 낯으로 대한다 하여도 진실성이 없으면 군중이 믿지 않는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여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받을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사심이 없고 량심적이여야 하며 명예와 공명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가나 리해관계에 대한 타산을 앞세우면서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멀리하는것과 같은 량면적이고 위선적인 조그마한 요소도 발로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일군들이 실속있게 일하지 않고 발라맞추면서 자기 낯을 내기 위하여 평가나 받을수 있는 일을 만들어 공명이나 세우려 하거나 혀명의 리익은 어

명게 되든지간에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요술을 피우고 허물이나 감추려 한다면 그것은 곧 당과 외교를 하고 대중을 기만하며 자기 량심을 속이는것으로 된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사람들앞에서 량심을 속이거나 진실성이 없이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항상 진실하고 솔직하며 가식이 없고 정직하여야 한다.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않고 청백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은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검박한 생활기풍에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당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갖 불평등을 없애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특성과 공산주의자들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당일군들이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람이 없이 인민들과 꼭같이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되며 응당한것으로 된다.

원래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혁명가의 보람은 결코 잘 먹고 잘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가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가장 큰 보람과 궁지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모든것을 혁명에 바쳐나선 공산주의자답게 경제도덕생활에서 청백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물욕이 있고 공짜를 좋아하며 경제도덕생활에서 청백하지 못하면 원칙을 지킬수 없고 강한 요구성을 제기할수 없으며 눈치를 보고 요술을 피우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지 못하게 된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지도하는 책임적인 임무를 맡고 있는것만큼 경제생활, 사생활에서도 누구보다도 청백하여야 하며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겸손하라는것은 결코 원칙에서 물러서거나 사업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요구성을 낮추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겸손성은 강한 원칙성과 높은 요구성, 온갖 그릇된 현상에 대한 비타협성을 전제로 하고있다. 당일군들은 거칠어도 안되며 선비가 되여도 안된다. 당일군들은 겸손하면서도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탈하면서도 부정과의 투쟁에서는 예리하고 비타협적이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사업작풍을 지니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모든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일군들은 겸손하고 소박한 작풍과 품성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원만하게 해나감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서 재 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세움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구상과 지도 밑에 진행되는 중요대상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특히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8~19페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하여 벌리는 보람찬 공사이며 경제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대상건설이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으면서 가까운 앞날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비롯한 여러 고지들을 점령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 점령되면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우리 당은 지금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식의주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과 같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10만톤의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목화농사가 잘되지 않고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섬유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원

로, 자원에 의거하는 비날론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건설된 1960년대부터 많은 비날론을 생산하고있으며 과학연구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그것으로 좋은 옷감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공업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있다. 우리는 비날론생산만 늘인다면 그것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섬유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 완공되면 여기에서만도 10만톤의 비날론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은 10여만정보의 땅에서 생산하는 목화의 량과 같다. 더우기 비날론섬유는 면섬유보다 몇배나 더 질기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되는 비날론은 수십만정보의 땅에서 생산하는 목화의 량과 맞먹게 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섬유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게 되는 비날론을 합치면 능히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끝내야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경공업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고 전반적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제시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되는 바로 여기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또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앞으로 10만톤의 비날론과 함께 수십만톤의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생산하게 된다. 화학비료시비량과 알곡생산량의 비률로 본다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해마다 생산하는 화학비료만 가지고도 수백만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더 잘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우리 인민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대상건설의 하나로 된다. 이 대상건설이 완공되게 되면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서 매우 거창하고 방대한 공사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건설사업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만이 구상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빨리 다그쳐끝내는것은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구현해나가며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이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참가한 모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다그쳐 련합기업소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부지를 잡는것으로부터 공사의 방향과 방도를 세우는데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풀어주심으로써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우리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많은 건설 기관들과 기업소들, 건설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을 건설장에 파견하시여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단계별, 공정별 건설과제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수행할수 있도록 자재와 기계설비를 대주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돕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수 있게 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대부대가 있는만큼 우리는 능히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 우리 당은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여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인 그러한 투지와 기백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칠것을 호소하고있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일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 패기와 담력을 그대로 구현하여 80년대속도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를 지상의 투쟁목표로 삼고 그것을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제때에 기어이 수행하는 굴할줄 모르는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일하는것이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일한다는것은 또한 언제나 제힘을 믿고 자기것으로 건설하며 모든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끝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모든것을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투쟁기풍으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내민다는것을 의미한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 여기에 당이 의도하고 인민이 념원하는대로 건설을 빨리 끝내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곧바른 길이 있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척도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로서 그것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그러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끝내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절실한 요구로, 한시도 늦잡을수 없는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나선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리 날바다우에 대규모의 갑문을 일떠세워 서해안지대의 농업, 공업, 교통운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병사의 자세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여 맡겨진 갑문건설과제를 제때에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데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였으며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 불굴의 투지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들은 당이 요구하는 완공기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전투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해제끼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요구를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빈말과 조건타발을 몰랐으며 당이 키워준 담력과 불굴의 의지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실천행동으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갔다. 그들은 과업이 아무리 방대하고 투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과 동요를 몰랐으며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억세게 투쟁하였다.

당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보여준 고귀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투쟁기풍이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보여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억세게 싸워나가야만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면서 조업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억세게 투쟁해야 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높은 건설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넓은 면적의 건설부지에 여러가지 계통의 현대적인 산업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이다. 여기에는 많은 세멘트와 강재, 기계설비가 들게 되며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이 요구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정형을 깊이 료해하시고 화학공장건설에서 기본인 구조물공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장들과 제강, 제철소들에서 대상설비들과 그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상설비생산을 앞세우고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단계별, 대상별 시공기일을 지킬수 있다.

지금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떠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이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빛나는 결실을 맺게 하자면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과 자재를 잘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바로세우고 생산조직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대용량변압기들과 보이라, 합성탑,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설비생산용 협동품을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며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자재를 보장하게 된 단위들에서는 구조물공사를 앞당길수 있게 강재와 세멘트, 통나무 그리고 기름을 계획에 예견한대로 제때에 정확히 대주는것이 중요하다.

물자수송을 원만히 하는것은 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는 그 량이 대단히 많으며 그 종류도 역시 다양하다. 다종다양한 건설자재와 물자는 그 어느것이나 다 공사를 제때에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한것들이다.

그러므로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물자수송을 제때에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재를 적극 대주며 수리대책을 옳게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불편없이 일할수 있는 조건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후방공급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며 겨울철조건에서도 지장이 없이 일할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의 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건설하는데는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당에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예견성있게 내다보고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공장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에서 파견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기간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러한 기세로 계속 전진하여 건설에서 예비를 찾고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실현하며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더 많이 창안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는 최상의 수준에서 공장을 일떠세워 그것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은을 내게 해야 한다.

모든 건설자들은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새로운 시공방법과 앞선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장에서는 물론 대상설비를 보내주게 된 단위들에서는 공정별로 검사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조업후 첫시기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운전공을 비롯한 기능공양성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지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전국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전당, 전국, 전민이 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지금 정무원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전국의 여러 지역들, 공장, 기업소

들에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질수록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을 더욱 크게 고무하고 그들을 창조와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게 된다.

최근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책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공장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 도들과 시의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은 시, 구역, 군들과 도급기관 일군들의 모임을 가지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업을 수시로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건설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지금 건설장에는 할 일이 많고 로력과 여러가지 물자가 수많이 요구된다.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는 단위들의 모범을 본받아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단위들에서 건설장에 요구되는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준다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서는 계속 혁신의 불길이 타오를것이다.

특히 로동자들의 살림집과 그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일하게 될 로동자들을 위하여 편리하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지원전투를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일하게 될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이 차례지게 해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넓은 지역에서 각이한 대상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며 여러 공장, 기업소들, 많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공장건설에 참가하고있는것만큼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건설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전반적인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정무원 위원회, 부와 각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적극 떠밀어주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계획화사업을 짜고들어 대상설비생산을 잘 맞물려주고 여러가지 자재와 연료 보장대책을 짜고들며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단계별, 공정별 시공계획수행에 앞세워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원만히 보장되여야 건설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기계설비와 자재,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이와 함께 공장건설을 직접 맡고있는 지도일군들은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건설계획에 보장사업을 잘 맞물리며 시공계획을 짜고들어 적은 로력과 자재로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시공조직설계를 선행하고 단계별, 대상별 건설계획에 따르는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며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을 제때에 철저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지금 건설사업은 넓은 범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지도에서 통일성과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건설장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서해갑문 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던 그 기세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쳐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당의 높은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주 길 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제3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새 전망계획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경공업혁명을 다그치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혁명은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훨씬 높이고 그 질을 더욱 높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일을 하는데서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54페지)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경공업혁명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휘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당이 경공업혁명을 벌려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는 방직공업과 피복공업, 식료가공공업과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등 경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비롯한 소비생활문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는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로부터 입고 쓰고사는데 드는 모든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투쟁목표로 하는 경공업혁명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의 하나는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는것은 경공업생산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여 소비품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나아가서 소비품의 생산을 체계적

으로 늘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미 마련된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원료, 자재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경공업의 생산잠재력이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오늘 원료, 자재를 량적으로뿐아니라 품종 및 규격별로 제대로 보장하는것은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원료, 자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원료, 자재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면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랑비현상을 없앨수 있게 되며 있는 원료와 자재를 보다 분한있게,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자연 및 가공원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일부 모자라거나 없는 원료를 더 찾아내고 국내의 풍부한 원료자원으로 대용할수 있게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특히 우리 당이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자재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취하여준 여러가지 조치들을 옳게 실행하여 자체로 원료, 자재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경공업생산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도들을 적극 찾아낼 때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계속 충분히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휘하는것은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뿐아니라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활이 향상될수록 보다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쓰려는것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욕망이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빨리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이 바로 경공업혁명이며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더욱 늘이고 그 질을 한층 더 높이는것은 현시기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결하여야 할 주되는 투쟁과업이다. 근로자들의 소비구조가 매우 다양해지고 소비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비할바없이 높아진 오늘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좋은 천과 옷,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 맵시있고 든든한 신발, 현대적인 가정용품과 부엌세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공업제품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울수 있다.

인민소비품의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전반적인 소비품의 생산량을 늘이며 질을 높이는데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게 된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전반적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경공업제품생산자들이 발휘하는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종류의 소비품을 연구해내고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리면 인민소비품의 가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하면 기계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여 그 성능과 능

력을 높이고 그것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게 되며 새로운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위시간당 인민소비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며 그것은 곧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량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자기 힘으로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각오가 확고할수록 근로자들은 자체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게 되며 모든 인민소비품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하게 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양할 때 소비품의 품종확대와 량적장성,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벌리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경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면 근로자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조국의 륭성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개성방직공장과 광천식료공장의 경험이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개성방직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방도를 내부예비동원과 기계설비의 현대화, 고속도화에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방직설비들을 더욱 개조하고 직기의 회전수를 종전보다 더 높였다. 그리하여 막대한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있는 밑천으로 천생산을 훨씬 장성시켰다. 2중3대혁명붉은기광천식료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생산공급하고있으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 공장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 구현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경공업혁명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역할, 그들의 주인

다운 자각과 투쟁기풍에 크게 달려있다. 경공업혁명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누가 경공업혁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면서 자체의 힘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경공업발전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수 없다.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줄 사람은 우리자신들이며 그 무거운 책임을 직접 담당하고있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고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주인답게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인민생활을 책임진 직접적인 담당자는 자신들이며 자기들의 투쟁여하에 따라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성과여부가 결정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도 크게 좌우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긍지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공업혁명을 다그치자면 또한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는 경영단위로서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국가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로 책임지고 창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옳게 조직진행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 일군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사업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있다.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이 조건과 권한을 옳게 리용하여 원료, 자재 문제를 자체로 풀고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경공업부문의 련합기업소들은 경공업의 한 부분을 맡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것만큼 자체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창발성을 발휘하여 원료, 자재 공급사업을 짜고들고 아래 단위들을 옳게 지도하며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적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있는 원료와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려 소비품생산에 요구되는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해쓰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자체로 보다 원만히 갖출수 있으며 경영활동전반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질을 높이

기 위한 투쟁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 자체의 힘으로 원료, 자재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며 소비품의 종류를 늘이고 질을 높이자고 해도 과학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원료, 자재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으로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보기 좋고 쓸모있는 일용품과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비품에 대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대용원료, 대용자재들을 널리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 불합리한것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것으로 개편하며 앞뒤처리공정을 비롯한 이빠진 공정들을 완비하여 기본생산공정과 보조생산공정사이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벌리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의 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맡겨진 기본임무이다. 경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 사업을 떠난 본신임무수행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옷과 신발, 식료품과 일용품을 비롯한 소비품들은 가지수가 매우 많고 남녀별, 년령별, 계절별, 직종별에 따라 그 수요가 같지 않다. 인민들의 수요가 서로 다른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옳은 조직지도사업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경공업혁명을 적극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제시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고 위력한 생산잠재력이 마련되여있는 오늘 경제지도일군들이 보장사업만 잘 짜고든다면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면서 원료와 자재를 규격별, 용도별, 재질별로 충분히 보장하며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으로 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중요과업

강 능 수

인간학인 문학은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본성으로 한다. 문학은 다른 사회적의식형태와 달리 산 인간을 그리며 그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산 인간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것은 문학이 자기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 있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형상은 인간일반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며 사고하는 인간, 개성적이면서 동시에 사회계급적본질과 시대의 특징을 체현한 전형적인 성격이다.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는 그에 맞는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을 창조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활동에서 마땅히 인민들의 요구와 현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과 그 대오의 앞장에 서있는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단행본, 4페지)

자주적인간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와 자연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이다. 자주적인간의 아름다움은 바로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야말로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이다.

우리 시대의 자주적인간의 본보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야말로 자주적인간의 꽃이며 참다운 전형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현시대와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사상인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새형의 인간이다. 그들은 주체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며 주체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사람들이며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으로 받들며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면 주체형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자주적인간의 본보기로 된다. 따라서 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원만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간의 본보기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오늘에 살면서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의 특징을 체현한 인간으로

서 인류문예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인간전형이기때문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이 력사적인 과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에서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년간 창작발표된 총서《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수많은 혁명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하여 예술영화 《혁명가》, 《평범한 사람》 그리고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 《뜨거운 심장》, 《대지의 아침》 등 수많은 작품들의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찾아보게 된다.

우리 문학예술에 등장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그리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 인민들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상이 그처럼 매력있고 커다란 감동을 주는것은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투철한 공산주의적 신념과 의지를 지닌 인간전형이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이 지닌 투철한 공산주의적 신념과 의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 청년공산주의자인 김혁이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옵자마자 격동된 심정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쳐진 우리 인민의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게 된것은 탁월한 사상과 걸출한 인품, 한없이 넓은 포옹력, 총체적으로 위대한 혁명의 령도자이시면서 동시에 위대한 인간이신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환희에서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속에 간직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의 밤하늘을 밝게 비치는 새별로, 어둡고 캄캄한 조국강산에 기어이 광복의 려명을 가져올 위대한 구성으로 소리높이 칭송하였으며 자신의 젊음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몸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진정 김혁의 형상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체현한 인간의 빛나는 화신이다.

개성적인 표현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차광수, 최창걸, 박도범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이 커다란 감화력과 매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역시 그들모두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있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확증한데 있다.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는 과정은 자기가 살아온 생활경위와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 등장한 김혁, 차광수와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 파란곡절로 찬 진리의 탐구과정에 그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는가 하면 총서 《불멸의 력사》에 형상된 오중흡, 한태혁, 리경준 등은 자신들이 겪은 절박한 생활의 체험과 교훈을 통하여 그것을 체득한다. 이처럼 그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체득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게 된 그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으로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공산주의적인생관을 새롭게 천명하였다. 공산주의적인생관은 우리 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이 지닌 혁명적세계관,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투철성에 대한 반영으로서 사람들의 가치와 풍모를 규정해주는 중요한 표징이다.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의 주인공 월삼아바이, 장편소설 《령마루》의 주인공 현우림 등 우리 문학예술에 형상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성격적매력은 그들이 지닌 공산주의적인생관에 의하여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한생을 전동기와 함께 늙어오며 나라

에 요긴할 때마다 적의 화구앞에 가슴을 들이대듯 낡은 전동기를 돌리여 남모르게 조국과 인민 앞에 수많은 공훈을 세운 원삼아바이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여있었던가!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신조, 조선로동당원은 당에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당원이 된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당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당원이 되였다는 확고한 생활신조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평범한 로동당원이고 비록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공로에 따르는 빛나는 훈장들이 번쩍이지는 않았지만 한없이 숭고한 인생관을 지닌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서 존엄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맨 앞장에 서있는것이다.

겉보기에는 살뜰함과는 담을 쌓은것처럼 안해에게마저 무뚝뚝하고 사업에서는 관료주의기가 있어보이기까지 하는 장편소설 《령마루》의 기사장 현우림의 형상적매력은 불과 3개월밖에 더 살수 없다는 현대의학의 준엄한 선고를 받고도 락심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비상히 높이는데 있다. 현우림의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마저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광산의 종합적기계화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타는 의욕이며 자신이 세운 삶의 령마루를 기어이 톺아오르려는 강의한 지향이다.

실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다 바쳐가는 인간이야말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서만이 태여날수 있는 인간이며 우리의 주체예술이 새롭게 개척하고 창조한 우리 시대 자주적인간의 전형이다.

* *

문학예술의 모든 형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분야는 전형적성격의 창조이다. 전형적성격에는 작가의 주장과 함께 무엇을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보는가 하는 그의 미학적리상이 구현되여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미학적리상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서 수많이 자라나고있고 또 태여나고있는 새것, 공산주의적인것을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새형의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풍모는 무엇보다 그의 정치사상적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정치사상적수준이 인간의 기본풍모를 나타내고 그의 정신도덕적세계를 제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풍모를 옳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그가 지닌 고매한 정치사상적풍모를 그려야 한다.

수령에 대한 신념으로 간직된 충실성, 이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풍모이다.

신념으로 간직된 충실성은 투철한 수령관에 기초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수령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사상의지적으로 굳힌데서 얻어진 고귀한 사상감정이다.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치사상적풍모가 집약되여있으며 그 세계관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닌 세계관의 높이는 무엇보다 그의 철저한 수령관에 있다. 그것은 수령관이 세계관의 핵이며 수령관이 똑바로 서있지

않고서는 도대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은 물론 그 어떤 혁명적세계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수 없기때문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공산주의적자각성에서도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 인간들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적자각성은 공산주의자의 정치사상적풍모를 규정하는 척도로 되고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적자각성이 당성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인간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이러한 정치사상적풍모는 지난 시기 문학예술에 창조된 공산주의적인간들의 정치사상적면모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특성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혁명적문학예술에 창조된 공산주의적인간들은 공산주의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들이 지닌 세계관의 높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에 창조된 공산주의적인간들의 형상이 많은 경우에 공산주의를 동경하였거나 공산주의를 지향한 사람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이였다고 하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형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신념으로 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그에 상응한 정치사상적풍모의 높이에서 성과적으로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잘 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주체의 인생관을 잘 그려야 한다. 인간학인 문학자체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인것만큼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의 고상한 인생관을 그리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주체의 세계관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다. 세계관은 인생관을 기초지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의, 그 가치와 행복 등을 밝혀주는 인생관에 의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전환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참된 전형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이 잘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의, 그 가치와 행복의 기준은 오직 당과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며 거기에서 최상의 영예와 만족, 희열을 느끼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보건말건 그 어떤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로 하여 우리 당이 그처럼 강대하고 우리 조국이 그처럼 부강해지고있는것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자기 나라 혁명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의 발현이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성과 민족적긍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민은 투쟁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있다.

우리 인민은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고 한메터의 천을 짜도 그렇고 무대우에서 노래를 불러도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혁명을 하고있다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차있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해방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없이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헤쳐가는 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이 그처럼 높고 긍지와 자부심에 차있기때문에 그들은 침략자 미제를 무찌르는 조국해방전쟁의 길에서 메였던 초연에 끄슬리고 땀에 절은 배낭을 40년이 가까와오는 오늘도 벗지 않고 메고 간다고 노래한 서정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를 그처럼 커다란 공감을 안고 읊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정치사상적풍모에서뿐아니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인류력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 인간이다. 이것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려면 반드시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적의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참된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는것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어버이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전사의 숭고한 의리이며 자신은 물론 대를 이어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의리이다. 이러한 혁명적의리를 가슴깊이 간직하였기에 비록 단두대의 이슬로 스러지면서도 혁명앞에 다진 맹세, 굳은 절개를 꿋꿋이 지키는것이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드팀없이 나아가는것이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성심이기때문에 그것은 더없이 순결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또한 인민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사랑 등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자신이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며 내세우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키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 나오는 서정애는 불가피하게 놈들에게 체포되게 되였을 때 자총할것을 결심하며 《동지들, 용서하세요》라고 홀로 속삭인다. 최후의 시각 가슴속에 안기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귀중한것이 동지들이였기에 녀성청년공산주의자는 동지들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본의아니게 어차피 남먼저 혁명대오에서 떠나가는 자신의 용서를 동지들에게 비는것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인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철민의 형상이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독자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것도 인민들과 동지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이다. 작품은 제명이 말해주듯이 한 당일군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그 크나큰 사랑의 뜨거움을 다소라도 자신의것으로 간직하려는 불타는 지향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기때문에 작품은 당일군이면서 동시에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인간다운 인간의 이야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특징은 혁명적의리를 비롯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풍모와 함께 지적 및 정서적으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라는데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이 줄기차게 관철됨

으로써 우리 인민의 지적, 정서적 생활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지적, 정서적 생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의 폭을 더욱 넓혀주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다 풍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참다운 혁명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형상할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새형의 인간들이다. 따라서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고상한 정치사상적면모와 고매한 정신도덕적면모를 하나의 개성화된 형상속에 일반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정치사상적면모와 정신도덕적면모를 훌륭히 그림으로써 하나의 전형이 천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주체의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는 작가, 예술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적인 미학적리상을 체득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공산주의적인 미학적리상은 공산주의적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고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들의 사회적관계와 그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 및 문화도덕적 풍모를 뚜렷이 표상하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승풍부화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세계관을 주는 사상리론일뿐아니라 과학적인 공산주의사상리론이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함께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회적관계와 활동방식, 정신도덕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우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고 주체시대의 인간의 본보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게 하고 우리 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유일한 사상미학적지침으로, 그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견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창작가들에 의하여 창조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은 그자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값있게 살며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인가 하는데 대한 창작가의 주장이며 불타는 심장의 산물이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불타는 심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시대의 주도적흐름속에 몸을 잠그고 투쟁하는 창작가들에 의해서만 생겨날수 있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에 대한 체험과 탐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그 어느 서적이나 작가의 머리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람찬 로동으로 1980년대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인민들의 생활속에서만 찾을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임무는 참으로 크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간생활의 교과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될수 있는 문학예술,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더욱 많이, 더욱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내부예비동원은 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

조 성 일

지금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내부예비동원사업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136페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사회적생산과정에 인입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효과적으로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생산의 여러 요소들로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는것은 생산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끊임없이 증대되는 생산자원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축적을 늘여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는것은 추가적지출이 없거나 적은 지출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된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었으며 짧은 력사적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올수 있었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서만 하여도 지난해 9월 한달사이에 압연강재 12톤이상, 선철 9톤, 석탄 20톤을 비롯하여 수많은 원료, 자재의 예비를 얻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월생산계획을 현물지표별로 넘쳐수행하고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그 전달에 비해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 이 공장 로동계급의 로력적성과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의 투쟁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서 창조한 경

험을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지금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는것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으며 도처에서 많은 예비를 찾아내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도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군중이 어떻게 발동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내부예비는 생산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있으며 따라서 생산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대중은 누구보다도 예비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군중을 발동하기만 한다면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가지고서도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생산장성의 온갖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동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구역당위원회는 군중을 발동하는데서 그들이 내부예비동원사업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모든 사업에서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쉽게 찾을수 있는 예비도 보지 못하고 묻어버리게 된다. 내부예비는 그것을 꼭 찾겠다는 사상적준비가 된 군중만이 탐구할수 있고 동원할수 있다.

지난 시기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생산을 크게 늘일수 있는 통때기예비를 찾는데만 치중하면서 생산장성의 자그마한 가능성까지도 장그리 동원리용하는데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편향의 중요한 원인은 내부예비를 찾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못한데 있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구역당위원회는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모든 부서들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벌리였다.

구역당위원회의 분공에 따라 조직부에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내부예비탐구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선전부에서는 생산현장에서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강연, 선동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한편 군중속에서 창조된 긍정적모범들을 구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근로단체부에서는 모든 단위의 내부예비동원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면서 예비탐구를 위한 부문별, 단위별 전시회, 경험토론회, 방식상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직맹과 농근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을 적극 벌려나가게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중요하게 해결하려고 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내부예비를 동원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며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늘여나가는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된다는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예비는 어디에나 있으며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온다는것을 깨닫고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투쟁기풍을 세우려고 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조직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전개됨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내부예

비동원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게 되였으며 이 사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릇된 태도를 점차 극복하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벌려 대중의 열성을 높인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적인 물질적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안받침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만경대공작기계공장 일군들과의 사업과정에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처음에 군중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당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동원도 하고 회의도 하였지만 한달동안의 내부예비동원정형을 총화한 결과는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 그것은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지 못하고 사업을 일반적으로 포치하고 강조나 하는데 그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사업에서 군중을 발동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먼저 예비가 그중 적다고 하는 두개의 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선정하고 책임일군들이 거기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같이 예비를 탐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 제단직장 어린이자전거작업반에서는 사슬인장기를 비롯한 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계획의 20%에 해당한 제품을 만들수 있는 자재예비를 탐구하였으며 가공직장 축3작업반에서는 80여종의 가공품중에서 12종에 1,200여점의 가공품을 자체로 찾아낸 예비자재로 생산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것은 군중들로 하여금 예비는 찾을수록 많다는 신심을 안겨주는데서 좋은 경험으로 되였으며 모든 단위들이 내부예비를 찾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본보기단위의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탐구하기 위한 군중로력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힘있게 이끌었으며 찾아낸 예비들을 종합하여 공장의 생산계획과 맞물리며 내부예비동원계획들을 항목별, 품종별로 직장, 작업반마다에 조개주고 그 과제들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탐구된 예비들을 동원리용하기 위한 행정실무적대책도 제때에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하는 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처럼 당조직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든 결과 이 공장은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선 공장들중의 하나로 되게 되였다.

우리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역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군중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이끌었다. 결과 봉수협동농장에서는 알곡생산과 고기생산을 늘이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영농기자재의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으며 평양제1먼거리자동차사업소에서는 자동차의 가동률을 높이고 그 화물수송량을 증대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더욱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다.

경험은 당조직이 군중을 발동하여 내부예비동원사업을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내부예비동원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가장 큰 예비는 정치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

성을 더욱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159페지)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도 따름아닌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기술수단들을 보다 능률적이고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더욱 개선하여 로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하고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률을 높여 단위제품의 생산시간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물의 원가는 낮아지고 같은 밑천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된다.

구역당위원회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신을 하여 많은 예비를 찾아내게 할수 있었다. 만경대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 우리는 생산장성의 예비는 바로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최근년간 이 공장에서는 계약된 원료, 자재의 적지 않은 몫을 받지 않으면서도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국가계획을 해마다 넘쳐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1985년도에 이 공장은 총원가를 9.8%저하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원료, 자재비는 1984년에 비하여 26% 낮추었으며 반면에 공업생산물은 그전해보다 거의 한달분량을 더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면서 종업원들의 수입을 더 높일수 있었다.

이 공장이 많은 량의 원료, 자재의 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된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높이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데 그 비결이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이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의도적으로 조직진행하지 못하였다.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구역당위원회는 군중적운동으로 기술을 혁신하여 많은 원료, 자재의 예비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우리는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없애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리면서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한건이상의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해나가도록 당적으로 밀어주었다. 특히 우리는 로동자들속에서 제기된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정상적으로 종합하여 기술협의회에서 심의평가한 다음 가치있는것들은 곧 생산에 맞물려 실현시키며 경제적효과성은 높으나 과학기술적으로 미숙한것들은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완성시켜주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든 기술자, 로동자들이 생산예비를 얻어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제기하고 실현하는데서 지혜와 힘을 합치며 온 공장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데서 우리는 구역내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구역당위원회가 모를 박은것은 기본전투단위를 책임진 초급지휘성원들이 솔선 앞장에서 기술혁신을 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한것이였다. 그리고 생산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을 적극 이끌어나가도록 하는것이 커다란 은을 냈다. 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천리

마)호뜨락또르의 어느 한 치차형타를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였다. 소재의 가공여유를 줄여 절약예비를 얻을수 있는 새로운 치차형타개조안이 제기되자 그에 대한 의견은 각이하였다. 일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새로운 합리화안이 의도도 좋고 착상도 기발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제품의 오작이 많아 결국 자재를 절약할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선뜻 응해나서지 않았다. 이때 일군들이 새로운것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받아들이라고 하여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 기술혁신과 생산과제수행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은 새로운 혁신안이 제기되면 그 경제적효과성과 기술적타당성 그리고 현실적가능성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더욱 높은 책임성과 열성을 내게 되는것이다.

공장당조직은 생산지도일군들이 해당단위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개조안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납득시키는 한편 생산현장에서 직접 그들과 같이 시제품을 만들어 그 현실적가능성을 실증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치차형타를 개조하는 사업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만도 많은 합금강의 예비를 찾아내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공장에서는 뜨락또르의 기통로시생산공정을 개선하여 기본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고 필요한 규격과 재질의 강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자체로 꾸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현실은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생산장성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행정경제일군들을 발동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한것은 구역당위원회가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힘을 넣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조직사업은 생산자대중이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조직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경제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로력과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여 생산장성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의 정책적요구대로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경제일군들이 해당 단위의 로력 가동정형과 리용정형, 원자재 보장과 소비 정형, 기술경제적기준의 준수정형을 비롯한 경영활동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자기 직능에 맞게 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관리일군들의 예비탐구를 위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엄격히 총화하는 기풍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내부예비동원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나 내부예비동원사업에 군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내부예비탐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

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독립채산제의 옳바른 적용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모든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이것은 만경대펜트젠공장의 경험이 잘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내부예비탐구사업을 적극 추동한 이렇다할 경험을 쌓은것이 없었다. 공장당위원회는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경제일군들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원가와 수익성 타산을 잘하고 생산에 대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결과를 대비평가함으로써 경영활동과정에 나타난 우결함을 바로 찾고 개선대책을 옳게 세워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에게 생산과제와 절약과제를 구체적으로 준 다음 그 실행정형을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에서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재의 실정에 맞게 세운 장려금, 상금 지불세칙에 따라 원자재를 절약하고 유휴자재와 부산물, 폐설물을 회수리용하여 예비를 적극 동원한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기본생활비외에 추가적인 로동보수가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였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경제적 공간을 적절히 리용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짐에 따라 이 공장의 종업원들은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게 되였으며 더 많은 생산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게 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알루미니움을 용해한 다음에 나오는 슬라크를 회수처리하거나 리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는 파철까지도 강종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쓰고있으며 제품설계를 갱신하고 오작을 없애여 같은 량의 자재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늘인 생활필수품생산액만 하여도 지난해 10월에는 같은해 8월에 비하여 1.8배로 장성하게 되였다.

모든 사실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묻혀있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내부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였다.

내부예비동원사업에서 지난 기간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당의 기대에 비해볼 때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당은 내부예비동원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더 많이 탐구동원하며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쑈 민주화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

박 정 섭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해방직후부터 반미구국투쟁을 용감히 벌려온 청년학생들은 전후시기에 들어와 반미,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있다.

거듭되는 파쑈폭압의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매 시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투쟁의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그에 따르는 전술적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교련》투쟁, 4.3투쟁, 부산과 마산민주항쟁을 비롯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쑈적인 《유신》독재체제를 짓부시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전후 첫시기부터 1970년대말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3,500여건이며 여기에 연 36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이며 민족반역자들인 리승만역도를 타도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멸을 촉진시켰다. 력대괴뢰정부의 붕괴와 위기는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의 결과이며 그들이 달성한 커다란 성과였다.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수많은 핵심들이 자라났고 군중이 각성되였으며 투쟁조직들의 기반이 형성되고 앞으로 청년학생운동을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쌓게 되였다.

영웅적인 광주인민봉기 이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그 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적지배,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애국적청년학생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정치적권리를 쟁취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 반파쑈민주화 투쟁은 무엇보다도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되고있다.

혁명운동일반이 그러하듯이 남조선청년학생운동도 맹목적이 아니라 그 성격과 사명을 옳게 인식한 기초우에서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커다란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리론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소유함이 없이는 청년학생운동

의 심화발전과 승리적전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실제투쟁과정을 통하여 체험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리론적무장》과 《정치적의식화》를 위한 리념활동을 선행시키고있다.

따라서 지난 기간 뚜렷한 투쟁리념을 가지지 못하고 통일적인 행동강령이 없이 자연발생적이며 산발적이던 남조선청년학생투쟁이 오늘은 기본적으로 선진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삼민리념》에 기초한 《민족민주혁명》을 운동의 활동목표로 제시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내놓은 《민족민주혁명》의 본질은 반제반파쑈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와 군사파쑈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중민주련합정권을 수립하며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미제에 의하여 유지되고있는 괴뢰정권을 전복하며 《민중민주주의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고있다.

놈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중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벌어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정부》진출은 그들이 제시한 투쟁강령이 각계층 근로대중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확실히 리념적바탕우에서 목적의식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어용신문들까지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과거와 다른점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고있는것이라고 하였으며 외국출판물들은 남조선에서 《새시대의 싹》이 움트고있고 《지금까지의 지식인들과는 구별되는 진정한 새 계층》이 자라나고있어 이제는 투쟁방법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였다고 론평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쑈투쟁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또한 높은 요구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의 구호를 제기하고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투쟁구호는 대중에게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리켜주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기치로서 투쟁의 성격과 심도를 규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매우 높은 반미반파쑈구호들을 제기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제기되고있는 반미자주화구호는 주로 미제의 불평등적인 대남조선정책에 대한 불만표시의 범위에 머물렀던 종래와는 달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자주권의 옹호를 내용으로 하는 구호들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반미구호가 지난 시기처럼 민주화요구의 일환으로 제기된것이 아니라 당면요구로서 청년학생투쟁전반에 일관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을 침략자, 파쑈통치의 원흉으로, 민족분렬과 《두개 조선》 조작의 장본인으로 락인하고 《미제는 더는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 《미제축출》, 《핵무기철거》, 《미제의 용병교육철폐》, 《반미자주화투쟁 만세》 등의 구호를 일치하게 들고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구호와 함께 높은 요구의 반파쑈민주화구호를 제기하고 투쟁을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의 주되는 과업은 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주화의 투쟁이 심화되고 군중이 각성됨에 따라 최근에는 군사파쑈독재체제자체를 전면거부하

며 특히는 반인민적이며 매국매족적인 놈들의 반공정책을 분쇄하기 위한데 투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원래 반공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시기부터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고나온 반동적인 정치사상적도구로서 이미 력사에 의하여 파산된 시대착오적인것이다.

오늘 세상에 반공이 《국시》로 되고있는곳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밖에 없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개별적사건의 《용공》조작에 따른 반공책동을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괴뢰통치체제의 이른바 《리념》이며 《국시》로 되고있는 모략적인 반공정책을 거부하고있다. 그들은 《반공리념》은 《분단리념》이며 《독재리념》이라고 하면서 《반공은 매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는 구호를 들고 《반공선전》과 《반공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되는것은 이러한 내용의 구호들이 이전처럼 투쟁핵심들이나 지하투쟁문건들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중투쟁의 전면에 나서고있는것이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파쑈통치의 《사상적지주》로 되고있는 악명높은 반공보루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체제에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 특히는 청년학생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립장이 확고하며 그들이 투쟁의 과녁을 옳게 설정하고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또한 전례없는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투쟁을 더욱 확대시켜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는것은 반동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그러나 반동들의 탄압이 심할수록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더욱 완강하여지기마련이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은 각성단련되고 혁명력량은 보다 강화되는 법이다.

지금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1988년의 이른바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무난히 치러 보려는 야심밑에 탄압의 예봉을 반미,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주동적역할을 놀고있는 청년학생들에게 돌리고 전면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에만도 10여차례에 걸쳐 대학들을 수색하였으며 투쟁핵심들과 지어 그 지지자, 동조자들까지 포함하여 수천명의 청년학생들을 령장도 없이 체포투옥하였고 투쟁단체들을 수많이 탄압하였다. 지난해 10월말 남조선괴뢰들이 건국대학교련합롱성투쟁에 참가한 학생 1,500여명을 체포투옥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수천명의 전투경찰병력과 비행기까지 출동시켜 하늘과 땅으로부터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여 한꺼번에 천수백명을 체포구금하고 20여명을 무참히 살해한 만행은 광주살륙전의 재현으로서 학원탄압사상 류례가 없는 폭거이다.

그렇지만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놈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에 위축되거나 굴복한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건국대학교련합롱성투쟁이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진압된후 한달어간에만도 120여건의 투쟁에 3만여명의 학생들이 떨쳐나서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리였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그 잠재력이 매우 강하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청년학생운동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인 탄압밑에서도 줄기차게 발전하고있다. 놈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

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남조선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애국투쟁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7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놈들에게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가장 횡포하게 유린말살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가지는것은 모든 민족의 본성적요구이며 응당한 권리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권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유린말살하는 기본요인으로, 남조선인민들이 강요당하고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찾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것이다.

바로 오늘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반미자주화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서 《반미자주성회복》에 대한 지지자가 전체 조사자의 압도적다수인 87.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그러므로 오늘 남조선도처에서 청년학생들이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 반파쑈투쟁은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반동적인 군사톡무래로집단인 전두환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뒤집어엎는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약화시키고 남조선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미제에 의하여 강화되고 조종되고있는 남조선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전대미문의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파쑈폭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의 정치적불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20세기폭군》으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두환파쑈도당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현대적무기로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내몰아 자유와 민주를 절규하던 광주의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함으로써 남조선을 하나의 인간도살장으로 전변시켰다. 최근에만도 남조선괴뢰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반미, 반독재투쟁에 일떠섰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좌경》, 《용공》분자로 몰아 형벌에 처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시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일체 허용하지 않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괴뢰들이 23개의 민주화운동단체의 련합전선체인 《민주통일

민중운동련합》(《민통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반미자주화반파쑈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반제반파쑈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등 청년학생투쟁단체들과 《구로지역로동자련맹》을 비롯한 10여개의 로동운동단체들을 탄압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류례없는 인권유린지대로, 민주주의의 불모지로, 파쑈폭압과 인간학살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무법천지로 전락되였으며 인민들은 더는 참을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강요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자신이 들고일어나 매국과 파쑈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포악한 전두환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만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청년학생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인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흘리며 용감하게 투쟁하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애국적인 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또한 조국통일에 대한 인민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강화하여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간섭과 매국배족행위를 배격하고 민족의 권리와 자주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조건이 마련될수 있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사업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사업이다.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바탕이 마련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의 전제조건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반공이 〈국시〉로 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민주인사들을 〈용공〉대상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가 교환될수 없는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통일운동에 마음놓고 참여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반미반파쑈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통일운동에 마음놓고 나설수 있으며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움없이 나라의 통일을 절규하며 반미, 반〈정부〉투쟁을 과감하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이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 리유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으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은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며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숭고한 애국적의무이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반미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을 종식시키는것이다. 이와 함께 미제의 군사파쑈통치체제의 연장과 《두개조선》 조작책동, 핵기지화와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은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침략세력과 파쑈통치는 하나로 밀착되여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파쑈테로통치에 의거하고있으며 파쑈통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있는 주되는 정치적공간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근본문제는 가장 모악한 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수립하는것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모든 파쑈악법들을 철폐시키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진사상의 연구와 보급의 자유를 쟁취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은 미제침략자와 조선민족사이, 매국배족세력과 애국애족세력사이의 대결이다. 이 힘의 대결에서 외래침략자와 매국배족세력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모든 애국력량이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뭉쳐야 한다. 그래야만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은 그 어떤 특정된 계급, 계층만이 참가하는 투쟁인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족적투쟁이다. 때문에 모든 반미반파쑈애국력량이 하나의 력량으로 결속되는것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옳은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잘 배합하는것은 투쟁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조성된 정세와 군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구호를 들고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계몽각성시키고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투쟁대오의 조직화와 단결을 보장하는것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는 청년학생운동은 반제자주의 시대적흐름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김 충 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다. 오늘 사회주의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진군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를 포괄하는 세계의 광활한 지역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세계혁명수행과 국제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계급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혁명의 강력한 보루이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4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불패의 위력은 단결과 협조에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자기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본주의포위속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소멸하거나 약화시켜보려고 악랄한 비방중상으로부터 공공연한 무력간섭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여 튼튼한 뉴대를 이룩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하여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잠재

력과 자기 인민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과 함께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강력한 물질기술적수단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장성강화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책동을 짓부시고 매개 나라에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세계혁명은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인것만큼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과 함께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인류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전체 사회주의력량은 통일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설수 있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심화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와 평화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평화가 보장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는 평화와 사회주의의 주되는 원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파괴활동을 금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새 전쟁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군사적우위》로 소멸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군비확장과 핵전쟁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전쟁정책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구우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수호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현시기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과 맞서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파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력량은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비하여 위력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공동투쟁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도 능히 짓부시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전반적사회주의력량을 비상히 강화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튼튼히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동정자는 바로 공통된 계급적리해관계와 목적으로 련결되여있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이다.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였으며 장기간의 공동투쟁에서 계급적형제, 혁명적전우로서의 친선관계를 맺었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어려운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었다. 오늘도 사회주의나라들은 계급적련대성과 혁명적의리를 지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있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동지적단결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확고부동한 혁명적 방침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활동에서 최근년간에 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과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획기적사변들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진실한 동지적우정과 깊은 신뢰, 확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서로 자주래왕하면서 친분관계를 맺고 두터이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며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고 1982년 9월에 중국을 방문하시였고 1984년 5월과 6월에는 근 50일간에 걸쳐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였으며 1986년 10월에는 또다시 쏘련을 방문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굳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인 등소평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지프꼬브동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였던 따도반 불리이꼬위츠동지,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뽈스까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보이체흐 야루젤스끼동지,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이며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잠빈 바뜨멍흐동지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여러차례에 걸치는 뜻깊은 상봉을 통하여 쌍무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견해의 일치를 보시였으며 호상리해를 깊이하고 동지적우정과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옹호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기여로 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옳게 결합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그러한 기초우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그러므로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자주성과 국제주의적단결을 옳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우리는 민족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고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할수 있었으며 형제나라들과의 단결도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며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훌륭히 유지하고있으며 그들과의 친선관계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이 원칙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형제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널리 실현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체결한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다.

공화국정부는 1961년 7월 쏘련 및 중국과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년간에 루므니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벌가리아, 꾸바, 뽈스까, 몽골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은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이 조약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걸쳐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긴밀히 하는것은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정부는 친선과 호상협조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나라들과 쌍무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고있으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고있다. 최근에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현존하는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장기협정을 체결하고 동력공업,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 최신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교류와 합작, 기술협조를 실현하고있다. 경제기술분야에서 이와 같은 협조와 교류는 우리 나라와 형제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있을뿐아니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형제나라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의 위업을 지지하는것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겯고나가는 계급적형제들사이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이며 그것은 형제나라들사이에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추동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혁명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처한 구체적환경과 투쟁임무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고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주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우리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현세기말까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완전히 페기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쏘련이 내놓은 평화적제안들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대만을 조국에 귀속시키고 전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일관하게 지지하고있다. 또한 구라파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취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특히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에 어렵고 긴장한 사태가 조성될 때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계급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지지와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영원히 계급적형제로서, 혁명적전우로서 우리와 함께 싸워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쵸브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당의 전반사업이 잘 되고 전당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우리 혁명위업을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발기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계

급적련대성의 원칙에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어떠한 책동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제안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확고부동하게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들은 또한 중조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은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갈라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 영원히 조선인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영광과 수치를 함께 나누며 생사고락을 같이할 형제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의 확고한 지지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우리 혁명위업을 촉진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이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면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사업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간의 공동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굽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혁명적의지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굽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1호(루계 537호)

편집위원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1월 3일 발 행· 1987년 1월 5일

ㄱ—6512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제2호(53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자

백두의 성산에서 주체위업이 개척되던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해돋이를 맞이한 때로부터도 40여년의 년륜이 아로새겨졌다.

우리의 주체위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오늘은 그 완성을 위한 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시기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에 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민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영광과 긍지의 숭엄한 감정을 안고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우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에서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혁명적락관과 희망을 안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갈 신심에 넘쳐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주체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 *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당과 수령의 령도가 구현되여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위업은 순풍에 돛을 단듯이 헐하게 완성될수 없으며 그 과정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이 있을수 있다.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 당,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르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담당자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면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것을 옳게 운영하여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위업을 빛나게 개척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오늘의 새로운 력사발전단계에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것은 주체위업이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발전하며 완성되는 합법칙성을 띤 혁명위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7폐지)

우리 당은 모든 활동을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에 귀결시키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빛나게 계승되고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신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게 한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계승에서 순결성을 고수한다는것은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적재부들을 초석으로 하여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간다. 이러한 혁명적재부를 순결하게 고수해나가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으로서의 본색을 잃지 않고 드팀없이 이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길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에 의하여 순결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투쟁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과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승하는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때 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 문제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렸으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섰으며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지배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에서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위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혈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다.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전통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혁명이 전진하고 심화발전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렬들처럼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도록 이끄시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항일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게 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됨으로써 주체위업은 만년초석에 토대하여 드팀없이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위업을 튼튼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 그것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고귀한 재부이다.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길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업적은 또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확고히 마련한것이다.

혁명위업수행의 담당자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려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확고히 꾸릴 때만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한세기이상에 걸치는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남긴 심중한 력사적교훈이다.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기본은 당을 강화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으로 하여금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가진 강유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의 위력은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우리 당은 특히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골간력량을 마련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

고 대담하게 포섭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대한 투쟁의 조직자, 령도자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된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귀한 혁명업적이다.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공적은 또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종국적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고있는데 있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혁명의 진두에서 이 투쟁을 종국적승리에까지 줄기차게 이끌어나가는 당만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대표자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향도자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았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인간해방의 위업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뚜렷한 리정표를 마련해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간해방의 위대한 강령을 밝히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군운동은 비상히 빨리 다그쳐지고있다.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세기적전변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불패의 위력과 령도의 위대성의 뚜렷한 상징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철의 의지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오늘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따라 계속 굴함없이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9페지)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이 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당을 계속 강화하고 그 령도를 더욱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과 일심동체가 되는것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자

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다. 자기 힘의 위대성의 원천이 당의 령도에 있다는것을 자각한 인민은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따라 혁명적진군을 끝까지 계속해나갈 각오를 굳게 다지게 된다.

항일의 그날이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그리고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영웅적위훈과 세기적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였던것은 바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은데 있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있다는 확신에 넘쳐있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이 일심단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튼튼히 다져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혁명가들의 충실성에는 끝이 없다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끊임없는 사상수양을 통하여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과 함께 혁명의 험난한 진펄길도, 사나운 눈보라도 억세게 헤쳐나갈 굳은 각오를 지녀야 한다. 이와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의 령도를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당의 령도는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전투력있는 조직적부대로 될수 있으며 당의 위업이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당에는 당의 령도를 조직사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혁명이 전진하고 주체혁명위업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록 더욱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킬수 있으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다.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목적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안에 당중앙의 명령,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당중앙에서 결론하는대로 조직진행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은 전당이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모든 힘을 다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남을 쳐다보거나 넘겨다보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는 각급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온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조직된 당조직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정확히 조직집행해나가야만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정확히 조직진행되도록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은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발휘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숭고한 사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당면과업의 하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6페지)

우리 당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놓았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진군속도를 다그쳐 제3차7개년계획을 기어이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속도전의 방침을 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전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다그쳐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함으로써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광범한 대중속에서 널리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깊이 학습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은 전진도상에 있으며 아직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도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담보되여있다는 굳은 확신을 안고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것이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

강 석 숭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이 장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면서 조선혁명의 명맥을 하나로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혈통계승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혈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혁명의 밝은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고있다.

(1)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혈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것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장구하고도 간고한 길을 걷게 되며 당의 령도밑에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승리적으로 완수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려면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줄기로 일관하게 련결시켜주어야 중도반단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혁명위업을 일관하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피줄기, 바로 이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혈통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혈통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함으로써만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위대한 혈통을 가지며 그것을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당의 혈통은 그 창건자, 령도자인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당건설위업과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이룩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마련한다. 수령이 마련한 이 혁명적재부가 다름아닌 당의 혈통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혈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혈통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것이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5~3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 당과 혁명의 피줄기를 이루는 위대한 주체의 혈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혈통에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구현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재부들이 전면적으로 포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혈통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주체의 사상과 리론이다.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주체의 사상과 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다.

주체의 혈통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수령님식사업방법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되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처럼 지도사상으로부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기때문에 주체의 혈통은 가장 위대한 혈통으로 되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실현해나가는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순결하게 이어지도록 한것이다.

사람의 유기체에 한가지 형의 피만이 흘러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로동계급의 당도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 변질되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하나의 피줄기로 당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마련한 혁명적재부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가 섞이게 된다면 그러한 당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것을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재부만을 계승하며 그것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도록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재부만을 당의 혈통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곳마다에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혁명 박물관과 사적관들을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꾸리여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전해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일대에 꾸려진 대로천혁명박물관과 그리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깊이 연구체득해나가고있는 현실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자기의 모든 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 사업 방법과 작풍에 기초하여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재부만을 당의 혈통으로 인정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도록 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주체의 혈통만을 알고 그것을 순결하게 이어나가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재부들은 대를 이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당의 혈통은 온갖 이색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들과의 투쟁속에서 그 순결성이 보장된다.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온 우리 당의 업적은 바로 이러한 투쟁과 잇닿아있다.

한때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항일빨찌산의 전통만이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느니,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당의 혈통에 오가잡탕을 섞어넣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을 흐리게 하고 거세말살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재부와는 인연이 없는것을 들고나와 혈통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려는 반당이색분자들과의 견결하고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 한편 그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사업으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분쇄함으로써 혈통에 오가잡탕을 뒤섞어넣으려던 온갖 이색적 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였으며 주체의 혈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또한 새로운 투쟁경험과 혁명업적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재부들을 더욱 발전풍부화한것이다.

혈통의 계승성은 혁명이 전진하는 력사적행정에서 수령이 이룩한 재부들이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혈통의 내용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후계자의 지도밑에 발전풍부화되면서 굳건히 다져지며 이 과정에 튼튼히 고수되여나간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혁명적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새로운 업적과 경험을 쌓아올림으로써 혈통에 담겨진 고귀한 재부들을 만년초석으로 다지고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도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는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가일층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정연한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대혁명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반제자주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혁명위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업적과 경험들을 쌓아올려 혁명의 귀중한 재부들을 풍부히 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혁명적재부들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

수령이 마련한 재부들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그 발전풍부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혈통의 빛나는 계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혈통계승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모든 재부들을 오늘의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특히 우리 당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의 개척기에 형성된 사상정신적재부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재현되고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온 사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여가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재부들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력사는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감으로써 혈통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영광의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혁명업적이 그처럼 위대하고 영원불멸한것이다.

(2)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려 당과 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이어놓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양양한 전도를 활짝 펼쳐놓으시였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위훈으로 수놓아진 과거의 력사가 있기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빛나는 현재와 미래가 있다. 보람찬 과거가 있고 휘황한 미래가 내다보이는 당과 인민만이 불패의 힘을 가지게 되며 백전백승의 혁명의 길로 억세게 전진할수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밝은 전도는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혈통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진군을 끝까지 향도할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터전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우와 같은 문헌, 36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강유력한 당을 가지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사활적인 문제는 없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자기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용은 우선 일찌기 《ㅌ.ㄷ》가 추켜든 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아가는데서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하고 구현해나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일찌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할데 대한 《ㅌ. ㄷ》의 강령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것을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던 시기에 들었던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투철한 혁명성이 있고 빛나는 계승성이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은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고수되고있다.

우리 당은 반석같은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불패의 당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은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항일의 불길속에서 튼튼히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의 업적이 계승되고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당의 간부대렬은 일찌기 혁명의 개척기부터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싸워온 로혁명가들과 함께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오랜 일군들과 새세대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고 우리 당 대렬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령도자의 사상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며 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억세게 다져졌다. 당과 국가기관, 군대의 간부들과 수백만 당원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것이 오늘의 우리 당이 지닌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이처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실현해나갈수 있도록 당의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혁명적당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더없이 고귀한 성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혈통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오직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확고한 길에 들어섰다.

로동계급의 위업은 그 개척도 참답게 이루어져야 할뿐아니라 그 계승도 빛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굽임없이 계승되는 위업이라야 그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혁명위업이 계승된다는것은 그 전진과 완성이 개척기에 확정된 길로만 나아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수령이 개척한 길로만 전진하며 수령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혁명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때부터 밝혀진 조선혁명의 길은 주체의 길이였다. 이 길은 60성상이 지난 오늘에도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있는 우리 당의 굽임없는 령도로 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선혁명을 개척한 영광스러운 주체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아가도록 하였다.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은 오늘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여나가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제 정신을 가지고 혁명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이 지닌 오늘의 중요한 특성이다.

주체의 혈통이 계승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활동하고있으며 남의 경험도 기계적으로 본따지 않고 우리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혈통이 마련되던 시기에 높이 들었던 주체의 기치는 단결의 기치, 통일의 기치였다. 항일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 전통과 더불어 위대한 단결의 새 력사를 펼치여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단결의 중심을 가장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을 실현하였다.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단결의 힘으로 개척된 조선혁명을 공산주의에로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당을 영원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혁명을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 주체의 길로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승리와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끝없는 영예이다.

*　　*

위대한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혁명은 빛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의연히 조국을 통일하고 공산주의의 미래를 앞당겨나아가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주체의 혈통을 계속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데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혈통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결하게 계승하는 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의 혈통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 빛나게 계승되여왔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드는데 혈통계승의 결정적담보가 있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근본열쇠가 있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혁명절개를 굳건히 지켜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이 혈통계승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에 대한 선전을 실속있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이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의 혈통이 있고 그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가는 우리 당이 있는 한 조선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적지침

양 형 섭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정치사상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전례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당에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조선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력사적전변과 성과들은 명실공히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발전의 현단계뿐아니라 그 찬란한 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완성의 위대한 향도의 기치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높이 추켜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사상리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그 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생명선이다.

조선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주체의 혁명위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곧바르게 열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떠나서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지난날과 오늘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이 위대한 사상을 대대손손 고수하고 실현해나가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와 그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세대를 이어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 과정은 곧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력사적과정이며 그것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는 후계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은 후계자의 사상리론에 체현되여 계승발전되고 사회적변혁과정에 구현되게 된다. 이

력사적과정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은 후계자의 사상리론으로 이어지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수령의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의 발전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귀중한 진리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로정에서 혁명의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리론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견인력에 의하여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력사의 일정에 오른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제시되고 발전풍부화된 혁명사상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고 인류해방위업을 완수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리념은 곧 우리 당의 사상리론이 체현하고있는 최상의 리념이며 이 리념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여기에 우리 당 사상리론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전개하고있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체현하고있는 사람중심의 사상과 인간존중의 정신은 우리 당 사상리론의 근본사상, 근본정신을 이루고있으며 주체사상이 담고있는 원리와 원칙, 립장과 방법은 우리 당 사상리론의 출발점으로, 방법론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사상과 리론은 철두철미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한것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새로운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독창적인 과학리론적해답을 줌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 의하여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생명력과 견인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그 사회력사적근원과 기본사명으로 보나 그 사상리론적내용으로 보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유기적전일체를 이루고있는 사상리론이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 주체의 사상리론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영생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이 위대한 사상을 혁명투쟁의 전력사적과정에 구현하여 조선혁명위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위업은 오직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 의해서만 드팀없이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안팎의 조성된 정세가 그처럼 복잡다단하고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적사조가 떠돌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견결히 고수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혁명의 현대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엄연한 진리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위업의 력사적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완성을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무기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입

니다.

이로부터 혁명의 피줄을 이어가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섭니다.〉

혁명위업의 력사적계승성은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혁명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는 끊임없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혁명의 력사적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혁명의 력사적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혁명이 변질되며 결국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남기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년륜이 새겨졌다. 이 력사적기간에 혁명이 전진하고 심화되는데 따라 사회의 변혁과정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을뿐아니라 혁명의 세대도 바뀌여졌다.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따라 우리 혁명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문제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바로 혁명발전의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위업의 력사적계승성을 순결하게 보장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제시되고 발전풍부화된 사상리론이다.

주체위업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서의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은 혁명투쟁의 전행정에 이 위업을 개척한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고 혁명의 피줄기를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무엇보다먼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계승할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원래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는 수령의 위업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완성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이러한 합법칙성으로부터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혁명의 력사적계승성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체현하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우며 후계자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후계자문제해결의 가장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혔다.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의 전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옳바른 방도를 명시해준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당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주체위업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되며 공산주의운동이 제기한 중대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실천적해답을 준 특기할 사변으

로 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또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보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다. 혁명전통에는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혁명투쟁의 전력사적기간에 이룩되고 축적된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만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할 때에는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혁명의 력사적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거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수행에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고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 주체의 혁명전통이라는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당과 혁명의 혈통으로, 만년초석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위업의 명맥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다.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그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가고있는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오늘과 광명한 미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 의하여 튼튼히 담보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또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여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근본사상, 근본원칙을 관철하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의 력사적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고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과정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조선혁명의 전통적인 근본원칙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바로 조선혁명의 이 전통적인 근본원칙을 대를 이어 견지하고 구현해나갈데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 근본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집대성하고 계승발전시킨 사상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으로 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사상리론을 철저히 견지하여나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력사적계승성과 그 승리적전진을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리론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창조와 건설의 기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9~10페지)

맑스에 의하여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이 창시된 때로부터 인류는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며 오늘에 와서 공산주의는 먼 앞날의 숙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력사의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어떻게 제기하고 어떤 로정을 밟아 어떤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며 현 력사적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고있는 초미의 문제이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리론을 밝힘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명시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를 뚜렷이 밝힌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생산력을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목표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징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혀져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공산주의적성격을 전면적으로 해부한데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으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그 수행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와 합법칙적로정 그 근본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한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 당의 령도 리론과 방법, 주체의 령도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그것이 담고있는 사상리론적내용의 과학성과 정당성, 독창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예리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력사적과정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곧바른 길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의 방법으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범하지 않고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사상리론이며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을 막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이끌어줄 혁명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 있다.

* *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구현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력사적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놓여있다. 안팎의 조성된 정세도 매우 착잡하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계속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선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백 범 수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여야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고 그를 당건설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계속 공고발전시키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　　　　*　　　　*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6폐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이다. 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이 조직되고 령도되며 그 승리가 마련되게 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 로동계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위력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되게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

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당을 그 구성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건설, 당활동의 전기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심화발전되고 완성되게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혁명위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앞으로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변함없이 고수되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는데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건설, 당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게 함으로써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혁명과 건설에 구현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 당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을 그 본질적내용의 하나로 내세움으로써 주체사상이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게 하고있다. 이것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당에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나아가서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로부터 혁명의 피줄을 이어가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문제,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수령의 위업계승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후계자와 그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려면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하며 후계자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수령의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

게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고 당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빛나게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은 바로 당건설의 이 근본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게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훌륭히 완성하여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당사업의 모든 내용이 당의 령도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이 당의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게 함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간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때에 가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부단히 높아진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맞게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 사회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또한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매우 발전된 사회이며 온 사회가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모든 사회적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으로 되고있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기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있어야 하는것은 필연적이다. 당의 존재와 그의 정치적령도는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승리적인 투쟁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 때 실현되게 되며 전당주체사상화는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자기앞에 나선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되게 할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도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이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혁명적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1페지)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혁명위업이 전진할수록 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였다.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인 투쟁에서 1970년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선결조건으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그를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것이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조직이다. 당의 면모와 그 전도는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달려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수령을 받드는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대렬이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질 때 당은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다. 때문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드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을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전당주체사상화의 요구대로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과 기본품성, 그 요구가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져있으며 이와 함께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들이 밝혀지고 당조직들이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게 됨으로써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으며 당안에는 주체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서게 되였다. 또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혁명의 골간부대가 믿음직하게 자라나게 되였으며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여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우리 당이 쌓은 불멸의 공적의 하나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안에 주체의 혁명적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한것이다.

옳바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전당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에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사업체계확립의 방향과 원칙을 바로 제시하는것은 전당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옳바른 당사업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우리의 모든 당사업체계가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게 하는것을 원칙적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중앙집권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중앙의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안에 세워진 이러한 사업체계는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그것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체계이다. 새로운 당사업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우리 당의 조직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으며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침투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된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였다.

당사업과 당활동은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전당주체사상화를 위한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업방법의 원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는것을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시하고 여기에서 나서는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반세기이상의 위대한 령도사와 독창적인 령도리론, 령도방법을 따라배우고 체득하기 위한 학습과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어긋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대행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된 결과 우리 당안에는 오래동안 내려온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전당에 생기발랄하고 참신한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건설과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견지하며 확고한 신심에 넘쳐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자랑찬 모습이다. 이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이 주체의 요구대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활동과 령도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된지도 반세기가 넘고 우리 당이 창건된지도 40년이 지났지만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오늘처럼 우리 당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불멸의 업적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위대한것이다.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고 고무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할수 없다.

우리는 전당의 주체사상화구호밑에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없이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혁명적당

염　기　순

단결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승리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고수해나가는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하며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확고한 사상적기초와 하나의 조직적중심이 있어야 하고 정신도덕적원천이 마련되여야 하며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계승발전되여야 한다. 확고한 사상적기초와 하나의 조직적중심, 정신도덕적원천과 력사적계승성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일심단결실현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는 창조적사상리론활동을 벌려 단결의 사상적기초를 마련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과 절대적권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결정적역할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자기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우는 조직적중심으로 되며 대를 이어 단결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한것이다.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적단결의 사상적기초를 고수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발전풍부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사상이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되는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심화발전된다. 수령의 후계자가

내놓은 새로운 사상과 리론들에 의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이 발전풍부화되며 그에 기초하여 당과 인민의 사상의지적단결은 더욱 공고발전하게 된다.

우리 당은 창조적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풍부히 하였다.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제반 원칙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원칙들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게 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사상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는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온갖 반당적인 사상요소와 부정적인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강화되고 공고화된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 한편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당안에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발전풍부화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적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의지적순결체로 되였다. 이것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심단결의 조직적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한것이다.

단결의 조직적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단결은 하나의 중심을 전제로 하며 단결의 위력은 이 중심의 공고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단결의 중심은 당과 인민을 하나로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핵이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하고 운동발전하는것처럼 일심단결을 이룩하는데서도 핵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단결의 중심이 유일하고 확고부동하여야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일심단결의 조직적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다.

대를 이어 일심단결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누가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여 수령의 후계자를 높이 모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그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문제로 된다.

수령의 후계자는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후계자를 떠나서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세련된 령도자, 탁월한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과정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뛰여난 자질과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으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천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나갈 때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를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보장되자면 조직사상적지반, 령도지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의 후계자를 옳게 추대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후계자가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서의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할수 있으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우리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능력과 자질이 겸비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꾸렸으며 그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과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부대렬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는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섰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중앙집권적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였다.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령도체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대를 이어 단결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며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조직적중심이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일심단결의 정신도덕적원천을 마련한것이다.

조직사상적통일과 도덕의리적단결을 결합하는것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목적이 일치하여도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받드는 도덕의리적인 감정이 없이는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칠수 없으며 일

심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조직사상적 통일과 도덕의리적인 단결이 결합되여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참으로 의식적인것으로,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도덕적원천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였으며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를 새롭게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충실성교양이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어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기하고 당사상사업이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확고히 간직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을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는데 깊은 당적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을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으로 내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들처럼 혁명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도록 하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행정에서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참다운 충실성으로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은 혁명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도덕의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결합된 공고한 통일단결로 되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통일단결의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킨것이다.

단결의 전통은 계승되여야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으며 빛나는 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고 고수되는 일심단결만이 만년초석우에서 튼튼히 다져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되며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고수되고 계승발전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였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적단결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형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구감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만년초석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그것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령도자의 두리에 신념과 의리로 굳게 뭉치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한마음한뜻으로 싸워나가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친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쳤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단결의 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사상적기초의 공고성에 있어서나 단결의 중심의 확고부동성에 있어서 그리고 도덕의리적단합과 력사적계승성의 진실성과 순결성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오른 가장 힘있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2）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가장 위대하고 공고한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된 전일적인 조직체로, 우리 당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결합된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혈연적으로 뭉쳐진 도덕의리적인 유기체로 전변된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4～25페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의 령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만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단결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이다. 당과 수령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를 모셔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간고한 혁명투쟁로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이 통일단결된 위력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영웅적투쟁행로였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하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고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인민은 투쟁속에서 찾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이 위대한 진리, 이 불변의 신념으로부터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중앙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뭉치려는 숭고한 지향과 절절한 념원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은 위대한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하나의 지향과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자기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있는 바로 여

기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이 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뢰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조건이다. 당의 위대성과 그를 믿는 신념 있을 때에만 천만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이룩한 업적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업적은 당의 위대성의 집중적표현이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당이 이룩한 업적이 위대하고 그것을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할 때에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을 마련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로 정식화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당건설과 국가건설,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이 새롭게 제시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사상리론적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이 쌓아올린 커다란 업적이다.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적극적인 실천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의 기초축성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고 령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나라의 만년대계를 마련하고 혁명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사소한 침체나 답보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커다란 업적으로 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고있다.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최상의 높이에서 발현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은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신뢰심을 가지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있다. 당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뭉친것으로 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신임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

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는 단결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 하나로 되는것이 일심단결이며 그러한 마음의 결합은 령도자에 대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과 함께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닌 인민의 어버이이다.

령도자가 지닌 공산주의적덕성과 인민적풍모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혁명가로서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령도자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도덕의리적감정과 혁명적량심을 깊이 간직할수 있게 한다. 인민들은 령도자의 고마운 은덕과 깊은 배려에 보답하려는 혁명적 량심과 의리로부터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치게 된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혁명의 길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우리 당의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인간의 존엄을 빛내이고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 당의 품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원히 사상정신적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 혁명의 품이며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어머니품이다. 사람들의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의 정치생활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기에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칭송하고있으며 그 품에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면서 온갖 혜택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의 성과도 경제건설을 잘하고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데서 나타나게 하며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의 념원과 리익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사소한 불편과 아무런 걱정도 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당을 받들고 당의 두리에 뭉치는 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며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당은 인민들에게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고 인민은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우러러 따르는 이러한 위대한 당과 충직한 인민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혈연적으로 맺어진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여기에 일심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의 튼튼한 담보가 있으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수령, 자기의 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한마음,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오직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는 하나의 신념, 혁명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간고하여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하나의 사상의지, 이것이 바로 일심단결의 사상정신적기초이며 필승불패하는 조선혁명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바로 이 위력한 힘으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전진하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

연 형 묵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족경제의 자립성은 비상히 강화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있으며 생산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이 높은 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보다 휘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투쟁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 그 수행방도를 밝히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건설력사에서 새로운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성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당의 령도를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을 다그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이 있다.

* *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4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와 인간을 개조할뿐아니라 자연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야 그 구속에서 해방될수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생활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생산도구와 사람들의 로동능력이 발전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며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힘이 증대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와 로동생활에서의 평등을 충분히 보장하여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력사적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한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인류사회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힘을 키우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한 물질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자연개조사업의 높은 단계로서 그것은 여러단계의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거창한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을 옳바로 진행하자면 경제건설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의 총적 목표와 방향,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매 시기, 매 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 제시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야 할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조성된 정세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인민들은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자연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 원칙적인 요구로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은 또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조직동원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은 오직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할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의식화, 조

직화된 군중만이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조직동원하는 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동원자적역할에 의하여 비로소 자연을 개조하는 주인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되며 조직되고 단결된 힘으로 제기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진척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훌륭하게 건설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가 현명하며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우리 인민은 1970년대초부터 1980년대중엽에 이르는동안 계속 전진하여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0년대에 해마다 15.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한 공업생산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농업은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매해 만풍년을 이룩하여 이미 1984년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다. 방대한 건설사업이 추진되여 생산능력이 비할바없이 늘어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공업제품이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에 의하여 생산보장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발전된 공업국가에서만 만들수 있다고 하던 복잡한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생산하고있으며 현대적인 공장설비들을 일식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1,000만톤 능력의 대규모선광장을 우리의 설비와 자재, 기술로 단 1년동안에 건설하였으며 서해갑문을 비롯한 수많은 대규모건설물들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사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경제는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디던 시기는 물론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때보다 비할바없이 튼튼한 토대를 갖춘 위력한 경제로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창조된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를 받들고 온갖 난관과 애로를 과감하게 뚫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인민만이 달성할수 있는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국토가 분렬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데 많은 힘을 돌려야 하였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쳐나

하는데서 언제나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고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내세웠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6페지)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의 혁명성, 과학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당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혁명성과 과학성을 견지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여러가지 편향과 오유를 범하게 되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곧바로 이끌수 없는것은 물론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자기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끊임없이 변동되는 복잡한 정세의 영향을 옳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철저히 실현하는 원칙에서 경제건설의 모든 로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침들을 밝혀주었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에 관한 리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사상 등 경제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서 구현해야 할 사상과 리론,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건설 강령과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과 방도들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 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면서 그 과도적성격을 극복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사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방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사상,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

제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리론 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과 특성에 맞게 진행할수 있게 한 정확한 지침으로 되였다.

당이 제시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 정책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사소한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은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왔다.

정책작성에서 과학성과 혁명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혁명적전개력이 있어야만 경제건설을 힘있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정책집행에서 혁명적원칙성과 혁명적전개력이 있어야 당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경제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확신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면서 경제건설의 단계별목표와 최종목표를 끝까지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마련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투쟁목표밑에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크나큰 담력을 지니고 력사상 류례없이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기 위하여 시기별로 주공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대담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였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물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의 건설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온 나라의 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1,500만톤의 알곡고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7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5억메터의 천고지를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단 포치한 사업은 결단성있게 내밀어 그 빛나는 성과를 마련하는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포치하고 전당, 전국, 전면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그 승리를 보장하였다. 한번 결심하고 포치한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밀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는 우리 당의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은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가 겹치는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주동적으로,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능숙하고 세련된 령도적수완으로 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되며 당의 령도의 현명성도 중요하게는 대중동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발동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중을

발동하는데서 정치사업을 선행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 등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기하신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여 광범한 대중이 뚜렷한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운동들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투쟁구호들을 제시하고 혁명적인 대중운동들을 이끄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온 나라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생산자대중을 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당은 대중을 동원하는데서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현지에서 하고 경제관리체계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도가 아래에, 대중속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당의 경제건설 구상과 의도가 더 잘 구현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령도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온 우리 인민앞에는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근본열쇠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치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며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고 경제관리를 파고드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보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

백 인 준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유구한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대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혁명적인 문학과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창작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그 모든 형태들이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있다.

문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화폭속에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혁명소설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100여편의 중장편소설들이 창작되였으며 단편소설들과 시문학 창작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한해동안에 얼마 안되는 장편소설을 써내던 우리 작가들이 몇해사이에 100여편의 중장편소설을 창작한 사실은 특기할 사변이 아닐수 없다.

영화예술부문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련속편형식으로 형상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하여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반영한 수많은 예술영화들이 창작되였으며 아동영화, 과학영화, 기록영화 창작에서도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창작적앙양의 불길은 무대예술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모범을 따라 새로운 혁명가극과 혁명연극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새로운 형식에 담은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와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가 주체예술의 화원을 찬란히 빛내이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대의 뜨거운 숨결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수많은 명곡들과 우수한 무용작품들이 창작되고있다.

미술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미술가들은 유서깊은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전적지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웠으며 우리 당의 위대성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반영한 조선화를 비롯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창작해내였다.

우리의 주체교예도 눈부시게 개화발전하였다.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의 토양우에 군중문학예술이 활짝 피여나 늙은이들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다 노래와 춤을 즐기고있으며 오늘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자기들의 작품에 담아 노래부르고있다. 우리 조국은 말그대로 어디가나 주체예술의 대화원이 만발하는 인민의 락원이다.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 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주체예술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진출하여 세상사람들로부

터 열광적인 환영과 절찬을 받고있으며 주체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우리의 예술은 세계의 권위있는 축전들에 참가하여 특등상과 금메달을 수많이 받았으며 교예배우들은 《요술왕》, 《요술녀왕》으로 그 이름 높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당의 령도밑에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왔으며 오늘은 세계 혁명적문학예술의 높은 봉우리에서 그 위용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두고 《예술의 나라》,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의 발원지》로 높이 칭송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위대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실로 우리의 모든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 세심한 지도가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하고있는 민족문화의 일대 전성기는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노력과 헌신적투쟁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입니다.》(《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 단행본, 6페지)

문학과 예술은 생활의 반영이며 시대의 산물이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예술을 낳고 위대한 예술은 생활의 심원한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그들로 하여금 보다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한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예술은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를 떠나서는 창조될수 없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던 첫시기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무엇보다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을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왔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발전하고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시대의 막을수 없는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어떻게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줄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요구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주시대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새롭게 제기한 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은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발전방향과 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혔을뿐아니라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작품의 종자에 관한 사상,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문학, 영화, 연극, 가극, 미술, 음악, 무용, 교예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 그리고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며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할데 대한 리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과 수십권에 달하는 불멸의 리론총서를 비롯한 수많은 문헌들에서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

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자주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주체의 문학예술 창작과 창조의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종자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은 지난 시기 작품들의 주인공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형의 인간전형, 다시말하여 자기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성격의 핵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가는 주체형의 인간전형들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이 1970년대에 맞이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바로 이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자랑스럽게 내세운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속도전의 불바람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과정에 이룩될수 있었으며 창작과 창조의 모든 령역에서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만 마련될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이 땅우에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불패의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마련할수 있는 탁월한 문예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이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문학예술의 전성기는 결코 아무런 투쟁이 없이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학예술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마련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1960년대초에 이미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고 이 어렵고도 거창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이다.

로동계급이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면서 착취계급의 비위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져올것이란 없다.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진 진보적문학예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수는 없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본성에 맞는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주체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근본적으로 변혁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며 그속에서 전성기가 마련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에서 확고히 견지한 근본원칙은 주체의 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영화예술론》, 2페지)

문학예술에서 주체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기 나라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감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주체는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이며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을 떠나서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도

없고 그 전면적개화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조하여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와 오늘 우리 인민이 맞어하고있는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문학예술 창작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주체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데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여나가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문학예술발전의 중심고리이며 대중교양의 강력한 무기인 영화예술에서부터 새로운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련이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를 이룩하자면 우선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변혁하고 새롭게 창조하여야 한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고상한 내용과 세련된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인류문학예술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 주체의 문학예술은 응당 사상적내용에서 가장 풍부하고 심오해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형식에서 가장 고상하고 새로와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려면 내용을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시에 형식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변혁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이며 그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는 사상적독소이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하여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온갖 반동적문예사조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오래동안 문학예술발전에 해독을 끼쳤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들은 극복되고 우리 작품들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내용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특히 당의 유일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우리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고 탁월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문학예술의 내용이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것이라 하더라도 형식이 내용에 어울리지 않고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학예술은

주체의 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의 형식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예술의 형식을 혁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착취계급의 비위와 취미에 맞게 만들어진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형식들과 수법들을 쓸어버리고 로동계급의 본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형식들을 쓸어버리고 우리 식의 새로운 표현형식들과 형상방법들을 창조해내는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다.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감정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틀에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새로운것을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령도풍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영화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영화문학과 연출, 연기, 촬영, 음악,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자연주의, 형식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우리 식의 새로운 표현형식과 형상방법을 창조해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영화의 진미를 세상에 떨치게 하시였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에 집대성되여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나날에 지난날의 가극, 연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바다》식가극들과 《성황당》식연극들을 창조하도록 하심으로써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굳어져버린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낡은 가극과 연극에 종지부를 찍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가극, 혁명연극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탄생은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누리에 찬연히 빛내이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오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민족적형식을 귀중히 여기고 우수한 민족문학예술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에서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민족적형식을 통하여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하는 한편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민족예술유산들을 적극 찾아내여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재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오늘 주체예술의 화원은 민족적색갈이 뚜렷한 명곡들과 명화들, 훌륭한 무용들로 차넘치게 되였다.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내용과 형식뿐아니라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은 세련된 령도로 착취계급의 리해관계와 비위에 맞게 만들어진 관료주의적이며 개인독단적인 낡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마스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목적에 맞게 세워주신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와 새로운 창작지도체계, 우리 식의 새로운 연출, 연기 체계와 방법을 비롯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세워놓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단결과 동지적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문학

예술을 굽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창조체계이며 창조방법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그 주체적성격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한 우수한 기념비적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력사에서 가장 의의깊고 가장 빛나는 전성기로 된다.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새형의 문학예술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신성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예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문제를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풀어야 할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고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답을 주었으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도록 세심하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만수대기념비와 삼지연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주체사상탑, 개선문과 같은 기념비적작품들이 거연히 솟아났으며 혁명영화, 혁명소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수령형상창조문제의 빛나는 해결, 이것은 실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탁월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의 긍지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하고있는 주체적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질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문학예술을 굽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예전통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문학예술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혁명적문예전통형성의 합법칙성과 본질,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발전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혔다.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에 영화와 연극, 가극과 소설에 옮기는 방법으로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데 대한 탁월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문예전통을 계승한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전반에서 굽임없는 창작적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예전통계승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혈분만국회》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소설, 가극과 연극 등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혁명적문예전통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우리 문학예술의 장래운명에 양양한 앞길을 열어놓은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공적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하고있는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고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에 맞게 문학예술의 대중화와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속에서 군중문학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각계층 근로자들을 문학예술작품창작에 널리 망라시켜 재능있는 후비들을 많이 키워내며 문학예술작품보급체계를 바로세우게 함으로써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군중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은 결국 작가, 예술인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창작과 공연활동 과정을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방침 등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예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세월 언제나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강력한 창작기지와 온갖 생활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었을뿐아니라 우리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주면서 우리들에게 슬기와 용기를 안겨주고 끝없는 사색과 창조의 세계에로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예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투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 대오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갈 충성의 대오, 불패의 전투부대로 자라났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이다.

실로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 일어난 모든 변혁과 오늘 우리 인민이 맞이하고있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우리 당의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마련될수 있었다. 하기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땅우에 주체적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계속 꽃피워나갈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기치

리 창 선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대한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위업을 현하는것이다.

나라의 분렬로 인한 고통과 재난을 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이다.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제국주의두목인 제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리 민족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 침략과 전쟁 정책, 민족영구분렬책 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조건에서 우리 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엄중한 난관에 착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조 국통일념원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 이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향도적력량으로서 온 민족을 그 수행을 위한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혁명적전개력과 대담성으로 복잡하게 조성되는 내외정세를 능숙하게 타개하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념원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5페지)

조국통일의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은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정확한 조국통일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이끌어왔다.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에서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분렬된 나라에서 민족의 재통합을 실현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든 미제와 직접 맞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북과 남에서 장기간 굳어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며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하나로 되고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는 내외의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감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옳은 방향으로 향도하여왔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할 때에

만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핵을 이루는 원칙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국제적분쟁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며 외세가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실현할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세상에서 자주성이 가장 강한 당으로 알려진 우리 당은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평화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원칙이다.

통일문제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서는 안된다. 전쟁의 방법은 조국강토를 황폐화하고 민족에게 재난만을 가져오기때문에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 조선에서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으로 번져지고 세계대전으로 확대될수 있기때문에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조선통일문제가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면서 일관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민족대단결원칙은 조국통일의 대업을 놓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단결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뭉칠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수 있는 위업이다. 거족적성격을 띠는 조국통일위업은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을 이룩할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민족의 리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남북이 대결일로로 나간다면 결국 분렬의 영구화와 전쟁이라는 참화를 가져올뿐이다.

우리 당은 남북의 대립과 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피뢰도당의 반민족적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왔다.

이렇듯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강령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와 자주를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투쟁의 기치이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조국통일투쟁을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길을 개척해오시였으며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심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독창적인 방안이다.

우리 당은 새로운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11일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를 마련하고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층을 망라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시급히 내올것을 제안하였으며 남측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분렬로선을 계속 추구하는 조건에서 1981년 8월 6일 제정당, 사회단체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제기될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을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들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탁월한 전략전술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통일을 위한 투쟁을 이끄는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동적으로 대화의 길을 열어나갔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는 정세의 요구를 통찰하고 1984년 1월 조선의 평화보장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3자회담제안은 우리와 미국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제안은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아직까지 아무런 긍정적반응을 보이지 않고있으며 도리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로 나아갔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3자회담제안을 가지고 미국에 계속 회담을 촉구하는 한편 북과 남사이의 대화통로를 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4년 9월에 있은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물자전달사업은 북과 남의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은 남조선수재민들의 참상을 깊이 헤아리고 막대한 구호물자를 단시일안에 남조선지역에 수송인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분단의 장벽에 돌파구를 열고 겨레의 가슴속에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우리 당은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구호물자전달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좋은 분위기를 살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주동적으로 발기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1월 15일 국토가 분단되여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경제회담이 개최되였으며 1970년대에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이 1984년 11월 20일에 다시 열리게 되였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으며 북과 남의 대화를 보다 높은 급의 회담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고위급회담도 실현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데로 나아갔다. 그들은 1985년 2월초부터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85》 합동군사연습을 벌림으로써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중단상태에 몰아

넘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는 격화되고 정세는 첨예한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로 되돌아가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를 예리하게 꿰뚫어본 우리 당은 1985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주동적으로 내놓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제기한 3자회담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끼리 긴장완화문제를 할수 있는데까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제안이였다. 남조선측은 우리 제안의 공명정대성앞에서 더는 다른 구실을 찾지 못하고 예비접촉에 나왔으나 그들은 그 막뒤에서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대화의 막뒤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이 증대된 정세를 통찰한 우리 당은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긴장상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1986년 1월 11일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주동적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연습중지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이 평화제의에 대해서도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것으로 내답함으로써 북남대화를 파탄상태에 몰아넣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것만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인내성있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우리는 1986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남조선주둔 련합국군총사령관, 남조선《국방부장관》사이에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의 중지, 병력과 군비의 축소, 정전협정준수 문제 등을 협의한것을 제의하였으며 련이어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15만명의 병력을 평화적건설에 참가시킬데 대한 결정 등 평화적발기들을 거듭 내놓았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실현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풀고 조선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돌렸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추구하고있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본질은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교차승인》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자는것이다.

우리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교차승인》안을 들고 나올 때마다 제때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한편 그것이 국제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통일구국에로의 곧바른 길을 개척해왔다.

*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간고하고도 복잡하며 장기성을 띤 투쟁이다. 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통일력량을 확고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통일위업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 남반부의 혁명

력량, 국제적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튼튼히 다지는것은 조국통일의 숭고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우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을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이 반석같이 다져졌을뿐아니라 남반부의 혁명력량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남조선혁명력량강화에서 남조선인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문제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은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널리 부식되고있는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저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을 널리 부식시켰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0페지)

우리 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으며 그들이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벌렸다.

1980년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이 깨여지고 투쟁의 예봉이 점차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려지게 되였으며 반미자주화투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전면에 제기되고 이에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옳게 배합되여 전개되는 과정에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혁명력량은 질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민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는 사회력사관을 확립하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삼민리념을 제기하고 운동을 확고히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워놓았다.

동시에 남조선에서는 반미, 반파쑈투쟁조직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조직되여 강력한 반미, 반파쑈투쟁력량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전국학생총련합》(전학련),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련합》(애학투), 《민주통일민중운동련합》(민통련) 등의 련합조직들이 결성되여 반미반파쑈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는것은 운동의 발전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이 련합조직들은 학교간, 지역간, 투쟁단체간 련합을 이룩하고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운동의 리념을 선명

히 제기하고 투쟁조직을 실정에 맞게 각이하게 결성하고 련합공동투쟁을 다양하게 벌리고있는것은 남조선혁명운동이 새롭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 로동계급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남조선혁명력량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1979년 10월의 부산, 마산 인민봉기, 1980년 5월 영웅적광주인민봉기, 1986년 5월 인천투쟁을 비롯한 여러 항쟁은 청년학생운동이 로동계급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벌어진 투쟁들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청년학생운동이 로동계급의 투쟁과 결합될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되며 투쟁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북반부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력량은 더욱 장성강화되고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 정책과 활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국제적혁명력량도 크게 확대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들,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당이 제기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3자회담제안을 비롯한 조국통일방안들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86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만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핵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여러가지 정치행사들을 크게 진행하였다.

오늘 조선통일지지운동은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간고한 로정을 걸어왔다. 이 과정은 우리 당이 탁월한 전략전술과 세련된 령도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와 전쟁정책을 짓부시고 온 민족을 조국통일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을 우리 세대에 기어이 통일할 결심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모든 힘을 통일위업에 바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이 우리 인민의 진두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끄는 한 우리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우리 당은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권위있는 당

현 준 극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으며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세계혁명수행에 이바지한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1)

우리 당은 세계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이다.

세계혁명위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세계혁명은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들의 신성한 국제적의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자기앞에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8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그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창시하신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립장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성을 고수하고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실현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하신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세계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며 드팀없는 혁명적의지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의 바탕에

는 세계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끝없는 충실성이 놓여있다.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당의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다같이 충실하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국제적성격을 띠며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다. 매개 나라의 로동계급의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민족부대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앞에 책임질뿐아니라 세계혁명에 대하여 세계인민들앞에 책임진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투쟁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도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의 민족적임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국제적임무에 대해서 외면하는것은 민족리기주의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혁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 혁명도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혁명의 국제적임무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민족적임무를 소홀히 하는것도 참다운 혁명적립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 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되며 결국 세계혁명에도 부정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다같이 충실하는것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세계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자주성과 국제주의적단결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리익, 조선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겹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특히 혁명을 먼저 하였거나 앞서 발전한 나라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있는 인민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와 같이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계급적형제들과 벗들을 도와주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주하고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으며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요구라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절실히 필요한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우리 당은 이처럼 자주성과 국제주의적단결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으며 세계혁명위업수행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당의 충실성은 또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주권은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고 자기 나라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외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갈것이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것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4폐지)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풀어나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도 이바지하고있다.

대외활동에서 이룩한 우리의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결부되여있다.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끊임없이 류동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당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혁명적원칙을 지킬수 있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튼튼히 고수하고 세계혁명앞에 지닌 국제적임무도 다하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당의 충실성은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은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완성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계급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혁명의 근본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리익, 혁명의 리익에 맞는것은 적극 지지하고 그와 배치되는것은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의 립장이다.

제국주의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주되는 세력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억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세력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창끝에는 창끝으로 맞서고 량면전술에는 혁명적원칙으로 대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단호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민족적존엄과 혁명

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반제반미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었다.

세계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이처럼 우리 당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며 우리 당의 력사는 조선혁명과 함께 세계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수놓아져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것이다.

(2)

우리 당은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권위있는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한 반제적립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의 하나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4페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결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당이 이룩한 업적의 위대성과 잇닿아있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세계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높은 권위와 영예를 지니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한데 있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이 세계혁명앞에 지닌 첫째가는 국제적의무이다. 세계혁명은 개별적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대렬이 늘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따라서 세계혁명의 운명은 매개 나라의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국제적의무로 인정하고 조선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향도적력량이다. 혁명의 승패와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당을 강화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투쟁의 계속이며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대렬은 당과 수령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고 조선로동당은 조직성과 사상성에 있어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이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위

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조선혁명이 오늘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나라가 대를 이어가면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찬연한 빛을 뿌릴수 있게 한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세계혁명은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과 함께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국제적의무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함으로써 세계혁명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세계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전략적목표와 투쟁방향을 옳바로 밝히는것은 세계혁명을 곧바른 길을 따라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는것을 세계혁명수행에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세계가 자주화되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며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은 세계혁명의 승리적진로를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으로서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힘있게 밀고나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위업수행에서 날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1~32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세계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활동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그 정당성과 공정성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나라들 속에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형제당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훌륭히 유지해나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이 이 운동의 성원국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 운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활동원칙과 행동규범들을 밝힘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으로 하여금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계속 힘차게 전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특히 우리 당은 조선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이 로골적으로 감행되는 조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우리 나라를 평화와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한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 당이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반제자주위업에 이바지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세계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당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와 제3세계나라의 당 및 국가 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급대표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 수반들과 고위급인사들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자주위업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과 적극적인 활동에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있으며 우리 당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과학적 리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

김 철 식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 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 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적으로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 하여 주체의 사회력사관과 공산주의 명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욱 풍부화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끝내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 투쟁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혀준 혁명의 대강이다. 연설에는 우 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인민들에 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기 위한 길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 에 일관되여있는 사상은 주체사상의 기 치를 높이 들고 혁명을 계속함으로써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 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 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사 회주의완전승리를 빛나게 실현하려는데 있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로 나아가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 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 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리정표를 뚜렷이 밝힌 과학적인 사상이 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정권이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로정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에 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절실하게 제기한 력사적과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벌써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내놓으시여 우리 시대가 제기한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거창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이룩된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이 차지하는 빛나는 력사적지위가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합법칙적로정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혁명발전의 여

러 단계를 거쳐 실현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4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승리하고 완성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첨예한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는 력사적변혁의 시기이다. 과도기의 력사적임무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는데 있으며 온갖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력사적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낡은 사회의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뿐아니라 계급적차이까지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사회발전행정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회에 착취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은 계속되며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모든 근로인민대중이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급적대립뿐아니라 계급적차이마저 없어져야 한다. 오직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여야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타승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끝내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력사적과업으로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는 이 사회의 면모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 정도를 척도로 하여 본다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다. 그것은 또한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무계급사회이므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넘어선 사회인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아직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일정한 차이가 남아있고 사회의 생산력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것만큼 이 사회는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공산주의의 두 단계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완성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 실현하여야 할 전략적목표의 전경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가게 하는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된다.

이 리론이 밝혀짐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할 전략적고지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였으며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그마한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을 뚜렷이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8페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전략전술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이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이 융합되여 로동계급도 농민도 아닌 그 어떤 다른것으로 융합되는 방법으로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농민이 로동계급으로 전화됨으로써만 없어지게 된다. 또한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관계는 비로동계급적사회관계가 로동계급의 요구와 지향대로 개조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계급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계급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을 반영하여 계급폐절의 구호를 들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계급

의 폐절과 무계급사회의 실현, 이것은 로동계급이 스스로 내세운 력사적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

사회주의혁명은 계급폐절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착취계급이 청산됨으로써 온갖 사회적불행의 화근인 계급적대립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만이 계급으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의 폐절문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여야 계급폐절의 력사적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사회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존재하는것은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는 소유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전사회적인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농업생산력이 더욱 발전하는데 따라 협동적소유는 마땅히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전민소유의 단일한 경리에 망라되여 일하게 될 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전사회적, 전국가적 범위에서 원만히 구현될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으며 그렇게 하자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근로자들이 누구나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며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중요성을 밝

하시였을뿐아니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 농업이 공업화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 높이에 이르렀으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경제를 건설했을 때 튼튼히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것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야 한다. 이 로선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이며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가장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이다. 이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면하게는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의 창조력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는 곧 자주성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치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방도를 하나로 결합시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기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의 완성을 다그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식화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처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위한 방향과 방도,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의 대백과전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창조적탐구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준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주위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대기념

비적로작이다.

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천명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전면적으로 더욱 완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박하게 제기된 리론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과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시키는데 위대한 기여를 하였다.

로작은 또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끝내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들어서기 위한 지름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전환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절박하게 제기한 리론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풍부화시킨 력사적문헌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끝내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로 들어서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밝힌 혁명의 대강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력사적경험의 총화이며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고 광복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으며 6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전인미답의 간고한 혁명의 길을 개척하여오시면서 고귀한 리론적업적과 실천적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현실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과학적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인류의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전환시킬수 있는 승리의 기치를 마련하시였다.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굽임없이 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기본문제

최 장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제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투쟁강령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데 대하여 개괄총화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대강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대강을 무한한 감격과 흥분 속에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그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제3차7개년계획의 첫해 전투에서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위업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인 혁명위업이다.

장기간에 걸치는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적 및 전략전술적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단계들과 목표, 그 수행방도들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단계와 목표, 방도들이 옳게 규정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백하게 내세울수 있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그 과업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아무런 편향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특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와 그 해결방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체계화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열쇠를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가운데서 무엇을 기본문제로 보고 해명하는가 하는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8페지)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가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계급적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지향이 실현된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자기의 모순과 악페를 뚜렷이 드러내고 로동계급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를 표현하는 리상으로 되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공상적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제창되였으며 그 미명아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이외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착취와 압박이 없고 다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사회주의에 대한 리상을 참답게 제기할수 없었다.

오직 가장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만이 사회주의를 참다운 리상으로뿐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킨 유일한 계급이였다.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의 오랜 력사적투쟁과정에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되였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하나의 념원으로부터 현실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가 자기의 고유한 계급적면모를 다 갖춘 사회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사회주의사회, 다시말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이 농민을 비롯한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인 로동계급으로 만들고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무계급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화되고 모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여 로동계급의 사회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야 완성되게 된다.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 되자면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게 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며 물질문화

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정치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원만히 보장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의 계급적구성이 단일화될수 없으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은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령도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지만 농민은 그렇지 못하다. 농민은 어디까지나 령도를 받는 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이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같을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미숙성과 관련된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일정한 기간 물질기술적토대도 미약하기때문에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고 그들이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여야 한다.

계급자체를 페절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로동계급이 스스로 내세운 력사적과업이다.

계급이 생겨난 때로부터 사람들사이에 지배와 예속 관계가 생겨났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되였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한것은 근로하는 계급이였다. 그러나 근로하는 계급이라고 하여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자주적요구의 수준과 내용은 같지 않다.

력사적으로 볼 때 계급적해방을 위한 노예들의 투쟁은 기껏해서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요구에 지나지 못한것이였고 농노, 농민들의 투쟁은 자기의 인격과 개인적경리의 주인으로 되려는 요구에 머문것이였다.

자주성에 대한 근로계급의 요구가운데서 가장 높은것은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요구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자기자신뿐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을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력사적과업으로 삼는 유일한 계급이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은 그 본성에 있어서 모든 근로대중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수 없는 계급이며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요구는 모든 근로대중을 해방하고 그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 요구이다. 그렇기때문에 오직 로동계급만이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계급페절의 구호를 들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혁명은 계급페절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착취계급이 청산됨으로써 계급적대립은 없어지고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만이 계급으로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페절문제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로 되며 이것이 해결되여야 계급페절의 력사적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으로 사회적불행의 화근인 계급적대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사회에 사람들의 사회생활

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되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자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9페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려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존재하는것도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켜 소유관계를 단일화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은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논다. 그러나 두 계급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꼭같은것은 아니다.

사회에 여러가지 소유형태가 존재하고 그 주인이 구별되여있는 조건에서는 매 소유형태의 담당자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불가피하게 차이가 나기마련이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자기의 소유형태안에서만 보장되게 된다. 협동적소유의 주인인 농민은 전인민적소유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전인민적소유의 주인인 로동계급은 사회의 령도계급으로서 농민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지만 협동적소유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존재하는 한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농민의 로동계급화가 실현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집단적으로 살며 활동하는것을 생존방식, 활동방식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사회이기때문이다.

집단주의는 집단과 그에 속한 개별적성원들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집단주의는 집단과 그것을 이루는 개별적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공고한 통일과 진정한 단결을 이룩할것을 요구한다. 서로 돕고 이끌며 공고한 통일과 진정한 단결을 이룩한 집단안에서만 참다운 인간관계, 밀접한 사회적련계와 집단적결합이 맺어진다.

사회주의사회도 로동계급,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적집단인것만큼 이러한 집단주의가 사회관계에 작용하는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두 계급인 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은 다같이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근로자들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긴밀히 협조하며 통일단결되여있다.

그러나 소유형태가 갈라져있고 협동적소유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를 비

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이 사회관계에 불가피하게 작용하게 되며 그들이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는것과 같은 일부 현상들이 나타날수밖에 없다. 이러한것들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와는 인연이 없는것이며 전사회적인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의 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를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상응한 참다운것으로 만들자면 소유형태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소유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전사회적인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굽임없이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협동적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공업보다 약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따라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테제가 밝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유관계는 생산수단을 차지하는데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호상관계이다. 소유관계를 변혁하려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을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소유관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소유관계를 요구하기마련이며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그것은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려면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수준에로 높여야 한다.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로동계급의 집단주의정신과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또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면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농업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질좋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농촌에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소유의 발전방향은 그 사회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협동적소유의 발전방향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촉진하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이다.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를 비롯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경제관리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것만큼 그것은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데서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철저히 계획화하고 조직화하여 기업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적지도를 잘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는것이다.

참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 무계급사회건설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밝히신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문제로 된다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한 다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방향과 중심과업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기본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　　*

오늘 우리 혁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완성하는 계선에 가까이 접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며 승리는 확고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 밝혀진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주체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전인민적대중운동

최 춘 황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과 방도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 *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전개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대중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게 되는 집단적운동으로서 그 주체는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따라서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들의 창조적능력도 더욱더 증대되게 된다. 또한 혁명앞에는 새로운 투쟁과업이 제기되고 혁명정세도 새롭게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자면 대중운동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찾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전국사상총동

원운동, 증산경쟁운동, 천리마운동 등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대중운동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전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된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대중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고 령도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대중운동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전인민적대중운동이라는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전인민적대중운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높은 투쟁목표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과업을 내세우고있는 대중운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어떤 대중운동보다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대중운동은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목적의식적인 사회적운동이다.

대중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사회적운동인것만큼 투쟁 목표와 과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이 내세우고 광범한 대중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떨쳐나서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투쟁목표에 있어서 지난날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으며 그 중심과업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제기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을 직접 투쟁목표로 뚜렷이 제기하고 있다.

높고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대중운동의 성과적진행과 그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높고 뚜렷한 목표를 내세워야 인민대중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지난날의 그 어떤 대중운동도 내세운적이 없는 높은 목표이며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뚜렷한 목표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바로 이러한 높고도 명백한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투쟁목표로 설정하고있을뿐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

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자체의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수행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치고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례없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전인민적대중운동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대중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위대한 추동력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대중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그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이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높이 발동되고 그들의 단결과 협조가 강화되여 혁명과 건설이 다그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자면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대중적사상기술문화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속도전과 사상전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하게 된다. 여기에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추동력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인민적대중운동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벌어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서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이 높아지고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공고화되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낡은 사상 잔재가 많이 없어졌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더 잘 서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기술, 문화 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전진을 가져왔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더한층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현시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밀고나가는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서 대중적사상기술문화개조운동이다. 그런것만큼 이 운동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혁명전통교양과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로동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집단주의정신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조직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풀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다그치고 농업의 공업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과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문화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전문기술을 소유하며 군중문화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향토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잘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다른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광범한 군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과 3대혁명기수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는 사업과 이 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단체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특히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이 이 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전개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직접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부서들을 조직발동하여 이 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도하는 지휘관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위원회안의 부서들과 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책임일군들은 아래 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하거나 당회의를 지도할 때에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것을 료해하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당조직들앞에 나선 임무는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그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80년대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과업

김 재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표징과 완성의 합법칙적로정, 그 실현방도와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대백과전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밝혀준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며 그들을 보람찬 미래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경제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4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사회발전행정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완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에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

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그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해서만 굽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경제건설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여 락후한 생산력을 물려받은데다가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우리가 건설하여놓은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여러차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빨리 앞당기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우리

는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에는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과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물질적기초건설의 합법칙적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물질적기초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는 고도로 현대화된 생산토대이며 필요한 여러가지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부문간의 생산적련계를 조화롭게 맞물릴수 있게 완비된 부문구조를 갖춘 생산토대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물질적기초가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높은 발전수준에 도달한 생산토대라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가 실현되면 농업이 공업화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져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가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되게 되며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건설목표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토대의 수준이 명확히 해명되고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시종일관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기술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조건에서 자립경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로선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므로 다같이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이미 마련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화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과학화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 그 수행방도와 함께 당면한 경제건설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지향하는 매우 높은 투쟁목표이다.

제3차7개년계획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으로 장성시킬것을 예견한 매우 방대하고 웅대한 설계도이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방대한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빨리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려는 그들의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는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다. 이 장기전망계획에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가장 정확히 타산되여있다.

웅대한 제3차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경제의 자립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 생산은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될것이다. 또한 이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참으로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

설의 전망목표와 현실적요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간공업부문들에서 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면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전반적인 과제수행에서 큰몫이 해결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마련해놓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일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있다. 우리는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구체

적인 방도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여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도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그 실현방도,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방도를 비롯한 중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심으로써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히 제3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심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투지와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은 새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이 사회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경제건설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그 수행방도, 당면한 경제건설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위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점령을 위한 중요방도

리 자 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경제건설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제3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6페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실현하게 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류례없는 높은 목표이며 생산의 빠른 장성을 보장해야 실현할수 있는 방대한 경제건설목표이다. 이 웅대한 목표는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실현을 위한 생산능력을 원만히 조성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생산능력은 일정한 기간 기계설비들에서 주어진 제품을 최대한으로 생산할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경제건설목표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선행단계에서 마련된 생산능력의 효과적인 리용과 새로운 생산능력의 조성에 대한 예견에 기초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자면 이미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공장, 기업소들을 보다 발전된 기술로 개건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생산능력을 원만히 조성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이미 마련된 주체공업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것으로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현대적기술로 개전하여야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는데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건설에서 앞선 시공방법과 능률적인 건설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적게 쓰면서도 건설물의 질과 건설속도를 최상으로 높이고 조업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게 한다.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얼마나 발전된 기술로 꾸리는가 하는것도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자동화된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연구도입되게 됨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가 실현된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생산능력을 늘일뿐아니라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원료와 연료, 동력은 생산의 중요요소이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조성해놓은 생산능력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원료, 연료, 자재를 우리의것으로 대용하거나 최대한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자체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물리탐사방법과 항공 및 인공지구위성에 의한 탐사방법을 비롯한 현대적인 탐사방법을 널리 적용하고 선진적인 채굴방법과 설비, 동력자원개발방식을 적극 받아들이면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원들을 더 찾아낼수 있으며 원료와 연료, 동력의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원유, 콕스탄과 같이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조건의 특성으로 하여 일부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의 풍부한 자원으로 대용하는 문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넣어야 보다 원만히 해결되게 된다.

새로운 생산방법과 생산공정을 연구도입하여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은 과학기술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이며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생산방법과 생산공정을 적극 연구도입할수록 원료와 연료, 동력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폐열과 폐설물, 부산물까지 회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들과 기업소들사이, 생산고리들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졌으며 생산기술공정이 복잡해지고 경제관리조직도 매우 세분화되였다. 경제건설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점령을 위

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더욱 더 심화되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생산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전반적인 경제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수법들을 적극 연구도입하여 전인민경제적범위와 공장, 기업소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적 현상들과 과정들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경영활동을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올바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특히 경영학, 경제수학을 비롯한 경제과학과 기술공학을 밀접히 결부시켜 발전시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실현을 위한 복잡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실천적방도들을 밝히고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거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적극 개선할수록 방대한 규모의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생산능력의 확장과 원료와 연료, 동력의 보장,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개선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있으며 125만명에 달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자신들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것처럼 과학기술도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워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과

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을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는것은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과학기술의 사명으로 보나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경제건설과업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와 현실적요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정확히 세워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전망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와 단계별 과업, 그 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과학기술발전 당면계획은 지나치게 벌려놓지 말고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안받침할수 있도록 해당 시기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세워야 한다. 전망과업과 당면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세운 과학기술발전계획이라야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할수 있으며 생산을 적극 내밀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넣을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운 다음에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은 다같이 과학기술의 주인이며 그들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생산실천을 통하여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면 과학기술발전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과학기술발전계획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자기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간직하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며 과학연구사업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기술의 주인된 자각과 누구나 다 기술을 혁신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널리 참가하여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고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자면 그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풍부한 경험을 배우고 그들의 과학기술적발기들을 힘껏 도와주어 완성시키며 광범한 근로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로부터 지식을 배우면서 자기들의 실천적경험으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러한것처럼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그 성과여부는 지도일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이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옳게 인식하여야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각오를 더욱 튼튼히 가질수 있으며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여기에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의 하나가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

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나라의 경제건설을 굽임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소홀히 대하는 현상과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당면하게 나서는 경제과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힘을 넣어야 할 복잡한 사업이다. 과학기술발전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개선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그 성과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인적, 물적 력량을 합리적으로 조직동원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기술개조사업이 당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맞게 정확히 진행되도록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사업결과에 대하여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과학기술발전에서 공로가 있는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와 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지도 기관들과 단위들, 경제지도기관들의 일군들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짜고들어 설비와 자재, 자금을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의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기술서적을 비롯한 참고자료를 널리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주고 과학강연과 과학기술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며 과학기술통보사업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사업, 그들에게 훌륭한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은 결국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것이며 기술적창안은 생산에 빨리 도입하여야 가치가 있다. 과학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정확히 심의평가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심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치있는것으로 확증된 기술적창안은 지체없이 도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은 우리 당의 원대한 경제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킴에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전 금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 립장과 원칙들을 천명하시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로부터 그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시정연설에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은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며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우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리정표가 제시되였으며 온 민족을 구국통일의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드팀없는 의지가 반영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고 그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한 강토우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국에서 대대손손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국토가 량단되여 조국통일문제가 산생되게 된것은 외부세력의 침략과 간섭, 민족 분렬과 리간책동에 그 근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원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이던 한 민족, 한 강토를 원상대로 회복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인것이다.

민족의 거족적위업인 조국통일문제는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더우기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심한 형편에서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대결을 일삼는다면 어느때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격화되고 분렬은 심화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무력충돌을 초래하고 조국통일은 더욱 료원한것으로 될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만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대결정책으로 조성된 민족적 불화와 대립을 없애고

민족의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방안은 새로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획기적인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0페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고 오늘 가장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방안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도로 된다.

오늘 하나의 강토이며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북과 남을 멀리 갈라놓고있는것은 중요하게 서로의 불신과 대결감정이다. 이 불신과 대결 감정은 오랜 세월 쌓이고쌓여온 뿌리깊은것으로서 그것은 적대적인 나라들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현존하는 불신과 대립의 근원은 결국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와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불신과 대립감정을 가시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그 장애요인으로 되고있는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부터 풀어야 한다.

바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방안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인 정치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 방안은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북남사이에 정치적대결상태를 풀수 있게 하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큰 규모의 군사연습의 중지와 같은 문제들을 토의해결함으로써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수 있게 한다.

특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중립국감시군을 만들어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들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하게 하는것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는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방안은 또한 중단된 여러갈래의 대화를 소생시키고 정상화하며 대화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촉진조치로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려면 정치적대결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남대화의 력사적경험은 정치군사적대결이 첨예화되는 가운데서는 대화의 성과적진전을 기대할수 없으며 궁극에 가서는 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남겨놓았다.

내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오래동안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의 장벽이 뚫리고 굳게 얼어붙었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최근년간에 여러갈래의 대화가 모처럼 마련되였지만 얼마 못가서 중단되고 한해가 넘도록 재개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있는것은 그것을 더

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마련되면 대화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여 이미 중단된 여러갈래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고 순조롭게 진전될수 있을것이다. 뿐아니라 북과 남사이에 새로운 대화들이 활발히 벌어지게 될것이며 마침내 북남최고위급회담까지 마련되게 될것이다.

새로운 대화와 협상마당인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또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는데서도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문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통일은 민족지상의 목표이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이다.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여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보다 더 귀중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긴절하다 하여도 평화없이는 성취할수 없다.

정치군사적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고 신의있는 대화를 할수 없으며 설사 대화를 한다 하여도 합작과 교류를 발전시킬수 없고 통일을 위한 크고작은 그 어떤 긍정적조치도 취할수 없다.

우리의 제안대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열려 북과 남사이에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면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이룩되고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여 통일의 유리한 전제가 마련되게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면 온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이 개척될것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방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지난 기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울여온 성의있는 노력은 그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백수십차례에 걸쳐 내놓은 모든 방안들과 조치들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침략과 전쟁이 없고 예속과 지배가 없는 평화롭고 부강한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한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적인 립장과 투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최근년간만 하여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애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4년초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고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의 폭넓고 아량있는 립장을 거듭 밝히면서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3자회담의 정당한 제안 실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날카롭게 대치되였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완화의 새 기운을 조성해나갔다.

우리는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동포애적인 구호조치를 계기로 북남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련

이어 제시하였다.

우리는 오직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북과 남사이에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주동적으로 마련한데 이어 북남국회회담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는 좋게 출발한 북남대화에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초에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이에 호응해나설것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과 반공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여러갈래로 진행되던 북남대화가 중단되고 결렬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대화를 구원하기 위하여 북과 남에 있는 군실권자들사이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며 긴장이 격화되고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무려 15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민군 병력을 평화건설에 돌리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제안들과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의 통일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나온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들과 조치들이 실현되였더라면 북남대화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열려 조국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아올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발기와 조치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거부해나섰을뿐아니라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는 무모한 전쟁연습소동과 반공대결책동을 강화하는것으로써 대답해나섰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대화를 중단시킨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의 포연이 채 가셔지기도전에 미국호전광들과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대화에 장애로 되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나갈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한편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그 재개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섰다.

대화부정적이며 평화부정적이며 통일부정적인 남조선통치배들의 반공반공화국대결소동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반공을 만병통치약으로 삼고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적극화되자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우리와 련결시켜 가차없이 탄압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처형하는 파쑈적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로 되여야 한다는 야당《국회》의원의 발언을 《용공》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고 민주와 통일을 절규해나선 청년학생들의 련합롱성투쟁을 《용공》의 모자를 씌워 8,000여명의 폭압력량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단꺼번에 1,500여명을 잡아가두며 야당과 재야세력의 평화적인 집회마저 《용공》의 구실을 붙여 10개 사단에 맞먹는 무장경찰과 군대를 출동시켜 탄압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반공파쑈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북의 위협》이라는 기만적인 허구로 우리의 평화적인 금강산발전소 건설문제까지도 이른바 《수공작전》수단이니, 《특수건설》이니 뭐니하고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면서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비렬한 반공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사태는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들이 반공《국시》를 부르짖다 못해 나라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아래에서의 통일》로 되여야 하며 《오늘의 현실에서 최대의 정치는 바로 남북대결》이라고 공공연히 떠드는데까지 이르고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이 저들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운운하며 남북대결을 《최대의 정치》로 내세우고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화와 평화와 통일을 전면거부하고 《멸공》과 《승공통일》을 꾀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대치상태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은 심화되고 대결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다.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고 여러가지 핵운반수단들이 련속 투입되고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곧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그것은 섭사리 세계전쟁으로 파급되여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게 될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는 오늘 그 누구도 이를 수수방관하여서는 안된다.

오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하루빨리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1일 우리의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련명으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아무런 타당한 리유도 없이 우리의 편지를 받아가는것을 회피하였을뿐아니라 당국자의 《국정연설》이라는데서 우리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남북당국최고책임자회담》과 《기존대화의 재개》에 대하여 떠들었다.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새 제안이 실현되면 자연히 중단되였던 여러갈래의 대화들도 재개될수 있고 나아가서 최고위급회담도 열릴수 있는데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면서 덮어놓고 《대화재개》와 《최고책임자회담》을 운운하는것은 사실상 남조선측에게 그 어떤 대화도 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어 극히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87》전쟁연습계획을 발표하여 우리의 획기적인 평화제안에 새로운 군사적도발로 대답해나서는 불순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측이 진정으로 대화의 재개를 원한다면 정세를 또다시 전쟁접경에로 끌어가려는 범죄적책동을 그만두고 우리의 성실한 평화제안에 대하여 하루빨리 대답하여야 하며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 호응해나와야 한다.

우리의 제안에는 아무런 사심도 없고 그 어떤 부대조건도 없을뿐아니라 남측의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여있다.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 정치, 군사 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남조선측이 내놓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마련하는데서 북과 남의 정치군사실권자들에게 부과된 사명과 임무는 크다.

북과 남사이에는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정견과 리념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나라와 민족의 사활적리해관계를 풀기 위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지 못할 리유와 근거로 될수 없다. 지금은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하여 말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적임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완화와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고 성 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당의 기본리념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대외관계분야에서 자랑찬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이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활동의 기본리념으로 삼는다는것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우리 혁명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을 말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 기간 우리 당은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대외활동을 자주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혁명위업 수행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조국의 륭성과 더불어 영광에 찬 승리의 기록들로 빛나는 우리 당 대외활동의 전로정은 자주, 친선, 평화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 *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리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4페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확고한 지침이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반제자주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침략과 전쟁을 없앰으로써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과 국제주의적립장, 평화애호적립장을 뚜렷이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시대의 요구, 세계혁명발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는 서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다. 자주의 리념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민족적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수 있고 세계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친선의 리념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민족적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지켜나갈수 있다. 또한 평화의 리념을 지켜나가야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고

나라의 민족적자주권도 고수할수 있다.

자주의 리념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일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자주권을 빼앗기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민족자신도 자유로울수 없다. 자주성을 가져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도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혁명투쟁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모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매개 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그 발전단계와 투쟁과업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이러한 투쟁은 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혁명투쟁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은 로동계급의 당이 대외활동에서도 언제나 자주성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의 자주리념은 자주성을 지향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더욱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난날에는 오래동안 제국주의렬강에 의하여 약소민족들이 지배와 착취를 당하여왔다. 제국주의렬강들은 세계의 주인노릇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롱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작거나 힘이 약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약소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얼리우고 속히 살아오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당하고 그것을 숙명적인것으로 여겨오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지금 세계적판도에서 진보적인류가 자주성을 요구하며 더욱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현상으로,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자주리념은 바로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자주리념에 따라 자주성을 견결히 지키는것을 대외관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대외정책을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관철하였으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대외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갔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갔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결히 고수해나갔다.

우리 당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존중히 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다른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온갖 행위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이 지난날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도 아무런 편향없이 곧바로 전진할수 있었고 대외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자주의 리념을 철

지히 구현한데 있다.

친선의 리념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이다.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친선의 리념에는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구현되여있다.

매개 나라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인민들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자주권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것만큼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도 역시 국제적인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친선과 단결은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반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들과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이며 공동의 리념이다. 로동계급의 당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낡은 세계질서를 마사버릴수 있고 나라의 자주권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발전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 리간과 반목을 조성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분렬과 리간 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의 고유한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과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것을 바라지만 제국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대립을 조성시키려 한다. 로동계급의 당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단합된 힘으로 놈들의 이러한 책동에 맞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혁명의 강력한 보루이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 단결과 협조를 굳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대외관계에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일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계급적동맹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 단결과 협조는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리해와 동지적우의가 두터워지고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전통적인 관계가 굳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최근년간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굳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반제자주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이 운동자체의 합법칙적요구인 동시에 전반적세계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국가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남남협조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경

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이 운동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지난 기간 우리 나라와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됨으로써 우리 인민과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지고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을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한 원칙으로 견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 존엄있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세계정치무대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더욱 빛내이게 되였다.

평화의 리념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6페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숭고한 과업이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그 제도의 본질로부터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평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의 종국적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인류가 오래동안 그려온 이러한 리상사회는 오직 평화로운 환경속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오늘 세계 여러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체질은 독점자본이며 그것이 국내에서 팽창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를때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새 세계전쟁을 도발하려고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는 현시기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미제의 호전적인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은 지금 세계도처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세계는 언제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정세에 직면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아세아에서 더욱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열핵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세아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그것을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끌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핵전초기지로,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환되였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현시대의 가장 엄숙한 과제이다.

우리 당은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평화는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력사의 교훈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저절로 선사된적이 없으며 그것은 오직 평화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우리 당은 반전, 반핵, 평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블럭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블럭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철폐하며 침략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현시기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것이다. 우리 당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막으며 여러가지 핵무기를 축감하고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은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평화제안들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세계적규모에서 벌어지는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을 지지하고 그것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가장 정확한 평화애호정책들을 제시하고 관철해나감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평화를 유지해나갈수 있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시대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정당한 대외정책리념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리념은 그 보편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의 요구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에 철저히 부합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주체외교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참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대외정책강령이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대외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대외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외관계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처럼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세계혁명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근 로 자 1987년 제2호(루계 538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7년 2월 1일 발 행•1987년 2월 3일

ㄱ—751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제3호(53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김 창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나아가는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에서 천명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리론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심오하게 밝힌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4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가 옳게 밝혀져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뚜렷한 투쟁 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당면한 실천적과제로 나서고있는 현실은 이 문제의 옳은 해결을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이 중대한 리론실천적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선차

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사회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는것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만큼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사회관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회관계를 확립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이 사회의 기본계급이며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관계를 개조한 사회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를 건설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경제적처지, 정치생활에서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특히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여야 할 마지막계급인 농민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로동계급의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되게 되며 그들자체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형태의 담당자인 농업로동자로 개조됨으로써 로동계급과 같은 경제적처지와 사회정치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보장받게 되며 누구나 다 자주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누리게 되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계급폐절을 위한 투쟁에서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에서 전환점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온갖 사회적불행의 화근인 계급적대립이 없어지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에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사회생활에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이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치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줄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 다시말하여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수행에서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자면 그에 상응한 물질문화적생활수단이 있어야 한다. 고도로 발전된 물질문화적생활수단을 풍요하게 생산하고 그것을 인민들이 수요에 따라 향유하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없다.

공산주의사회는 바로 경제를 고도로 발전시켜 이 사회의 본성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문화적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인류의 리상사회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사람들이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연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고도로 발전된 물질문화적생활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관계의 유일적지배의 확립에 기초하여 종래의 그 어느 사회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적생산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희망과 요구대로 충족시킬수 있는 거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원칙을 실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사회건설의 필수적조건으로 되는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사업은 단번에 실현될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위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으로 하여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무계급사회일뿐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이다. 물질생활면에서 볼 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져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름으로써 모두가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하고 옹호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며 물질생활면에서까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한 사회이다.

지난날 비교적 녁녁하게 살던 중산층

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회성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지난날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한 중산층들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의식이 로동계급의 사상의식으로 개변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오늘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지난날의 생활수준을 릉가하지 못하는 한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동요하게 된다. 이것은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밖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대분자들이 발붙일수 있는 온상으로 리용될수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의 동요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중산층의 동요성은 오직 그들이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혁명화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잘살게 될 때, 다시말하면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할 때 비로소 완전히 극복될수 있다. 어제날의 중산층이 동요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여나서고 사회주의제도를 고수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될 때 사회주의는 비로소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지난날 비교적 넉넉하게 살던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에 의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남아있는 적대계급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근절하여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의 사회경제적지반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그들의 파괴활동도 계속되게 된다.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그 앞잡이로 되기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면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는 없어지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물질적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은 력사적으로 뿌리깊고 매우 보수적인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좀먹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부르죠아사상독소가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으로, 자본주의를 소생시킬수 있게 하는 온상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적대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될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된다.

이와 같이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완전히 면할수 없다.

착취제도는 청산되였으나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남아있는 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로 될수 없다. 결국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과 적대계급의 준동,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막고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때에만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고하고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에 의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갔으며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여러차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그리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튼튼히 쌓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인 사람들을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인 주체사상이 온 사회에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의 이러한 질적상태는 우리 사회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이 성숙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인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차넘치고 있다. 당과 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튼튼한 담보가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 있다.

우리 인민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완전

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자랑찬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밝히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천명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수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력사적필연성이 심오하게 론증됨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합법칙적로정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지금까지 완전한 해명을 받지 못한채 남아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사소한 편향도 없이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필연성에 관한 리론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필연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자기의 숙망이며 리상인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고무적기치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나아가는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내놓으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발전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로작은 60여성상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한 력사적경험의 일반화이며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그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

박 영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과 관련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과 관련한 독창적인 사상리론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9페지)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착취계급이 청산됨으로써 온갖 사회적불행의 화근인 계급적대립이 없어지게 된다. 착취계급과 계급적대립의 청산은 사회의 계급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착취계급과 계급적대립의 청산은 계급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관계를 영원히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시킨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계급적대립을 없애는것과 함께 계급을 폐절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는 로동계급과 농민이 계급으로서 남아있게 되며 계급적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계급폐절의 력사적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

애기 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하는것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존재하는것은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기때문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농민의 로동계급화가 실현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그것은 또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는 다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기초를 이루는 사회주의적소유이다. 집단주의는 소유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전사회적인 공동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전인민적소유의 단일한 경리에 망라되여 일하게 될 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원만히 구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만 사회발전의 근본요구에 맞게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사상은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해나가는 끝바른 길을 밝혀준 과학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사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농민을 끝까지 사회주의길로 이끌어나가며 사회관계를 개조하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사회화수준을 높여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다그쳐나가며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연적과정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사회에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근거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도를 명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공업보다 약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따라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뒤떨어진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는 극히 부분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농촌기술혁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실현되고 기계화와 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여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고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전제와 조건이 튼튼히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다.

농촌테제에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제시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과업이 밝혀져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험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야말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서 제시된 투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먼저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은 소유관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공동로동과 집단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켜야 그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사회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다.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농촌경리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한편 농촌에서 성인교육사업과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농민들이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뜨락또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여야 하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최신농업과학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농촌에서 전인민적소유의 비중을 더욱 높이면서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전인민적소유에로 지향시킴으로써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해나갈수 있다.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이다.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를 비롯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전인민적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에서 더 큰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관리는 소유관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소유관계의 변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경제관리를 잘하여야 협동적소유를 보호확대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협동농장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그 경제적효과성을 높여 협동적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때 협동적소유의 사회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촉진할수 없다.

오늘 농업협동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이 날로 확대되여가고있는 현실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철저히 계획화하고 조직화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농업지도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

적인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킴으로써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농장들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적지도를 잘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력사적필연성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투쟁과업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에 나서는 사회개조의 중심과업, 다시말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는 길이 뚜렷이 명시되게 되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과 전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그 어떤 편향도 없이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옹호고수되고 새로운 명제들과 정식화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이 과학적으로 명시된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관련한 온갖 그릇된 사상리론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농촌문제를 로동계급의 근본리익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헐뜯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적진보와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리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무계급사회건설의 곧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을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한없이 격동되여있으며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

안 봉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필연성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업들을 밝히시면서 제3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안고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6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투쟁과업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제3차7개년계획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강령적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위대한 설계도이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갔으며 이 기간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여러차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최근년간에 제2차7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한층 더 강화되였다. 제3차7개년계획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강령적과업을 실행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다.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은 특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그에 상응한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물질적기초로 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으며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문제도 구경에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이처럼 큰 의의를 가지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제3차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나라의 자연부원이 더 잘 개발리용되고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건설되여 부문구조가 보다 완비되게 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된다. 그리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기술이 보다 발전된 현대적인 기술로 교체되여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며 생산의 매우 높은 장성속도가 보장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전반적인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지게 될 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이룩되게 된다.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것은 원래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성도 바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문화적 락후성과 함께 기술적락후성이 많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생활을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우자면 경제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새 전망계획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하여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생활

과 직접 련관되여있는 부문들도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알곡과 수산물,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의 생산이 훨씬 늘어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된다.

특히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지금 진행하고있는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대규모의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대상건설이 빨리 끝나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모든 사회성원들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도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 때 남조선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이룩할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발전도상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할수 있다.

우리는 제3차7개년계획수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오늘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와 현실적요구,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기간공업은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생산수단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부

문이다. 기간공업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원료와 연료, 동력과 기계수단들이 생산보장되게 된다. 기간공업부문 생산능력의 크기는 기간공업부문자체의 생산규모에 작용할뿐아니라 다른 공업부문들의 생산능력의 크기와 생산의 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제3차7개년계획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더욱 늘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한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한 목표들을 실현할수 있으며 이 목표들을 달성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적생산을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할것을 예견한 계획이다. 이 계획을 수행하는데는 방대한 규모의 원료, 자재가 소비되고 많은 로력이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복잡하게 맺어져있는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생산공정들 사이의 기술경제적, 생산소비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릴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고 보다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과학화, 합리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잘 수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1987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해이며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전투를 벌리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해이다. 어떤 일에서나 시작을 잘 떼는것이 중요한것처럼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첫해의 전투를 잘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잘 수행하여야 제3차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1987년 인민경제계획의 중심과업은 연료, 동력 공업과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늘이고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석탄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들에 설비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대주고 막장작업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며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광산들에 힘을 집중하며 지질탐사와 굴진, 갱건설을 앞세워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모든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새 발전소들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발전능력을 빨리 늘여야 한다.

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철강재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우리는 금속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흑색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적극 실현하고 모든 제철소, 제강소들에서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수송수요를 잘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운수수단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요인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극복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실행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에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이 빛나게 구현되여있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완성을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며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으로 일해야 한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시위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제3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할것이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기본요구

장 인 석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이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해서만 훌륭히 건설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과 국가의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는 인민정권기관들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관점과 태도가 가장 정확히 밝혀져있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기본요구가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3페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다 사람을 위해 복무할 때만이 존재가치를 가진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복무하게 할데 대한 사상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과 그의 당과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활동원칙을 세울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에게 리롭게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중로선의 이 요구는 바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것을 구현한것이다.

이처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숭고한 리념과 혁명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또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사명에 맞는 활동방식이다.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아래에서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고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이러한 사명을 다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속에서 나왔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혁명하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에게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며 바로 인민의 충복이 되는 여기에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는 길이 있는것이다.

이처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정권일군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늘에 이르는 60여성상을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한 평생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기나긴 나날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혁명앞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대중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시여 난국을 뚫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말속에서 인민의 념원과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깨뚫어보시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로정은 참으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숭고한 력사이며 그것은 곧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혁명의 년대를 헤쳐오신 오늘도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구상을 꽃피우려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새로운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열의는 매우 높으며 온 나라는 창조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것을 바라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에게 더욱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우리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이 누구보다 높아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여있다. 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경제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행정경제일군들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당과 국가 앞에서 인민생활을 책임지고있는 행정경제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는것이 중요하다.

행정경제기관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호주이다. 관료는 봉건사회에서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 일군은 인민대중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인민이 요구하는 충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나라의 모든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게 되여있다. 또한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자면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야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주인이고 일군들자신은 그에게 복무하고 의거해야 한다는 립장, 바로 인민대중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관점이 확고할 때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는것이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속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경제일군들은 사업대상이 생산현장인것만큼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기술과 자재, 설비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보살펴주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는 물론 자신이 덥고 배부를 때에도 인민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인민을 위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자면 명령, 지시, 독촉으로 모든 사업을 대치하는 낡은 사업방법을 버리고 혁명적군중관점

에 기초한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특히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이피탈저피탈하면서 일하는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높은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일군들은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특혜와 특권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특혜와 특권을 바라면 벌써 인민우에 군림하게 되고 대중이 좋아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게 된다. 세도를 쓰며 특혜와 특전을 바라는것은 인민의 충복의 자세가 아니며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우에 군림하면서 세도를 쓸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복무하겠는가 하는데 머리를 쓰고 바로 그 길에서 자기 사업의 보람을 찾고 기쁨을 느껴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에 규정된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정책을 집행하는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얼마나 옹호하고 존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의 의사에 배치되게 일한다면 대중의 신망을 받을수 없게 되며 따라서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가장 중요한 혁명준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민의 리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시고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으며 묘향산에 백금이 묻혀있어도 인민들의 문화휴식과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설계하고 작전하여야 하며 인민의 생명재산과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에 규정된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해나가게 하여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군중로선의 기본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로부터 그들의 교육과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행정경제

기관들과 일군들의 본신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가 높아지는것은 합법칙적현상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도 증대되게 된다. 근로자들은 이미 누리고있는 생활정도에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러있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은 당의 옳바른 시책과 배려에 의하여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부문 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도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여러차례에 걸친 강령적교시들에서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고기와 알, 기름 생산을 높이며 더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공업혁명과 함께 봉사혁명을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요구대로 봉사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봉사망을 도처에 꾸리고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거리와 마을을 더욱 흥성거리게 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크고작은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도처에 많이 내오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식료품과 편의봉사의 질을 한계단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반드시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 있으며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신심이 생기고 신심을 가지면 그것을 해제낄 묘술과 방도가 나오기마련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그 어디서나 인민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수 있다.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영예롭고도 숭고한 사업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림 동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을뿐아니라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현시기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와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당면한 대책으로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구국방안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는 하루빨리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0폐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에는 정치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에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 등 당면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과 군사분야에서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긴장완화조치들이 협의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방안에는 또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스위스, 스웨리예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과 남의 고위당국자들과 함께 군사실권자들이 참가하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과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협의할데대하여 명시하신 이 새로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국대책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이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이 제안이 북과 남사이에 쌓인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풀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격화의 매듭을 풀수 있는 열쇠로 되기때문이다.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조선반도의 긴장은 주로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서 오고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강토이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 팽배하게 맞서있는데서 서로 반목대결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화해와 단결의 기초는 리해이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은 오늘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으로서 먼저 풀어야 할 초미의 절박한 과제로 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선결적이며 규제적인 본질적문제이다. 일을 순서에 따라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도 선결적이며 규제적인 본질적문제인 정치군사적대결상태부터 해소하여야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단합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순조롭게 진척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그 어떤 긍정적조치도 무익하다. 단결과 평화를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지속되고 날을 따라 그것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대결과 전쟁로선을 계속 추구해나서고있는데 기인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반공국시》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반공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은 전례없는 엄중한 국면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을 범죄시하여 그를 체포구금하고 그것을 계기로 《반공국시》를 내흔들며 민족적단결을 가로막고 국토를 북과 남의 정치적대결의 무대로 전변시키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저들의 최대의 정치는 남북대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것이라면 평화방안이건 통일방안이건 덮어놓고 반대하여나설뿐아니라 황당하게도 《적화통일》이니, 《위장평화공세》니 하는 거짓을 날조하여 우리를 비방중상하여 민족내부에 적대감을 조성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지어 우리가 1988년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남침할 계획》을 짜놓고있다느니, 우리의 평화적인 금강산발전소 건설이 《수공작전》을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걸고들어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그들은 그 무슨 《대응땜》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모금운동》을 벌리는 광대극을 연출할뿐아니라 우리의 금강산발전소 건설을 시비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국제기구와 제3국의 언론을 《발동》하는 비렬한놀음까지 벌리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국시》의 간판아래 온 남녘땅을 항시적으로 비상계엄상태에 몰아넣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요구하여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군사적대결상태도 참을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최신식살륙무기로 장비된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100만명의 괴뢰군이 일상적으로 출동태세를 갖추고있으며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도처에 배치해놓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온 남녘땅을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핵저장고로 만들고도 부족하여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세계도처에서 배격을 받고있는 살인무기로 악명높은 중성자탄까지 끌어들였다. 미제의 지휘밑에 새해벽두부터 《림전태세》완비를 떠들어대는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요즘에 와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개적으로 제창하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전쟁연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 방대한 전투병력과 대량살륙수단들을 동원하여 해마다 벌리고있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시험전쟁이라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사

실상 날로 강화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이 모든 험악한 사태는 우리 인민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만일 북과 남사이의 이러한 대치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쌍방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결국은 조선땅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십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져 우리 인민과 인류에게 돌이킬수 없는 핵참화를 입히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난 1950년대에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의 참화를 직접 체험한 조선인민은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박두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대화와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실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며 해결을 절실히 기다리는 초미의 당면과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불신과 오해와 긴장은 무엇보다 정치군사적대결로부터 생긴것만큼 이 문제를 푸는것은 쌍방의 정치군사실권자들이 참가하는 협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맺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되며 대결의 현 국면을 완화의 국면으로 바꿀수 있는 열쇠로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이 조선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이 제안이 회담방식에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인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쌍방이 진지하게 협의하고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적중한 협상무대를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원래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마주앉아 풀어야 한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이미전에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것을 발기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제기하였다. 3자회담이 실현되면 의심할바없이 조선반도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는 우리의 3자회담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문제를 우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수 있는데까지 해결할 일념으로 북남국회회담제안을 내놓았으나 국회회담도 성사되지 못하고있다. 모처럼 마련되였던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미제와 함께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중단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있을수 없으며 더우기 남에게 평화를 구걸하면서 앉아있을수 없다. 우리는 이런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해 6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나 이 회담 역시 미국과 남조선측의 부당한 태도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전협정의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한 초보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과 같은 실무적인 회담들도 진행하여보았지만 이런 회담들은 그 성격상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를 다룰수 있게 되여있지 않다. 결국 현 시점에서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협의해결할수 있는 회담방식은 오로지 이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군사실권자들의 회담이다.

현실적으로 북과 남의 정치군사실권자들은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과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나아가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 회피할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있는 당사자들이다. 모든 사업에는 주어진 해당한 몫이 있고 권한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정치군사적으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서 정치군사실권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그 몫을 감당해줄수 없으며 권한을 바로 행사할수 없다.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회담형식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고 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현실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찾아볼수 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 해결하려는것은 높은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문제들이다. 사실상 우리 민족앞에는 조선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불안정한 조선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련방국가를 세워야 할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에로 가는 길에는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민족의 리익과 잇닿아있고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들인것만큼 그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당장에는 해결할수 없는 형편에서 우리는 긴급하면서도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되고 기어이 풀어야 할 최소한의 당면문제, 북에나 남에나 다같이 리해관계가 있는 초보적인 완화문제를 해결할것을 제기하고있는것이다. 사실상 이 문제들로 말하면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의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 문제이며 쌍방이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있는 문제들이다. 우리의 새 제안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려고 하지 않을뿐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에 넣고있다. 우리는 정치군사정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남조선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아량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평화발기에는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다. 도리여 이 회담제안이 실현되면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기존대화의 재개》나 《최고책임자회담》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게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회담의 성격으로 보나 협의해결할 문제의 내용으로 보나 공정성으로 보나 더없이 정당하고 합리적인것이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이 현 시점에서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국방안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은 조선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내놓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격화되고있는 나라의 정세와 북남관계를 타개할수 있는 실천적문제를 일정에 제기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명시함으로써 완화와 평화의 밝은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게 한다. 이 회담에서 북남사이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를 토의해결한다면 북과 남의 제도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 겨레

는 서로 정치적으로 대결하지 않고 민족적화목과 단합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무력축소와 군비경쟁의 중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큰 규모의 군사연습의 중지와 같은 문제를 협의해결한다면 서로 군사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누가 먹고 먹히우는 일도 없게 될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는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군사적충돌들을 방지할수 있게 할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실현되여 정치군사분야에서 대결상태가 해소될 때 전반적인 대화의 분위기도 유리하게 조성될수 있을것이다. 북남대화는 오직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여야 순조롭게 진척될수 있고 대화자체가 정치군사분야의 대결에 악용되는것도 막을수 있다. 단결과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면 중단상태에 있는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 국회회담과 같은 여러 분야의 회담들이 다시 열리고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에 맞게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훌륭히 토의해결할수 있게 될것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통하여 조성된 정치적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면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3자회담의 실현도 촉진되게 될것이다.

우리의 새 평화제안의 실현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마련되고 성과적으로 진척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풀리게 되면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이 미제의 대조선전략과 세계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있고 남조선에 배비된 각종 핵무기들이 우리 나라와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을 겨냥하고있는것만큼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방지는 곧 세계대전의 방지로 된다. 이것은 조선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이 바로 아세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북과 남, 어느 한쪽의 편에서 국가들호상간에 서로 불신하고 오해를 가지게 하는 현상도 극복되게 될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새 제안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평화애호인민들과 각국의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속에서 더욱더 큰 지지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전례없는 대결,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과학적방도를 밝힌 획기적인 평화방안, 통일촉진방안으로서 대결과 전쟁 로선에 대한 단결과 평화 로선의 선언으로, 대화부정, 통일부정 책동에 대한 대화촉진, 통일촉진지향의 일대 시위로 된다.

조국통일의 력사우에 또하나의 빛나는 자욱을 새기고있는 이번의 새로운 구국방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확고부동한 철의 의지와 불면불휴의 노력의 귀중한 결실로 된다. 사실상 남조선당국자들이 무너져가는 식민지파쑈통치체제와 내부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제의 부추김밑에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때에 그 모든것을 참고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신뢰와 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할 새로운 평화받기를 내놓은것은 민족적인 아량과 포옹력, 비할바없이 넓은 도량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모든것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특기할 대담한 구국조치이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의 념원과 시대의 지향에 배치되게 우리의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부당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그들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이 남조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더우기 사리에도 맞지 않는 《기존대화의 재개》나 《최고책임자회담》을 되풀이하는것으로써 우리의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의 실현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속에 칼을 품고있으면서 경제 합작과 교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줄 회담을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행한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대화들이 일시에 중단된 사실은 그것을 확증해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를 부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대결과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기존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것은 순전히 여론효과만을 노린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는 력사적인 협상마당으로 되여야 하는것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대화는 어느 누가 말로 외운다고 하여 되는것이 아니다. 대화는 사리에 맞고 명분이 서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사리에 맞고 명분이 똑똑한 우리의 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의에 대하여서는 외면하면서 리치에도 맞지 않고 분수에도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회담문제를 들고나오고 엉뚱하게 금강산발전소 건설문제까지 협의하자고 해서야 누구의 환영을 받을수 있겠는가. 억지주장으로 내외여론앞에서 수세를 모면하며 남조선의 불안정한 정치정세를 수습해보려는것은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전두환일당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을 회피하면서 비현실적인 회담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은 그들에게 대화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줄뿐이다.

지금은 말로만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외울 때가 아니며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공대결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우리의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평화발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끝장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평화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의 촉진이 절박한것만큼 남조선통치배들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제의를 받아들이는것을 외면한다고 하여도 그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의 힘은 불패이며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 사상리론적내용의 위대성과 진리성,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론문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위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고 주체사상을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승리할 불멸의 지도사상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한 불후의 기념비적문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문헌에 담겨진 귀중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자신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투철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고전적문헌이다.

론문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한데 있다.

혁명의 수령이 내놓은 사상리론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전진하는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후계자의 사상리론활동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에서 주체사상이 정연한 사상리론체계를 갖춘 참다운 지도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고 독창적인 원리와 명제, 심오한 정식화들로 주체사상의 내용을 발전풍부화시키는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구성부분으로 하고있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다. 주체사상의 이 구성부분들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사명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론문은 주체사상이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를 가진 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그 론리적체계성과 내적정연성을 심오하게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을 귀중한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한것은 력사적론문이 이룩한 위대한 공헌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새롭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심으로써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키시였다.

론문에서 천명된 중요한 창조적사상의 하나는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그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으로 된다는것을 밝힌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9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가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철학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관을 밝히는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론문은 주체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것을 깊이있게 천명하였다.

론문에서는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이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이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것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론문에 의하여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 심화발전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은 또한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체계화하고 그 근본원리들을 새롭게 정식화함으로써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운동인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주어졌으며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주어졌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이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다.

론문에 의하여 혁명운동의 지도적원칙의 본질과 그 내용이 심오하게 밝혀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창조성을 발전시키며 의식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또한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과학성, 심오성과 혁명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뚜렷이 하고 혁명발전에서 노는 그 거대한 변혁적역할을 심오히 론증하시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을 안겨주고있다.

론문이 발표된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특히 전체 인민들속에서 당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졌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다.

론문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비상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20세기 80년대에 나온 공산당선언》,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높이 칭송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경모하여마지않고있다.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대대적으로 번역출판되고있으며 세계의 수백종의 출판물들에 그 내용이 널리 소개되고있

다. 이것은 론문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에게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주는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 사상리론의 높이와 폭 그리고 심오성과 독창성 그리고 생활력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문헌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참으로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세기적변혁과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더 빨리, 더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류례없이 거창한 전투적강령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리정표로 되는 웅대한 전투적 과업을 매우 복잡한 정세하에서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박차고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3페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오늘 주체의 신념을 확고히 지니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비상히 방대하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힘있게 앞당기며 당면한 제3차7개년계획의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심원한 원리를 깊이 체득하는데 모를 박고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사상리론의 심오성과 다방면성은 그 진리성과 위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거기에는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심오한 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본교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학습을 체계적으로 깊이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고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들과 력사적경험들이 빛나게 총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그리고 우리 당정책들은 철저히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

작들과 당문헌,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여 그에 정통하여야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그 고귀한 경험을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은 그와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도 우리의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온 사회에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기풍과 주체의 신념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 굴종사상이며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깔보는 낡은 사상으로서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위험한 사상이다.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고 제 정신이 없이 남만 쳐다보면서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된다.

사대주의병에 걸리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는 교조주의병에 걸리기마련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며 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는 지난날 우리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주체를 확립하고 주체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자본주의와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사상과 주체혁명위업의 순결성파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자신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의 혁명적신념이 투철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의도적으로 짜고들어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이다.

우리 식이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말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혁명적립장으로 교양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실천투쟁속에서 주체적신념을 더욱 튼튼히 간직하게 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고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것을 제 정신을 가지고 대하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보며 창조적열의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의 결정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제 정신이 투철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일군이다. 주체적신념이 부족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수 없으며 자그마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겁을 집어먹고 주저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제 정신을 가지고 대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이 창조하고 생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 위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다운 기풍과 립장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과 립장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모든 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더 많이 생산하며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수하기 위하여 분초를 아끼가며 투쟁하는 사람이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성이 높고 당에 충실한 일군으로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며 어떤 난관과 애로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적군중관점을 확고히 지니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 사업 방법과 기풍을 체득하도록 그들을 교양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군중을 존중하고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며 군중의 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사업을 벌려나가는 사업 방법과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심장으로 느끼고 그것을 주체적신념으로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자신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

박 승 덕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옳바른 기초를 이루고있는 참다운 세계관이다. 주체시대의 전진운동과 더불어 혁명적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 위력은 날로 커지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창조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실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 혁명리론의 확고부동한 세계관적초석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라는것은 그것이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옳바른 세계관은 사람의 리해관계를 표현한 사상과 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반영한 리론을 담고있으며 사물을 다루는 방법론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리익을 담은 혁명사상과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밝혀진 자연과 사회의 보편적합법칙성에 관한 과학적리론을 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옳바른 방법론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로서의 주체사상을 특징짓고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사상적기초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혁명리론을 전개하기 위한 옳바른 기초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다는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력사적시대를 대표하려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있는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심오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과 근본리익을 반영한 사상을 담은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할때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사회발전과정에 혁명적작용을 노는 불패의 기치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력사적숙망과 근본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과 절절한 지향, 고상한 리상과 숭고한 목적,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과 혁명적신념이 주체의 세계관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만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시대의 참다운 지도리론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사상적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이르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조류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리익을 구현하려면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반영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이 자주성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이 사람의 근본요구라는 새로운 리해를 확립하였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세기적숙망과 절절한 념원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과학적세계관으로 전화되였다. 주체의 세계관에서는 자주적요구, 사람의 리익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전반체계에 걸쳐 인민대중의 자주적리해관계가 원리적으로 일반화되여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력사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원천을 두고 사상을 전개하는 주체의 세계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세계와 사회력사적과정을 보는 관점과 립장을 밝히고 그것을 로동계급의 세계관의 중요한 구성내용으로 되게 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의 자주적리해관계를 척도로 하여 모든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계관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으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할때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된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으며 그들의 자주적리익을 참답게 옹호하는 가장 가치있는 리론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사상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주체시대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질곡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그들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해방하는 과업이 력사의 일정에 오르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려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망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는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 목적과 리상을 두고있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할 때에 해결된다.

주체사상은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에 의하여 대표되는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맞게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목적과 리상으로 내세우고있는 새로운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사회적인간의 종국적목적이며 최고리상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는것을 자기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는 세계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바로 이러한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할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성격과 특징을 가지게 되며 혁명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투쟁의 밝은 전망과 빛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혁명리론으로 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의 세계관을 사상적기초로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까지의 모든 혁명투쟁단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심오한 해답을 주는 리론, 다시말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의 세계관에 사상적기초를 둠으로써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리론, 다시말하여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리론적기초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리론들을 새롭게 밝힐수 있게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7～78폐지)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에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고 담보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을 떠나서는 사회력사발전과정과 혁명투쟁에 대한 심오한 리해를 가질수 없게 되였다.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 시대는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략전술을 밝힐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전개하려면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리,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원리를 주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시한 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그리고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 원리인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를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 원리를 혁명운동에 적용하고 구체화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이러한 주체의 세계관에 리론적기초를 둘 때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에 맞는 리론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리론적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주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된 주체시대에 와서 주체적요인의 의의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졌다. 이것은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 주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요인, 주체를 기본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주체적요인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론체계를 세우려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에 대한 리해를 주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에 기본을 두고 사회적운동과 인류력사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리론적기초를 두어야 혁명의 주체에 기본을 두고 혁명의 원인과 필연성, 본질과 성격, 혁명발전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게 된다.

주체사상은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는데로부터 사회적운동이 본질에 있어서 주체의 운동이라는 독창적인 리해를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를 확립하였다. 사회적운동은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며 주체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본래의 의미에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법칙은 사회와 자연의 근본차이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의 운동법칙이다. 사회에서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도 주체의 활동을 통해서만 사회발전에 작용하고 실현된다. 따라서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의 합법칙성이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대표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독창적해명을 주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가 운동발전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에 대한 독창적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를 기본으로 하여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해명할수 있는 확고한 리론적기초를 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리론적기초를 둔것으로 하여 혁명이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며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준비에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주체사상에 리론적기초를 둔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이 혁명발전의 필연적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객관적요인, 물질적요인에 비하여 주체적요인,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것이 심오하게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리론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발전시켜나가는 합법칙성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주체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은 비상히 넓어졌으며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있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 문제는 주체시대의 중대한 세계관적문제로 나섰으며 그에 대한 옳바른 해결에 기초하여야 사회발전과정과 혁명투쟁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석을 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 문제를 세계관적문제로 전면에 제기하고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인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지배되고 개조발전된다는것을 세계관적견지에서 밝혀준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객관적인 사물을 변형하고 새로운 대상을 창조함으로써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발전시켜나간다. 세계의 개조발전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힘에 원천을 두고 이루어진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령역과 보다 높은 운동형태, 복잡한 운동과정이 사람의 조절통제밑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세계의 개조발전은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으로 하여금 혁명운동을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그 법칙을 해명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쌓아놓았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을 리론적기초로 함으로써 혁명운동을 주체인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을 자주적으로 지배하고 창조적으로 개조발전시켜나가는 필연적과정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관통하고있는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혔다. 주체사상을 리론적기초로 한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특히 인민대중의 자주적활동의 매우 높은 단계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의식적 운동인 공산주의운동의 원리와 합법

칙성, 전략전술이 새롭게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신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모범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력사적지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와 중요과업,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거쳐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이 독창적으로 밝혀지게 된것은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리론적기초인 주체사상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된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사상적, 리론적 기초일뿐아니라 방법론적 기초이다.

혁명리론의 방법론적기초로서의 주체사상의 기능과 역할은 그 사상적, 리론적 기초에 근원을 두고있다.

주체사상을 혁명리론의 방법론적기초로 삼는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처리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는것은 주체시대의 요구이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가 시대의 근본요구로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력사발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확립되려면 사람중심의 보편적방법론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방법론적기초를 두어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원리와 합법칙성, 전략전술을 전개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방법론적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적원칙을 밝혀주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들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력사가 개척되여나가는 주체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적원칙을 확립하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원칙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데 기초를 두고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적원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공정으로 삼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체의 방법론적원칙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에 기초하여 혁명이 발전해나가는 원리와 합법칙성을 해명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전술을 세우게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방법론적기초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과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혁명발전단계가 규정되고 혁명의 상승적발전과 승리가 이룩되여나

가는 원리와 합법칙성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을 방법론적기초로 한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반혁명을 타승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방법론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방법론적원칙을 밝혀주기때문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가 높은 경지에 이른 주체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모든것을 그들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방법론적원칙을 내세웠다.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원칙은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사람의 리익보다 더 높은 리익이 세상에 없다는데로부터 흘러나온다.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방법론적원칙은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며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킬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리론으로 되려면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론적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방법론적기초를 둠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게 하는 리론으로 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방법론적기초로 한 주체혁명리론에 의하여 혁명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석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되였으며 기술혁명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라는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세계관적기초로서의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주체혁명리론의 발전과정과 우리 시대 혁명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였다.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삼고 그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는것은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강 정 석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을 옳게 해명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게 할수 있다.

지난날 사람의 운명문제는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관심사로 되여 이러저러하게 론의되여왔으나 그 본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운명에 대한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견해가 지배하게 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운명은 《신》에 의하여 미리 정해졌기때문에 자기 처지를 개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신》의 의사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주어진 운명에 노예적으로 순종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타고난 《팔자》라고 하면서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부질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한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던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을 운명에 대한 온갖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편견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에 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을 《신》에 귀착시킨 종교적관념론을 타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운명에 대한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를 종국적으로 분쇄하고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하였다.

* *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거치게 되는 일정한 생존상태, 생활처지 그리고 그 변화발전과정이다.

운명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그것은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고있다. 그 어떤 사물현상이나 력사적사실을 놓고 운명이라는 개념을 쓸 때에는 흔히 그 전도, 결말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례를 들면 혁명의 운명, 전쟁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그러한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사람의 운명이란 말그대로 사람의 생활처지와 그 운동변화를 말한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생명활동을 벌린다.

사람의 생명활동은 사람이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생활해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생존상태, 생활처지에 놓이게 되며 그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사람의 생활이 흥하기도 하고 쇠퇴몰락하는 방향으로 변할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존상태, 생활처지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처럼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처하게 되는 생존상태, 생활처지와 그 변화발전과정을 통털어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운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다. 사람은 현재처지뿐아니라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것인가,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해결된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단순히 생명유기체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오직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는것을 밝히였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0페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사존망, 전도와 관련된것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의 생사존망, 전도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가 하는 문제와 잇닿아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생명은 자주성과 관련되여있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육체적생명은 생물유기체일반이 가지는 생명으로서 사람과 생명물질과의 공통성을 특징지을뿐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규정짓지는 못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규정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인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와 집단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와 집단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자기의 인생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면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

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게 되며 사회적존재로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는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문제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것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오랜 세월 갈망하여온 세기적인 념원이다. 사람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여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참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때 우선 사람이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것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자유를 누리려는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을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39페지)

자유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으며 그것은 자주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성은 주로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 자주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유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이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상태, 자주성이 실현된 상태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주위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살며 활동하려고 한다. 자주적으로 살며 활동하려는 이러한 요구와 지향이 현실화된것이 자유이다.

사람이 어떤 예속과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여야 사회적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리면서 전도양양하게 살아나간다고 말할수 있다. 만일 사람이 자유로운 처지에 있지 못하고 온갖 예속과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주위세계에 얽매여사는 동물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람이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람의 운명개척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하는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가 하는것과 함께 평등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것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고수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등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지난 시기 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철학에서 이러저러하게 론의되여왔다.

지나온 력사를 놓고볼 때 부르죠아지들처럼 《평등》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든 계급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드는 부르죠아적평등이란 자본가들에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할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있다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소부르죠아사상가들은 평등에 관한 부르죠아적개념을 넘어 그것을 재산관계분야에서의 사람들의 소유와 생산물의 분배에서의 균등화에 관한 요구로 보충하려고 시도하였다.

선행로동계급의 철학은 평등에 대한 이러한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견해를 폭로분쇄하면서 평등을 계급페절로 보았다. 선행로동계급의 철학은 평등을 계급페절과 련결시켜 고찰하면서 사회경제관계를 중심에 놓고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평등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주체사상이 밝힌 평등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주적 요구와 지향이 현실화된것이 다름아닌 평등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며 활동하려는 사람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은 객관적대상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며 활동하려는 사람의 자주적 요구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누리려는 요구로 나타나고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정치생활, 경제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누리려는 요구로 나타나며 자기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온갖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고 모든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려는 요구로 나타난다.

이처럼 평등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며 활동하려는 사람의 요구가 실현된것이다.

사람의 완전한 평등은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여야 보장된다. 여러가지 형태의 예속과 구속이 있고 자주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한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온갖 형태의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주성이 모든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누리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그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이 온갖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누리기 위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사람이 평등한 처지에 있는가 있지 못한가 하는 사람의 운명개척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말하는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굽임없이 전개되여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운명문제의 본질이 해명된것은 운명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운명개척에 관한 리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될수 있었다는데 있다.

사람의 운명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개척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운명개척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정확히 해명하여야 사람들은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운명개척의 합법칙성은 운명개척활동의 근본원인과 근본방향, 운명개척의 합법칙적과정과 그 특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며 이것은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본질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람의 자주성,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그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며 사람의 자주성이 점차적으로 옹호되고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가 끝없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되는데 따라 세계의 지배령역이 더 폭넓고 심도있게 개척되며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이 상승선을 따라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합법칙성이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의 운명개척에 관한 리론은 신비주의적이며 숙명론적인 편견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나 과학리론적기초를 가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또한 운명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인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문제가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이 운명에 대한 온갖 종교적, 관념론적 편견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인류의 진보적인 사상리론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람의 운명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 때로부터 멀리 전진하여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

조 세 웅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이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징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특징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정식화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을 깊이 인식하는것은 이 운동을 당의 의도대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밀고나가는것이며 그가운데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과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밀고나가는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가운데서 사상혁명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야만 인간개조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는 대중적운동으로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상혁명을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이 운동의 사명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사람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주인이다. 사람들을 모두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

들어야 자연개조, 사회개조 사업도 다그쳐 주체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그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을 없애고 주체사상만이 온몸에 꽉 들어차게 하여나가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의 머리속에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할수 있다. 바로 사상혁명과정에 모든 사회성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는 새형의 인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며 이에 따라 그들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보다 세차게 타오르게 된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사상혁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며 이 운동이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당의 중요한 령도방법인 대중운동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보다 높은 형태에로 심화발전되게 된다. 이것은 대중운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그 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찾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왔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인간개조, 사상개조에서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제반 민주개혁이 수행된 직후에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 조국 건설에 몸바치는 건국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것이였다.

사회주의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이후시기에 일어난 천리마운동과 그 심화발전된 형태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이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뒤떨어진 사람은 선진분자로, 소극분자는 적극분자로 만들기 위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마디로 말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인 과업 즉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를 뿌리빼고 그들을 서로 돕고 이끌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과업이 인간개조의 당면한 목표로 나섰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을 투쟁목적으로 삼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난날의 대중운동보다 더 높은 인간개조의 목표,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매우 높은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진 기초우에서 일어난 운동으로서 이 운동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을 온몸에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끈다. 특히 이 운동에서는 인간개조사업의 기준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을 끝까지 따르는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두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는 또한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속에서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확립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을 철저히 갖추도록 한다.

이렇듯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금까지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 인간개조면에서 매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하게 인간개조를 완성하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대중의 지향과 준비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일어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첫 봉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심화발전되여왔으며 이 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개조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주체의 혁명적수령관, 혁명적세계관이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일심단결하여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신념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려는것이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혁명적의지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일어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전변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위대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당이 제시한 웅대한 경제건설과업수행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이룩되고있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불타는 강도 건느고 험한 진펄길도 헤쳐나가는 불굴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리의 날바다를 막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해갑문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심장깊이에 간직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 일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일대 전변을 가져오게 한데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일찌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과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를 여러차례 찾아주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령도밑에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 결과 이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3대혁명기수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이 심화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으며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가 없어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해제끼는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업태도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그들사이에서는 집단주의와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품성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특히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그들은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숨을 쉬여도 당과 같이 숨을 쉬고 걸음을 걸어도 당과 같이 걸음을 걸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고있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

혁명과업들이 칠저히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고있으며 이것은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대한 생활력과 불패의 위력의 과시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야말로 사람들의 사상개조의 위력한 무기이며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우리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고 발휘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가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는 현시기 당조직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여기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의의,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 등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문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보다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혁명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며 동시에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경제건설계획, 제3차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보람찬 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자가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계급적립장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최 상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는 현실은 당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8페지)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철저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자는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는 견결한 혁명가이다. 공산주의자의 삶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바쳐나가는것은 중요하게 그들이 투철한 계급적립장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과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강의한 혁명정신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룬다. 영원히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의 삶은 영생하는것이며 그들의 풍모는 만사람들이 따라배우는 본보기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적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확고히 담보해주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의 하나이다.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은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판단하며 처리해나가는 혁명적인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온갖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과 구속을 없애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견결한 립장이다.

로동계급적립장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복잡한 계급투쟁과정에 원쑤와 자기 편을 옳게 갈라보고 계급적원쑤들과는 비타협적으로 투

쟁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데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계급적립장으로 얼마나 철저히 무장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은 복잡한 계급투쟁에서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견지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게 된다.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할 때에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공산주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모든 문제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게 되지만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없으며 정세가 변하는데 따라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계급적립장이 확고해야 혁명의 최후승리를 믿고 사소한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일생동안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적립장으로 무장하는것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의 계급적립장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한데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나서는 공산주의자의 견결한 계급적립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으로서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처지에 대한 자각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지향이 담겨져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것을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야 계급적립장이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는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는 높은 계급의식은 중요하게는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더욱 공고한것으로 된다.

계급교양은 사람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키워준다. 그것은 또한 혁명의 길은 간고하지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체득시킴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굳은 각오를 안겨준다. 그러므로 계급교양을 강화하면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해 견결히 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새세대들이 자라나 혁명의 주인으로 되게 된다. 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가야 할 새세대들은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한 생활

만을 누리면서 고스란히 자라났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악랄성을 잘 모를뿐아니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지 못할수 있다. 이러한 새세대들을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직접 체험하면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처럼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방도는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있다.

지난날에 있은 력사적사실과 결부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과 지주, 자본가들의 흡혈귀적인 착취적만행을 깊이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심화시켜나가면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도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되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직할 각오를 굳게 간직하게 된다. 또한 혁명의 원리교양과 함께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들을 마련하여온 력사적과정을 설득력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사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면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도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을 지닌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적립장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위업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혁명은 지금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업은 계급적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수행해야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그러므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으로 무장시켜야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진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휩싸여있으며 그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최근에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전략적 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급격히 증강하였으며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는 남조선에 《랜스》미싸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핵운반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대규모의 핵저장고들을 새로 건설하고있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은 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대대적으로 벌리고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전후방을 항시적인 동원상태에 두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급교양사업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처리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앞날에 대한 굳은 확신에 넘쳐 혁명가답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는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혁명의 내외환경이 복잡하고 계급적원쑤들과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중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근본표징은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지니고있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적원칙성과 강의한 의지를 비롯하여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고결한 품성들은 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소유하여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무장될 때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원리를 옳게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알고 필승의 신념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제국주의와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져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로동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들이다. 놈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며 오늘도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민족분렬의 불행을 겪고있을뿐아니라 온 겨레의 생사운명이 경각에 이르고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사실과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과 만행을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며 오늘 놈들이 벌리고있는 침략과 열핵전쟁도발책동, 반공화국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철천지원쑤인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도당들과 놈들의 썩어빠진 반인민적통치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온 사회에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되여있고 놈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를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온갖 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을 류포시키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힐수 없으며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도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자본주의, 수정주의 사상조류들과 썩어빠진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사상문화분야에서 첨예한 계급투쟁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며 모두가 다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전투적으로 생활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전쟁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것은 계급교양에서 언제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전쟁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 문제는 특히 오늘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이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속에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놈들이 우리의 위력을 오산하고 침략전쟁을 끝내 도발한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싸워 승리하여야 한다는 각오와 립장을 더욱 튼튼히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을 지닌 견결한 공산주의자는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할뿐아니라 자기 조국과 인민, 혁명의 전취물들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로 하여금 언제나 견결한 로동계급적 립장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

박 태 준

사람들이 어떤 활동방식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활동방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활동의 성격과 모습을 특징짓는 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의 활동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의하여 그들의 활동방식이 달라진다. 활동방식이 다르면 사람들의 풍모와 행동의 성격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건전한 사고방식과 함께 옳은 활동방식을 가져야 사회생활, 공동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값있게 살아갈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사회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의 활동방식이 노는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 공산주의자들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집단주의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9페지)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이다.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이라는것은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원칙과 방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적행동원칙은 사회적집단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 집단성원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정신을 담고있다. 그것은 집단의 리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리익만을 절대화하거나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고 집단의 리익만을 절대화하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인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면서 집단의 개별적성원들의 리익도 철저히 보장하는 행동원칙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을 잡기전이나 주권을 잡은 다음이나 할것없이 언제나 집단주의적원칙에서 살며 이 과정에 자기의 개성도 발전시켜나간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활동하는데 습관되여있으며 집단주의는 그들의 활동방식으로 굳어져있다.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옳바른 활동방식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세워져야 옳바른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활동이 그들의 본질적속성의 발현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사물의 속성의 발현이며 따라서 사물의 속성이 다르면 그의 운동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그자체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고유한 활동방식을 가진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것을 자기의 창조

적힘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요구이며 그들의 창조적힘은 사회적집단의 힘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힘은 오직 집단생활, 공동생활 과정에서만 형성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들이 리용하는 물질문화적수단들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한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서로 힘을 합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개별적존재로서는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창조적로동으로 필요한 물질문화적수단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이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오직 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빛내일수 있으며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것은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이 원래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가장 옳바른 활동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사회적인간인것으로 하여 마땅히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활동방식으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있다.

더우기 집단주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 로동계급은 유기적으로 련결된 생산공정들의 전일적체계를 가진 현대적공장들에서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느 계급보다도 집단의 리익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을 지니고있다. 때문에 로동계급은 가장 집단주의적인 계급으로 되며 그들의 단결된 힘, 공동행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강유력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집단주의를 자기의 활동방식으로 삼는것은 매우 자연스러운것이다.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에 맞는 활동방식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초에 맞게 세워져야 옳바른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활동방식이 다름아닌 그들의 사회생활을 위한것이며 그에 복무하는것이기때문이다.

매 사회에는 그 사회에 고유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있다. 사회생활의 기초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활동의 출발점을 이루는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범을 말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개인의 리익과 사회적리익이 일치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것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만큼 사회의 공동재부가 늘어날수록 근로자들의 복리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며 사회전체, 집단전체가 빨리 발전할수록 매 사람들의 행복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단주의가 사회생

활의 기초를 이루고있다는것은 그것이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이루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생활은 원래 그들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살아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한다. 생활은 활동을 동반하며 활동은 생활의 내용을 이룬다. 활동없는 생활이란 사실상 죽은 생활이며 또 있을수 없다. 사람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 다양해지면 그들의 생활이 다채롭고 풍만해지며 사람들의 활동이 변화되면 그들의 생활이 또한 달라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활동방식이자 곧 그들의 생활방식, 생존방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매개 사회에는 그 사회의 생활의 기초에 맞는 일정한 생활양식이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서 그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집단주의로 일관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에 맞게 세워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사회의 주인으로서 값있고 보람있게 살며 발전할수 있게 한다. 여기에 또한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리유가 있다.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명과 목적에 맞는 활동방식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그들의 활동의 목적에 맞게 세워질 때 옳바른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들의 활동은 일정한 목적밑에 진행되며 목적은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그들의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은 활동의 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이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자면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다름아닌 그들자신의 집단적힘과 공동투쟁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계급과 계층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집단이다.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개인의 요구와는 비할바없이 높은 요구이며 따라서 그것은 몇몇사람들의 힘만으로써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오직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대중자신이 발동될 때에 비로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확고히 실현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공산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인류의 리상사회이다. 따라서 사상적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다름아닌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된다.

집단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고상한 품격의 소유자로 되게 하고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발휘하게 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적요인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하여주며 공산주의건설을 사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집단주의를 자기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하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로동계급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이 어려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개인의 리익과 향락만 생각하는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것을 보람있는 일로 간주하고있다.

온 사회, 온 집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기풍이 활짝 꽃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 인민은 집단주의의 참다운 본보기를 보고있으며 여기에서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자기들의 행복한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인간 증오와 멸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집단주의가 꽃펴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혁명동지를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한 한 생명을 위하여 온 의료집단이 자기의 피와 살, 지어는 뼈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며 뒤떨어진 혁명동지 한사람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집단전체가 떨쳐나서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일깨워주어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아름다운 소행과 미담들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을 반대하고 집단생활에 충실하며 어떤 일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하나와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것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집단주의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철이 든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과 청장년들,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집단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고 행복할수도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집단생활과 공동행동에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집단주의의 숭고한 모습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동지애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온 사회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여기에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가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실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꽃펴나고있는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사회의 반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떠미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날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각급 당조직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을 더욱 실속있게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집단주의적활동방식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람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수령은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그들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고 리익의 최고대표자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수령의 두리에 뭉치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집단과 사회, 인민대중의 리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몸바쳐일하는 집단주의적정신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이로부터 집단주의를 참답게 구현하자면 사람들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집단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주의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초를 두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77페지)

집단주의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서는 진정한 동지적 단합과 화목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발양될수 없다. 남을 사랑할줄 알아야 남에게서 사랑을 받을수 있고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 집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며 다른 사람들과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집단생활을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를 꽃피워나가자면 사람들이 높은 인간성을 가지고 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도록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교육교양하여야 한다.

집단과 조직의 위력은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 있는것만큼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도록 하자면 사람들이 조직과 집단의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와 인민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살겠다는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집단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조장되면 사람들이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지 않고 집단생활을 하기 싫어하며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을 서슴지 않으며 나중에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의 머리속에 개인리기주의가 남아있으며 그것은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우리의 전진운동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를 확립하자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날로 심화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주의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활동방식으로, 정신도덕적풍모로 더욱 굳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조선국민회

—조선국민회결성 70돐에 즈음하여—

전 상 길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시여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재부로 주체조선의 년대기우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1917년 3월 23일에 무으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과 애국적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진정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버지가 조선독립을 조선사람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달성할것을 투쟁과업으로 하는 〈조선국민회〉라는 혁명조직을 무으시고 그를 지도하신것도 이무렵이였습니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되던 191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는 이 시기에 들어와 저들의 《총독정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식민지폭압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빠져들어간 우리 인민앞에는 앉아서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사생결단하고 일어나 싸워 빼앗긴 령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느냐 하는 갈림길우에 놓여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탁월한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의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거듭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그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으며 빈말공부와 《세력권》쟁탈전에 몰두하고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처한 이러한 실태는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줄 혁명조직의 출현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민족의 힘의 원천은 단결에 있다. 민족의 단합에 나라와 민족 발전의 전도가 있고 모든 승리의 열쇠가 있는것이다. 이 중대하고도 절실한 문제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결속시켜나가는 조직적활동에 의하여서만 해결되게 되며 그 성과가 담보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을 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족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틀어쥐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조직결성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으며 마침내 국내외에서 련계를 맺고 활동하던 반일독립운동자들의 핵심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서 진행된 력사적인 평양회의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반제적립장과 민족자주적립장이 투철하고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가장 큰 혁

명조직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조직하고 지도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상 처음으로 국내외적판도에서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을 실현해나가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조선국민회의 고귀한 업적은 우선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옳은 투쟁강령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혁명조직의 강령은 그 조직의 성격과 위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정확하고 옳바른 투쟁강령을 내세운 혁명조직만이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을 투쟁의 길로 힘있게 이끌수 있다.

조선국민회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혁명을 계속하여 독립된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무산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참다운 문명국가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세웠다. 이것은 침략과 예속,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조선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고한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적립장으로 일관된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을 구현한것이였다. 때문에 조선국민회의 투쟁강령은 처음부터 광범한 애국력량의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조선국민회는 이 기치밑에 민족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독립운동에서의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 그리고 《국권보존》과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요설들을 반대배격하면서 광범한 인민들을 민족자주정신과 선진사상으로 계몽시키고 반일투쟁대렬에 적극 합류해나서도록 이끌어왔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조직들과 회원들은 애국적교육활동과 문학예술활동, 출판활동과 국문운동 등을 활발히 벌려 광범한 군중을 정치적으로 부단히 각성시켜나갔다.

특히 조선국민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선진사상으로 광범한 군중을 무장시켜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일떠세우는것을 도탄속에서 허덕이는 2천만 겨레를 구제할 방략으로 제시한 력사적인 청수동회의와 관전회의를 계기로 대중계몽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조선국민회원들은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국내외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일제의 침략적본질과 략탈적행위를 폭로하고 앞으로 세워야 할 새 사회의 면모에 대한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들은 잡지 《경종》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독립운동단체의 산하에 있는 비교적 진보적인 출판소와 인쇄소에 침투하여 선진사상의 순결성을 지켜내고 그 보급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무렵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조선국민회의 활동에서 큰 장애로 된것은 일제와 함께 그와 한짝이 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이였다. 일제의 어용나팔수들이며 민족반역자들인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이른바 《민족개조론》을 제창하면서 신사조의 파급을 막고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군중속에 자기의 세력을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동적인 정체를 밝히고 선진사상보급사업을 중단없이 벌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1921년 10월에 조선국민회 조직들에 서한을 보내시고 1923년 가을에는 포평회의에서 민족개량주의와의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요령을 작성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

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국민회 각 조직들에서는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민족해방운동에 미치는 그 해독성을 폭로하는 원칙적인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신사조를 -《민족화목의 파괴》, 《단결의 암》이라고 하면서 선진사상의 보급을 가로막던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이 여지없이 분쇄되여갔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의 이러한 투쟁과정에 민족자주의 기치, 조선국민회의 투쟁강령은 튼튼히 고수되고 이 강령에 따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은 점차 하나의 강력한 반일애국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나가기 시작하였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투쟁강령에 기초하여 민족적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여기에 조선국민회가 이룩한 불멸의 공헌의 하나가 있다.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조선국민회의 고귀한 업적은 또한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자기의 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단체들에 묶어세워 애국력량을 부단히 늘여나간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결성된 조직들을 튼튼히 꾸려나가면서 국내외 넓은 지역에서 준비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 조직을 계속 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력량의 단결은 대오의 사상의지적 순결성과 함께 그 조직성에 의하여 보장되며 강화된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특히는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을 종결시킨 3.1운동의 력사적교훈이 가르쳐준 귀중한 진리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참다운 혁명조직을 가지려던 념원이 실현된 조건에서 조선국민회 조직을 광범한 반일대중속에 펴나가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조직을 늘여나가시는 한편 조선국민회 지하공작원들을 광활한 지역에로 파견하시여 조선국민회 조직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서 조선국민회는 결성된지 반년 남짓한 기간에 신의주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전지역과 베이징, 상해를 비롯한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해외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고 튼튼히 꾸려졌다. 조선국민회 조직들에서는 이미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지방적특성과 주민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하부조직들을 계속 내오는 동시에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학교계와 향토계, 비석계 등 합법적대중단체들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웠다. 또한 일제의 어용단체들과 행정기구들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중에서 반일감정이 높은 청년들을 장악하고 교양하여 조선국민회 대렬에 받아들이였다. 국내외의 광활한 지역에서 하부조직들이 확대되고 그 대렬이 늘어나면서 조선국민회는 독자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으며 이 과정에 반일애국력량은 튼튼히 꾸려지고 단합되여나가게 되였다.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을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시켜온 조선국민회의 활동은 분렬과 와해,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찼던 독립운동단체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진보적인 단체로 꾸려나가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힘있게 벌어졌다.

당시 투쟁강령과 방도도 없이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반일단체들의 통일과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반혁명력량에 비한 반일애국력량의 우세를 보장하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의 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청수동밤골회의와 사리원정방산모임에서 조선국민회 조직들이 독립운동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활동을 옳은 길로 이끄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 조직들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산재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의 반일적요소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상층통일과 하층통일을 적절히 배합하여 그 단체들을 단합시켜나갔다. 결과 구태의연하게 《세력권》확장에 몰두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은 통합을 이룩하고 점차 합심단결에로 나아갔으며 새로운 투쟁력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1925년 8월 무송회의에서 민족단체련합촉진회가 결성되여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과 단결, 공동행동을 실현한것은 반일의 기치아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가 결성됨으로써 삼삼오오 분산되어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은 공동행동의 보조를 맞추어 점차 민족주의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반일애국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렇듯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혁명적조직건설의 진보적인 길을 열어놓고 자기의 두리에 반일대중을 굳게 결속시켜 나간것은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을 마련하는데서 조선국민회가 이룩한 또하나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조선국민회의 고귀한 업적은 또한 반일대중투쟁과 무장활동을 적극 조직지도하여 반일애국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간것이다.

혁명력량의 단결은 사상의지적 및 조직적단합으로써 실현될뿐아니라 실천투쟁속에서 튼튼히 담보된다. 애국력량의 단합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는데서 나타나며 보다 굳세게 다져진다.

조선국민회는 단순한 사상계몽단체나 조직적결속이 아니였다. 그것은 광범한 반일군중을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을 사명으로 삼고 활동한 정치조직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장성시켜나가는데서 중추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또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로동자, 농민들을 파업과 태업, 소작쟁의와 폭동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인테리들을 동맹휴학과 대중계몽사업에로 적극 추동하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에도 조선국민회는 그것이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으로서의 본질적약점을 가지고있었으나 투쟁속에서 인민들에게 단합과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체득시키기 위하여 반일시위운동에로 불러일으켰다.

투쟁을 통하여 애국력량을 단련시키고 단합시켜온 조선국민회의 활동은 혁명적인 무장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여왔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적들의 류혈적탄압에 적수공권으로 대항하는것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것을 꿰뚫어보시고 오직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싸우는것을 조선독립달성의 총요원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조선국민회로 하여금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국민회는 강대한 무력을 가진 일제는 무장으로 때려눕혀야 한다는 자주독립의 기치를 추켜들고 새로운 무장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이미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던 무장대원들을 교양하고 돌려세워 건전한 반일력량으로 집결시켰으며 일제의 기관들과 악질주구들을 습격처단하는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조선국민회의 혁명적영향밑에 일어난 반일군중의 투쟁들과 더우기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 무장활동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을 투쟁대렬에 적극 망라시키고 열렬한 독립운동자들을 키워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새로운 반일대오에 들어선 그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후 공산주의자로 자라

났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을 실현해나가시는 과정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방향의 길에 들어서는 력사적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때로부터 사대망국의 사조가 판을 치고 이른바 《지도자》로 자처하던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질식상태에 빠져있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주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터전우에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선진사상에 기초하고 무산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무장활동의 방법으로 무산대중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폭넓게 진행되게 되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망국의 비운속에 잠긴 2천만 겨레의 가슴에 삶의 리상과 투쟁의 신념,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키워주는 재생의 홰불이였으며 제힘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조선의 억센 기상을 마련하고 떠받들어주는 힘의 원천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영생의 빛을 뿌리고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찾기 위하여 불굴의 투지와 억센 기백을 안으시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 땅우에 찬란히 빛나고 활짝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ㅌ.ㄷ》를 결성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민족단결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시였다. 단결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광복된 우리 인민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시고 혁명의 여러 년대들을 승리로 빛내여오시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고계신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 일심단결의 힘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더없는 행복으로 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지도하신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세대는 바뀌고 혁명은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나 우리 나라에서의 전민족적통일과 조국의 통일독립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이 지속되고 새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커가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있건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불신과 반목을 가시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시점에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남조선집권자들의 태도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만 《통일》을 부르짖지 말고 진실로 인민들의 통일념원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의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에 하루빨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남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우리와 함께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기어이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

장 대 준

당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립장과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 당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당일군들의 활동은 옳바른 작풍과 혁명적인 사업기풍, 전투적인 일본새를 가질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따라서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과 함께 전투적인 일본새와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이며 전투적인 일본새이다. 당의 령도를 받들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여야 우리 당을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5～106페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어떤 기질과 일본새를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며 어떤 태도와 기풍을 가지고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패기와 정열은 일군들로 하여금 강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헌신적인 투쟁과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가게 하며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추동하여준다.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한다는것은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앙양된 열의와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본때있게 해제낀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의 령도자의 령도풍모와 그것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당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와 관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이다.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인 우리 당에 있어서는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비약과 전진만을 이룩하는것이 확고한 투쟁원칙으로 되고있다.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이며 중요한 령도풍모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혁명적령도풍모를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를 실현하고 받들어나가는 간부들, 당일군들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투쟁기풍과 전투적인 일본새를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당일군

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당사업과 당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며 당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여야 당조직이 끓고 당사업이 활기를 띨수 있다. 만일 당일군들이 늘크레해서 앉아뭉개게 되면 당조직들이 무맥하게 되고 당조직들이 맥을 추지 못하면 전반적 당활동, 당사업이 약화되며 나아가서 당이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될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이 들끓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여야 당조직이 활기있게 움직이게 되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패기있게 벌어질수 있으며 당안에 생기발랄한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는것이 우리 당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없이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고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해야 하는것이 혁명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혁명적 열정과 패기가 없는 혁명가란 있을수 없다. 혁명가의 패기와 정열은 혁명의 전진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는 당일군들의 높은 사상과 열정에 있다. 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는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당일군들의 패기와 정열은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패기와 정열에 넘친 일군은 높은 창조적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사업을 창발적으로 해나가게 되며 그 어떤 권태와 안일도 모르고 사업을 본때있게 해제끼게 된다. 그러나 패기와 정열이 없는 사람은 월급쟁이식으로 일을 질질 끌기만 하고 자리를 내지 못하며 당정책을 집행할 구체적 대책과 방도를 세우지 않고 우의 지시를 그저 아래에 되받아넘기면서 자리지킴이나 하게 된다. 이러한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당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기여도 할수 없으며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의 영예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이악하고도 꾸준한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분초를 아껴가며 매일매시각을 정열적인 사색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일관되게 할 때 당이 준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모든 단위의 일이 잘되고 온 나라의 일이 잘되게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청춘의 패기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과업을 밝혀주시고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제3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웅대한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앞장에서 수행하여

야 할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간부들, 당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제3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우리 당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본때있게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물쪼물 앞뒤를 재면서 기백있게 전진하지 못하는것은 우리 시대 일군들의 참다운 일본새가 아니다. 이러한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방대한 건설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갈수 없다. 제3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 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투쟁하며 매진하는 혁명적투쟁기풍과 전투적일본새를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일군들은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을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해제끼며 언제나 사업을 긴장하게 혁신하고 전개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또한 로쇠와 침체를 반대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을 패기있게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열로 들끓고 패기에 넘쳐 일하는 일군에게는 언제나 전진의 기상이 있고 성과와 혁신의 보람이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늘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불타야 하고 왕성한 투지와 사업의욕에 차넘쳐야 하며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대담한 전개력을 지니고 쉬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하는것은 당일군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 전투적 기백과 패기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충실성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 일본새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람들의 정열과 패기는 결코 타고난 기질이 아니며 나이나 생리적조건에 관계되는것도 아니다. 나이가 많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하면 혁명과업수행에서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나올수 없으며 사업을 패기있게 전개해나갈수 없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혁명적각오가 높으면 비록 나이가 많고 생리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언제나 불타는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게 해나가게 된다. 당일군들이 정열과 패기에 넘쳐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의 심장을 어떻게 뜨겁게 불태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여기에 당일군들의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으며 혁명적열정과 패기를 가장 높이 발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사업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는것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투쟁기풍을 지니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 패기에 넘치는 전투적기백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의 직접적발현이다. 누구나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패기있

게 밀고나갈수 있다.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은 사람들의 사고를 창조적인 사색과정으로 이끌어주며 그들의 활동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것으로 되게 추동하여준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은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게 된다. 대담한 구상과 기발한 착상을 하고 언제나 정열과 패기에 넘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일군은 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일군들이며 책임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이 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지게 될 책임이 두려워 앞뒤만 재면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것은 충실한 전사, 기백있는 혁명가의 투쟁기풍이 아니다.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당앞에서 진심을 감추고 거짓을 꾸미지 않으며 패기와 정열이 없이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현상유지나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거나 앞뒤를 재면서 오물쪼물 하는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책임이 두려워 허물을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한 요술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과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을가봐 어깨를 들이밀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눈치놀음을 하거나 패기와 정열이 없이 어물어물 지내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일본새가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정력적인 노력가, 참다운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당일군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자면 또한 로쇠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사람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중요하게 그들의 사상과 투쟁정신의 표현이다. 나이에는 관계없이 일군들의 혁명적열정이 식어지고 패기가 없어진다는것은 곧 사상적으로 로쇠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로쇠병에 걸리면 정열이 나올수 없고 사업의욕이 생길수 없으며 전개력을 가질수 없다. 당일군들이 언제나 높은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가는가 아니면 로쇠병에 걸려 앉아뭉개고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세월이나 보내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을 받들어 혁명을 계속해나가는가 아니면 혁명의 락오자로 되고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당일군들은 생리적으로는 로쇠할수 있어도 사상정신적으로는 절대로 로쇠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 생리적으로 로쇠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하지 않는 바로 여기에 참다운 혁명가의 고귀한 기풍이 있으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전투적으로 일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정치사상적수양과 혁명적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로쇠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상적인 로쇠현상을 철저히 없애는 동시에 생리적인 로쇠현상도 의지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 혁명적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지니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대중의 정치적교양자이고 조직동원자이다. 당일군들이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가는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남보다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높은 정치적자각에 실무적자질이 안받침되여야 충실한 일군이 될수 있다.

우리 당의 간부는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뿐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머리가 비고 아는것이 적으며 실력이 딸리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할수 없다. 아는것이 힘이며 알아야 주견도 생기고 신심도 가질수 있으며 전투적 기백과 패기에 넘쳐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

가도 없다. 오직 끊임없는 자체수양과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서만 능력있고 실력있는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신임에 비해볼 때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져있으며 자신들이 지닌 혁명임무와 수준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만과 답보를 모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가답게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모든 당정책에 정통하고 경제관리지식도 많이 알며 과학기술에도 밝은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일상생활에서 명랑하고 락천적이며 풍부한 정서를 가지는것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의 생활기풍은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생활기풍의 연장으로 된다. 정열에 불타고 패기에 넘치는 일군들은 생활에서도 틀이 없고 늙은 티가 없으며 항상 명랑하고 락천적이다.

당일군들은 자기 생활을 혁명적랑만에 넘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당의 의도대로 체육문화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말을 하여도 기백이 있고 쇠소리가 나게 하며 걸음을 걸어도 씩씩하고 패기있게 걸어나가는 정열가다운 생활기풍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은 또한 풍부한 정서를 가져야 한다.

인간생활에 정서가 없다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문화적소양이 높고 정서가 풍부하여야 심장도 더 뜨거워질수 있으며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도 가질수 있으며 패기에 넘쳐 일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의 빈곤은 사색의 빈곤을 가져오게 되며 사색의 빈곤은 직무의 태만을 동반하게 된다. 풍만한 정서가 없는 사람에게서 창조적인 사색이 나올수 없으며 정열적인 실천이 있을수 없다. 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라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질수 있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기도 하고 흔들어놓기도 하며 때로는 불타오르게도 하고 어루만져주기도 하는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인간, 뜨거운 열정과 풍만한 정서를 가진 인간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정열과 패기에 넘쳐 일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를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일해나감으로써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

김 희 수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기술혁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기술혁명분야에는 원료, 자재의 효과적이며 절약적인 리용, 새로운 기계설비의 창안과 이미 있는 기계설비의 개조, 앞선 생산공정의 도입과 현존 생산공정의 개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과업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한 대중운동이다.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는 오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야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더 잘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기술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짧은 기간에 기술개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기술혁명의 성과적인 수행여부는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어떻게 참가시키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으로서 기술혁명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생산자대중은 직접 기계설비를 움직이고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생산을 진행한다.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인 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술혁명에 적극 참가시켜야 그들로 하여금 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잘, 더 빨리 풀수 있다.

기술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기술혁명수행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는 사회적생산의 직접부문과 간접부문, 보조부문 할것없이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망라될수 있으며 기술혁

신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생산자대중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적혜택이 차례지게 한다. 이것은 바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생산자대중을 기술혁신에 널리 참가시키는 합리적인 사회적운동이며 이 운동을 적극 벌릴수록 기술혁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더 잘 전환되고 기술개조사업을 더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명을 자체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장비수준에서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으며 기술개조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들은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자기 부문, 자기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술개조사업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구체적인 실정과 특성을 잘 알고있는것은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은 자기 공장, 기업소의 실정을 알고있을뿐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루는 기계설비와 생산기술공정에 대하여 정통하고있으며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을 찾아내게 된다.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안, 가장 합리적인 작업방법, 보다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이기 위한 창안들과 발기들은 다름아닌 설비를 직접 움직이고 원료, 자재를 다루는 생산자대중속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술혁신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 때 자기 부문, 자기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술개조사업을 훌륭히 진행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제시된 과학기술발전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목표는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내세우고 수행하였던 기술혁명과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기술혁명과업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제3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는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기술혁명수행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바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계설비들을

보다 능률적인것으로 개조하며 앞선 생산공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더 많이 연구해내고 그것을 생산실천에 도입하여 빨리 효력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문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얼마나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찌기 이 운동을 기술혁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던 시기에 나섰던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올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최근시기에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근로자들속에서 나온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광범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 건설과정에만 하여도 건설자들이 연구도입한 발명건수는 300여건 되며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은 1,000건을 넘는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하여 연구도입된 기술혁신안들은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방대한 공사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우리의 자재로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이 운동을 적극 밀고나가는 여기에 기술혁명수행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빨리 올려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기술혁신을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을 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는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확고한 신심이 있어야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적극 달라붙게 되며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게 된다.

오늘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전례없이 높아진 조건에서 누구나 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누구나 다 기술혁신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과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기술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철저히 인식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수행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벌리며 누구나 다 그들처럼 기술혁신의 선구자가 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을 위한 직접부문과 간접부문, 보조부문 그 어디에나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많다. 비교적 기술장비수준과 로동의 효과성이 높은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의 직접부문이나 간접부문, 보조부문인 경우에도 보다 현대적인것으로 개선하여야 할 설비와 생산공정들이 있을수 있다. 전인민경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도 많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그것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운동에 널리 참가하여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보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기술의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같이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단위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다루며 쓰는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에 정통하며 지금 리용하고있는 기술을 보다 선진적인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제기하고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있으며 생산자대중은 실천을 통하여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풍부한 지식과 생산자들의 좋은 경험을 옳게 결합할 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도 원만히 풀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풍부한 경험을 배우며 그들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완성하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과학기술지식을 배우며 자신들의 실천적경험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데서 기술혁신돌격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술혁신돌격대의 대렬을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이 높은 생산자들로 확대강화하고 그에 대한 지휘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그리고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도록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필요한 단위들에 파견하는 사업도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기 위한 사업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발동시켜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이며 당면한 생산을 보장하면서 크고작은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일반적인 호소와 포치에만 그치거나 자연발생성에 내맡겨서는 이 운동을 옳바로 전개

해나갈수 없으며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자체의 특성에 맞게 기술혁신 목표와 단계를 잘 정하고 직장, 작업반들에 기술혁신과제를 정확히 주며 전체 종업원들에게 그것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술혁신에 목적지향성있게 참가하게 할수 있으며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할수 있다.

기술혁신 목표와 과제를 정해주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에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기술전습회, 기술혁신토론회, 경험발표회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며 제기된 기술혁신안은 제때에 등록심의하고 빨리 완성하여 도입할수 있도록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기술혁신안을 내놓은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줄수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기술혁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추동할수 있다.

생산자들뿐아니라 청년학생들을 기술혁신운동에 널리 참가시켜 그들속에서 청년발명가, 청년창의고안명수들이 많이 나오게 하며 과학기술축전과 기술혁신현상모집, 기술혁신경기, 기술혁신전시회 등 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학기술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언제나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을 장려하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발명, 창의고안을 한 근로자들과 그들을 도와준 집단, 도입한 단위들을 정치도덕적으로뿐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평가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을 혁신하면 인차 로동정량과 생산계획을 높여 기술혁신을 저애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가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는 오늘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며 자신이 솔선 앞장에 서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근로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가까운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경제발전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농사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일본새

배 영 섭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제3차7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넘쳐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의의깊은 사변들로 충만될 올해를 더욱 빛나게 장식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농업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사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는 혁명적기풍을 적극 발양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농업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이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 문제는 결국 농업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이 농민을 지도하고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생산을 지원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촌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가 크면 클수록 농촌의 주인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그것이 더 큰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는것은 농촌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지난 기간 운전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확고히 틀

어쥐고나가면서 언제나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과 작업반, 분조들에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농업생산과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자체의 로력원천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과제를 수행하고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동창, 덕원협동농장들에서는 오래전부터 로력지원을 받음이 없이 농장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운하협동농장에서는 한해에 수만공수의 로력지원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은 1976년에 비하여 지원로력을 받지 않은 1977년에는 알곡정당수확고를 123%로 높이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여년동안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농업생산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고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과 경영활동,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논농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벌방지대인 우리 군에서 로력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발동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여기에 정치사업의 주되는 화력을 집중하였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기 위한 투쟁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될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농업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생물체를 자래우는 물질적생산분야이다. 생산과정이 생물체의 증식과정으로 되여있는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자연기후적조건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되며 거기에는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힘들고 품이 드는 영농작업이 많다. 시기성을 요구하는 영농작업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군안의 적지 않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농번기에는 로력지원을 받아야 영농작업을 제철에 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리하여 로력예비를 동원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기술혁신을 하면 얼마든지 농사일을 자체로 할수 있는 협동농장들에서까지도 로력지원을 받는것을 례사로운 일로 여기였다.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군당위원회는 지원로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우 농업근로자들의 낡은 사상관점과 관련하여 제기된다는것을 포착하고 그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렸다.

여기서 우리가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한것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농업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그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협동농장과 작업반, 분조, 학습반을 단위로 정상적으로 진행한 문답식학습경연은 농장원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요구대로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협동농장원들속에서 농업생산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자신이며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알곡생산이 늘어나고 자기에게 차례지는 분배몫도 많아지게 된다는것을 지난 시기의 영농사업실태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였다. 이 과정에 군안의 전반적협동농장들에서는 국가에 로력적부담을 주면서까지 농사를 지으려는 지난날의 낡은 사고방식을 점차 극복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도록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것과 함께 일상적인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켰다. 우리는 강연, 해설담화, 방송, 직관물등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리용하여 모범적인 단위들과 농장원들을 소개선전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으며 모두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교양하였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리기 위한 결의목표를 맡겨진 농업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세우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은 온 군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고 모두가 농업생산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한 추진력으로 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발동하기 위한 사업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이 사업에 군안의 책임일군들과 핵심적인 당원들, 초급선전일군들을 적극 인입하는것이였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교양하고 발동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는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협동농장관리일군에 이르는 모든 단위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농업근로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는것은 물론 시기를 다투는 영농전투때에는 직접 포전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협동농장마다에 수많은 당원들이 있는 조건에서 당조직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농업근로자들을 책임적으로 교양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기 위한 월현리당위원회의 사업이 그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지난해 모내기철이였다. 모내는 기계의 작업속도에 맞게 벼모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게 되자 일부 관리일군들은 바쁠 때 받아쓰는것이 지원로력이라고 하면서 우에다 손을 내밀려 하였다. 이때 리당위원회는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일깨워주면서 5호담당선전원들을 발동하여 모뜨는 작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5호담당선전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세대들을 사상적으로 발동한 결과 농장에서는 로력적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모뜨기를 하여 모내는 기계의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농업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동원할 때 그들

이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또한 협동농장의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협동농장의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영농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작업반장, 분조장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제때에 수행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협동농장들이 당과 국가 앞에서 지닌 의무를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협동농장의 관리운영과 농업생산에서 초급일군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을 당에 충실하고 농사물정을 잘 아는 능력있는 사람들로 꾸릴데 대한 원칙을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협동농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주체농법을 잘 알고 농사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농장원들로 선발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힘을 넣게 된것은 1985년초 청정협동농장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방조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관련되여있다.

군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1985년초 이 농장에 내려간 조직부, 선전부일군들은 협동농장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초급일군들의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되였다. 우리는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다면 시기별, 공정별 영농과제를 제때에 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 대중의 열의도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군당위원회는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에 충실하고 대중의 신망이 높으며 농사경험이 풍부하고 선진영농기술로 무장한 농장원들을 초급일군으로 꾸리도록 하였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장, 분조장들을 준비된 사람들로 꾸리는 한편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따라세웠다.

끊임없이 교양하고 자극하고 통제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군당위원회는 협동농장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옳게 지도통제하며 일상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특히 리를 담당하고있는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작업반장들과 분조장들을 책임적으로 교양하며 이끌어나가도록 대책을 세웠다. 여기에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초급일군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였다.

지난해 5월이였다. 보석협동농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작업반들에서 모내는 속도가 높지 못한 원인이 작업반장과 분조장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자신이 직접 아래일군들과 함께 해결방도를 찾고 초급일군들이 대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지도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 행동은 초급일군들을 교양하며 그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현실은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며 모든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협동농장 초급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군당위

원회는 또한 협동농장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분야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협동경리를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그에 대한 당 및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55페지)

협동농장들에서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농촌의 긴장한 로력수요를 풀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도록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켰다. 오늘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알곡소출을 늘이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관리운영사업을 잘한데 있다. 여기에서 3대혁명붉은기운하협동농장의 사업경험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 농장의 일군들이 선차적인 주의를 돌린것은 영농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였다. 농업생산은 시기별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영농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영농공정별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철저히 수행해야 영농공정들사이의 련계를 잘 맞물리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영농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데 기초하여 작업반, 분조별 계획을 세웠으며 작업반, 분조에서는 매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개인별로 해야 할 작업몫을 알려준 다음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규률을 확립하였다. 특히 모내기를 비롯한 중요영농작업의 선행공정들을 미리 앞당겨수행하는 질서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주되는 농산작업에 로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지난해에도 모판씨뿌리기를 그 전해에 비해 4일이나 앞당겨 끝냈고 모내기는 5월 25일까지 해제낄수 있었다.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것은 운하협동농장일군들이 힘을 넣은 중요한 사업이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별, 분조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농장원들에게는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조직해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데도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농장에서는 계절을 다투는 여러가지 영농과제들을 농장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앙양된 로력적열성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수 있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로력일평가사업을 바로하고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실시하는데 힘을 기울이였으며 농장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에 집중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처럼 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든 결과 이 농장에서는 자체의 로력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게 되였다.

이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협동농장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면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자체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기 위하여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것은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치는것이였다.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

과업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야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지을수 있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는 농사일을 자체로 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커다란 당적주목을 돌려왔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협동농장들에 있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기계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간것은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속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특히 우리는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농촌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이 과정에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밭갈이와 논갈이 같은 포전작업을 자그마한 귀잡이도 남김없이 실속있게 하여 뒤손질이 가지 않게 하였으며 여기에서만도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었다.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일뿐아니라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농법은 모내기에 써레질을 일정하게 앞세울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옳게 실현하여야 모내기를 질적으로 보장하며 전반적인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모내기전투에 들어가기전에 전체 논면적의 30%를 써레질하도록 하였다. 결과 논판고르기와 모내기를 동시에 벌려놓는데서부터 오던 로력의 긴장성을 풀면서도 모내기를 제철에 해낼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체의 실정에 맞게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많은 농사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운하협동농장에서만 하여도 논두렁짓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농장원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면서도 수만공수의 로력을 절약할수 있었다.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치는것이야말로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일뿐아니라 농촌로력의 긴장성을 풀고 자체로 모든 농사일을 진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앞에는 할 일이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며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는 당이 제시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밑에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는 운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제시된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리 기 철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하고있다.

혁명의 심화발전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학습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은 혁명적인 사상과 풍부한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사람들의 인식활동과정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자체학습을 통하여 높아진다. 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적의도를 제때에 파악하게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찾게 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학습이 혁명투쟁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라고 교시하시였으며 몸소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운다는것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쉬임없이 실속있게 학습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한다는것이다.

우리 동림군당위원회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여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오늘 우리 군에서는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자각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이 철저히 세워져있다. 당일군들과 새세대청년들 속에서는 물론 나이많은 근로자들속에서도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군은 학습에서 도적인 시범단위로 되고있다. 우리 군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가보나 자기 부문의 당정책집행과 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폭넓고 깊이있게 독서를 진행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사

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군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였다. 군소재지와 로동자구에는 다층건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기본도로들은 전반적으로 포장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되였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과 상업편의봉사기관, 농촌마을들이 더욱 알뜰히 꾸려졌으며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활기에 넘쳐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동림군당위원회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방법론을 탐구하면서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학습, 강연, 선동을 비롯한 사상사업을 언제나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군당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매개 단위의 실정에 맞게 학습과제를 주며 점차 높은 목표를 향하여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해당 단위의 구체적인 혁명임무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그들이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자면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하면서 방법론적지도를 구체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한 동림전기공장 당위원회의 사업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켜 공장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담화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학습담화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담화하는 사람부터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이 공장의 일부 일군들은 자체실정과 결부하여 사전에 깊이 연구도 하지 않고 학습담화를 진행하다보니 담화의 실효를 나타낼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이런 편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새로운 대책을 취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공장책임일군들부터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습담화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아래일군들을 이끌어주도록 하였다. 그렇게 한 결과 이 공장에서는 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정서적소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학습을 잘하도록 실속있게 지도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학습담화를 정상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아래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하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동림전기공장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보장되고있으며 기술혁신도 잘되고 생산계획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학습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방법론을 탐구하면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우리가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본보기단위를 꾸리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한것이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기되

는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본보기단위를 꾸리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최근년간 우리 군당위원회가 룡산협동농장 제3작업반을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본보기단위로 새롭게 꾸리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룡산협동농장 제3작업반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한 수십명의 새세대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가정부인들과 나이많은 농장원들이 적지 않게 있다. 몇년전만 해도 이 작업반원들속에서는 학습에 대한 관점이 옳바로 서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학습열의도 그리 높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새롭게 제시된 당정책에 대한 학습과 농업과학기술지식학습, 정서학습과 문예서적독서에 관심을 가지고있었으나 일부 청년들속에서는 긴장한 농사철이 아닌 때에나 학습을 할수 있는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관점이 남아있었으며 나이많은 농장원들 특히 가정부인들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만 수걱수걱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단위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그와 류사한 단위들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여기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본보기를 창조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당조직에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시기에도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한 혁명투사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켰으며 나이많은 농장원들속에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 학습부터 잘하도록 짜고들어 그들이 학습에 취미를 가지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올해 김매기때 있은 일이다. 당조직에서는 긴장된 김매기계획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열쇠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찾고 그들의 자각성을 발동하기 위한 학습 조직과 지도를 더욱 짜고들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에 맞게 김매기를 제철에 하는것이 농업근로자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는것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직관물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실정에 맞게 분조들에서 매일 학습과제를 주고 그것을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부인들과 나이많은 농장원들의 학습을 도와줄수 있도록 학습호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수준이 높은 농장원들이 함께 김매기를 하면서 문답의 방법으로 배워주는 사업을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짜고들었다.

이리하여 이 작업반원들속에서는 지난날 시간이 없어서 학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그릇된 관점이 철저히 극복되고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여기에서 창조된 경험을 가지고 참관과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그것을 일반화하였다.

현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하며 학습을 잘하는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단위에서도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자각적으로 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그들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자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학습하여야 한다. 학습을 자각적으로 할 때에만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할수 있다.

학습을 자각적으로 한다는것은 그것을 생활적요구로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쉬임없이 스스로 꾸준히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상 요구로 되지 못한 학습은 자각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동림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학습을 자각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학습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그러므로 학습이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그것이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할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꾸준히 공부하여 쓸모있는 산 지식을 체득할수 있다. 동천인민학교 교직원들속에서의 학습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

오늘 동천인민학교의 교원들은 교수를 당정책화수준이 높게 진행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여러가지 직관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학생들을 실속있게 배워주고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원문 학습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여왔으며 지금 모든 교원들이 《김일성저작집》을 전부 연구발취하여 교수교양에 구현하고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실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고 품행도 단정하며 다른 학교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이 학교에서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당조직과 일군들이 교원들속에서 로작원문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기때문이다.

지난날 이 학교의 적지 않은 교원들은 자체학습과제를 다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자질향상사업에서나 교수사업에서 별로 전진이 없었다. 이것은 학습을 혁명과업수행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학습이 혁명과업수행과 결부되지 못하다보니 일부 교원들속에서는 통제에 못이겨 눈가림식으로 학습하는 편향도 없지 않았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당조직과 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하나를 학습하여도 자신의 사상수양과 교수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교수참관과 시범상학을 널리 진행하여 모든 교원들이 학습한 내용을 교수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도를 적극 탐구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여기에서 인민학교 4학년 《자연》과정안에 있는 《목재로 쓰이는 나무》에 대한 시범상학은 커다란 효력을 나타냈다. 시범상학을 맡은 교원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저작집》과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실기들을 폭넓게 학습한데 기초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삼나무에 깃든 사연을 감명깊게 해설해줌으로써 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을 알기 쉽게 배워주는 모범을 보이였다. 이러한 모범은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교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이처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든 결과 이 학교 교원들속에서는 자각적인 학습기풍이 철저

히 서게 되였으며 학습에서의 성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 직접 나타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인 학습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군당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또한 일군들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모두가 다 경쟁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심화시킨것이였다.

지도일군들이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하게 하는것은 그들속에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군당일군들자체가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적극 투쟁하였으며 매 단위의 일군들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토론과 론쟁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경쟁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체학습에서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단위에서는 례외없이 자각적인 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고 혁명과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동림과일 및 남새가공공장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당일군들이 남먼저 새로 나온 당문헌들과 과학기술도서, 문예도서들을 계획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제때에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읽은책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경쟁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이 공장에서는 책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으로 선전사업도 잘하며 생산에서도 앞장서는 로동자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한편 책읽기와 관련한 직관선전을 짜고들어 학습분위기를 철저히 세우고있다. 그리하여 이 공장은 군적으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단위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군당위원회가 큰 힘을 넣은것은 또한 학습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든것이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자각적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려면 학습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학습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습을 게을리하는 그릇된 현상을 제때에 극복할수 없다.

우리는 군출판물보급소사업과 도서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매 단위의 실정에 맞게 도서배포사업을 개선하며 새로 나온 도서들을 널리 소개하고 도서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특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도서실을 잘 리용하는 한편 이동도서함을 만들어 책을 제때에 돌려보도록 조직사업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천점의 직관물과 도서카드를 만들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러한 조직지도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제때에 극복하는데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 모든것은 군당위원회가 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시키고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면서 경쟁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세우는 한편 학습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인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우리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물론 초보

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아직 거리가 멀다. 우리는 앞으로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리론,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는 자기 부문앞에 나선 당정책적문제들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데 모를 박고 우리 당의 사상리론과 정책을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리론과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 원문을 가지고 깊이있게 학습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진 과학적인 명제들과 정식화들, 혁명의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통달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현시기 원문학습에서 중요한것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휘황한 길을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깊이 학습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깊이 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사상, 리론의 본질과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잘 알아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자신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정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혀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학습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아무리 바쁜 때에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며 문답식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

현 종 호

민족문화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필수적요구이다.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인민들은 반드시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문화분야에서도 전환을 일으켜야 계급적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 사회주의민족문화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문화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리론이며 그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화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문화건설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문화건설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이 문제가 옳게 해명되여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세울수 있고 문화건설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며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페지)

문화는 민족의 중요한 표징이다. 령토, 피줄, 언어의 공통성과 함께 문화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를 이룬다. 문화는 민족과 통일되여있으며 민족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민족과 문화 발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민족을 문명화하는것이 문화건설의 본질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이 문화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인 근로인민대중, 사람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해명해주고 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짐으로 하여 세계의 지배자로,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주로 문화생활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상의식과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

하는 지식을 주고 미학정서적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을 문명하게 만드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예술을 통하여 선진적인 사상과 풍부한 지식, 높은 미학정서적의식을 가진 문명하고 능력있는 사회적존재로 자라나게 된다.

민족문화건설은 우선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일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사람들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강의한 혁명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에 대한 자각과 열의를 높여주며 강의한 투쟁정신을 가지게 한다. 교육과 문학예술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되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투쟁의욕을 지니게 된다.

민족문화건설은 또한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지식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옳게 인식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맹목성에서 벗어나 그것을 개조하고 정복하여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벌려나가게 된다. 그리고 사회와 그 발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을 추진시켜 근로인민대중의 문화지식, 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민족문화건설은 다음으로 사람들을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하여 그들을 문명한 사회적인간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한다.

건전한 도덕과 아름다운 정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이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도덕이 없고 정서가 메마른 인간은 정신적불구자에 지나지 않는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건설하는 문화는 사람들을 고상한 도덕을 가지게 할뿐아니라 특히 그들을 아름다운 정서로 교양하여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문명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사람은 아름다운 생활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는 미적정서와 감정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의 미학정서생활에 대한 요구는 그들의 물질적요구실현에 이바지하는 물질적수단으로써는 충족시킬수 없다.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는 주로 문학예술에 의해서 실현된다.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미학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적재부를 전사회적범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창조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문화의 성과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며 그들이 문화적재부를 적극 향유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문화건설이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고 문명화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모를 박고 문화건설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여주는 혁명적인 리론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민족문화건설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준것이다.

민족문화건설의 원칙과 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여야 온갖 편향을 범하지 않고 혁명적인 로정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원칙과 방향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형식에 혁명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문화,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고 로동계급적선이 선 주체적인 문화를 건설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할수 있으며 사상에서 주체를 더 잘 세울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0페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과 자주적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는것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가 발전하는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인민들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민족적특성과 혁명의 리익에 맞는 주체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자면 매개 나라들이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과 함께 특히 자기 문화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의 민족적형식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과 고상한 미적취미, 뛰여난 예술적재능들이 풍부하게 반영되여있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우수한 문화형식들을 발전시켜왔다. 조선말은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이 있고 억양도 순조로와 발음이 류창하고 아름답다. 조선말의 풍부한 표현력은 다양한 사물현상과 섬세한 사상감정을 실감있게 나타내고있다. 우리 말과 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창조하는데 믿음직하게 이바지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음악, 무용을 남달리 즐겨하였으며 그에 대한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다. 우리 민족음악의 선률과 민족무용의 률동은 우아하고 점잖으며 부드럽고 유순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선민족무용은 동작에서 팔을 많이 써서 이채를 띠고있으며 팔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동작은 형상의 우아한 미를 창조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무용《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키춤》, 《해바라기》 등은 우리 나라 민족무용의 고유한 조선춤동작으로 하여 민족적정서가 강하게 풍기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미술분야에서도 독특한 민족적형식을 가지고있다. 조선화는 필치가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하며 화법이 선명하고 간결하며 섬세한것이 특징이다. 중세기의 안견이나 김홍도의 그림들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우며 화법이 선명하고 간결한것으로 하여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반드시 조선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형식을 살려야 하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 민족의 특성과 리익에 맞게 문화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키

는것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되는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계승에서는 비판적립장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은 주로 착취계급사회에서 창조된 문화유산이므로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도 있고 낡고 반동적인것도 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살리고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려야 한다.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계승하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이 많이 반영되여있는것만큼 철두철미 비판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옳바르게 계승발전시키자면 문화건설에서 낡고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와 민족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거부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그래야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고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이 밝힌 문화건설원칙은 다음으로 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는것이다.

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들이 즐겨하고 쉽게 체득하며 전면적으로 향유할수 있는 문화를 창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문화창조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을 옳게 반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그것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문화창조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혁명가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그들의 혁명적인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배격하는것은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며 신식민주의정책에서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신흥세력나라들에 저들의 반동문화를 들이밀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혁명적인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독소이다.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옳바르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반동문화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부르죠아문화의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

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 해답을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이 밝혀진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화는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문화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는 문화, 인민대중이 문화의 창조자로 되고 향유자로 되는 참다운 문화를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리론의 과학성과 위력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검증된다. 위대한 혁명리론은 위대한 현실을 창조하며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이 빛나게 확증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같이 배우며 발전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였으며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우리 당이 자체로 키워낸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과 과학, 문화 기관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은 문학예술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력사적시기에 이르러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주체의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고수하고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리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거대한 발전과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낡은 예술의 잔재를 철저히 가셔버리고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였다. 대전성기로 빛나는 우리의 문학예술에서 이룩된 혁명적인 전환과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가 명실공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방 철 수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세계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으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조선과 세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남조선에 미군무력을 급격히 증강하였으며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온 남조선땅을 핵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미제는 저들의 아세아, 태평양 핵전략수행에서 남조선을 특별히 중요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여 이 지역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것은 우선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수량이 전례없이 방대한데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핵무기의 수량은 핵기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핵기지의 위력과 그 사용능력은 주요하게 핵무기의 수량에 의하여 좌우된다.

지금 남조선에는 155미리포용 핵포탄, 8인치포용 핵포탄, 175미리포용 핵포탄, 항공기용 핵폭탄, 《나이크 허큘레스》핵탄두, 《오네스트죤》 핵탄두, 《서젼트》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100평방키로메터당 1개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되여있는것으로서 《나토》지역보다 그 밀도에서 4배나 높으며 아세아,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국핵무기총수의 절반이상에 달한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에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을 제일먼저 끌어들였으며 최근에는 기동전술미싸일 《랜스》를 끌어들이고있다. 이 《랜스》미싸일은 일반 포탄이나 핵 및 중성자포탄을 다같이 발사할수 있는 신형지상기지미싸일이다. 그리고 미제는 공중발사순항미싸일과 《퍼싱 2》 전역미싸일까지 끌어들일 궁리를 하고있다.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의 총폭발능력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천배에 이르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핵기지화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에 있는 핵기지들을 부단히 정비보강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군산, 광주, 오산, 울산, 의정부, 문산, 동두천, 서울 등지에 있는 공군핵기지들과 륙군용 핵저장고들을 더욱더 보강하고있으며 부산과 진해항을 해군용 핵기지로 꾸리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고있다. 그리고 놈들은 대구에 핵전쟁을 지휘,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중전자감시소를 신설하였다. 최근에 와서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보관하기 위한 전략적핵저장고를 《620호대상》이라는 암호밑에 그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남쪽에 있는 계룡산핵저장고건설은 핵탄두와 중성자탄을 운반할수 있는 《랜스》기동전술미싸일을 끌어들이는것과 직접 관련되여있다고 한다. 군산에 있는 미공군기지에서도 40여개의 지하핵저장고들이 건설되고있다. 동시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서 직접 만들어내기 위한 핵연료가공공장건설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극소형의 전술핵무기로부터 전략핵무기, 지상핵무기와 해상 및 공중핵무기, 각종 핵탄두와 핵운반수단들로 짝 들어찬 극동최대의 종합적인 핵무기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것은 또한 조선반도주변지역에 있는 핵기지들을 정비보강함으로써 조선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신속히 집중투입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우선 조선반도주변의 핵기지들과 함선들에 신형핵무기들을 증강배치하고있다.

오끼나와를 비롯한 일본본토의 미군기지에 핵적재 함선들과 항공기들이 증강배치되고있으며 요꼬스까와 사세보항이 원자력항공모함들의 모항으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미제는 태평양함대의 함선수와 핵장비들을 대폭 늘이고 새로 개발한 현대적인 핵미싸일들을 전개하고있다. 그리하여 태평양함대 함선의 80%이상에 핵무기를 장비하였으며 태평양지역에 전개되여있는 항공모함들에 375개의 핵탄두를 장비하였다.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의 핵기지와 함선들에 신형핵무기들을 증강배치하였을뿐아니라 그것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의 《유사시대비》라는 구실밑에 이른바 전략핵무력의 《3대기둥》의 하나라고 하는 《비—52》전략폭격기와 《에프—111》전투폭격기,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 《칼빈손》호 등 핵항공모함들이 핵무기를 싣고 남조선으로 분주히 드나들게 하고있다.

미제는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극동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들에 발사지령을 안전하게 하달하고 동시타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섬유를 리용한 해저케블을 남조선과 일본본토, 오끼나와사이를 련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미제는 핵공격지령을 내리는 각종 특신시설뿐아니라 핵선제공격을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해놓고있으며 지어 핵발사지령을 내릴 때 쓸 비밀암호까지 작성해놓고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사용할수 있게 항시적인 대기상태에 두고있다.

이처럼 미제는 《유사시대비》라는 구실밑에 조선반도주변에 핵무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임의의 시기에 조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것은 또한 미제가 남조선과 일본을 중심무대로 하여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체계적으로 벌리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10여년동안 계속되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전쟁연습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미제가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에서 진행한 그 어느 전쟁연습에도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전쟁연습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있는 《팀 스피리트 87》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와 태평양일대의 미제침략군부대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 그리고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하여 도합 2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고있으며 미제7함대소속의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각종 무력이 투입되고있다. 놈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전쟁연습을 통하여 핵전쟁전술체계를 완비하며 침략부대들의 전투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지상공격작전연습과 함께 우리 나라 동해에서 원자력항공모함 《칼빈손》호와 항공모함 《레인저》호, 전함《뉴저시》호가 이끄는 전대들이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벌렸으며 오끼나와에서 핵전쟁연습의 일환으로서 전략공군부대의 연습을 진행하였다.

조선반도의 《유사시대비》를 위한 핵전쟁연습은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사이에 벌린 각종 공동군사연습은 그 전해에 비하여 약 배로 늘어났으며 그 성격이 조선전쟁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지난해 여름 태평양에서 있은 《림팩 86》전쟁연습을 비롯한 미군과 일본《자위대》간의 합동군사연습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광란적인 전쟁연습에는 태평양과 일본에 있는 미제의 방대한 병력들과 동맹국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들도 여기에 집중투입할것을 노리는 전쟁연습이였다. 이것은 놈들이 조선반도와 일본, 태평양을 하나의 전선으로 련결시키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이 지역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것은 방대한 핵무기로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에 핵선제타격을 가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세계전략수행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미제의 세계전략은 핵무력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소멸하고 전세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려는것이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의 핵전쟁전략은 아세아와 구라파대륙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주되는 대상으로 하고 이 나라들을 주로 동서량쪽으로 핵선제타격을 가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조선반도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있다.

조선반도는 아세아대륙과 직접 잇닿아있으며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미제의 대아세아, 태평양 전략의 중추적지위에 있는 일본과 린접해있다. 아세아대륙에 직접 잇닿아있는 남조선은 대륙에로의 미국의 공격에 더없이 유리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핵전쟁전략수행에서 동방의 최전선공격거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미국 전략의 제1선》으로 규정하였고 조선반도를 핵무기사용대상에서 《1급지역》에 해당하는《전략적요충지대》라고 떠벌이고있는것이다. 특히 미제가 조선반도를 1980년대의《힘의 대결의 시험장》으로 공공연히 선포한것은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핵전쟁기도를 명백히 드러낸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것은 남조선이 지리적위치가 중요할뿐아니라 남조선에 임의의 핵무기들을 제한없이 마음대로 끌어들일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서도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인 남조선에서 미국은 군사인원이나 전쟁수단은 물론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경우 그 누구의 승인이 필요없으며 그에 대하여 괴뢰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 남조선에서 핵기지를 위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기한은 오직 미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세계에는 미국의 군사기지, 핵기지들이 적지 않지만 남조선에서와 같이 미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인행세를 하는 그런 지역은 없다.

미국의 퇴역해군소장 라록크가 《구라파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나토성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데서 그 누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도 일없게 되여있으며 괴뢰들은 여기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는것은 물론 그 내용도 전혀 알수 없게 되여있다. 이로부터 미국지배층은 구라파나토성원국들에

서보다 아세아 특히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이 가장 쉽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호전광들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떠벌이는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조건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에 의하여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군사적으로 담보하려는것과도 관련된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식민지파쑈통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탄압하에서도 《미제축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자》 등의 적극적인 투쟁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반미반파쑈운동이 승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무너지게 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물러가게 되면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수행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을 《반공보루》로 계속 유지하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여기에 저들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과 아세아군사전략수행에서 남조선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인 근원으로 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와 미제침략군을 철거시켜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긴장완화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수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미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조치를 외면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핵무기들을 지체없이 철거시키고 핵전쟁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근로자 1987년 제3호(루계 539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87년 3월 1일 발 행. 1987년 3월 8일
ㄱ—7525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4호(540)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오늘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모든 해외동포들과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대전을 신교하고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적 번영과 륭성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펼치고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끝장내고 주체의 기발아래 민족의 념원과 인민대중의 리상을 실현하는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0여성상의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갖은 로고와 심혈을 바쳐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임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훌륭히 완성하여야 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개척하시여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며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참다운 앞길을 개척하시였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수령은 당과 계급,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령도의 중심이며 그 총체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최고뇌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승리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새로운 혁명의 길,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밀고나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는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5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길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혁명이 어떤 길을 따라 전진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투쟁의 정확한 진로를 따라 전진하는 혁명만이 우여곡절을 모르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갖 기성관념을 대담하게 타파하시고 참신한 새세대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며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놓는데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위업, 주체위업의 새로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주체위업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위업이다.

혁명위업의 위대성은 지도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지도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혁명만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주체위업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됨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위업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위업은 또한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는 숭고한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과 그후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혁명투쟁의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던 수많은 열혈청년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뭉치였다.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를 받아안은 그때로부터 이 위대한 기치가 가리키는 길에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굳게 확신하고 억세게 투쟁하였다.

주체의 기치,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를 좀먹고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대와 교조, 외세의존과 노예적굴종을 배격하며 나라와 민족, 혁명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구현하는 위대한 기치이다. 그것은 또한 곡절많던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력사적총화이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려는 인민들의 신념이며 시대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실패와 우여곡절만을 겪어오던 지난날의 력사는 끝장나고 조선혁명은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주체위업의 새로운 시원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진군을 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시고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따라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무장대오를 무으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주체위업을 개척하는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강대한 일제를 상대로 하여 진행한 엄혹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당창건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 국면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상을 뛰여넘는 간고한 조건에서 탁월한 령군술과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항일대전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주체혁명위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가장 고귀한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으며 조선혁명은 그것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승리의 길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신 주체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펼치신 민족의 태양이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할뿐아니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

돈 분야에 걸쳐 제반 민주주의개혁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여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할데 대한 독창적사상을 제시하시고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를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 다음 곧바로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계급해방위업을 완수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공업화가 실현되여 생산력이 발전한 조건에서만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할수 있다는것이 하나의 굳어진 공리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할지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한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지체없이 사회주의적개조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고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이 새롭게 발전되게 되였으며 지난날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참다운 길, 완전한 계급적해방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이 아무런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완성되였으며 결과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장구한 기간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대중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하여줄수 있는 더욱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것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혁명을 계속하여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옳바른 길을 개척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력사적과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해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

여왔으며 우리 조국은 자주, 자립, 자위로 이름떨치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시고 힘있게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9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기본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시기의 혁명문제가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간해방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근본방도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우리 조국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지난날 천대와 멸시만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자주적인민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개화기,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의 참다운 향유자로 될수 있었다.

주체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이룩된 위대한 세기적전변은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일찌기 주체의 해발로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를 확립하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시였으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령도의 특징이며 혁명적원칙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비약과 혁신만을 창조하여온 중요한 비결이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현명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인것만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추진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열의와 지혜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혁명앞에 조성된 난관을 성과적으로 타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영웅적위훈과 앙양을 창조하시였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령도적풍모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세련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주체조선의 위용과 영예를 빛내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의 위업을 수행하여온 전로정은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조국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들로 수놓아져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이 개시된것은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순결성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속에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단결이 철석같이 다져졌다.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날에 날마다 놀라운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길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당의 위력과 령도적권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에서 자기들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을 가진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의 발걸음을 늦출수 없으며 더욱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앞에는 오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로정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과 수령님께서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혁명의 밝은 전도와 미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데 전적으로 귀착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자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나아가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위대한 당이 현명하게 이끌고 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종국적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밑에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마련하는 나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굽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것은 우리 당중앙이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업적이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을 우리 당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필승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대오가 있는 이상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림 춘 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력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이다.

인류가 낳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시는 한평생은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의 혁명리론을 밝히시고 혁명을 굽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0여성상 주체혁명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영광의 력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대를 이어 끝까지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1)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 과학적인 전략전술은 오직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계급투쟁의 법칙, 인민들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혁명사상과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신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심오한 사색과 과학적인 탐구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그 보물고를 끊임없이 풍부화하여오신 행로였다.

뛰여난 예지와 위대한 실천능력을 겸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고요한 서재속에서가 아니라 피어린 혁명의 폭풍속에서 새로운 혁명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기 위한 리론활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리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은 혁명리론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8페지)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은 시대가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

면적인 해답을 주는데 있다.

시대가 바뀌고 혁명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혁명 사상과 리론도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합법칙적현상이다. 우리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력에 의하여 혁명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에 광범히 일떠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혁명투쟁에 광범히 일떠서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깊이 헤아리시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추동력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해명된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므로 혁명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인민대중이 창조성을 가지고있으므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있는 의식성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이 근본원리는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해명함으로써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요구를 위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밝혀주었으며 그들이 혁명투쟁에서 노는 역할을 해명함으로써 모든 혁명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의 본질과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을 가장 정확히 규정해주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리론의 가장 주되는 특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한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본질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신것은 사람들의 본질적속성에 맞게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을 뚜렷이 해명하고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이 이 목적실현에 철저히 복종되게 하는데서 빛나는 공적으로 된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본질적속성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남김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혁명이란 바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일정한 단계에서 고조되여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변혁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해명하심으로써 모든 형태,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의 공통적인 본질을 찾아낼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의 특성에 따라 모든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을 가장 정확히 해명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혁명투쟁의 본질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면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어떠한 질곡을 없애는가에 따라 매개 류형의 혁명투쟁, 모든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이 규정되게 되는 것이다.

민족해방혁명의 기본내용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을 없애고 매개나라 인민이 자기 민족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데 있으며 계급해방혁명의 기본내용은 착취계급의 계급적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근로계급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다음 인간해방의 기본내용은 사상생활, 로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요인을 완전히 없애는데 있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도 자주성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 그 기본내용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다.

사회개조투쟁의 기본내용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자연개조투쟁의 기본내용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인간개조투쟁의 기본내용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상문화생활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을 마련해주시였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온갖 류형의 혁명과 모든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론을 전개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발전의 추동력과 그 승리의 요인, 조건들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적원칙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혁명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혁명투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힐뿐아니라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하여 발전하며 그 승리의 요인과 조건은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는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투쟁의 본질뿐아니라 그 추진력도 사람들의 본질적속성에서 찾을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추진력을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하심으로써 혁명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혁명투쟁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면 혁명발전의 추동력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창조성, 창조적힘이 있기때문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세계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은 창조적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혁명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란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자기의 창조적힘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떠나서 혁명투쟁의 본질을 리해할수 없는것처럼 그들의 창조적힘을 떠나서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합법칙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연을 개조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은 사회의 물질적부의 생산을 다그치는 원동력이라면 사회를 개조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으로서의 그들의 단합된 정치적력량은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개조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혁명투쟁에서 자주성의 실현정도는 주로 그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의 발휘정도는 주로 그 추동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추동력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고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요인과 조건,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원칙 등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하여금 혁명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신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은 반드시 사람과 개조대상 그리고 이 량자의 호상작용이 있어야 이루어질수 있다. 여기에서 주체적요인은 인민대중이며 사람밖의 모든 조건들은 객관적조건이다. 혁명승리의 주체적요인은 혁명투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높은 창조적역할에 있다.

물론 사회의 경제물질적요인이 혁명운동에 거대한 영향을 주지만 그것들은 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가능성을 조성할뿐이고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되지 못한다.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고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있다.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조성되기만 기다려서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추동력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높여야만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새로운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옳바른 투쟁목표와 주공방향을 규정하고 혁명력량을 정확히 편성하며 시기적절한 혁명의 시기를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투쟁방법을 내세우는 문제 등 모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력량관계,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에 맞는 전략전술적원칙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력한 혁명리론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제시하시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리론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을 새롭게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면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을

통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계급적예속을 청산하는 과업이 민족적예속을 청산하는 과업과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적통치와 봉건지주의 계급적 착취와 압박이 십쳐있었던 지난날의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실정과 여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시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계급해방투쟁을 민족해방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받던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투쟁에 광범히 일떠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여 그 성격에 맞게 혁명의 동력과 대상에 대해서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적과업과 반봉건적과업 수행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수공업자, 소상인, 량심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등 반제민주력량을 혁명의 동력으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군인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을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그리하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그 반제적, 반봉건적 성격에 맞게 정확히 규정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과 대상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혁명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문제, 토지혁명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문제 등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적,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계급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지체함이 없이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과정에서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계급해방위업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 사회주의에로 가는 곧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 인민들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쓰라린 진통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 방침을 내놓으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하신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이 혁명인것이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할것이 아니라 3대혁명을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81~82페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적요인을 혁명적으로 변혁하는것이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먼저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적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사회성원들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받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주로 반제적과업과 계급해방을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

낡은 사회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제되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 의하여서도 적극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져 인민대중이 국가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이 낮을 때에는 새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차지할수 없으며 더우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낡은 사회의 착취제도가 전복되여도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낮으면 새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지 못하고 새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수 없으며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할수 없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기술문화수준이

낳으면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경제문화생활의 참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으며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데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야만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등 온갖 차이를 청산함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도록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마지막요인을 없애고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숙망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이바지하신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유격전과 현대전쟁, 새로운 주체형의 당건설 및 인민정권건설, 근로단체건설, 경제, 국방, 문화 건설, 분렬된 나라에서의 전국적혁명과 지역적혁명의 수행, 해외동포운동 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온갖 형태의 투쟁과 관련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 등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새로운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온 세계의 자주화,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투쟁,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 블럭불가담운동,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 등 우리 시대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새롭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인류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리론으로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시였으며 60여성상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혁명리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그 변혁적역할로 하여 지난날 곡절많던 조선혁명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가 넘는 행로는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니였다. 여기에는 두 제국주의강점자들과의 피어린 전쟁, 락후와 빈궁과의 투쟁, 혹심한 파괴속에서의 전후복구건설투쟁, 온갖 원쑤들과의 심각한 투쟁, 북과 남의 분렬로 하여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 등 실로 걸음걸음마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매 단계, 매 시기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주체의 혁명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이 모든것들을 빛나게 타개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을 구현하시여 영광스러운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이 차넘치고있던 이 땅우에 부강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고 인간해방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는 행복하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마련될수 있다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진리로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옹호고수되고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 규정하고 3대혁명을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한몸바쳐싸우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는것이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수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3대혁명수행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투쟁은 혁명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신념은 혁명에 대한 원리적인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서만 강화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체득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혁명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혁명의 한길따라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을 로숙하고 세련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수령이시다

서 철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보다 휘황한 앞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우에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당으로 장성강화된 력사적시기에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1)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이다.

강위력한 당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민족의 휘황한 장래도 바랄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 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킴으로써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력사는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령도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닦았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3페지)

혁명투쟁을 로숙하고 세련되게 이끌어나가는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충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함이 없이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당은 혁명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파멸을 면할수 없다.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이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 자체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처음부터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이것은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진통과 곡절을 겪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위업은 반드시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이룩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당의 조직적골간을 키우시고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져놓으심으로써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장구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다. 이 튼튼한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창건된 우리 당은 그 첫날부터 집권당으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떨치면서 혁명과 건설을 로숙하고 세련되게 이끌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정확한 당창건로선을 제시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으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종파주의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혁명의 전위부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울이신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위대한 향도적력량의 탄생이였다.

당이 창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공산주의미래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자랑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령도해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당건설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그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당건설의 계승

성을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되게 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대오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다.

일찌기 《ㅌ. 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 위대한 투쟁의 조직자, 령도자인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성과 조직성,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른 백전백승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혁명을 령도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백전백승의 당이며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당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전략전술이 작성되고 인민대중의 투쟁이 조직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세련된 령도력은 구체적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로숙하고 세련되게 진행하는 당이라야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이였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모든 혁명과업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로정이였으며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의 교활하고도

악랄한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굽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이다.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풍모는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당활동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정확한 방향에 따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세웠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침으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기술개조에 앞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전적으로 맞으며 기성관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혁명성을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에만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조직정치사업을 능숙하게 벌려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드팀없이 관철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사소한 편향이나 곡절도 없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고있다.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여나가시였다.

우리 당은 장구한 실천투쟁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드팀없이 체현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그대로 벌려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

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의 의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질서가 확립되고 당의 결정 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과 강철같은 규률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일단 하자고 결심하면 그 무엇이든 못해내는 일이 없는 전투적당으로,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되였다.

언제나 높은 목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능숙한 지휘와 비상한 전개력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공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는데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일본새이다. 우리 나라에서 당사업과 국가사업, 경제문화사업과 대외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여가고있고 중대한 국가적행사들이 권위있는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투장들에서 기적과 혁신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벅찬 현실은 우리 당의 비상한 조직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혁명적당이다.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였으나 우리 인민이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안고 기세충천하여 용감히 싸워나갈수 있은것은 우리 당과 같은 위대한 전위부대를 가지고 그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여야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직 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을 철저히 막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활동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벌려나가는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명백히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멀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는 행정에 군중과의 사업을 굽임없이 개선강화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갔다. 우리 당은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며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우리 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것이였다.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책임적으로 보살피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

동한 립장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도 함께 뚫고나갔으며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우리 당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면 나설수록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것을 극복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낼수 있었으며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반악적공세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물리칠수 있었다. 인민대중이 당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세련된 령도로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관철해온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힘있는 시위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혁명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의 간고한 길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행정에서 세기에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로숙하고 세련되게 벌려나가는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류례없이 복잡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기에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침없이 수행해나가는 비상한 전투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어떤 엄혹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었으며 반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빛나는 성과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결국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오랜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고 혁명투쟁에 대한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닐 때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당만이 참다운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

성과 간고성을 띠는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시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당을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 로숙하고 세련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을 가장 중요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산주의의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계속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힘있게 령도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시고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항일의 혁명전통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튼튼히 고수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들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의 이러한 원칙적립장에는 추호의 동요와 변함이 있을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대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이다.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그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된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가장 의의있는 사변으로 된다. 이 위대한 혁명적당이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감으로써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는 끝없이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더욱더 보람찬것으로 되였다. 항일의 그날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로혁명투사들과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지금 공산주의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게 된것으로 하여 끝없는 긍지와 기쁨에 넘쳐있다.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당에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기치따라 이 세상 끝까지 싸워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　　　*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

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을 가장 존엄있고 로숙하고 세련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키워오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모든 영예와 권위는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이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참된 길이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이 있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혁명의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사업으로 내세우고 거기에서는 사소한 빈틈이나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불굴의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투철한 립장과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굽임없이 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조직령도하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는 우리 당밖에 다른것은 모른다는 확고한 정치적신념을 가지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만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의 로선과 방침, 결정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력있는 전도양양한 당, 주체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더 철통같이 다지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것을 바라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언제나 승리의 신심에 넘쳐 찬란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권 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

리 근 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60여성상에 걸치는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권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고 공화국정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신 고귀한 업적으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조국의 광복과 륭성, 공화국의 창건과 공고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공고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참된 주권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세기적인 변혁과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새형의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륭성번영하는 조국이 있고 보람찬 생활이 있으며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투쟁과 생활의 진리로 체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기념일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가득차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인민정권을 창건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긴 이래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주권을 가지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력사적교훈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참다운 국가정권을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갈때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적인 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로선을 제시하시여 새로

운형태의 참다운 혁명정권을 건설할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76～77페지)

정권의 형태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형의 인민정권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건설로선으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진정한 혁명정권을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정당한 로선이였다.

참다운 혁명정권은 그것이 혁명의 성격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형태를 갖출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념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시된 정당한 로선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제관계가 지배적인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 혁명은 부르죠아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인민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로동계급과 농민은 물론 광범한 반제력량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정권형태문제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새형의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로선은 우리 혁명이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해방후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전략적단계에서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당한 로선으로 되였다.

새형의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로선은 또한 혁명의 사회정치적지반이 전례없이 넓어진 변화된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정권을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힌 로선이였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 되였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에서도 해결해야 할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특히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전례없이 넓어진 새로운 환경은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새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들이 정권에 참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권, 인민정권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던것이다.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은 바로 우리 시대의 이러한 요구에 맞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정권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

한 로선으로 되였다. 이 로선은 우리 인민정권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도 맞는 우월한 정권으로 되게 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새로운 정권형태를 발견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위업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시면서 인민정권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두만강연안의 유격구들에 새로운 류형의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그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해방된 조국에 세워야 할 인민정권의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또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앞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핵심적골간들을 육성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한 경험과 인민정권창건을 위한 핵심적골간을 육성한 고귀한 업적은 우리 인민정권건설의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이 고귀한 재부는 해방후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해방후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여기에 또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좌우경적 구호를 들고나와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새 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정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당시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느니,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느니 하면서 혁명력량을 분렬시키고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을 혼란속에 빠뜨리려고 책동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로선에 기초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신것은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자기 주권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으며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북반부를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선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해방후 인민정권을 세운 다음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그것을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어느 한 혁명발전단계에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는 력사적과정을 통하여서만 실현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국가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혁명임무에 맞게 정권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혁명임무에 맞게 정권문제를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훌륭히 해결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수행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는 모든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수행하던 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하여주신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건설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북반부에서 이룩된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혁에 기초하여 그리고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1948년 9월 통일적인 국가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건설하여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혁명의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렇듯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해방후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의 현명성이 있으며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이 있는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인민정권이 각계각층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4페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정권을 세우는것으로 다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수립된 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정권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인민정권을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공화국정권의 지도적지침으로 규정하심으로써 국가정권이 그 어떤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국가정권의 위력과 존엄은 그 국가가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에 달려있으며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국가정권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국가정권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사상, 지도리념으로 삼을 때만이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작성하고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화국정권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공화국정권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사상을 정권활동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리념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정권은 공고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가진 위력한 정권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공화국정권을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의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하여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준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은 마땅히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정권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되였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정권활동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옹호자,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 혁명정권으로 되게 하시였다.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공화국정권의 모든 활동의 확고한 기준으로 되고있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며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이 주체형의 혁명정권인 공화국정권의 드팀없는 활동원칙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또한 지난날 나라없고 주권이 없었던탓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들에게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고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되였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시켜 교육교양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조직자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정권을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인민정권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한것이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와 함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줄수 있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정권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서도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정권기관이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장악하고 관리하며 계획적으로 생산을 조직진행하며 생산과 분배, 소비를 비롯한 나라살림살이 전반을 틀어쥐고 조직지도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잘 조직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권기관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도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향상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정권기관들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비롯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인민정권기관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전망적 요구와 인민들의 당면한 생활상 요구를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향상시킬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으며 정권기관 사업체계도 그에 맞게 정연하게 세워졌다.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요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험도 남아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고 첨

예하게 벌어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성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전체 인민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법규범과 규정들을 완비하고 대중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인민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해주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주체적인 립장에서 사회주의민족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여 인민정권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정권은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권기관들의 사업과 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정권기관들이 하나의 사상과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정권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헌을 비롯하여 여러 문헌들을 발표하시여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하심으로써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하도록 하신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그들속에서는 늘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찾고 일해나가고있으며 군중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풀어주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는 공화국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는 정치적무기로,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은 우리 인민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혁명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이룩됨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건설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늘 가장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가진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권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의 인민정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고 자신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오늘 공화국정권앞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당면하게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우리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이다. 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로 지향시켜야 하며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며 공화국정권의 중요한 기능이다. 정권기관들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더욱 높여 당면한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장기간의 실천투쟁속에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에 충실하는것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정권기관안에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확고한 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모든 정권활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전개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오 진 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시는 과정에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의 년대기우에 찬란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우리 인민의 참다운 혁명군대를 창건하시고 현대의 가장 포악한 미일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여 민족적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혁명군대를 이끌어 조선혁명을 찬란히 빛내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탁월한 령도의 력사를 펼치고계신다. 이 전로정은 비범한 예지와 주체의 령군술로 로동계급의 군건설위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령장의 투쟁행로였으며 인민대중의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걸출한 군사영재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으로부터 55년전 백두밀림에서 탄생한 때로부터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혁명무력의 진두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끝없는 행복이며 커다란 자랑이다.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우리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던 시기에 몸소 그 첫 대오를 꾸리시고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키우신 혁명적무장력입니다.》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발전하며 승리한다. 혁명의 원쑤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직폭력에 매달리며 그것을 필수적인 통치수단으로, 침략의 도구로 삼는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짐으로써만 반혁명적폭력을 분쇄하고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으며 승리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성은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켜 나라와 민족을 옹호보위하는 사업을 령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가

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 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무력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군대를 창건하신것이다.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은 총을 잡은 몇몇 사람이 모여 군대의 창건을 선포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요구에 맞는 혁명무력의 성격과 임무, 그 건설 원칙과 방도를 정확히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령도가 보장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심각한 투쟁과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은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주권도, 민족군대의 토대도,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없으며 게다가 온 나라가 일제의 폭압망으로 뒤덮인 조건에서 적들의 야수적인 탄압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민족주의적무장대들의 방해책동까지 겹치여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은 간고한 투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식민지나라에서 혁명군대를 건설하는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던것만큼 그 어디에서 배워올만한 군사경험도 없었으며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준비된 지휘력량도, 무기도, 군사교범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혁명무력을 조직하는 일은 그야말로 과감한 용단과 창조적인 사색, 독자적인 주견과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이 요구되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 사업은 오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건질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간직하시고 혁명무력창건의 거창한 위업을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었다. 이 길은 오직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예지로 빛나는 로정이였으며 수령님께서 살판치는 원쑤들의 백색테로를 뚫고나가시면서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키우고 묶어세우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무장투쟁의 길로 불러일으키신 장엄한 투쟁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가 체험하지 못한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시면서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였던 가장 정확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고 어렵고 복잡한 군사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결해나가시였다.

건군사업에서 기본은 무장력의 기본요소인 사람, 무장대오를 편성하는것이며 무장을 갖추는 사업이다.

조국광복의 기치,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자라난 혁명조직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혁명무력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몸소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앞으로 조직될 혁명군대의 조직적골간과 대중적지반을 축성해나가시였으며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조직과 조선혁명군, 공청조직, 반제청년동맹조직들에서 혁명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빠른 기간에 훌륭히 수행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로 마련하신 혁명무력창건을 위한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영생불멸의 주체사

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정치적부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반듭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정규무력과 장기적으로 맞서 싸우게 되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 유격전의 요구에 맞게 직업적혁명가들로 조직된 상비적혁명무력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직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혁명군대를 창건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여기에 비상비적혁명무력인 반군사조직들을 결합시켜 우리의 혁명무력을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 강력한 무장대오로 꾸리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 자기의 혁명무력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피타는 갈망과 절절한 념원이 비로소 실현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무력을 건설해나가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종지부를 찍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위대한 진군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개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무력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또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나게 완성할 무적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신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때문에 혁명이 아무리 멀리 전진하여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무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계속되여야 한다.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조국광복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의 혁명무력을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군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권과 국가적후방이 없는 조건에서는 유격대형식의 상비무력을 조직하는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지만 주권과 국가적후방이 있는 조건에서는 그를 지체없이 정규화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유격전의 형식에 맞는 상비적무력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온 고귀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이미 무르익히신 자위적군사강령에 따라 지체없이 강력한 정규무력건설사업에 착수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그리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분렬정책과 침략책동이 강화되고있는 긴박한 정세의 추이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화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후신이며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우리 당의 참다운 혁명적무장력이다. 이 강력한 현대적정규무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불멸의 위훈을 떨칠수 있었으며 전후에도 원쑤들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다지는 사업은 혁명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굽임없이 진행되여 왔다.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로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동하여 진행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사업을 잘해나가야 혁명무력을 그 어떤 침략군대와도 싸워이길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꾸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 자위적군사로선과 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방침, 군무생활의 10대준수사항을 비롯하여 군건설에서 나서는 옳바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이 빛나는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대오로,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는 강철의 무장대오로, 그 어떤 원쑤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량으로 자라났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로 하여금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방향으로,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방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지도를 주고계신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고수하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부동한 무력적담보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건설령도를 통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헌의 하나로 된다.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령도하는 과정에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로동계급이 혁명무력을 건설하는 목적은 단순히 무장력을 마련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분쇄해나가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혁명무력의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과 커다란 업적은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나타나며 빛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해방전쟁과 조국방위전쟁, 유격전쟁과 현대전쟁 등 여러 형태의 혁명전쟁에서 우리 혁명무력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한것은 세계전쟁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일찌기 없는 탁월한 령장의 불멸의 공적을 그대로 확증해주고있다.

항일혁명전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포악무도한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이며 국제파시즘의 아세아돌격대였던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진행된 민족해방투쟁이였으며 장기성과 간고성에 있어서,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류례없는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밝히시고 매 발전단계마다에서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적지도를 주시였으며 수많은 작전, 전투들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여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일제놈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돌파구를 형성하고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승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오시였을뿐아니라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을 또다시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정규적무력으로 강화발전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인민군대가 백십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패배해본적이 없다는 미제와 그에 련합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맞선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침략자 미제를 격멸하는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과 인민, 군대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전쟁에서 나서는 모든 전략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전쟁개시 3일만에 적들의 소굴이였던 서울을 해방하고 한달반동안에 남반부 전지역의 90%이상을 해방시킨 탁월한 령도와 우세한 적의 포위공격기도를 짓부시고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게 한 전략적후퇴의 조직 그리고 철벽의 진지방어전으로 적들의 모든 공세를 죽음과 절망의 공세로 만든 위대한 령도는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서사시적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제국주의체계의 전면적붕괴를 촉진시키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는 가장 위력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이끄시여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새시대를 펼치고 혁명군대력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나일한 군사예술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위대한 력사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군대의 건설과 그에 대한 령도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뛰여난 군사적자질과 령도적풍모를 완벽하게 지니고계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다.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그를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군사에 정통하고 위대한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령장만이 할수 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참다운 주체의 혁명무력으로 태여나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고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군사가로서의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실천능력을 겸비하시고 혁명무력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풍모와 직접 련결되여있다.

위대한 군사사상을 지니고계시는것은 탁월한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출한 풍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군사적지략을 겸비하시고 로동계급의 군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시대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군사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의 군사사상, 자위적군사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말이며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것입니다. 참된 혁명가들은 언제든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외래제국주의침략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자기를 보위하려는 자주적인 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군사사업의 주인은 군인대중이며 군사사업의 성과는 군인대중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새로운 원리를 밝히고있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의 군사사상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데 대한 자위의 원칙과 함께 군인들의 사상의식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 군사사업을 수행해나가며 군인대중을 반동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군사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적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이러한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군사사상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일관한 원칙으로,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세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는것을 혁명군대가 견지해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견해와 관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건설, 군사전략과 령군방법 등 모든 군사문제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주체의 군사사상은 우리 시대 군사문제해결의 대백과전서이며 로동계급의 군사사상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군사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탁월한 군사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지난날에는 물론 오늘도 강력한 주체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가고있으며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다.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활한 전법을 지니신것은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또하나의 특출한 풍모이다.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군사령장의 최대의 사명이며 그것은 령장이 지닌 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전쟁마당에서 군대의 위력은 령장이 지닌 전술과 전법을 통해서 발휘되며 령장의 전술과 전법에 전쟁의 승리가 크게 달려있다. 이로부터 령장의 위대성과 비범성은 령장이 활용하는 전술과 전법의 령활성에서 나타난다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그 어느 군사가도 따르지 못할 전략전술과 령군술을 지니고 우리 혁명무력을 승리에로 이끄신 천하명장이시다.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는데는 바로 수령님께서 신출귀몰하고 령활무쌍한 전법과 전술로 침략자들을 쥐락펴락하며 군대의 전투승리를 현명하게 령도해오신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의 나날 유격전의 형식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들을 수많이 창조하시였으며 그것으로 가는 곳마다에서 일제놈들을 매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지금까지의 그 어느 병서나 무장투쟁경험에도 없는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써 압도하고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변만화하는 기묘하고 령활한 전법과 전술 앞에서 얼혼이 나간 일제침략군놈들은 《공산군의 전술은 참말로 귀신이 곡할 일이다. 어느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병법〉으로 전쟁을 한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수령님의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통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가 꺾어지고 전쟁에서 패배한 괴뢰두목놈이 16개 국가가 《자그마한 공산군》을 이기지 못하여 정전협정에 조인한것은 더없는 수치라고 개탄하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놈들의 말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적의 전략적기도와 약

점, 전쟁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적보다 몇수 더 먼저 뜨시면서 조성된 전쟁정세에 맞는 전법과 전술들을 창조하고 적용하심으로써 탁월한 령장의 높은 군사적자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용하신 수많은 전법들은 인민군부대들의 활동에서 그 독창성과 비범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전쟁에서 적을 련환하게 쳐이길수 있는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군술을 완벽하게 지니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자애로운 인품을 겸비하고계시는것은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출한 풍모이다.

령장의 활동은 침략자들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싸움과 련결되여있으며 군대를 이끌어나가는 사람과의 사업과정으로 된다. 아무리 좋은 군사사상이 있고 전략전술과 전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하거나 군인대중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군사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시련도 많고 불리한 정황에도 처할수 있지만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끝장을 볼 때까지 군인대중을 불러일으켜 군사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 령장의 위대한 풍모가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의지와 담력은 아무리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그 어떤 백만대군이 밀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를 내다보며 군대를 이끌어나가는 강철의 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락관주의자들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의 소유자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66페지)

력사에는 우리의 인민군대처럼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군대를 알지 못한다. 걸음걸음을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20성상의 항일혁명의 로정도 강의한 의지와 담력으로 이겨내시였으며 이 의지와 담력으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미제의 불의의 타격에 끄떡하지 않으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고 3년간의 전쟁마당을 놈들의 거듭되는 패전장으로 만드시였다. 미제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판문점사건》등 침략책동을 빈번히 감행하면서 우리를 위협해나설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침략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야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한 단호한 립장을 취하시여 놈들로 하여금 우리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였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놈들의 그 어떤 《토벌》작전도, 《불퇴의 선》도, 《상승사단》도, 전쟁도발책동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으며 우리 혁명군대의 힘은 언제나 백배해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것은 그 어떤 무기나 원자탄에 있는것이 아니라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인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을 극진히 아끼고 끝없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품으로 인민군대를 하나로 굳게 결속시키신 어버이이시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인민군대의 위력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져왔다.

항일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준엄한 전투장과 험난한 가시덤불길, 위험한 전선길과 초소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전사들을 찾으시여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없이 많다. 태양보다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사령관과 전사가 하나의 뉴대로 굳게 련결된 일심단결의 새 력사를 펼치고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된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혁명무력으로 자랑떨치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의 가장 큰 영광이며 조선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절대적담보이다.

＊ ＊

백두의 수림속에서 첫 총성을 울린때로부터 우리의 혁명무력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나아가야 할 혁명의 길은 곧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위대한 령장의 풍모를 빛나게 계승하고 그대로 구현하여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이 길에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의 군사파쑈도당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거듭되는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거부하고 올해에도 20만이 넘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87》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다. 놈들이 만약 조선에서 무모한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섬멸적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제놈들이 지른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조금도 안일해이함이 없이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그 어떤 원쑤들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리 종 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으며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보람찬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기념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혁명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은 경제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며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투쟁 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로동계급의 백과전서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31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이 창시됨으로서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이 제시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곧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여러 단계의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수행하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강화하는것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이 밝혀짐으로써 경제건설의 단계별 목표를 뚜렷이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로정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과 기술혁명로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을 비롯한 경제건설로선들을 제시하시여 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 모든 경제건설로선들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정당한 로선이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로선들이 제시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는 곧바른 방향과 방도들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 가장 생활력있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사상은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생활력은 그것이 구현하고있는 지도사상, 지도리론의 위대성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구현하고있는 경제건설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창조와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경제건설사상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건설사상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경제건설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구현하여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을 제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개하고 체계화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은 경제에서 자립이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경제건설분야에 새롭게 제기한 요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할데 대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원칙이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경제적자립을 경제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하고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것을 경제건설의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경제를 건설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튼튼한 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선사상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을뿐아니라 방법론적기초로 하고있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을 방법론적기초로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경제건설을 하는 관점과 립장을 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사상이야말로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하는것과 함께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고도로 발전된 높은 생산력을 마련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해나가는 사업은 여러 단계의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여야만 원만히 성취될수 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그것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특히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발전과정을 순조롭게 하고 그 전망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옳바로 인식되고 리용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혁명정세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원만히 실현해나가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을 원만히 실현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과 같은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바로 타산하며 상품생산의 경제법칙들을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켜 옳바로 리용할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인식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여기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경제 현상과 과정을 옳게 대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바로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들에 관통되여있는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경제활동을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경제건설사상,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경제건설사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이처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빛나는 영광의 로정이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해온 자랑찬 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언제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427페지)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수행하던 시기를 비롯하여 언제나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우리는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해야 할 사업이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자면 혁명적군중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시였으며 대중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지난 기간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낸 강선로동계급의 위훈과 한해동안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를 더 생산하고 불과 3~4개월동안에 지방의 유휴자재와 로력으로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워 사람들을 경탄시킨것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신 결과에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독창적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경제건설에서 군중에 튼튼히 의거하고 그들의 집

체적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에 대중을 널리 참가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며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해나가시는데서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혁명적기풍이 적극 발양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기술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가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신데 기초하여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며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옳바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게 하시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문제,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와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비롯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그 해결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대중운동과 혁명적인 투쟁구호는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으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인 구호들을 제시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31～132페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민족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경제적민천이 마련된것이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종합적인 경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중공업은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국내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며 인민경제에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강력한 중공업으로 되였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고있으며 개별적인 기계설비들뿐아니라 발전소설비, 금속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를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도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경공업정책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현대적인 대규모경공업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지방의 광범한 예비를 동원리용하는 중소규모의 지방공업공장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원료문제를 우리 나라에 풍부한 농산물과 수산물,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자체의 내부원천에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농촌경리의 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되여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있으며 낟알털기를 비롯한 많은 농산작업을 전기의 힘으로 진행하고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민들이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흥겹게 일하고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위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최근 시기에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있으며 기술장비가 현대적으로 개선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되고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처럼 위력하고 공고한 경제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오직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올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

한 령도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지도로 이 땅우에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담보하는 위력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높은 속도로 발전해온 우리의 공업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말할것도 없고 1961년—1970년사이에는 매해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1970년—1979년사이에도 해마다 15.9%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발전의 높은 속도가 이룩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으며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고 제2차7개년계획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을 세계적으로 늘여온 우리 인민은 1984년에는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가 심각한 원료, 연료 위기로 침체상태에서 허덕이고있을 때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이룩된 높은 속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이시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구현된 결과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사회적재부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들을 광범히 실시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들의 전반적인 물질문화생활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지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풀어나가고있다. 위력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비상히 높일수 있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 자주시대 경제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인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건설사상과 그 위대한 승리

최 태 복

오늘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문화의 일대 개화기를 맞이하고있다.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찬란히 꽃피난 문명한 나라로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인민대중을 위한 선진적인 교육과 과학기술, 문학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사상을 밝히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 ⁂

문화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이며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은 문화의 발전을 떠나서 있을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나라와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은 민족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과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워야 사회적진보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러한 나라들이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문화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새로 건설하는 문화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화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문화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새로 건설하는 문화의 성격과 그 발전방향을 똑바로 규정하는것은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문화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그 실현방도를 옳게 밝히고 편향없이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새시대의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민족문화발전력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이다. 그것은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표현하고 그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반동계급의 문화와 근본적으로 대립될뿐아니라 지난날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유산과도 질적으로 구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새로운 문화의 성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문화건설의 길을 명시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하여야 할 문화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옳게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와 양풍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41페지)

주체를 세우는것은 새로운 민족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문화건설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민족적정서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하며 조선혁명을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직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문화만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나라마다 사회력사적조건이 다르며 민족마다 그 특성이 같지 않다. 문화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아야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문화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적인것을 위주로 하여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자기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계승하여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필수적조건이다.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문화유산의 옳바른 계승발전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다른 나라 문화의 성과와 경험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이다. 문화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민족적인것을 위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 문화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의것으로 소화하여야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원칙은 실로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민족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혁명적본질, 계급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인 문화이며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생명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로 되는것도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의 사상과 요구를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문화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당의 사상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민족문화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는것은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는것만큼 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고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민족문화건설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특히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 신식민주의정책에서 중요한 고리를 이룬다.

제국주의의 반동문화는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정신적마약이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애하는 유해로운 독소이다. 제국주의의 반동적사상문화공세에 굴복하여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습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그 부식작용에 의하여 민족문화는 점차 말살되고 사람들이 부패타락하며 사회생활에서는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된다.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리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독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을 때에만 문화를 철두철미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화로 드팀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문화건설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민족교육을 앞세우면서 문화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민족문화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온 일관한 방침이다.

교육은 새 사회 건설의 성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은 그 담당자인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족교육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하여야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고 빠른 시일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건설사상은 문화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전면적으로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문화건설사상은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전진하고 문화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높아지는데 맞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혁명적인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민족문화는 로동계급속에서 창조된 문화를 끊임없이 보급일반화하여 온 나라에 로동계급의 문화가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힌 창조적인 사상으로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체의 본성에 맞게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이 문화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 특히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한것은 주체의 문화예술건설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줌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주체의 민족문화건설사상은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독창적이고 정당한 사상이다. 그것은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개화발전시켜나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문화건설의 대강이며 등대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문화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을 새 사회 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새로운 민족문화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인테리는 민족문화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은 그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인테리부대를 가져야 과학과 기술, 교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일제의 민족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인테리가 매우 적었던 실정과 식민지나라 인테리의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여 교양개조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민족문화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시였다.

민족문화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민족문화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활동의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적문화건설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고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활동과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인 문예활동을 옳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적문화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문화건설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30페지)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하나는 교육부문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난것이다.

교육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이 수많이 일떠서고 125만명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났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오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로 키워낸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모든 국가, 경제기관들과 과학, 문화 기관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 기간 과학기술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최근년간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비날론생산의 넓은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대형산소분리기와 1만 5천톤급 초고압유압프레스를 훌륭히 만들어낸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빨리 발전하고있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리공학적으로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거창한 서해갑문을 불과 5년사이에 일떠세우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그 어떤 대상설비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내며 농작물의 육종방법과 재배방법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해결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이룩된 가

장 빛나는 성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일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등이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로 훌륭히 옮겨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이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되였으며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령형상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된것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혁명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여러가지 문학예술작품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수령형상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이처럼 수령형상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수많이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이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는것은 그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다원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창제하여 세상에 내놓은것은 인류문화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무용표기법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시대와 인류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한 슬기로운 민족으로서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이것은 로동당시대에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또하나의 크나큰 자랑이며 기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예술도 급속히 발전하여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고있다. 이것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당이 제시한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중예술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문학예술을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이라고 칭송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의 민족문화에서 자랑스러운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지난날의 귀중한

문화적재보들이 널리 발굴되여 로동당 시대에 와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유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창조된 문화유물들이 수많이 발굴되고 민요, 민속무용을 포함한 예술유산들이 광범히 수집되였으며 《리조실록》을 비롯한 력사, 문화관계 고전들이 대대적으로 번역, 윤색되여 우리 시대 인민들의 향유물로 되고있다.

인민보건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 당이 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는 오래전에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서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으며 병에 걸리기전에 국가의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하여 무병장수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36년이나 늘어 74살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병없이 건강하게 살며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기치아래 출판보도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어디에서나 다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보고있으며 방송을 듣고 텔레비죤을 보면서 사상문화적수양을 높이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수많은 극장, 영화관, 유희장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도시와 마을이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례절이 바르고 규률성이 높으며 검박하게 생활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체육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여 체육이 대중화, 생활화되고 전체 인민이 체력을 향상시키고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되여 새 조국 건설에 들어선 때로부터 40여년,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이 참다운 민족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 이 위대한 승리와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문화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문화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문화발전의 휘황한 전망은 문화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문화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는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문화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건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더욱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허 담

조국통일은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사적위업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통일의 날,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실현하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여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두고 한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를 이어오며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그러나 해방후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우리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이라는 새로운 재난을 겪게 되였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을뿐아니라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할 절박한 력사적과업이 새롭게 나서게 되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를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조국통일위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전혀 생소한 사업이다. 우리 인민앞에 나선 이 민족사적위업은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과 리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옳바른 사상과 리론을 가지느냐 못가지느냐 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섰다. 복잡하게 얽힌 통일위업의 진로를 열어나갈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는 이 중대한 과업은 오직 비범한 예지와 지략, 탁월한 령도력과 풍부한 혁명경험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일찌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위업실현의 가장 곧바

튼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46페지)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어떤 립장과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룩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통일위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력량도 조선인민자체의 힘이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직접 겪는것도, 나라의 분렬을 가장 가슴아파하는것도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문제에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지고 통일을 가장 절절히 열망하는것도 다름아닌 조선인민이다. 또한 조선의 구체적현실을 잘 알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것도 조선인민이다. 조국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조선사람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 없으며 또 통일된 조국을 선사할수 없다.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올바로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예속을 심화시키고 분렬의 장벽을 더욱 두터이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외세의 침략과 사대주의에 의하여 빚어진 치욕을 직접 겪은 우리 인민이 결코 조국통일문제를 남의 손에 내여맡길수 없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민족의 의사와 요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절실한 리해관계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다는데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민족사적위업은 온 민족의 리해관계와 요구를 옳바로 반영하고 그들의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근본립장과 원칙, 방법을 밝혀주는 사상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국제적분쟁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외세도 여기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우리 인민만이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전체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실현할수 있는 민족적위업이다. 통일문제는 북과 남의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한 계급, 당파나 개별적인사들의 의사에 의해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 민족적리익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그들의 의사에 의거할 때 공정하게 해결되고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다시 회복하는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우리 민족이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념원하고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지만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면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기본방침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족적해방과 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전반적국제정세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시대와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원칙과 방법에 의해 해결될 때 세계인민들의 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된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평화는 인류공동의 념원이며 오늘 전세계인민들은 한결같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정세가 가장 첨예하고 긴장한곳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키고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쉽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며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위한 투쟁에 구현한것으로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근본방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며 조국통일헌장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련방제는 같은 사상과 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다민족 다국가》, 《다민족 다자치주》의 련방제형태와는 달리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 기초하고있는 《한 민족, 한 국가, 두 제제》의 련방제로서 련방국가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통일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련방국가의 통일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7.4남북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거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대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과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습니다.》(《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5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조성된 정세에 맞게 획기적인 통일방안들을 련이어 내놓으시였으며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고 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하시였다. 지난 40여년동안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력력히 빛나고있다.

1948년 4월에 소집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구국의 기치밑에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대단합을 실현한 력사적인 사변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과 비길데 없는 아량의 빛나는 발현이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완고한 보수정객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고매한 덕성,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동되여 지난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련공합작의 길로 나섰던것이다. 이들이 련공의 길로 나서고 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미제가 《유엔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진행한 단독《선거》놀음은 사실상 파탄되였다.

1950년대에 들어와 전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인사래왕과 경제, 문화, 과학, 예술교류 등 건설적인 통일제안들을 내놓으시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시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사파쑈정권이 출현하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영구분렬을 획책하여나섰으며 북과 남의 제도상의 차이가 심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총선거안과 함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구국방안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 인민들속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한편 국제무대에서는 반제평화애호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간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미제의 대아세아정책은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은 불안에 떨고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급변

하는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북과 남의 어떤 접촉도 한사코 반대하던 남조선괴뢰들을 회담마당에 끌어내였고 4분의 1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격폐되였던 북남장벽에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다. 북과 남의 대화를 마련하고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게 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더욱더 높아가는데 겁을 먹은 박정희역도는 미제의 조종밑에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란폭하게 짓밟고 외세의존과 전쟁, 파쑈와 분렬의 길로 줄달음쳤으며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 조작을 《정책》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나라와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닥쳐온 그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는 유명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사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는 즉석에서 된 서리를 맞게 되였으며 그들의 이른바 《특별성명》이 민족분렬선언이며 대화포기선언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조국통일의 국제적환경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퍼지게 되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대회가 련이어 진행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미제가 유엔을 독점물로 만들고 조선침략의 도구로 리용해온 30년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유엔 28차총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30차총회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강점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평화통일방침과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게 된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 대결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갔다. 날로 격화되는 대결과 긴장상태를 가시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그 어떤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없었다. 따라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정확히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시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였다.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가 내놓은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제안,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데 대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들은 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국조치였다.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구호물자제공을 계

기로 주동적으로 여러 분야의 북남대화를 마련하고 지십자세출단과 고향방문단의 호상교산을 진행한것도 북과 남사이에 쌓이고쌓인 오해와 불신을 풀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있은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으시였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언제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넓은 포옹력과 아량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제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상한 통찰력으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내놓으신 획기적인 방안이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의 부추김밑에 우리의 평화적인 금강산발전소 건설문제까지 걸고들어 반공모략소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리고있으며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우리와 터무니없이 결부시키면서 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지금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는 40여년 분단사상 최악의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도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남조선에 이미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도 부족하여 새로운 핵무기들과 핵운반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20여만의 전투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무력의 80～90%를 전연에 배치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는것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격화된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완화하는것은 가장 시기적절한 방안으로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함으로써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며 조국통일위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내놓으신 구국방안이다. 북과 남사이의 격화된 정치적대결을 해소하고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그 어떤 긍정적조치도 취할수 없다. 총부리를 맞대고 마주앉아서는 대화를 성과적으로 할수 없고 또 그러한 대화를 아무리 했댔자 민족에게 리로운 결과를 가져다줄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격화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당면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로 된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는 실무분야의 회담으로써는 해결할수 없으며 반드시 그에 대하여 직접적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북과 남의 정치군사실권자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아야만 풀수 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면 북과 남사이에 수십년동안 쌓여온 불신의 감정이 풀리고 첨예한 긴장이 완화될것이며 좋은 분위기속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도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남최고위급회담까지 열고 거기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을 토의해결할수 있게 될것이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대결과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을 감행하여나선 사람들과도 마주앉아 맺힌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한없이 넓은 포옹력, 아량의 빛나는 발현이다.

이 방안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날을 따라 해내외동포들과 세계인민들 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 평화와 대화와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거듭 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 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앞길에 새로운 유리한 국면이 열려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투쟁의 년대와 년대들을 넘고넘으시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통일력량은 비상히 강화되고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평화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과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6페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3대과업이 관철된 결과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허물수 없으며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불패성과 밝은 전도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성새로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고 모두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며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 그들의 드높은 통일열망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공대결과 전쟁책동에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북반부의 사회주의진지가 튼튼히 꾸려지고있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자주화, 민주화 투쟁이 고조되고 이 투쟁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력량이 급격히 장성강화되고있다.

4.19항쟁으로 리승만괴뢰정권을 거꾸러뜨리고 부산과 마산의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매장하였으며 영웅적인 광주인민봉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날을 따라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다. 광주인민봉기의 피의 교훈에서 크게 각성되고 줄기찬 투쟁속에서 단련된 청년학생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을 뭇고 그 지도밑에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치고있으며 각계각층 인민들과의 련대투쟁을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최근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민주인사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고문학살만행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팀 스피리트 87》 합동군사연습에 항거하여 련일 집단적으로 《양키는 물러가라!》, 《파쑈정권 타

드하자!》, 《반공국시》철폐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그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멸망에 직면한 전두환역도의 운명을 구출할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7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미국과 서독, 카나다 등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은 최근시기에 이르러 조국동포들과의 대화에서 민족련합의 협의기구와 련락기구를 내오고 이를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고있다.

이처럼 오늘 해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하나의 흐름, 조국통일의 거세찬 흐름에 튼튼히 결속되여나가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도 더욱 강화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으며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과 함께 미군의 즉시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늘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의 평화통일위업을 지지하는것은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조선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이 튼튼히 다져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과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그 완성의 근본요인으로 된다.

마흔두번째의 년륜을 새기고있는 나라와 민족의 분렬이 더 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되며 조국통일은 하루빨리 이룩되여야 한다. 분렬이 지속되면 될수록 단일민족의 속성은 사라지게 되고 북과 남의 오해와 불신, 대결은 더욱 심화되게 되며 민족의 고통과 비극, 재난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야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성취할수 있으며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기술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며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거족적으로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련대성을 강화하여 통일을 위한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삼천리조국강토우에 통일독립되고 부강번영하는 하나의 조선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해외교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한 덕 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성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만대를 두고 칭송할 이 불멸의 혁명업적속에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업적이 함께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예지로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여 해외교포들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해외동포들은 력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로부터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되였으며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그러기에 우리 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해외동포들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시대 해외교포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였습니다.》

해외교포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매우 절박하게 제기된 력사적과제의 하나이다.

해외교포문제는 해외교포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 그들의 운명개척문제이다.

해외교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옳은 지침이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심원한 사상과 예지로 해외교포들의 처지와 그들의 투쟁실태를 분석하시고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여 해외교포들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을 밝히는것은 해외교포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이것이 옳게 밝혀져야 해외교포운동의 본질을 뚜렷이 할수 있고 그 근본방향이 정확히 주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

초하여 오늘의 해외교포문제는 본질상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생겨난 민족문제의 특수한 한 부분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강점과 가혹한 식민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 길을 잃고 해외로 떠나갔다. 또한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밥, 로동력으로 이국땅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오래동안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민족적 차별대우와 온갖 멸시를 다 받아왔으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해외교포문제는 이처럼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결과로 생겨나고 그후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의연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해외교포문제의 력사적근원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투쟁의 한 고리로서의 해외교포운동의 지위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여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진행되고있지만 자기 조국과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해외교포운동이 민족적애국운동이라는것은 그것이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적운동이며 자기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운동이라는것이다.

해외교포문제자체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적자주권이 유린당한데로부터 생긴것만큼 해외교포운동은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해외교포들의 운명은 자기 조국의 운명, 자기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있다. 오늘과 같이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해외교포문제, 해외교포들의 운명개척문제는 오직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의 개척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교포운동은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거기에 철두철미 복종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의 성격을 새롭게 천명하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을 백방으로 옹호하는것을 이 운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임무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시대 해외교포운동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밝히심으로써 해외동포들은 비로소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가장 훌륭히 이바지해나가는 참된 길을 찾게 되었다.

해외교포운동은 이국땅에서 벌어지는 사회정치적운동이다. 해외교포운동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이 운동에 대한 령도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해외교포운동은 해외교포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아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아야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해외교포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모든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에서 자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거주국 전위조직의 지도를 운운하는 종래의 교조주의적견해가 극복되고 해외교포들의 운명개척에서는 새로운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해외교포들이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해외교포운동에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해

리 교포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이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해외교포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조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된다. 해외교포운동에서 주체를 세워야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모든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해외동포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게 할수 있다.

해외교포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다른 하나의 기본원칙은 민족적단결을 실현하는것이다.

해외교포운동에서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다는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운다는것이다.

해외교포운동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공동의 민족적리익을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민족적단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해외교포운동은 자기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고 동포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승리적인 전진을 계속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해외교포운동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 문제, 해외교포운동의 형태와 방법,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지도 등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해외교포문제의 빛나는 해결과 해외교포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해외교포들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숭고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시대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사상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결합될 때에만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될수 있으며 자랑찬 결실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찬 현실을 펼쳐주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적인 로선전환을 이룩하시고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을 결성하여주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배타주의자들의 그릇된 책동으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운동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총련을 결성하시였습니다.》

한때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배타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남의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극좌적인 모험주의의 길로 이끌어갔다. 여기에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일본반동들의 박해와 탄압이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막대한 희생을 내게 되고 재일조선인운동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성된 정세를 통찰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비록 일본땅에 살고있지만 돈있는 사람이거나 돈없는 사람이거나를 물론하고 모두다 공화국정부의 두

리에 단결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이 나갈 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로선전환방침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자기 조국을 지지옹호하며 조선혁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애국운동으로 되게 하는 길을 명시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내놓으시고 재일조선인운동방향을 바로잡아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은 비로소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로 나가게 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를 세울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무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해주시였다.

해외교포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야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이 제시한 해외교포운동방침을 옹호고수할수 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면 그의 믿음직한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이전의 해외교포조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을 내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이다.

새형의 해외교포조직결성방침은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총련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강력한 해외공민단체로 총련을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이다. 총련을 생기발랄한 애국적인 해외공민단체로 만드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총련을 강력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총련은 이 관건적고리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총련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혁명위업과 더불어 승리하며 전진하는 주체의 애국운동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총련은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모든 조직안에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게 되고 그에 기초한 대오의 반석같은 통일과 원칙적단합이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이룩되게 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새

…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이 과정에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해외공민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났으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모든 애국활동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튼튼한 핵심력량과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것은 총련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위력한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핵심들이 준비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총련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나가는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수령관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조국과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동포들로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꾸준한 교양과 실천활동 속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혁명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강화하고 재일동포구성이 변하는데 맞게 동포군중과의 사업 특히 젊은 세대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심으로써 각계각층의 동포대중을 총련조직에 더 많이 묶어세우게 하시였다.

오늘 원쑤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와 파괴모략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재일조선인운동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을 튼튼한 핵심력량과 대중적지반을 가진 주체형의 애국적인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결과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숭고한 애국활동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 자랑찬 기여를 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총련의 존재와 모든 활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애국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이바지하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맞추어 자기에게 맡겨진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정확한 투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대중적성격에 맞는 주체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여 광범한 동포대중을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에서는 해방직후 우리가 들었던 구호, 다시말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일치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자는 구호를 들어야 합니다.》(《조선해외교포운동에 대하여》, 275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 투쟁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총련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조국통일투쟁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위업에 가장 훌륭히 이바지하

게 되였다.

광범한 동포군중을 애국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힘있는 대중운동형식을 찾아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에서 널리 벌어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경험을 총련애국사업에 구현하여 집단적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된 총련의 《모범분회창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적혁신운동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애국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한 힘있는 방법으로, 추동력으로 되였다.

총련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군중단체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총련이 재일조선인 군중단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자기의 본성에 맞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의 성격과 해외교포운동의 특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총련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우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며 령도예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탁월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총련사업에서 행정실무화가 극복되고 동포군중과의 사업이 더욱 심화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동포군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힘을 발동하여 모든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애국적사명을 영예롭게 다할수 있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족적애국운동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은혜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심려는 조국을 떠나 사는 겨레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하나로 이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은 온 겨레를 하나같이 품에 안아 돌보아주시는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며 세월과 더불어 더욱 깊어지고 고맙게 안겨지는 영원한 사랑이다.

일찌기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시여 몸소 이국땅에서의 생활을 가슴저리게 체험하시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고통과 불행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부터 언제나 마음속에 해외동포들을 새겨두시고 뜨거운 애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민족적 존엄과 권리는 자주독립국가 해외공민의 생명이다.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잃으면 해외동포들은 가슴펴고 떳떳이 살아갈수도 없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보람찬 일도 제대로 할수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기 위하여 뜨거운 사랑어린 시책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여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우리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으로 제시하시여 해외조선동포들이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보살핌속에 살아가도록 하여주시였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조국을 멀리 떨어

져 살면서도 조국인민들처럼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공화국의 주권행사에 참가하고있으며 공화국의 당당한 대표로 국제무대에도 나가 활동하고있다.

우리 재일동포들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엄을 지니게 되고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모든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으신 권위와 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적시책이 있기때문이다.

오랜 세월 이국살이를 하는 해외동포들이 자나깨나 그리는것은 조국이며 그것은 풍파와 시련을 겪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더욱 간절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뜨거운 어버이사랑은 해외동포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주시고 그들을 끝없이 고무해주시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을 밟아보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의 념원을 헤아리시고 조국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그들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도록 온갖 은정넘친 국가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서 외국손님들도 많이 만나지만 조국을 찾아온 해외동포들을 만나는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이국땅에서 설움을 맞는 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조국의 향취가 풍기는 특산물을 총련분회마다 선물로 보내주신분도, 재일조선애국인들이 조국에 온것이 못내 기쁘시여 자신께서 손수 가꾸신 첫물오이를 지방참관지에까지 보내주신분도 그리고 이국살이에서 얻은 병을 다 고치고 돌아가라고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에게 온갖 의료상 혜택을 베풀어주신분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다.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것은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이다. 지난날 망국노의 신세가 되여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해외동포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긍지높은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은 대를 두고 갚아도 다 갚을수 없는 크나큰것이다. 그러기에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고 애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소행을 열렬한 충성심과 애국심의 발현으로 높이 평가하시며 《사회주의애국상》도 제정해주시고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조국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자본주의경제의 심한 파동과 민족차별정책으로 재일동포들의 생활은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나 해외동포들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여러가지 은정넘친 시책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운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여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주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포상공인들이 겪고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튼튼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마련된 조국에 의거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아들딸들을 공부시키 참된 조선사람

으로 키우려는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소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여 해외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이국땅에 민족교육의 화원이 꽃피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땅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세워주시고 매 시기 정확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공장을 한두개 못짓더라도 동포자녀들만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로부터 끊임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었다. 그리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고 동포자녀들을 주체조선의 미더운 역군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교대자,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나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베푸신 동포애적시책과 끊임없이 안겨주신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올수 있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 *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해외교포운동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해외교포들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일본땅의 우리 동포가 사는 모든곳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무어주신 총련조직이 튼튼히 꾸려지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활동을 자랑스럽게 벌리고있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을 빛내이며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널리 떨쳐가고있다.

세상에는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체조선의 해외교포들처럼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 조국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보람차고 희망찬 삶을 누려가는 해외교포는 없다.

해외교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현명한 령도, 뜨거운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그 시원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길에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해외교포들의 운명을 개척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검증되고 우리 해외동포들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체득한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심장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리론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해외교포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김 영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60여성상에 걸치는 혁명투쟁력사는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고계신다.

오늘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위업에 탁월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올바른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시대와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리론의 뇌수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이며 수령의 혁명업적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상리론적업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사상이며 혁명리론이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올바로 밝힌 혁명사상을 창시하는것은 시대의 전진운동과 혁명투쟁의 발전을 정확히 리해하며 그것을 다그치는데

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근본특징을 심오하게 통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의 혁명 사상과 리론, 방법을 밝힌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리론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이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령도방법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람위주의 세계관, 근로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력사발전을 다그쳐나가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개척하게 한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운동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세계혁명의 민족부대들이 크게 자라났다.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자신이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세계혁명도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세계혁명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자기 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민족적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할수 없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들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국제적임무로 된다.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민족적인것과 국제적인것,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켜 자기 나라 혁명도 잘하고 세계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사상발전과 혁명적변혁과정에 거대한 전환을 일으킨 탁월한 공적이며 세계혁명위업에 이바지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오늘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세계혁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다.

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것은 매개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을 잘해야 인민들을 온갖 예속과 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 세계혁명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은 기 나라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하는데서 나타나며 자기 나라 혁명 행에서 이룩한 공적은 수령의 업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며 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 힘이다.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 의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고 우리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추 의 동요도 없이 그것을 끝까지 관철 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확고한 립장이며 혁명적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데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신 바로 여기에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이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여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할수 있은 결정적담보와 중요한 비결이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것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될뿐아니라 세계혁명위업수행에 거대한 기여를 한 탁월한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위적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지고있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지난날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이며 그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먼저 승리한 혁명과 아직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중요한 법칙이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한 실천적모범과 경험으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행정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과 고

귀한 경험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조선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의 정확한 길을 개척하고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았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곧바른 길을 펼쳐놓았다. 우리 혁명에 의하여 창조된 세계적모범과 경험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서 사회주의력량과 제국주의세력, 평화력량과 전쟁세력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전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고 책동하는 정세하에서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일뿐아니라 평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전도와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로, 세계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국제적의무로 내세우시고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지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평화와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되며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에 대한 힘있는 국제주의적지원으로 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세계혁명은 로동계급의 당들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이며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들의 국제적의무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국제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업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적의무로 내세우시고 인류해방위업을 위하여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0권, 559페지)

자주, 친선, 평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대외활동의 기본리념이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대외활동의 총적

표와 그 수행을 위한 옳바른 방도가 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철저 구현해나가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였을뿐아니라 거창하고 복잡한 조선명을 령도하시는 매우 분망하신 가운서도 몸소 다방면적인 대외활동을 정적으로 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계급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에 대한 높 책임성과 끝없는 충실성, 강의한 혁적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시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 실천활동을 벌리시여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신것이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대를 이어 여러가지 과업들을 련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이다. 세계혁명의 현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전략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그 종국적승리를 다그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은 이 원칙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실현된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바로 세계혁명의 현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되여야 인민대중은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따라서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온 세계를 자주화하여야 한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비상히 앞당길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미래의 세계에 대한 면모가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게 되였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과 우리 시대의 력사적진군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시대 세계혁명력량편성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신것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혁명운동은 폭

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거기에 참가하는 혁명력량의 규모도 전례없이 확대되였다. 국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뿐아니라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세계혁명운동에 합류하고있다. 이 모든 력량들이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데서는 동일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세계혁명력량구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오늘 국제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라는 전략적구호는 우리 시대 국제혁명력량편성의 정확한 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는 구호가 제시됨으로써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확고한 우세를 보장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통일단결에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이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인류력사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반제투쟁을 비롯한 공동의 과업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의견상이로 하여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도 분렬을 막고 통일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으며 공통점이 주되는것이고 차이점은 부차적인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 공산당, 로동당들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원칙적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나라들로부터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관한 방침에 따라 최근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 적극화하시였다. 쏘련, 중국,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문은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일찌기 쁠럭불가담운동의 성격과 이 운동이 세계혁명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이 운동의 근본원칙이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수 있다. 통일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필승불패의 반제자주력량으로 강화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 국제경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혁명적원칙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와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쁠럭불가담운동이 엄중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교부장회의들에 큰 대표단을 보내시여 분렬의 위험을 막고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립장과 정력적인 활동은 국제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시여 세계반제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것이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옳바른 투쟁전략을 가지고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제국주의반동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섬으로써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으로, 국제헌병으로,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 전 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 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는 문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미제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미제국주의가 아무리 강하다해도 세계인민들이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모든 곳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그를 얼마든지 타승할수 있다.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그 수행을 위한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제국주의체계에서 미제가 차지하는 지위와 그 반동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반제투쟁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탁월한 반제반미투쟁로선이다. 이 반제반미투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세계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일 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것은 세계반제위업에 이바지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혁명무력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는 력량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미일두 제국주의를 타승할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무장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최초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세계적범위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펼쳐놓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이후에도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확고한 원칙적립장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결히 벌리고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거듭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심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내세우시고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과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에서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빛나는 한생이며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에 고귀한 기여를 하시고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하고 탁월한 활동가》로,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수령》으로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고 크나큰 자랑이며 더없는 행복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크나큰 자랑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

계 웅 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60여성상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원불멸할 고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그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은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행복은 모두가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실뿐아니라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시여 우리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다.

(1)

올바른 령도예술을 창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여기로부터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자신이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겠는가 하는 령도예술문제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특히 혁명과 건설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근본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하고 어려운 창조적사업이며 반혁명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간고하고 심각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올바른 령도예술이 보장되여야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이 혁명과 건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라면 탁월한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이다. 혁명은 올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의하여 나아갈 방향이 밝혀진 다음에도 세련되고 정확한 령도예술이 보장되여야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대중에 대한 령도문제는 혁명적개조의 폭과 심도가 넓고 깊을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력사상 가장 광범한 대중이 떨쳐나서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근

본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에 의해서만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처럼 중대한 문제인 옳은 령도예술을 창조하는 문제는 시대와 혁명이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또 누구나 다 창조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빛나는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 풍부한 경험과 고매한 덕성을 지닌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혁명적인 령도예술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심으로써 빛나게 창조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엄혹한 시련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더없이 귀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일관된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이러한 위대한 풍모는 가장 옳바른 령도예술창조의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창조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93페지)

령도예술의 성격은 그것이 어떤 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며 어떤 로선을 원칙으로 구현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는 령도예술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령도예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오직 인민대중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서 자기의 창조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며 담당자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력사발전과정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령도예술이 혁

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그 모든 체계와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예술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인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다.

령도예술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은 그것에 구현된 당활동의 원칙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데 의해서도 규정된다.

령도예술은 당이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군중로선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광범한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로부터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힘을 동원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란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원칙에서 령도예술을 창조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 원칙, 군중로선을 구현하여야 할 요구가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체계와 방법, 작풍들에는 혁명적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전개되여있으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그 모든 내용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령도예술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은 그 내용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자면 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여야 하며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과 묘술, 일군들의 작풍, 품성 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방법, 묘술이 일정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정확히 적용될수 있으며 일군들의 기풍과 품성에 의하여 옳바로 관철될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이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제도와 질서이다. 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사업체계를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세워져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대중에 대한 령도가 당사업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당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정연하게 서있지 못하면 당 사업과 활동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면치 못하게 되며 따라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방법, 묘술이 정확하게 적용될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당사업체계가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이며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이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사업방법이다. 사업방법문제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적용되는 활동방식과 묘술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상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이며 그것은 옳은 사업방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러므로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업방법이 령도예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만큼 사업방법의 혁명성은 령도예술의 혁명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 사업방법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당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당사업을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해나가며 당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혁명적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동력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인민적사업작풍을 다른 하나의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당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풍모이다. 사업작풍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립장과 태도, 정신도덕적품성을 표현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져야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인민적인 사업작풍이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의 내용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며 모든 일을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기풍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이 당의 품을 참다운 어머니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할뿐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다. 또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한없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의 모든 내용들은 다 당성, 혁명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참다운 인민적사업작

풍으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며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의 위대성과 구현하고있는 로선의 정당성, 내용의 혁명성과 인민성, 과학성과 심오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혁명적령도실천에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의 령도예술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재부들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령도예술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령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가장 정확히 밝혀지고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예술이 창조됨으로써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방법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의 령도예술의 창조는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혁명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마련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은 주체의 령도예술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승리가 이룩된 자랑찬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의 령도예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전당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할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시여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60여성상의 빛나는 력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그에 기초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 창조되고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자랑찬 승리가 이룩된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어느 한 단계의 대중령도경험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과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와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하신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한다면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풀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새로운 대중령도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원형을 이룬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항일혁명대오안의 모든 지휘성원들이 대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안에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대원들과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제

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튼튼히 세워지게 되였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방법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으로 계속 전진해나가며 소박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기풍이 확고하게 지배하였다.

혁명대오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이 확고히 지배되게 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철저히 보장되고 대원들과 대중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항일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권당에 있어서 대중령도예술문제의 중요성을 밝히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갓 창건된 우리 당안에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이 지배하게 되였다.

령도예술은 현실이 변화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가일층 완성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과 변화되는 환경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 때에만 령도예술은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경제관계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환경과 조건은 그에 맞는 혁 인 령도예술을 절실하게 요구하

우리 나라의 현실과 혁명실천이 한 이 긴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빛나 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앙위원회 1959년 12월전원회의에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법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 1960년 2월 몸소 청산리에 대한 현 도를 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청산 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영생 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 선을 구현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 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새로운 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청산 법이 창조됨으로써 항일유격대식사 법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 였다.

참으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중령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로동 급의 당의 령도예술의 모든 내용을 집대성되여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 적인 령도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민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령도예술 창조하시고 구현하여오신 전기간은 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요 와 지향을 반영하여 정확한 로선과 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의 무궁무 한 창조적힘을 발동하여 관철해나가 과정이였다.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 에 들어가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며 그들과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의논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 주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견지하 여오신 일관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 중이 바라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것이면 그것이 곧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그것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게 하시였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 락원의 한 녀성당원의 신념에 찬 목소리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시였으며 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던 때에도 한 농촌할머니의 소박한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놈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풍모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전후 나라의 강재문제가 매우 긴장하였던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형편과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을 발동하여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믿으시고 발동하여 모든 난국을 다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다시 일떠설수 있었으며 천리마를 타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방법, 령도예술의 숭고한 모범은 수령님께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기나긴 로정의 지옥마다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에는 다원한 령도예술의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를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과정을 통하여 당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며 대중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등 령도예술의 모든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구현하시였다.

이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지는 모든곳에서 기적과 창조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인민들의 보람찬 삶과 행복한 생활이 꽃펴났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의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끝바른 승리에로 줄기차게 이끌어나가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제기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체계는 본질상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과 방침을 내놓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사업방법과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령도예술은 새로운 재부들로 발전완성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위대한 현실을 낳았다.

주체의 령도예술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당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에 의하여 령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력사적변혁과정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악의 조건에서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4년이라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아름찬 위업을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끝없이 따르고 신뢰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불타는 강을 건느는 정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천지개벽의 력사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주체의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완성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맺어진 자랑찬 열매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령도예술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구현해나가야 할 령도예술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우리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구현해오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을 몸당그대로 받아안고 구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령도예술이 밝히고있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게 하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이 차념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보다 로숙하고 세련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로 수놓아진 빛나는 력사

리 을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조국과 혁명, 민족과 인류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자랑찬 력사이며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성,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참다운 동지애에 있습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 빛나는 인생행로는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빛나는 예지와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풍모와 위대한 인간의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장구한 로정을 헤쳐오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자랑찬 로정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숭고하고 고결한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값있고 보람찬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 새세대 일군들과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영광찬란한 조선혁명의 길우에 아로새겨져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1)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동지애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력사적시기에 혁명승리에 작용하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동지적사랑의 귀중함에 대한 체험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와 참다운 인간관계의 확립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 혁명투쟁의 실천에 구현해나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동지애이며 그것은 같은 사상과 뜻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사이,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동지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하다는것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형성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529페지)

일반적으로 참된 인간관계는 사람들사

이의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진정한 믿음에 의하여 결합되고 유지된다. 서로 믿고 사랑하여야 참다운 인간관계,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 동지적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다져지며 참다운 동지적관계의 기초에는 동지애가 놓이게 된다.

혁명가들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동지애이다. 부모의 사랑이 혈육으로 련결된 사랑이라면 동지적사랑은 같은 사상과 뜻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우들사이의 사랑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속에서 자라지만 혁명의 길에 나선 다음에는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며 활동하게 된다. 옛날 속담에는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하였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의 사랑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랑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할 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기여하는 참다운 사랑으로 될수 있으며 가장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혁명적동지애가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지위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본성적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하여야 하며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의 공고한 동지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아무리 혁명투쟁을 사활적인 요구로 여기고 갈망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때문에 혁명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하며 혁명가들사이에 참다운 동지적관계를 맺고 혁명투쟁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처럼 혁명적동지애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지고 공고발전되는 사랑인것으로 하여 참다운 동지적관계의 공고한 기초로 되며 인간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현하고계시는 혁명적동지애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동지적 믿음이며 사랑이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사랑을 낳는다. 공산주의적동지애의 숭고성과 진실성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 세계관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 세계관은 동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동지에 대한 사랑의 높이를 제약하는것만큼 옳바른 사상, 세계관을 가져야 혁명동지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지닐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으며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에서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이 진리는 혁명의 한길에서 같이 싸우는 혁명동지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관점의 출발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보는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숭고한 정신으로 일관된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차넘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기에 그이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동지애는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것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동지애는 만경대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의 고결한 인간애를 이어받은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것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워온 만경대의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키워오시였으며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큰뜻을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특히 무산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한몸바쳐나서신 부모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함께 걸으시며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가시던 시절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간사랑의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다지신 력사의 나날이였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던 그날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혁명동지이고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의 한없는 사랑임을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 원쑤들의 탄압선풍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환경에서 참다운 혁명동지의 귀중함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참다운 동지적관계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동지적사랑에 의해서만 굳게 맺어질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시였으며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는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의 위대성, 그 형성발전의 바탕으로 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정과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실천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높이에 이른 공산주의적동지애로 될수 있었다.

(2)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공산주의적동지애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투쟁의 기나긴 로정을 헤쳐오시면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의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29폐지)

로동계급의 수령의 위대성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 비상한 령도력과 함께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고난도 시련도 전사들과 함께 이겨내고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숭고한 덕성, 참다운 동지애에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령도자의 고매한 덕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공산주의자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발현된다.

혁명의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전사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동지이고 스승이다. 혁명가들은 누구나 다 수령의 손길밑에

서 계급투쟁의 법칙과 혁명의 진리를 배우며 견결한 투사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여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갈길 몰라 헤매이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참다운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과 그들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성스러운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모두가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수많은 혁명전사들이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였고 투쟁의 무기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어엿한 혁명가로, 견결한 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바람세찬 화전의 언덕과 천고밀림의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전사들의 거치른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불패의 혁명사상을 심어주시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전사모두를 한품에 안아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워준 위대한 스승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다.

정치적생명은 자주적인간의 제일생명이며 혁명가의 한생을 영원히 빛내여주는 고귀한 생명이다. 사람은 정치적생명을 지녀야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으며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생을 보람있게 살아갈수 있다.

정치적생명은 수령에 의하여 주어지고 수령의 정치적신임과 보살핌에 의하여 보존되고 빛내여진다.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것은 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동지적사랑의 주되는 내용으로, 수령과 전사사이에 맺어지는 동지적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조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혁명전사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거기에 망라시켜 정치적생명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신 그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사람들의 가슴에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신임의 력사적사변으로 깊이 새겨지고있는것은 거기에 불신과 배척이 아니라 아량과 포섭으로 만사람을 품어주고 혁명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는 동지적사랑과 고매한 풍모가 깃들어있기때문이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한 인테리출신 일군에게 변함없는 정치적신임을 베푸시였으며 반당분자들이 그의 정치적생명을 위협할때마다 당이 있는 한 누구도 동무를 못다친다고 하시면서 그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당을 알고 혁명을 알고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갈줄 아는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의 결함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비판은 곧 사랑이며 믿음으로 된다. 사랑과 믿음속에 비판이 있고 비판속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

나 뜨거운 동지적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의 길에서 일시 잘못을 저지른 전사들을 비판도 하고 처벌도 하면서 그들을 재생의 길로 따뜻이 이끌어주시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깊이 간직할수 있게 보살펴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규률을 어긴 식량공작대원과 원쑤에 대한 순간적인 분격을 참지 못하여 중대한 혁명임무의 수행을 그르치게 한 별동대장에게 엄한 비판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을 더욱 혁명화하여 훌륭한 혁명가가 될수 있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세련되고 단련된 믿음직한 혁명가로 자라나고 오늘도 영생하는 빛나는 삶을 지닐수 있었으며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 수많은 일군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빛내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렇듯 뜨겁고 원칙적인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들과 전사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력사이며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인민을 조직동원하고 전사들을 이끌어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신 자랑찬 행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로 혁명전사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동지이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물론 사상과 신념이다. 그러나 혁명적 사상과 신념이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고수되고 빛을 내자면 육체적담보로서의 건강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혁명적인 사상과 신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살펴준다. 혁명전사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수령이 혁명전사들에게 안겨주는 동지적사랑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첫 총성을 올리시였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사들에게 새 과업을 주시여 여러곳에 파견하시였다. 전사들을 만나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언제나 건강에 대한 물으심이였으며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말씀도 건강을 돌볼데 대한 당부이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밀영에 병원을 세우고 대원들의 건강을 돌보시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건강하지 못한 전사들의 병력서까지 친히 보아주시면서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귀중한 약재까지 보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쉰개의 가루봉지와 산삼에 깃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초소에 나간 어린 대원을 념려하시여 친히 보초까지 교대하여주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오직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과 혁명전사들사이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숭고한 동지적사랑의 빛나는 혁명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이런 사랑, 이런 은정은 인민이 있고 동지가 있어야 혁명과 건설을 할수 있다고 보시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보살핌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만이 돌려주실수 있는 사랑이며 배려인것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는 사상과 신념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공산주의자들의 동지적 관계와 사랑을 가장 고결한 높이에 이르게 한 위대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전사들에게 영생하는 삶과 빛

나는 영광을 안겨주시며 혁명가유가족들과 인민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동지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혁명적의리는 혁명적동지애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풍모를 이룬다. 혁명적의리는 혁명동지들의 위훈을 영원히 빛내이며 그들이 다하지 못한것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결한 품성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동지적의리도 잘 지킵니다.》(우와 같은 문헌, 530페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의리는 수령과 전사사이에 최상의 높이에서 발현된다. 수령은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전사들에게 영생의 삶과 빛나는 영광을 안겨준다.

혁명동지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는 혁명의 길에서 충직하게 싸운 전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삶을 안겨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수령이 수많은 전사들을 친솔하여 멀고 험한 혁명의 길을 수십년에 걸쳐 헤쳐나가는 과정에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고 남먼저 대오를 떠나는 전사도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전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가슴아파하시면서 40년,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당과 수령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충성심과 조국과 혁명 앞에 세운 커다란 위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만이 아니라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 몸소 키우시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일군들도 잊지 못해하시며 해가 가고 년대가 바뀌여도 당과 조국에 바친 그들의 한생을 깊은 감회속에 회고하고계신다. 그들가운데는 당과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던 간부들도 있고 토력혁신자와 농촌혁명가, 오랜 과학자들도 있으며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꽃나이청춘을 바친 영웅전사들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렬사들이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웠기에 이 땅우에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 행복한 인민의 락원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렬사들의 고향에 동상도 세워주시고 도시와 마을, 공장과 학교들에 그들의 이름도 달아주시였으며 해마다 생일이나 서거일에는 출판물과 방송을 통하여 그들의 혁명적 생애와 업적도 널리 소개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신다. 그러시고도 부족한것만 같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렬사들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분묘를 한곳에 모아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을 건립하시였으며 그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였다.

혁명전사들에게 그토록 높은 정치적 신임과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여 가장 값높은 혁명가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적 사랑과 숭고한 혁명적의리, 바로 그것으로 하여 혁명전사들의 위훈은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의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육친의 정으로 사랑하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수령이 전사들에게 돌려주는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의리는 전사들의 유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려지고 이어질 때 가장 참답고 고결한것으로 되며 영원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희생

된 동지들을 극진히 생각하시는 뜨거운 심정 그대로 혁명가유가족들을 친혈육과 같이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혁명가유가족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은정이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사연은 한 혁명전사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인 보살피심으로 하여 심장의 격동없이는, 충성의 맹세없이는 들을수 없는 숭엄한 이야기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의 어머니의 친아들이 되시여 어머니가 90을 넘어 장수할수 있도록 보살펴주시였으며 그가 혁명가의 어머니답게 굳세게 살 때에는 《공산주의어머니》로 인민들앞에 널리 내세워주시고 공화국영웅칭호까지 수여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자신께서 친히 만상제가 되시고 어머니의 아들과 딸, 며느리의 전우들인 항일투사들과 그 부인들이 어머니의 상제가 되여 호상을 서게 하시였으며 어머니의 평생소원이 죽으면 아들곁에 묻어달라는것이였다는것을 헤아리시여 어머니만은 희생된 년도에 관계없이 아들과 같이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들과 나란히 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주시였다.

돌이켜보면 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동지와 전사들에 대한 사랑, 렬사와 그 유가족들에게 돌려진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많지만 혁명의 위대한 수령,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렬사가정의 한 어머니를 30년나마의 기나긴 세월 친어머니로 대해주고 보살펴준 이야기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제도 오늘도 부모처자들을 남겨놓고 서슴없이 사선의 고비에 뛰여들어 혁명의 길에서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는것도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량없이 크고 깊은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품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전사의 자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의 장래까지 돌보아주시는 가장 의리깊고 숭고한 동지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진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된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여러 세대에 걸치는 장기간의 투쟁에 의하여 계속되며 완성되여나간다. 이로부터 혁명의 피줄을 이어가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혁명의 교대자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20성상과 창조와 건설의 40여성상 사선을 넘고 시련의 고비를 헤쳐나가는 그 나날에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키우는것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혁명동지들에 대한 의리로 여기시고 반세기이상의 기나긴 세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피어린 항일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근거지에 아동단학교를 세우시고 렬사들의 아들딸들을 삼엄한 적구에서 데려다가 공부시키시였으며 계속되는 전투와 고난의 행군속에서 그들을 견결한 투사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학원을 세우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공부시키시여 당 및 국가기관, 군대, 근로단체 등 여러 분야의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한 인민군장병들과 유격대원들, 애국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울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케 하시고 유자녀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커다란 관심과 깊은 배려에 의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 혁명의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충성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전사들의 자녀들도 끝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혁명의 대

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동지애는 혁명전사들에게 영생의 삶과 빛나는 영광을 안겨주고 혁명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세심히 보살펴주는 한없이 의리깊고 자애로운 사랑인것으로 하여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 해방후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남조선혁명과 해외교포운동 등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와 각이한 분야의 수많은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동지적사랑은 일찌기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의리깊은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의 력사는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세월과 더불어 더욱 은혜롭고 강렬해지는 영원한 믿음과 사랑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이며 조선혁명의 선배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간부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로 여기시고 항일투사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며 혁명의 먼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서로 다른 혁명초소에서 일하고있는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동지로 믿어주시고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당의 믿음의 보증과 대범한 조치로 방선의 초병들과 젊은 3대혁명소조원들, 로력혁신자들과 작가, 예술인들, 과학자들과 체육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사들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정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동지애를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지도자이시며 우리 당의 품은 전체 인민이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있는 혁명의 품인것이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동지적 사랑과 믿음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모두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자라난 혁명가들이다. 우리는 혁명의 령도자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과 은덕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4호(루계 54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87년 4월 1일 발 행· 1987년 4월 8일

ㄱ—7562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제5호(54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사회주의완전승리는 과도기의 전략적목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스무해가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문헌에서 천명된 사상리론들은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그 정당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도기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자욱을 남기였다.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멀리 전진하였다. 오늘 조선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 위대한 성과들은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행정에 그리고 창조와 변혁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보람찬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그것은 계승성과 원칙성,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찬연히 빛나고있다.

인류가 공산주의리상사회를 지향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공산당선언》이 발표된지도 한세기반이나 되여오지만 오늘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과 그 전망에 대한 뚜렷한 표상을 가질것을 절박하게 요구한 때는 없었다.

일찍부터 인류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발표하시여 고전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과학적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대한 주체적리론의 전면적확립,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고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그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기치이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완성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며 완성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리론과 전략전술은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그 전위조직이 출현한 때로부터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발전풍부화되여왔다. 지난 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중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에 련속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비교적 짧은 시기를 거쳐 실현되리라는 예측밑에 전략전술을 세웠다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다음에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에 관한 사상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혁명투쟁을 령도하였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발전하였으나 제국주의가 의연히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

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상대적으로 장기성을 띠는 복잡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넓은 길이 열려져있는 오늘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사회의 성숙정도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그 발전전망을 명확히 규정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투쟁과업을 옳게 내세울수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력사발전단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6페지)

사회주의정권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승리하고 완성된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과도기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첨예한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시기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는 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비교적 긴 력사적기간을 포괄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온갖 계급적대립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된다. 이러한 투쟁과업은 과거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비교적 빨리 수행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급투쟁은 계급적대립이 청산되였다고 하여 끝나는것이 아니다. 농촌까지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계급적대립이 없어진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준동과 외부적대세력의 파괴암해책동도 계속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는 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도기과업도 완수되였다고 볼수 없는것이다.

과도기의 력사적임무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는데 있으며 계급적대립뿐아니라 온갖 계급적차이까지도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무계급사회는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낳을수 있는 모든 근원이 없어진 사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이다. 이것은 과도기의 종말과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일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과도기의 전략적목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과도기의 전략적목표로 내세운다는것은 과도기의 계선을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까지로 긋거나 세계혁명의 완성,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긋는 견해들과는 달리 과도기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로 본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과도기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일치시키면서 그 종결을 성급하게 선포하면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다른 한편 세계혁명이 완수되기전에는 과도기가 끝날수 없다고 하는것은 사실상에서는 과도기의 계선을 긋지 않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여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준동이 국제적범위에서 계속된다 하여도 나라의 사회생활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

히 타승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무기로 하여 외부적대세력의 암해책동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식작용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과도기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과도기의 종말과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시간적으로 일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과도기의 전략적목표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오래동안 론의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던 과도기의 계선과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시기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력사적지위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해명을 주고있다.

과도기가 끝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가 과도기에 뒤이어 출현하는 사회, 가장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사회주의사회라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력사적지위를 과도기와의 련관속에서 규정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생, 발전, 완성의 전과정은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고있다. 과도기단계에 놓여있는 사회주의사회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는 다같은 사회주의사회이면서도 사회관계의 발전정도, 성숙정도에서 서로 차이를 가진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세워진 사회주의사회는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가 완성되지 못한 사회로서 여기에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의연히 남아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계급페절의 과업이 실현될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무계급사회이지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과도적사회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는 유기적으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면서도 서로 차이를 가지고있는 사회들이다. 계급관계, 사회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는 다같이 로동계급화된 사회로서 공통성을 띤다. 이러한 공통성으로 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로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직접 잇닿아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종국적으로 극복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는 력사적과업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력사적단계에 따라 각이하게 전개되면서 비교적 오래동안 지속되는것이다.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게 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적차이가 소멸되는것만큼 농민이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경제적처지, 정치생활에서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며 지난날의 소소유자들까지도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가셔졌다고 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지는 않는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것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완전히 극복하는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을 없애는것이 과도기가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사이에 첨예한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라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가지지만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된다고 할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계급적차이는 없어지지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일정한 차이는 계속 남아있으며 사회의 생산력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과도적성격이 종국적으로 극복될수 없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건설을 완성하는 하나의 력사적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계급폐절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이 시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며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무계급사회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선행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력사적지위가 과도기와 그리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의 련관속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들이 주권을 전취한 다음 공산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로정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세울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 대한 정연한 해명,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행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완성된 표상을 주고있다. 이 리론의 위대성은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행정에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을 주체적립장에서 심오히 분석총화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이어 인간해방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놓은데 있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멸의 생명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과업

혁명의 전략적목표는 사회발전의 일정한 력사적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망과업을 밝혀준다.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한 전망과업만이 혁명승리를 위한 확고한 리정표로 될수 있다.

과도기의 전략적목표인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력사적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8페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과 사회적관계를 합리적으로 개변하는 사회개조사업, 자연을 정복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완전히 실현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도 계급적차이는 없어지지 않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와 비로동계급적인 사회관계가 부분적요소로 남아있게 된다. 계급적대립이 청산된 조건에서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한 모든 사회성원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이 실현될수 없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면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계급페절의 구호를 들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무계급사회는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관계를 완전히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적차이의 소멸은 소유의 단일화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유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 과정, 다시말하여 소유관계의 단일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계급은 소유관계에 의하여 구분된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직후에 여러 계급이 있게 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여러가지 소유형태가 존재하는것과 관련되여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이 있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남아있기때문이다. 소유관계를 단일화하여 계급을 페절하려면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소유를 보다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인민적소유에로의 단일화과정은 계급페절을 위한 로동계급의 지향을 종국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길이다. 계급페절과 소유관계의 단일화는 결코 분리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가지 소유형태를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계급페절의 과업을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의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으로 나선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는데 있다.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촌테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인간개조와 자연개조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혁명적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자연을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 력사적 과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그것을 개조해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사람들의 질적상태는 사회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모든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은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풍모와 자질, 능력을 충분히 갖춘 보다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자라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간개조사업을 홀시해서는 안되며 거기에 특별히 커다란 힘을 넣어야하는것이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인간개조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명시해주고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상개조사업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상개조, 인간개조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빛나게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는 경제건설을 통하여 수행된다. 경제건설은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화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인간개조사업에 기본을 두고 그것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사회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출발적인 전제로 되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인간개조사업이 기본이라는것은 결코 사회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홀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개조와 함께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야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인 사상정신생활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과도기단계에서 3대혁명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의 근원인 농민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차이를 낳는 실제적기초를 없애게 함으로써 무계급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된다.

이처럼 우리 당이 내놓은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무계급사회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대한 인류의 세기적숙원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사상리론적업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움으로써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가 극히 부분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전제들도 빨리 마련되고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로 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령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9폐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그 체계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정권을 쥔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의거해야 할 지침을 밝혀주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로동계급이 장기

간에 걸치는 계급투쟁과정에 창조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거해서만 다른 계급과 계층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그 발생의 견지에서 보나 사명으로 보나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은 밀착되여있다. 계급투쟁은 자본주의를 청산한 다음에도 의연히 계속되며 계급투쟁이 있는 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있어야한다. 자본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자본주의를 청산한 다음의 계급투쟁은 그 형식이 다를뿐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협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과 함께 내외의 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계급투쟁의 형식이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는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적인것으로 개조하는 사업,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외부적대세력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들은 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적대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계급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또한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을 조직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간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것은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비상히 확대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 력사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적대계급에 대한 독재와 함께 광범한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게 한다.

과도기와 함께 존재하기 시작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보다 훨씬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된 다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력사적인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령도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제국주의세력이 남아있는 한 조락될수 없다.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이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리용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음모를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다. 따라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시간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조락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력사적시기를 거쳐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그 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향도적력량이며 국가주권은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고 사회단체는 당의 외곽단체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는 정연하게 움직일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당을 령

실공히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공산주의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그것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과정에는 의식화된 전체 사회성원들이 참가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수단들이 동원리용된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폭넓은 령역에서 벌어지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추진력인 로동계급의 당이다. 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진 당만이 고도로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바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최고형태의 조직으로,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건설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전체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강철같은 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전투적인 당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조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설계도가 펼쳐지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편단심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우리 혁명은 전진도상에 있으며 아직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담보되여있다는 굳은 확신을 안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80년대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

박 승 일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불멸의 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한 80년대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이 빛나는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언제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기상과 풍모의 발현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세기적인 변혁과 창조로 수놓아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자랑찬 력사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 *

80년대의 력사적진군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투쟁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되고있다. 우리 당은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혁명적당이며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는 강철의 당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80년대진군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의 력사를 창조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 대중적투쟁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진행되는 80년대진군은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적 기세와 기백을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간고한 시기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높이 발양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와 전진을 위한 고귀한 재부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천리마대진군이 벌어졌던 전후시기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비약의 날개를 돋혀주시고 온 나라에 천리마대진군의 봉화를 지펴올리시였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전진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잔재들을 대담하게 짓부시고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은 비상한 속도로 달리는 천리마의 나라로 이름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참으로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높이 발휘되였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백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우리 혁명을 비약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 조국땅우에 세기적변혁의 력사를 펼쳐놓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오늘 80년대진군이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와 비약의 한길로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것은 바로 간고한 시기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였던 그 위대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정신적원천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이 깊은 력사적원천을 가지고있으며 천리마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80년대진군은 이와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창조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속도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80년대진군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1970년대에 창조된 비약적인 진군속도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대중적진군운동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80년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숭고한 투쟁정신과 전투적기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풍모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변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시대의 참다운 거울로, 숭고한 모범으로 된다.

8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떠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고귀한 혁명정신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최상의 높이에서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말한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혁명적기풍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직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진리

로 받아들이고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당과 수령의 의도를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절대적신조로, 한치의 드팀도 없는 신성한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하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고상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시대와 혁명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세기적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그리고 인테리들의 창조적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혁들과 혁신적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당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고상한 혁명정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참다운 전형, 진정한 모범을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에서 보게 된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 혁명전사의 참다운 삶의 보람이 있고 영예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에 수십메터의 깊이를 헤아리는 20리 날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적인 대갑문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칠수 있었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엄혹한 자연의 힘과 온갖 난관들을 이겨내면서 류례없이 간고한 건설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훌륭히 실현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보여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동시키는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속에서 발휘된 이 혁명정신은 오늘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으며 80년대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또한 어떤 어려운 난관도 뚫고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서 발현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자기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투쟁기풍이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정신적원천으로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생산예비도 옳게 동원할수 없으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일수 없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전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

오늘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마다에서 부닥치는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등 중요대상의 건설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진군속도를 다그쳐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과 기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이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우리의 전통적인 투쟁정신이며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확고히 자리잡고있는 혁명적인 기풍이라는것을 보여준다.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대담하게 사고하고 혁신하며 전진하는 투쟁기풍과 기상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한 민족과 인민의 혁명성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정신적풍모의 높이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은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혁명적인 기풍과 기상을 지닐 때 남김없이 발휘된다. 대담하게 사고하고 혁신하며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지닌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와 두려움을 모르며 온갖 낡은것을 용감하게 짓부시고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빛나게 개척해나간다.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며 혁신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질이며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이러한 혁명적 기풍과 기상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면서 굽임없는 위대한 변혁과 비약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불패의 위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풍모는 80년대진군을 다그치는 보람찬 투쟁에서도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그것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보수주의, 요령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대담하게 전진하는 혁명적 기풍과 기상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80년대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는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도 높이 발현되고있다.

우리 남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들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여러가지 특기할 전변의 발단이 일어난 력사의 땅이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천리마대고조가 시작되였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였으며 대안의 사업체계가 마련되고 서해갑문이 일떠섰다. 그렇기때문에 남포시에서 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궁지와 자부심은 남다르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성과로 당의 위업을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들의 각오 역시 매우 높다.

80년대의 자랑찬 창조물인 서해갑문건설이 시작되던 첫시기부터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천리마의 고향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30년전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의 첫 봉화를 높이 들고 6만톤 공칭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내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도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강철기둥으로 당과 혁명을 받들어나가고있다. 이러한 투쟁 정신과 기풍, 고상한 혁명적풍모는 우리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높이 발현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에 태천발전소에 놓을 대형발전설비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영예를 지니었으며

오늘도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지니고있는 강서탄광종합기업소의 탄부들과 일군들은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해마다 많은 생산과제를 넘쳐완수하는 모범을 보이고있다.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왔으며 오늘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처럼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80년대는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80년대진군길에서 발양되고있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전사회적인것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80년대진군을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려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환경속에서 방대한 제3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발전계획이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진군의 담당자들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80년대를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부르고있다.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영광스러운 80년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가장 신성한 임무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고상한 혁명정신과 풍모를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과 풍모를 지니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투쟁함으로써 8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하여야 할 혁명정신과 풍모의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풍모들은 새로운 신심과 기백을 가지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시대정신을 상징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선전선동 력량과 수단들을 동원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지니였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풍모를 본받아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실속있게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강한 사상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각급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람들은 낡은 사상 잔재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서만 공산주의적 혁명정신과 풍모를 지닐수 있다. 당조직들은 지난날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80년대의 진군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짓부시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온 나라가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지니였던 혁명적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중운동은 사상개조사업과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대중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해갑문 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는 혁명적풍모를 높이 발양시키려면 당조직들이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혁명적풍모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발현된다. 우리 인민은 시대가 제기하고 당이 내세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높이 발휘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던 우리 인민은 지금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적풍모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80년대의 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는 행정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풍모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그자체가 바로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이다.

우리 인민은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정신을 지니고있다. 당정책을 홍정하거나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대하며 조건타발을 하면서 그 집행을 중도반단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정책을 사소한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정신을 굽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8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는것은 대중의 혁명적풍모가 실천활동과정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80년대진군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자면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주동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실천투쟁에서 혁명

적풍모를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쳐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특히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풍모를 높이 발양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풍모를 지니고 80년대진군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상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결정적영향을 준다.

대중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개변하고 그들을 80년대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이 세워준 정연한 하부지도체계에 따라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며 거기에서 대중의 혁명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거나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 때일수록 대중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 특히 당일군들의 얼굴을 쳐다본다. 모든 당일군들은 80년대를 빛내이기 위한 전투로 끓고있는 현실속에 뛰여들어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그들을 새로운 진군운동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품성을 바로 가지는것은 대중의 혁명성을 높이고 오늘의 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풍모와 품성을 지녀야 광범한 대중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대중을 대하고 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며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하며 모든 일에서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고상한 품성으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칭호를 빛내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80년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3대혁명 로선의 집행자

손 성 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 3대혁명수행에서 인민정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며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을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야 하며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1～22페지)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라는 명제는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의 인민정권의 기본임무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인민정권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밝힌 새로운 고전적정식화이다.

인민정권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기본임무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에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주로 착취계급과 착취관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수행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그것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방법으로 수행된다.

혁명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의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혁명의 원인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꺼번에 없앨수 없으며 혁명발전이 성숙됨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극복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우선 외래침략자들에 의한 민족적 착취와 압박을 없앰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혁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수행된다.

인민대중은 또한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애기 위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기 이전시기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바로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져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였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의 혁명임무가 끝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저애하는 요인들은 계속 남아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성의 실현정도는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될뿐아니라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고대사회에서 노예주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노예제도가 멸망하였으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지식이 높지 못하였던 노예들은 자신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렇게 될수 있는 힘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농노들은 봉건제도를 청산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만큼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투쟁의 열매를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기고 자본의 노예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져 인민대중이 국가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낮으면 그들은 새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지킬수 없게 되며 사람들의 기술수준과 문화수준이 낮으면 그들은 경제문화생활에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담당할수 없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락후성은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없게 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회적불평등을 완전히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정권앞에 새로운 기본임무가 제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에는 착취계급과 착취관계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인민정권의 기본임무로 나섰다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 인민정권의 기본임무로 제기되는것이다.

인민정권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 되는것은 또한 인민정권이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가장 포괄적인 강위력한 정치조직이라는것과 관련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인민정권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 당의 로선을 집행하는 가장 포괄적인 강력한 정치조직이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여러가지 요구와 리해관계, 각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려면 그들의 사회적관계를 조절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며 사회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정권이란 정치적지배권, 다시말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권력이다. 국가정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례외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여있다.

정치적지배권으로서의 국가정권은 전사회적인 지휘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치조직의 지휘권과 구별된다. 사회에는 국가정권이외에도 일정한 정치조직이 있다. 개별적인 집단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들은 비록 거기에 일정한 지휘권이 있으나 이러한 지휘권은 그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들에 국한되는것이지 전사회적인 지휘권, 정치적지배권으로는 되지 못한다.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인 국가정권만이 일정한 령토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복종시키고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이것은 국가정권이 일정한 사회단체와 달리 사회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모든 제도는 국가정권이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존재할수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도 정권의 보호밑에서만 보장될수 있으며 사람의 사상생활과 경제문화생활도 정권의 통제밑에서 진행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 당의 로선을 직접 집행하는 당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은 인민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을 교육교양하는 국가적행정조직체계를 세우고 전문적인 기구와 기관을 가지고있으면서 이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교육교양한다. 적대분자들의 온갖 준동을 짓부시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애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문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인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을 높이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인민정권은 또한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을 비롯하여 당경제정책관철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법적 수단들을 장악하고 움직인다. 그리하여 나라의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전반적인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면서 모든 자원, 모든 생산잠재력을 힘있게 동원하여 경제발전, 기술혁신을 다그쳐나간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기관들은 모든 사회문화기관들을 장악하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벌려나간다. 이것은 가장 포괄적인 강위력한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을 통해서만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당의 최종투쟁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이며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면 3대혁명은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기본전략로선이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이 당의 로선을 집행하는 정치적무기로 된다는 것은 곧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참으로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라는 명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기본임무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인민정권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규정하신 고전적인 정식화로 되는것이다.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을 끊임없이 강화하심으로써 인민정권기관들로 하여금 3대혁명수행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해결해오시였다.

인민정권의 본질과 사명,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칙과 방도에 관한 사상리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 사상과 리론들은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시고 인민정권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에는 인민정권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칭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전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인민정권이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확립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시고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간개조사업,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 인민정권앞에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섰다. 이것은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인민정권을 더한층 강화하고 3대혁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며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는 곧 자주성의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치라는 독창적인 정식화를 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된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력사적성과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공화국정권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수행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이 3대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정권을 이끄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참으로 크고 풍부하며 그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재부로 되고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이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인민정권은 여러 력사적단계를 거쳐 끊임없이 강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부단히 높아졌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정권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고 당과 수령의 의도를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당의 기술혁명방침에 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우리 나라 생산력과 기술발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그리고 당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되여 교육과 과학, 문화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지난 기간 인민정권이 걸어온 력사적로정은 우리의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 맞는 정권일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전적으로 맞는 가장 우월하고 강위력한 정권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생활의 진리로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진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높여야만 80년대의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고있으며 그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다. 문제는 정권기관들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은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은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문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문제들은 전사회적인 강력한 정치조직인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3대

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 자기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중심과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의 모든 사업이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먼저 인민정권기관들은 언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모든 행정경제사업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중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벌리도록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당면한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기관들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이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정권기관들이 3대혁명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사업을 잘한다는것은 인간개조사업과 기술문화개조사업에서 정확한 목표와 과학적인 조직적대책을 세우고 끊임없이 장악통제하며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3대혁명수행에로 사람들을 발동시키는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든다는것을 의미한다. 3대혁명에 대한 당조직들의 정치적지도에 인민정권기관들의 빈틈없는 행정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인간개조사업과 기술문화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질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3대혁명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한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가 완전한 은이 나타나도록 3대혁명수행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과 후방물자들 그리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 등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3대혁명은 인적요인뿐아니라 물질기술적요인들이 광범히 동원되여 수행되는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물질기술적보장조건들이 안받침될 때 더 큰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이며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직접적담당자이다.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사업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3대혁명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며 얼마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정권기관 일군들의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예술을 지니고 3대혁명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승리로 빛나는 3대혁명수행의 전로정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끊임없는 성과가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3대혁명수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정권기관 일군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풀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언제나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옳은 자세를 가지고 사업하여야 하며 3대혁명수행의 모든과정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에 맞게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사상문화생활도 우리 식대로 하며 경제를 관리운영하여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하고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여도 농촌테제가 가리키는대로 하는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대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에 의하여 발기되고 령도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우리 당이 모를 박고 틀어쥐고나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주인다운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 운동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워 3대혁명수행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늘 아래를 도와주고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의 참된 충복, 성실한 심부름군이라는 립장에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일해나가야 한다. 특히 정권기관 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사람들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공명정대하며 생활에서 청렴하고 소박하고 겸손하여야 한다.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주관적욕망이나 열성 하나만으로는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여기에 높은 자질이 결합되여야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은 정열적인 학습을 통하여서만 높아질수 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하며 열심히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에 정통하여야 하며 3대혁명로선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어야 한다.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오늘 정권기관 일군들앞에는 참으로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가 지워져있다.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적극 투신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오늘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앞에 나서는 보람차고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

박 일 범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가지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확립의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세계의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사회는 자연과 달리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으로서 자체의 고유한 발전법칙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리해와 함께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현상을 정확히 분석평가할수 있으며 옳바른 지도원칙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을 밝힌데 기초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가장 옳바른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을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그것이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한 독창적인 사회력사원리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인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혁명적인 사회력사원리이다. 이 원리는 주체사상의 모든 사회력사원리의 출발적기초를 이루며 그 전반내용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원리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된 원리로서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주는 사회력사원리이다. 이 원리는 인류력사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인 자주적립장을 밝혀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된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창조성에 기초하여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회력사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발전하고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인 창조적립장을 심오히 밝혀준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된 원리로서 인민대중의 의식성에 기초하여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주는 사회력사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을 규제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추동력을 새롭게 밝혀

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성과 혁명운동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을 심오히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이러한 사회력사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새로운 사회력사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폐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을 위주로 하고 그들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회력사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의 체계라는것을 말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고찰하는 사회력사관이다.

사회력사관의 근본성격은 사회력사에 대한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무엇을 놓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사회력사를 고찰하는데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사회력사관을 전개하는 방식이 구별되기때문이다.

사회력사에 대한 고찰의 중심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력사에 대한 론의의 중심에 관한 문제이거나 사회력사에 대한 리론전개의 출발적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력사관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력사관의 기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기초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선행한 사회력사관들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정신적인것과 물질적인것과의 관계를 기초적인 문제, 중심적인 문제로 삼고 그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론의하였다.

관념론적력사관의 여러 류파들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정신적인것과 물질적인것의 관계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떠난 그 어떤 정신적인것을 사회발전의 기초로, 결정적요인으로 보았다. 이것은 관념론적인 사회력사관이 결국 초자연적인것, 정신적인것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사회력사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는 달리 물질적인것과 정신적인것과의 관계를 기초적문제로 삼고 물질경제적인 조건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사회력사관은 유물론적인 사회력사관이다. 유물론적인 사회력사관은 모든 사회력사적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물질경제적조건에 기초하여 밝히며 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에 대한 리론을 전개한다.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가 해명된 조건에서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내세운 사회력사관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 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바로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을 밝힌데 기초하여 전개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사회력사에 대한 고찰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놓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사회력사관이라는것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와의 관계속에서 사회력사관의 모든 체계와 내용을 제기하고 해명하며 사회력

사적과정을 사회력사적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정으로, 인민대중자신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대하는데서 나타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는데로부터 사회력사적과정을 인민대중이 단순히 사회력사적환경에 지배되고 순응하는 과정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주동적인 작용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력사적과정을 인민대중자신이 발전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보고 대하게 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또한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회력사관이다.

사회력사관은 고찰의 중심에 의해서뿐아니라 그것이 내세운 사명에 의해서도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은 인민대중을 고찰의 중심에 놓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과학적방도를 밝히는것을 기본임무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종교적 및 관념론적 력사관은 사람의 운명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설교하여왔다. 종교신학자들은 사람의 운명이 《천신》이나 《천명》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하였거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전세》에서 타고난 피치 못할 운명이라고 하였다. 관념론자들은 사람의 운명이 주관적인 동경이나 리상, 념원 같은것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처럼 생각하였으며 《도덕적지아완성》을 통해 해결될수 있는것처럼 설교하였다. 이것은 종교적 및 관념론적 사회력사관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한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하여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은 사람들에게 사회적해방의 길을 가리켜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에 대한 관념론적견해를 극복하고 사회적존재의 일차성, 사회발전의 자연사적과정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해결하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문제를 원리적으로 제기하고 그 해결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적원리는 사회력사적과정을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성과 그 방도를 심오히 해명하였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독창적인 사회력사관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이처럼 사회력사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보나 사회력사관의 사명으로 보나 새로운 사회력사관,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 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이 사회력사관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여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면적으로 옳바로 밝혀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사회력사관에서 중요한것은 사회력사

에 대한 견해 즉 사회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이다.

사회적운동은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주체의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사회적운동은 단순히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주체의 운동의 법칙에 따라 발생발전하게 된다. 주체의 운동의 법칙은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며 사회력사적과정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합법칙성이다. 그러므로 사회력사에 대한 옳은 견해를 세우는데서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을 해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회력사적운동에만 고유한 합법칙성, 주체의 운동의 법칙을 밝히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사람의 운동인것만큼 사회력사적운동에 고유한 합법칙성, 주체의 운동법칙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옳은 리해를 전제로 한다.

관념론적력사관은 사람을 그 어떤 신비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자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사회적관계를 떠난 추상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로부터 인류의 력사적발전과정도 그 어떤 《신》이나 《절대리념》, 《탁월한 개인》의 의지나 생물학적인 《인간본능》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보았다.

맑스주의철학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의 총체이라는것을 밝히고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사회관계, 특히 경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밝혔다. 이러한 리해로부터 유물사관은 사회의 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인류력사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이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의 기초를 이루고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관계가 발전하고 생산관계의 총체인 사회의 토대가 변하는데 맞게 사회의 상부구조가 변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관계속에서 보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새롭게 밝혔다. 여기로부터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법칙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운동으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에서 찾는 새로운 리해를 확립하게 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모든 내용과 전과정을 규정하는 심오한 본질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가 천명됨으로써 모든 형태의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진행방식과 과정상 특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있는 이 운동의 근본성격을 깊이 인식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을 의식적으로 추동하는 참다운 요인을 심오히 밝힐수 있었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성격, 추동력 등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혁신하고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에 고유한 근본적인 합법칙성뿐아니라 사회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가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의 본질과 사회적집단, 사회제도 등 사회를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명을 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에 의하여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으로서의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의 호상관계와 사회제도교체의 합법칙성등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람중심의 관점에서 사회생활령역들의 호상관계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그리고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독창적인 해명을 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대한 문제도 사람위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명하고 그에 대한 심오한 리해를 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면적으로 가장 옳바로 해명해주는 사회력사관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주체적견해뿐아니라 관점과 립장까지 밝혀주는 전일적인 구성체계를 갖춘 사회력사관이라는데 있다.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함께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질 때에만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력사발전과정을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철학이전의 사회력사관들은 세계를 변혁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지 못한데로부터 현실세계와 사회력사를 대하는 과학적인 관점과 립장 문제를 제기할수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은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부인하거나 외곡하는 관념론적력사관을 비판하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주는것을 기본과업으로 삼았으며 사회력사를 유물론적으로 고찰하는 사회력사관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 대한 유물론적리해가 주어진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사회력사관의 주되는 내용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사회력사적과정을 주체의 주동적인 운동과정으로 볼 때에는 사회력사에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 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데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 구현된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혁명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며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력사의 주체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혁명운동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견

지하는것은 혁명운동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담보하게 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단순히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견해만을 밝혀주는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에 대하는 가장 옳바른 주체적 관점과 립장까지 밝혀주는 완성된 구성체계를 갖춘 사회력사관이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사회력사관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또하나의 특징이 있으며 그 세계사적업적이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심오히 밝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혁신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원리가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혁명적세계관을 받아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짐으로써 또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옳바른 리론과 방법론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있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전로정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가 빛나게 구현되여온 력사적과정이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가 구현됨으로써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 되여오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으며 수령, 당, 인민대중이 하나로 통일단결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여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사회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는 전기간 언제나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동하여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가 밝혀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매우 짧은 기간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자본주의나라들이 한 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를 단 14년이라는 기간에 수행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반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를 지침으로 하여 전진해옴으로써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은 주체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으로부터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

정 용 환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일심단결을 실현한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튼튼히 다져진 통일단결의 전통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를 이어가면서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은 우리 당의 위력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3페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해야 당앞에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원래 공산주의운동은 선행한 모든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고도로 조직화된 운동이며 따라서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만일 혁명대오안에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당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으며 혁명을 망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남긴 력사적교훈이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 대신에 상층부에 틀고앉아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서로 《령도권》쟁탈을 위한 파벌싸움만 일삼다나니 통일된 력량으로 적과 맞서 싸울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그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심각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던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조선혁명의 발전과 공산주의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투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ㅌ. ㄷ》가 결성됨으로써 종파사대주의에 오염된 기성세대와 인연을 끊은 참신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게 되었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에 따라 기층당조직을 광범히 확대하고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종파사대주의를 극복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에 관한 사상과 원칙이 구현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담겨져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하나의 중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전통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통일단결의 확고한 중심을 가지는것이다. 세상만물이 해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하고 운동발전하는 것처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도 해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는 통일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운동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은 혁명의 령도자,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통일단결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대오를 하나의 강력한 통일체로 꾸리며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간다. 그러므로 수령을 중심으로 이룩되지 못한 통일단결은 공고한 통일단결로 될수 없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온 강토가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겨 우리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의 길을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결출한 수령이시였다. 그러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부터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높이 모시였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그들은 조선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 수 없었던 그 암담한 시기에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확고히 모시려는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하였던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이 노래를 가슴속에 새기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이처럼 하나의 중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그 두리에 철통같이 단합된 바로 여기에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 통일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한 위대한 전통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상의지적인 단결을 떠난 실무적단합은 진정한 통일단결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단결은 오래 갈수 없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항일혁명대오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우리 인민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쳤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조건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요소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앞에 준엄한 위기가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헐뜯던 변절자 엄광호놈의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지켜낸 영웅적투쟁은 항일혁명대오안에 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간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과 명령, 지시를 어떤 역경속에서도 철저히 옹호고수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단합된 가장 순결한 통일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또한 숭고한 동지애에 기초하여 항일혁명대오의 분매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전통이다.

혁명적동지애는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대오에서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고상한 사상감정으로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며 그 공고성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단합되여야 동지호상간의 건전한 사상적단합을 이룩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될수 있으며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의 빛나는 모범을 귀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공고발전된 참다운 통일단결의 전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동지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혁명동지를 키우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참된 동지를 얻고 키우는 일이라면 멀고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고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

하여 숭고한 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항일혁명대오가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조선혁명의 혁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키워오신 그 고귀한 사랑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아 보살피시며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대원들을 아끼시여 돌려주신 한줌의 미시가루에도,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대원들의 신발에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전사들을 생각하시여 남기신 쉰개의 가루봉지에도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의 빛나는 모범은 항일무장대오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지애와 의리의 숭고한 미풍이 차넘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것을 혁명가의 본분으로,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였으며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수령님께 다진 충성의 맹세와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투쟁하는 혁명동지들을 서로 돕고 이끌며 굳게 믿고 존경하는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미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상하가 참다운 혁명적우의로 일치되여있었고 대원들모두가 혁명의 길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로 굳게 결속되였다.

항일혁명대오는 이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 수령과 전사들, 전사들 호상간에 진정한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결합됨으로써 가장 공고하고 진정한 통일단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하고 준엄한 불길속에서 하나의 중심과 사상,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룩된 일심단결의 전통인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 전통으로 되고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은 해방후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과 같은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매우 간고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났던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채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사정은 종파주의가 계속 남아있게 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의 책동도 여러가지 형태로 지속되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종파책동을 계속하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엄중히 방해하였다. 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적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갔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적발분쇄하시였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시였다. 당은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것과 함께 종파의 사상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와

전후시기에 있은 1956년 8월전원회의 그리고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이 회의들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청산한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렸다.

우리 당은 안으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교활한 음모책동을 짓부시며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분쇄하는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불패의 당으로 단련되고 세련되였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사실상 대내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이였으나 그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 못지 않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이 어려운 투쟁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무엇보다도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반종파투쟁경험이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악습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이 환히 밝혀지고 항일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데서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은 이 경험을 무기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준엄한 전쟁시기나 전후 어려운 시기에 양봉음위, 동상이몽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단호히 분쇄할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청산할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친히 교양육성하신 핵심적골간들이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보좌하여 피어린 투쟁의 길을 헤쳐온 불굴의 전사들은 례외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당을 창건할 때나 당을 공고발전시킬 때에도 언제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맹수와 같이 견결하고 비타협적이였으며 두려움과 동요를 몰랐다. 전후시기 우리 당이 엄혹한 시련을 겪을 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한 충직한 전사들도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된 투사들이였다.

1920년대에 <ㅌ.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 탄생을 선포한 우리 당은 시련에 찬 여러 년대들을 거쳐 오늘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이 로정에서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통일단결의 전통을 꿋꿋하게 고수하고 계승하여왔다.

항일혁명의 귀중한 전통이 있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이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당으로 장성강화될수 있었으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것을 빛나게 개척해나가고있는 로숙하고 세련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승리적으로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기회주의가 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실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이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다. 대를 이어 통일단결의 중심을 빛나게 해결한 새로운 조건에서 당의 통일과 단결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풍부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자기의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20대의 젊으신 장군님을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숭고한 동지애에 기초하여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배워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령도자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안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은 당중앙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온갖 반당적인 사상요소와 부정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선 조건에서 당안에 그전과 같은 조직적으로 결탁된 종파는 나올수 없지만 아직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것만큼 반당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한다. 우리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당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는 자그마한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그와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대를 이어 굽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는데서 단결보다 더 확고한 담보, 더 힘있는 무기는 없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혁명적구호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군민일치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전통적기풍

배 지 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기풍을 창조하고 꽃피워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 로정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신 영웅적투쟁행로였으며 당과 혁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멀고도 험난한 조선혁명의 길우에서 군대와 인민이 고결한 혁명적사랑의 정신으로 굳게 련결된 군민일치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높이 발양됨으로써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풍모가 철저히 확립되여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 *

혁명군대와 인민은 혈연적련계, 군민일치의 관계를 가진다.

군민일치란 군대와 인민이 서로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며 군대는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은 군대를 성심성의로 도우면서 한덩어리로 굳게 뭉치는것을 말한다.

혁명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나가는 군민일치의 관계는 그들의 목적과 리익의 공통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리익과 목적의 공통성으로써 또한 자기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는 과업의 공통성으로써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54페지)

인민의 군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군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의 군대이다. 군대의 이러한 사명과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군대와 인민의 공통된 과업으로 제기된다. 군대와 인민은 공통된 리익과 목적, 과업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기풍을 가진다. 이것으로 하여 군대와 인민은 로동계급앞에 지닌 사명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군민일치의 관계를 가져오게 된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군대와 인민사이에는 군민일치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본주의국가 군대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이며 반혁명적인 무장조직으로서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 군대와 인민사이의 관계는 목적과 리해관계에서 상반되는 적대적관계에 놓이게 된다.

진정한 군민일치의 관계는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혁명군대와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들사이에서만 이루어

지며 그것은 그 어떤 수적, 기술적 우세도 압도하고 침략자들을 때려부실수 있게 하는 혁명군대의 참다운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계급적본성과 목적의 공통성으로부터 혈연적관계를 가지고 굳게 결속되여있으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있다.

우리의 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혁명무력으로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총을 잡은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이며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인민의 군대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혁명적인민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과 군대는 맡고있는 초소와 구체적혁명임무는 서로 다르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수행을 공통된 목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련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였다.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고 조선혁명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활짝 꽃피난 우리 인민과 군대의 전통적미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사랑하며 적극 도와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입니다.》(《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군민일치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는 철저히 인민들에 의거하여 활동하면서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쳤으며 인민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을 친형제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성심성의껏 도와나섰다. 성스러운 조국광복의 길에서 창조된 이 빛나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우리 인민과 군대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성전에서 거대한 힘을 낳았다.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군민일치의 기풍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벅찬 투쟁과정에 높이 발휘되고 끊임없이 공고화되였다.

우리 인민과 군대를 하나로 굳게 련결시킨 군민일치의 기풍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 진군길우에서 더 아름답게 피여나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고유한 전통적기풍으로 튼튼히 다지졌다.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군민일치의 미풍은 우리 인민과 군대의 숭고한 혁명적풍모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과 군대가 지닌 군민일치의 숭고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밀접히 결합되여 형성된 미풍이라는데 있다.

공동의 목적밑에 맺어지는 혁명군대와 인민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자기들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군대와 인민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참다운 도디의리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인 인민군대의 제일생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과 군대의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이것은 이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군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를 제시하시

고 군대와 인민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과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형성되였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었으며 인민들은 오직 우리의 군대만이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미래를 튼튼히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라는것을 확신하고 군대와 함께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혁명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과 군대의 헌신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끝없는 충실성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원래 혁명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을 확고부동한 철칙으로 삼아왔다.

우리 인민과 혁명군대의 이러한 투철한 신념은 항일혁명전쟁의 나날 유격근거지방어전투에서 그리고 보천보와 무산지구를 비롯한 국내 진공작전들과 무수한 전투들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 시기에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들의 야만적인 테로와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적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며 수많은 후방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들은 추격당하는 항일유격대원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숨겨주었고 적들을 유인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전투승리를 보장해주었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의 강화발전과 새 정권 건설의 터전이였던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를 적들의 악랄한 《토벌》로부터 4~5년간이나 지켜낸 빛나는 모범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결합된 혁명군대와 인민의 군민일치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 혁명의 길에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철석의 의지로 련결된 우리 인민과 군대의 이러한 기풍은 새 조선 건설과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로정우에서 빛나게 이어졌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의 수령, 자기의 당, 자기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고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이렇듯 우리 인민과 군대의 일치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투쟁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발전된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하고 값높은것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군민일치의 본질적특징의 하나가 있다.

우리 인민과 군대가 지닌 군민일치의 숭고성은 또한 그것이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의리와 결합된 미풍이라는데 있다.

혁명군대는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참다운 계급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과 수령의 위업을 무장으로 보위하는 혁명군대인것만큼 그들은 인민들과 참다운 동지적관계를 가지고 인민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본분으로 여긴다. 이로부터 인민들은 혁명군대를 단순히 군대이기전에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는것을 응당한 도덕적의무로 삼는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하는 인민과 군대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의리로 결합되게 되며 따라서 군민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된다.

조선혁명의 진군길우에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자기의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의리를 창조하였을뿐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서로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공산주의적인간애로 살며 싸워나가는 의리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고 피와 살도 같이 나누었으며 산악과 진펄길도 함께 넘고 걸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왔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준엄한 항일혁명전쟁의 나날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싸워이긴 그 기풍 그대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한전호에서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의리를 지니고 살며 원쑤놈들을 때려부시였다.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에로 부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든 영웅적로동계급들은 피흘리며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그리며 전선작업반운동과 전선지원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시생산을 다그쳤다. 그들은 전기가 끊어지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까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였으며 수송전사들은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나가면서 전선수송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적농민들은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구호밑에 전시식량증산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 고성군 인민들이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전화의 나날에 인민군대를 뜨거운 마음안고 물심량면으로 방조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조국해방전쟁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기록하고있다.

이 시기 고성지방인민들은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위하여 고귀한 피와 땀을 흘리였다. 그들은 일제놈들이 13년간이나 공사를 벌려놓고도 끝내지 못했다는 전선 동부와 중부를 련결하는 온정령고개의 도로건설공사를 두달 남짓한 기간에 끝내였으며 351고지와 월비산에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에게 매일 수백리 길을 걸으며 총포탄을 날라다주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장마철에 강이 범람하여 싸우는 고지에 대한 후방보장사업이 곤난하게 되자 떼를 묶고 사품치는 강물을 헤치면서 기어이 인민군용사들에게 총포탄과 때식을 보장해주었으며 《녀성보잡이운동》을 적극 벌려 놈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열번, 스무번 논밭을 갈고 또 갈아 식량을 증산하여 용사들에게 보내주었다. 이곳 녀성들과 소년들, 로인들로 조직된 담가대원들은 불타는 고지우에 올라가 인민군부상병들을 후송하였으며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었다.

원쑤와 판가리하는 투쟁속에서도 고지의 용사들은 그들대로 전투의 여가시간에 마을에 날려내려와 농사일을 도왔고 폭격에 불타는 집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마을사람들을 구출해내였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싸우는 우리의 인민군군인들과 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인민들의 이와 같은 뜨거운 공산주의적의리의 미풍이 있음으로 하여 군민은 한가정이 되였으며 군민의 단결된 힘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공산주의적의리의 뉴대로 굳게 련결된 군민일치의 미풍은 전후복구건설장에도, 세계를 경탄시킨 서해갑문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그리고 협동전야의 풍년로적가리에도 비껴있다. 나라의 여러곳에 꾸려져있는 《2.8》의 명칭을 가진 공장과 문화회관, 351고등중학교는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나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력사의 증견자들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인민군군인들이 또다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간석지건설, 광복거리 건설 등 나라의 거창한 중요대상건설을 맡고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정을 보내고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성어린 원호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와 같이 군대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며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고결한 사랑,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결합된 여기에 군민일치의 높이가 있고 그 본질적특징의 다른 하나가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과 군대가 지닌 군민일치의 숭고성은 또한 그것이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 더불어 굳세게 형성된 미풍이라는데 있다.

진실한 동지적결합이 순탄한 환경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어렵고 오랜 투쟁과정에 굳세게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민과 군대의 일치관계의 공고성도 그것이 오래고도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리고 다져진데 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우리는 일제놈들이 《창해의 일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던 항일유격대를 가지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백만관동군과 맞서야 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지 2년밖에 안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세계제패를 꿈꾸던 강대한 미제와 그 련합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후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페허우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무분별한 전쟁광신자들의 범죄적책동으로 하여 언제 다시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속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야 하였다.

장구한 우리 혁명에는 어느 한 순간도 간고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나 우리 인민과 군대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서로 도우며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안고 억세게 싸워왔다. 오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우리의 군대는 한알의 낟알마저 귀하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는 때도, 불타는 고지우에 식량이 떨어진 때도 있었지만 인민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인민들은 군대를 위하여 끼니를 건느면서도 콩나물을 기르고 밥을 지었으며 총포탄이 우박치는 고지우에도 서슴없이 오르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안팎의 원쑤들이 별의별 책동을 다하며 혁명앞에 난관을 조성할 때에도 군대와 인민은 서로 의지하고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기치를 순결하게 고수하였다. 혁명앞에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닥쳐오면 올수록 더욱 굳게 결합되는 군민관계는 군대의 현대화와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실현하고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의 나날을 보내던 건설장에서,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물리치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오늘의 긴장한 투쟁속에서 실로 길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우리 인민과 군대는 하나로 굳세게 맺어지고 더욱 공고해지는 군민일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처럼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 더불어 온갖 풍파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형성되고 발양된것이기에 군민일치의 기풍은 그처럼 억세고 숭고한 높이에 이른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로 튼튼히 자리잡게 되였다.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공산주의적도덕의리, 조선혁명의 간고한 투쟁로정과 결합되여 창조된 군민일치의 기풍은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며 공고한 우리 인민과 군대의 전통적기풍으로 자랑떨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밀림에서 주체의 혁명무력이 창건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과 군대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조선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왔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일치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

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왔으며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넣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과 군대의 불패의 힘이 있기때문에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있으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군대와 인민간의 정치도덕적 통일과 단결,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참다운 우월성이며 혁명대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속 꽃피워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이 인민군 병사, 초급지휘원, 군관들을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25폐지)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우고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정성과 힘을 다 바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경험은 인민군대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모든곳에서 군인들의 편의를 먼저 보아주며 구분대들과의 일상적인 련계밑에 군대를 친형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도와나설 때 군민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그들에게 군사복무에 대한 영예와 긍지를 깊이 안겨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군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위안방문, 위안공연, 위문편지, 위문품들을 자주 조직하여 초병들의 생활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것을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물질적으로 적극 도와주는것은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뿐아니라 군민관계를 밀접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선을 원호하는 심정을 안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군대에 소요되는 군수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제때에 더 많이 만들어 보다 넉넉히 보내주어야 한다.

인민군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다.

인민군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은 자기의 남편과 아들딸들, 부모형제들을 조국보위를 위한 성전에 바친 우리 당의 핵심들이며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은 당의 군사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 청춘을 값높이 바쳐온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다. 이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조국의 초소에 서있는 군인들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며 결국 군민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당조직들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이 보살펴주어 그들에게 당과 수령의 배려와 은덕이 더 잘 미치게 하는 한편 특히 지금 사회주의건설장에 수많이 진출하고있는 제대군인들이 조국방선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제때에 옳바른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당의 의도와 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민일치의 전통적인 기풍을 계속 꽃피워나가는 사업을 더 잘함으로써 온 사회에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하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

권 오 헌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8페지)

기간공업은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로 되는 공업의 골간적부문이다. 다시말하여 기간공업은 전력, 석탄, 강철, 기계, 화학, 건재공업을 비롯하여 경제발전에서 골간적의의를 가지는 부문들로서 중요생산수단들을 창조하는 물질적생산분야를 의미한다.

기간공업의 발전수준과 생산능력은 전반적인민경제의 규모와 발전수준, 그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의 하나로 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생산을 확고히 앞세워야 생산적축적을 끊임없이 증대시킬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생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수 있다.

확대재생산을 진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은 그것을 담당하고있는 물질적생산부문들의 생산토대 특히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장성하게 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생산확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의 생산을 늘여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생산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할수 없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으며 사회의 물질적부를 늘일수도 없다. 그러므로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사회적생산의 발전과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축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현시기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경제건설부문앞에는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나가야 할 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기간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기본요구이다.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 자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일떠세우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가 이미 이룩해놓은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자면 원료, 연료, 동력 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많이 창설하여 경제부문구조를 계속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이 중요한 문제는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기간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과 같이 전력, 연료와 원료를 생산보장하는 공업부문들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늘이는것은 곧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강화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다양한 수요를 끊임없이 보장할수 있는 실제적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게 되면 새로운 생산부문들을 창설하고 공업부문들의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는데 요구되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있게 된다.

더우기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장기전망계획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갈수 있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며 새 전망계획의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하여서는 낡고 뒤떨어진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사계산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수단들의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인민경제

의 방대한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수 없으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기술개조를 적극 추진시킬수 없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기간공업은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위한 물질기술적기초를 이룬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수단들은 직접 기간공업부문에서 생산보장된다. 기간공업에서 핵심적의의를 가지는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일 때 보다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설비들과 공구, 지구들, 측정 계기와 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기술수단들의 개조를 다그칠수 있게 된다.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 기본수단들인 단능기계와 만능기계, 자동기계와 수치조종기계, 로보트,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 그리고 전자계산기들은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서만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또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은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이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해나가야 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 새 전망계획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생산의 장성은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상태, 기술장비수준, 생산요소들의 보장정형, 과학기술발전정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요인에 의존하는것과 함께 이미 조성된 생산능력의 규모와 그 리용상태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게 된다. 생산능력의 규모와 그 리용상태가 사회적생산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되므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자면 물질적생산부문들의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적생산발전에서 기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그 생산능력의 크기가 다른 물질적생산부문들의 생산능력의 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이 부문자체의 생산을 확대하는것은 물론 경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다른 경제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보다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수단들의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력, 석탄, 광석, 금속 생산을 확대하며 농수산자원, 산림자원 등을 적극 개발하고 가공원료생산기지를 강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생산장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옳

게 인식하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폐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은 이미 마련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 두 측면을 통하여 실현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며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다.

당의 주체적인 공업건설정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오늘 기간공업부문에는 커다란 생산능력이 마련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 있는 기간공업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설비들을 개조하고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있는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기계설비들은 각이한 시기에 마련된것으로 하여 구조와 작용원리, 성능, 수명 등 기술장비조건과 사용년한이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낡고 뒤떨어진 기계설비들을 보다 능률적이며 정밀한 기계설비로 개조한다면 적은 투자로 방대한 규모의 생산능력을 추가적으로 조성할수 있다.

낡고 뒤떨어진 기계설비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하며 작업의 편리성과 믿음성이 담보되는것으로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면서도 그것을 빨리 회수할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기술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정비보강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간공업부문 내부의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여야 전반적인 생산단계들에서 생산의 계렬성과 기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수 있으며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본제품생산을 위한 주도적인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여 그 능력을 높이면서 경제기술적으로 앞선 생산공정들의 수준에 맞게 뒤떨어진 공정들을 개조하여 생산의 련속공정들을 옳게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는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건설의 공업화, 현대화, 집중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건설을 공업화, 현대화, 집중화하는 것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당의 기본건설방침이다.

원래 기본건설은 낡은 재래식방법이 아니라 현대적기술수단들과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요건설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여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기본건설을 공업적방법, 현대적방법으로 진행하여야 건설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으며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대상들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건설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그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길수 있다.

기간공업부문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적극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에는 방대한 규모의 건재와 부재, 기계설비들과 대상설비들, 자금과 로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전당,전국, 전민이 떨쳐나 적극 지원하는것은 건설력량과 기술수단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현시기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특히 새 발전소들의 건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건설, 단천지구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대상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기술혁명은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받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는것은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조직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기술개조와 기본건설,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과 련관되여있으며 많은 인적물적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기간공업부문의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로 된다. 특히 계획화사업, 자재보장사업, 설비관리사업 등 기업관리를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당의 정책적 요구와 끊임없이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를 옳게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업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

장 국 찬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벌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2페지)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면 농업생산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그 전과정이 전기와 기계, 화학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며 농업생산토대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농업의 공업화가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업생산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업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발전하여왔지만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근세에 와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후과로 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공업에 비하여 미약하며 농업분야에는 어렵고 힘든 로동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공업에 비한 농업의 기술적락후성은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공업과 농업의 경제관리수준에서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를 낳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을 공업의 선진적인 수준에 올려세워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

룩할수 있다. 이 력사적과업은 농업을 공업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하게 되면 뒤떨어진 로동수단을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으로 바꾸고 농업로동의 기술장비도를 높여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업화는 생물체의 생육조건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된다.

농촌기술혁명을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할 때 우리는 농업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또한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수공업적기술에 의하여 움직이는 소규모경리로써는 결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이룩할수 없고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도 없다. 그러므로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는데서 절실한 문제는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원래 대규모경리는 현대적인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여야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낼수 있다. 농업의 공업화는 농업생산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여 대규모경리의 요구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며 그에 의거하여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 농업이 공업화될수록 현대적기계기술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됨으로써 사회주의적대규모의 농촌경리는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대규모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단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더 잘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농촌기술혁명의 목적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 령역에서 농민들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자면 로동의 기술장비도를 끊임없이 높이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의 공업화는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에 의하여 진행함으로써 농민들의 로동강도를 훨씬 낮추고 그들이 로동자와 같은 로동시간으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이와 함께 농업을 공업화하게 되면 수공업적기술로써는 이룩할수 없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국민소득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농민들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된다.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노는 이러한 역할로 하여 농업의 공업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로 된다.

우리 당은 농업의 공업화를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왔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었으며 전당과 전체인민이 떨쳐나 농촌을 힘껏 돕도록 끊바로 이끌어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적으로 물려받은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의 공업화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그에 따라 농촌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였으며 오늘은 그것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평지대에서는 7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6대에 이르렀으며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가 거의 완성되여가고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나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만 하여도 여러가지 능률높은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농촌에 대량적으로 생산공급되였으며 농업생산의 기계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1977년에 비하여 1984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일하는 뜨락또르대수는 1.5배, 자동차대수는 1.3배, 김매는 기계는 2배, 종합탈곡기는 1.4배, 모내는 기계는 1.5배, 모뜨는 기계는 12배, 가을하는 기계는 6.3배로 늘어났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같은 기간에 농촌에 대한 화학비료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 부침땅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오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주체농법이 관철됨에 따라 농업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이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으며 공업화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현대적인 기술수단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테제에 똑똑히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이며 그것이 다 실현되여야 농업이 공업화되였다고 할수 있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257페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농촌테제가 밝힌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현시기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빛나는 실현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커다란 성과이다. 농촌경리를 수리화, 전기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여 농촌에 필요한 물과 전기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다그치고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최근시기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는 서해갑문이 완공되여 대동강이 커다란 내륙호수로 전변된 유리한 조건에서 대동강물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공사를 다그쳐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농촌경리의 수리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는 한편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 농촌의 전력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며 농산작업에서 전력의 리용분야를 넓혀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기계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각이한 지형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뜨락또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는데도 국가적인 투자를 하여 농기계수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최신농업과학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최신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농업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육종사업과 채종사업, 농작물의 재배방법과 집짐승사양관리방법을 더욱더 과학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의 공업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를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력사적인 변혁과정이다. 이 거창한 혁명과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원래 농업은 기술수단을 생산보장하는 물질생산분야가 아니다.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로 장비하는 사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 밑에서만 원만히 추진되게 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것은 농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은 충분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기계생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과업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보내줄 때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또한 비료생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돕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여러

가지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비롯한 효능 높은 농약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수록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에 요구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는 사업을 잘할 때 농업의 공업화를 더욱 다그칠수 있다.

현시기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마땅히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다름아닌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특히 농촌사업,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을 공업화하는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농업생산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고 이들과 농업근로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단위들의 실천적경험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갈 때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당이 제시한 농촌기술혁명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능률적인 중소농기계들을 자체로 많이 만들고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기술적으로 더욱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리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업을 공업화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하고 농업로동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옳게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을 공업화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서 남 신

철도운수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철도수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발전전망과 교통운수의 전반적실태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현시기 철도운수부문앞에 나서는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철도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를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43페지)

철도수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철도는 인체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철도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 지역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실현하는 우리나라 운수망의 골간을 이루고있으며 전반적인 수송수요의 압도적부분을 충족시키고있다. 철도수송사업이 발전하여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단위들에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 그리고 생산된 제품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적생산순환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철도운수는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과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사이의 정치, 문화적 련계를 강화하는 기본운수부문으로서 경제건설이 추진되고 분업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철도수송의 위치와 그것이 노는 역할로부터 경제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수송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철도수송사업을 앞세워 발전시킨다는 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수송능력을 생산장성에 시간적으로 앞세워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철도수송을 앞세워야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만일 수송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경제발전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연료를

충분히 마련할수 없으며 생산순환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수송의 긴장성은 생산의 긴장성과 파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철도수송사업을 앞세우지 못하면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커다란 공업생산능력을 마련해놓았다 하더라도 생산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철도수송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생산과 수송 사이의 균형의 중요한 특징이며 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된다.

철도수송능력을 생산장성에 앞세워 마련할데 대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따라 경제건설의 성과여부가 중요하게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경제발전에서 철도운수가 노는 커다란 역할과 그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그 언제나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의 간선들과 중요지선들의 전기화가 이미 실현되고 전기기관차와 차량 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수송이 긴장한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지선들이 부설되여 통과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또한 대규모의 새 철길부설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에 철도망이 그물처럼 펼쳐지게 되였으며 철도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철도운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철도운수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능력을 생산장성에 앞세워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지난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만 하여도 석탄은 150%, 강철은 185%, 세멘트는 178%로 그 생산이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1.8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철도를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능력장성에 철도수송능력을 앞세워 마련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늘어나는 철도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제3차7개년계획은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한 방대한 계획이다.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을 비롯하여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공업부문의 중요한 목표들은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우리는 또한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우리 나라 교통운수의 골간을 이루고있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의 긴장성과 파동성을 없애고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금 우리는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일련의 대규모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의 구상과 지도밑에 진행되는 중요대상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특히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더 많은 원료와 자재를 더 빨리 실어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힘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제때에 관철하는 문제는 철도수송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당은 철도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일련의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철길공사와 철도전기화공사, 철길개건을 위한 투쟁이 다그쳐지고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철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도운수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우리 당의 철도운수정책을 높이 받들고 철도수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수송조직을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수송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당의 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수송조직사업은 있는 로력과 수송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이다. 철도수송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이미 마련해놓은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생산과 수송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적생산과정을 촉진할수 있다. 특히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수송사업이 방대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철도수송조직사업을 개선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철도수송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선차적인것은 수송계획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대로 수송능력과 수송수요, 수송조건을 세밀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수송공정의 모든 고리들을 구체적으로 맞물리며 매개 단위의 실정에 맞게 화물수송계획과 화물순환계획, 품종별 수송세부계획을 잘 세워야 철도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원료, 자재의 생산과 그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지역별로 잘 따지며 운수수단의 현실태와 그 가동률, 제품보장과 짐을 싣고부리는 조건, 수송방법 등 여러가지 기술경제적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역수송, 반복수송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고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수송계획사업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철도운영을 정규화하여야 한다.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철도운영을 정규화하는것은 철도운수의 특성과 수송조직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부로부터 역, 대에 이르기까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수송참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참모부

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수송조직을 더욱 짜고들수 있다.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령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철도부로부터 총국, 관리국, 역, 대에 이르기까지 사령지휘단위들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지령이 우에서 아래에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며 그대로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복잡한 수송 요소들과 고리들을 제때에 정확히 맞물려 수송조직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철도운수의 모든 단위들과 일군들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철도운수부문에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모든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정과 규칙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잘 세우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부문에서 렬차다님표를 잘 짜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특별히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운수수단들을 다님표대로만 움직이는것은 철도운수부문에서 사고를 막으며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려객렬차와 집중수송렬차의 다님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대로 움직이며 기술여직통렬차비중을 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를 건설하고 그것을 앞세워 발전시키며 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차량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와 화차, 객차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우리는 철도공장들을 잘 꾸리고 그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최신형 전기기관차와 중량화차, 조차, 랭동차, 객차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운수수단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새 철길건설과 철길의 개건확장공사를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북부철길건설을 다그쳐끝내며 일부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놓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전기화공사를 계속 다그쳐 전기화되지 못한 지선들을 다 전기화하여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철도의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철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구간자동화와 역구내자동화, 조차장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사령지휘체계를 무선화, 텔레비존화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철도운수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특히 짧은 시간에 짐을 싣고부릴수 있도록 상하차 기계와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짐을 싣고부리는 기계와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은 지금 있는 운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짐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역선들과 전용선들에 능률높은 현대적인 상하차 기계와 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설치하여 모든 렬차의 짐을 짧은 시간안에 와다닥 싣고 부림으로써 화차의 회귀일수를 결정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있는 화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와 함께 화차수리기지를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화차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화차수리를 다그쳐 머물러있는 화차들이 없게

하는 여기에만도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우리는 화차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화차수리를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철도운수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과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철도운수를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나를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은 철도운수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모를 박고 과학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철도운수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개조하고 수송사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전자계산기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을 개선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철도운수부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철도수송전사들의 대중적혁신운동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철도에서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고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철도운수부문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이 운동이 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렬차들을 무사고로 운행하면서도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수송을 정상화하고 수송능력을 높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철도를 리용하지 않거나 철도수송과 떨어져 생산을 진행하는데는 거의 없다.

모든 부문에서 철도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넣는것은 곧 자기 단위의 생산과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철도를 잘 도와주는것은 우리모두의 마땅한 의무이며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다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선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전용선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움으로써 전용선에서 화차머무름시간을 결정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철도운영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자재들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철도는 그 기술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인 자재들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수 없으며 이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선철과 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대줌으로써 철도의 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

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이 철도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철도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할 때 우리의 철도는 보다 현대적이며 문명한 철도로 발전하게 된다.

현시기 철도수송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철도수송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는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철도운수의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객관적요구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책임성의 고귀한 발현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수송수요가 늘어나고 인민생활이 빨리 높아지고있는 오늘 철도운수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철도운수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의 충복,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당의 수송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수단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봉사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철도운수가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철도운수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철도수송사업의 성과여부는 이 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운수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다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철도운수부문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깊은 관심과 힘을 넣고있는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운수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송사업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높은 당적책임성과 헌신성,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수송전사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부터 렬차운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철도수송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방도

김 봉 율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휘황한 설계도인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 들어섰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전례없는 높은 목표와 비상히 빠른 경제발전속도를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23페지)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적극 발동하며 그들의 로동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인 로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생산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목적의식적으로 자연을 개조해나가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능동적인 작용과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로력자원을 옳게 동원하며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력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 사업이 다름아닌 로동행정사업이다. 로동행정사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로력을 채워주고 작업정량을 정하며 생활비를 주는것과 같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로동관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본질적특성이며 우월성이다.

로동행정사업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되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은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킬것을 예견한 전례없이 방대한 경제건설계획이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하며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확장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다그치는 한편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사회적로동을 옳게 조직해야 로동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많은 로력예비를 얻어 새 전망 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로동선전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로력배치를 잘하고 로동정량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적용하는것을 비롯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을 잘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더욱 사랑하고 보람찬것으로 여기게 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계속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려는 각오를 튼튼히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고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가 튼튼히 확립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될때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울뿐아니라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수행을 적극 다그치게 한다.

사회적로동의 합리적인 조직과 효과적인 리용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한사람당 생산액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나아가서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로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로력의 긴장성으로 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로력이 남아서 랑비되는것과 같은 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는 현실적요구와 자기 부문, 자기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면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자와 기능공,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잘 배합하고 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능력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옳게 배치하며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이의 로력균형을 더 잘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게 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의 개선은 또한 생산조직, 로력조직을 잘하고 안전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조건을 더욱 원만히 마련하게 함으로써 로동시간랑비를 없

애고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수록 사회적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의 확장에 따르는 로력의 추가적인 수요와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의 건설 및 조업에 요구되는 로력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이처럼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이며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이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 관한 사상과 리론, 방침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로동정책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결정적인 역할과 사회주의로동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로동행정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승리적인 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철저히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동행정사업에 관한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일관되고있다. 우리 당은 로동행정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을뿐아니라 로동행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왔다.

우리 당의 로동행정사업에 관한 정책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로동생활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고 나라의 모든 로력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리용되게 되였으며 긴장한 로력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련이어 제기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수행을 로력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우리 당의 로동행정사업에 관한 정책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로동행정정책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로동행정사업에 관한 당의 정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로동행정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551페지)

현시기 로동행정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처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없으며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다 사회적로동에 참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방대한

제3차7개년계획수행에 요구되는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는 로력과 랑비되고있는 로력, 일시적으로 사회적생산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는 유휴로력과 같은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로력예비를 동원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비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극력 줄이는것이다. 비생산부문에서는 기구와 직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너무 세분된 기관, 부서들을 포함한 필요이상의 중간다리를 없애며 지나치게 나뉘운 직제를 통합하는 등 로력을 대담하게 줄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간접부문에서는 국가가 정한 로력배치기준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체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로력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로력을 옳게 배치하며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한명의 로력이라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공정과 기계설비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적은 로력으로도 생산을 보장하고 남성로력이 하던 일을 녀성로력으로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조성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게 공정별 로력대장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기초하여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남는 로력을 더 잘 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로력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정량을 적극 갱신하는데 있다. 로동정량을 갱신하여야 사회순소득을 빨리 늘일수 있을뿐아니라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현재 적용하고있는 로동정량을 혁신적안목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널리 리용하여 자그마한 로력예비라도 더 많이 탐구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력예비를 탐구동원하는 목적은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려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찾아낸 로력예비를 기본생산부문, 특히 직접부문과 생산능력확장, 새로운 공장, 기업소 건설을 비롯한 현시기 당이 힘을 집중할것을 요구하는 부문들에 돌려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생산적능력 및 숙련정도를 의미한다.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은 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어 그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과 가공시간을 줄여 생산을 훨씬 늘이게 되며 같은 설비와 원료, 자재로도 제품의 질을 높이게 된다.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을수록 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긴장한 로력문제도 더 잘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로력수요를 충족시키는것과 함께 반드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술기능학습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잘 운영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망라하여 기술기능학습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학습 내용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며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계속 창설되고 생산에 현대과학의 성과와 최신기

술이 널리 도입되며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오늘 공장, 기업소들에 진출하는 새세대들을 기능공으로 키우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능공들에 대한 당면한 수요와 전망적수요, 현존 기능공양성능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자기 부문과 단위에 필요한 기능공을 자체로 양성하는 원칙에서 기능공학교를 더 내오거나 이미 있는 기능공학교의 양성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와 확장되는 공장, 기업소들에 요구되는 기능공양성사업을 앞세워 기능공들을 제때에 양성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대규모생산은 고도로 발전된 기계기술과 정밀한 기술공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수백수천사람들의 공동로동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적생산을 전례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것을 예견하고있는 방대한 계획이며 그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철저히 제정된 로동생활 규범과 질서대로 일하여야 점령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로동행정규률을 강화하여 출퇴근과 로동시간, 작업교대의 모든 로동생활과정에서 높은 조직성과 통일성, 일치성을 보장할 때 근로자들이 그날 계획은 그날로 완수하고 나아가서 자기 단위,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 특히 로동행정사업을 직접 담당한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을 널리 해석침투하고 로동선전사업을 적극 벌려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행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며 480분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와 로동의 차이가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규률을 강화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통제를 받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도록 경제적, 법적, 사회적 통제를 옳게 배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전적으로 생산자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다. 로동행정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을 이 사업에 어떻게 참가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로동행정부문 일군들은 낡은 사업 작풍과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고 일하며 생산자대중과의 협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것을 더욱 개선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정책적요구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자

변 영 립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과 장래운명은 국토의 넓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좌우되는것도 아니고 자연부원의 매장량이나 물질적재부의 대소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도 아니다. 물론 령토나 물질적자원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적 진보와 번영에서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류력사는 광활한 령토를 가진 민족이 기울어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지 못하고 멸망한 기록을 수없이 남기였으며 물질적자원은 비록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병들고 민족의 전도가 암담하였던 그러한 나라도 적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은 혁명의 수령, 민족의 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각성된 인민의 힘, 혁명의 계승자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나라의 주인이며 민족의 운명의 개척자인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면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흥하게 되며 민족의 명맥을 이어나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되면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된다.

교육은 바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인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을 배우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교육을 나라의 흥망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앞자리에 내세웠으며 여기에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것은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교육사업은 사회적관심속에서만 발전할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인다는것은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유능한 민족간부로 키우는

학교사업에 대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깊은 주목을 돌리고 이에 적극적인 립장과 태도를 취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학부형들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이 자녀교육과 학교의 교수교양사업에 대하여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자로서, 교육사업의 보장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온 사회에 학교교육사업을 로력적으로나 물질기술적으로 성심껏 지원하는 기풍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은 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학교교육사업은 사회성원들의 높은 관심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교육에 관한 사회성원들의 관점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것은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백방으로 발양시켜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새세대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학교교육사업은 사회성원들과의 밀접한 련계하에서 자기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적지원을 떠나서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수 없다.

사회성원들과 부모들은 사회적인 교육자, 교양자이며 교육사업의 믿음직한 방조자, 보장자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울뿐아니라 학교밖에서, 다시말하여 사회와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교양된다. 그리고 학교교육사업은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방조와 사회적지원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부모들과 사회성원들이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것이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은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이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민교육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계급적처지가 같고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으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이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사업에 대하여 같은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이며 교육사업을 전사회적관심사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은 후대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교육일군들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혁명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교육분야앞에 나선 임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침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아야 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이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비상히 빠른 장성과 함께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그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고 학교의 실험실습로대를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며 모든 새세대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마음껏 배우고 익히며 재능을 꽃피울수 있도록 학습 및 과외생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교육기간에 모든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실천능력을 가지고 인민경제를 전면적으로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는데서 단단히 한몫 맡아할수 있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내야 한다.

나라의 교육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은 결코 교육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원만히 수행될수 없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력사 특히 전반적의무교육의 발전력사는 바로 우리 당이 교육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회적관심을 끊임없이 높여 학교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하고 방대한 과업들을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빛나게 해결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해방직후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은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뜨거운 건국열의와 높은 향학열에 의거하여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기술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새 민주교육건설에 떨쳐나서도록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과 삼홍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을 방방곡곡에 일떠세우고 민주교육의 첫 터전을 튼튼히 닦아놓았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학교부터 건설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련이어 실시할수 있은것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가야 하는 긴장된 환경속에서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드팀없이 실현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실시를 앞당긴것도 다 나라의 경제적밑천이 넉넉하거나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 남들보다 앞서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지향과 애국심을 믿고 교육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여온 교육사업의 력사는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는 여기에 후대교육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학교교육사업발전에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후대교육사업을 전사회적운동으로 힘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교육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을 혁명의 승패와 그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고 언제나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교육 사상과 리론, 교육방침들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깊이 학습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할뿐아니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주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위대한 교육령도사와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고 선참으로 돌려준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력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교육사업에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며 높은 사회적관심속에서 교육사업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키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학교교육사업을 전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부형으로서 학교와의 련계를 밀접히 가지고 자녀교육교양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은 교육자로서 학부형을 방조하고 학부형은 학생의 부모로서 교원을 방조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437페지)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사회성원들이 학부형으로서 교원들과 어떻게 련계를 맺으며 자녀교육문제를 놓고 어떻게 학교와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에서 기본은 학교교육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있다. 특히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학교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으로 모든 새세대들이 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누구나 다 학교교육을 받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학부형들이 학교와의 련계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학부형회의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학교교육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새세대들을 공산주의혁명인재로 더 잘 키울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부형회의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학교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부형회의는 자녀교육교양문제를 가지고 사회성원들이 학교와 련계를 맺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중요한 사회적공간의 하나이다. 학부형회의에서는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고 사상도덕상태를 개선하며 학습조건을 더 잘 지어주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협의하고 서로의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학부형들은 학기와 학년말 그리고 중요한 계기마다에 조직되는 학부형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학부형회의에 참가하는데서 간부들이 솔선 앞장서며 문제토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학부형회의는 말그대로 학생들의 아버지나 형들이 모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모임이다. 간부들도 학부형인것만큼 자녀교육교양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이 바쁘다고 하여 자기가 직접 참가하지 않는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학부형회의에

잘 참가할뿐아니라 자녀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학교에 찾아가거나 전화와 편지 등 통신련락의 방법으로 긴밀한 련계를 가짐으로써 학생교양에서 빈틈이 나지 않게 하며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잘 맞물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개학일과 졸업식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들에 참가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축하도 해주고 학교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리게 해야 한다.

한편 교육일군들은 학부형회의를 학생교육교양문제에 중심을 두고 학생들의 학과경연, 연구발표모임, 예술공연 그리고 솜씨 및 작품 전람회 같은것을 잘 배합하는 등으로 실속있게 준비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학부형들이 학부형회의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것은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을 위하여 남모르는 수고와 정열을 바치고있는 숨은 노력가들이다. 그렇기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는것을 도덕적의리로, 사회적본분으로 여겨왔다.

사실 교원에 대하여 사회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전반적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수준을 엿볼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된다.

정의감이 강하고 문화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교원, 스승을 존경하는것을 훌륭한 미덕으로 여겨왔으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양하여왔다.

오늘 우리의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책임진 직업적혁명가, 숨은 노력가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과 인민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는 교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경하여야 한다. 간부일수록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열을 다 바쳐 일하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교원들을 례절있게 대하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교권을 세우도록 잘 안받침해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교원들의 주택과 합숙도 더 잘 꾸려주고 봉사조직도 짜고들어 사업과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살펴줌으로써 그들이 교육자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수교양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교사업을 로력적으로나 물질기술적으로 방조하는 사회적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품과 밑천이 들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일수 있듯이 학교들에 교육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훌륭한 혁명인재가 육성되여나올수 있다.

오늘 교육사업전반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으며 교육조건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교를 더 잘 꾸리고 실험실습토대를 현대적으로 갖추자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학교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당이 마련해준 학교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이 제도의 우월성이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경제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문화기관의 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대학들과 주변학교들을 꾸려주는 사업이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

라 우리 당이 기대하고있는 새세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대학과 주변학교들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설비와 수단들을 생산에 맞물려주며 예비를 찾아내고 군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제때에 만들어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생산되는 제품과 설비들 가운데서 그것이 학교교육에 필요한것이라면 제일 좋은것으로 학교에 보내주는 제도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보통교육부문의 모든 학교들에 자연기초과학과목들에 대한 실험과 그리고 전기와 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운전과 전자계산기실습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원만히 갖추어주며 대학의 실험실습기지를 최신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와 국영농목장들에서는 해당 교육기관과의 련계밑에 실습장과 실습포전들을 기술공학적요구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 꾸리고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의 생산실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기술인재로 키워내도록 해야 한다.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리는것은 학교교육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일군들은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지방의 자재와 원료, 자체의 로력과 기술로 학교도 세우고 실험실습토대와 교육설비도 더 잘 꾸리며 학용품과 교구비품도 넉넉히 장만하여 학교교육사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전사회적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번영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한층 더 높이고 전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전진하는 시대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 창작

장 형 준

시대를 반영하고 생활을 선도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시대적높이에서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사람들을 전진하는 시대에 지향시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어떠한 문학예술도 시대와 혁명을 떠나서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고 삶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내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시대의 지향에 비추어 인간과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낸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신심과 뜨거운 열정을 안겨줄수 있다. 혁명이 심화되고 시대가 전진하면 사람도 성장하고 생활도 변화되는것만큼 그에 따라 문학예술도 더욱더 혁명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은 문학예술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환이 이룩되였다. 특히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됨으로써 그들속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완성되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는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더 혁명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광범한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전진하는 시대와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그 주제방향을 옳바로 설정하는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상 문학예술의 창작방향을 규정하는것으로서 문학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어떤 사상으로 교양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주제방향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당이 문학예술에 대한 방향상 지도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

기, 매 단계에서 주제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와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심오하게 통찰한데 기초하여 그리고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의 주제방향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주제방향은 우리 문학예술을 전진하는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가장 옳바른 창작방향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이 이 주제방향을 지침으로 하여 창작활동을 벌려야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 창작을 위하여 우리 당이 밝혀준 주제방향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다.

혁명은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력사가 확증하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수령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본성과 사명으로 한다. 이로부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바로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덕성의 숭고성, 업적의 위대성에서 나타난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모시는 가장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똑바로 가지게 하는 힘있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된다.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에서 더욱 중요하고 긴절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수령님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보람찬 사업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장편소설들과 다부작예술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훌륭히 형상한 여러가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된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

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과업으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예술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당의 은덕을 노래한 훌륭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당의 은덕에 대하여 노래하는것은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당의 고마운 은덕만을 노래하여서는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다.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고 풍부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 그 위대성과 독창성을 밝히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시대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력사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더욱 빛내여주시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당사업이 째이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문화건설에서도 위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나라의 경제가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섰다. 70년대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은 80년대에도 계속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와 생동한 사실에 기초하여 당의 업적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위대성을 잘 알고 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진짜배기혁명가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할데 대한 시대적요구를 빛나게 해결하는 여기에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로서의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우월성과 혁신성이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고귀한 피줄기이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한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감명깊게 형상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당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투쟁하여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인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이다.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기본은 주체문학예술의 영원한 본보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장편소설과 연극 등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문학예술형식에 옮기는 사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문학예술을 영원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오직 이 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만 당과 수령의 권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성격과 혁명적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조국에 대한 주제와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오늘 새세대들이 나라의 역군으로 등장하고있는 형편에서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난날 나라잃은 설음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당이 꽃피워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귀중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지만 해방후에 나서 자란 새세대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하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가 하는것을 잘 모를수 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펴난다.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주체의 조국이며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당의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참된 삶과 보람이 있다는것을 잘 형상하여야 한다.

조국에 대한 주제는 본질에 있어서 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운 애국자들에 대한 주제이다. 이로부터 오늘과 같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선렬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원쑤의 침해로부터 옹호보위하고 그 륭성발전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는 애국자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특히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인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의 애국적투쟁과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조국에 대한 주제와 함께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

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민족적자존심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작은 민족일수록 더욱 강해야 하며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사정으로 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자존심은 매우 높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가장 존엄있는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아름다운 금수강산, 풍요한 자연부원, 고상한 도덕과 슬기로운 재능을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마땅히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형상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상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과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로 하여 더욱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선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과 군민관계를 그린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군사로선과 군민일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일단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과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 오늘의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씩씩하고 명랑한 생활을 그린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옳은 혁명적관점을 세워주고 만일 적들이 전쟁을 강요할 때에는 놈들을 단매에 처부시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도록 그들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무장으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수호하고있을뿐아니라 헌신적인 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로력투쟁을 형상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건설에 떨쳐나서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과 함께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아끼고 철저히 보위하는 인민군군인들의 고상한 풍모와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리며, 군인들을 친혈육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과 전투준비를 적극 도와주는 후방인민들의 미풍과 인민군대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형상하는것이 요구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혁명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로부터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는것이다.

문학예술에 새것을 옳바로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무엇보다먼저 새것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한다. 새것이란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것이다. 사회발전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지 않는것은 비록 처음 생겨난것이라고 하여도 새것으로 될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는것이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야말로 사회발전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것이기때문이다. 새것은 처음에 작고 미미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것으로 보일수도 있고 또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을수도 있는것만큼 그것을 제때에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새것을 탐구하고 발견하여 형상을 통해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새것을 지향하여나가는것은 혁명가의 중요한 풍모이다. 3대혁명의 전위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다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그러므로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언제나 당정책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풀어야 한다.

오늘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도하는 문제, 당이 풀려고 하는
예술적해답을 주는 작품, 그 내용
대로 당정책인 예술영화 《보증》과
정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작
사상예술성이 높게 창작하는 여기
리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혁명
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고 우리
술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힘있
밀어주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사상은
리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
지향에 맞게 혁명적으로 발전시킬수
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제방향과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
창작방도가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게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
은 추호의 동요와 자그마한 편향도
이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에 적극
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발전할수
게 되였다.

혁명하는 시대는 문학예술작품에
없는 사랑에 대한 한담이나 자질구
신변잡사를 그리는것을 허용하지
다. 혁명적문학예술에는 부르죠아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잡사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발붙일
없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시대의 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고상한
격을 창조하며 시대를 특징짓는 전
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고 참다운 생활
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며
고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른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다양한 주제의
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창작
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
위업에 복무하는 자기의 시대적사명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최 룡 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부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
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거대한 생활력
발휘하고있으며 이 운동의 불길속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
화 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양과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
진 결과 3대혁명기수들과 근로자들이
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
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정책을 끝
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
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
히 준비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
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경제의 주체
, 현대화, 과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
고있으며 문화혁명의 불길속에서 온
회의 인테리화가 다그쳐지고있다.

점덕과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첫봉화가 타오른 청산리를 비롯한
리 강서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활발히 전개
여 21개 단위가 이미 2중3대혁명붉은
,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니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룩된
랑찬 성과들은 언제나 대중운동에 커
란 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적투쟁과 집
적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리와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시는
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귀한 결실이다.

지난 기간 강서구역당위원회는 당의
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일정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우리가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속에서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사회적분위기는 사람의 의식에 반영되여 의식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며 사람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이 사회적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광범히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사회적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게 된다. 특히 사회적분위기조성문제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참가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특성으로부터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옳게 조성하고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광범한 대중이 왕성한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거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이 운동의 거대한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구역당위원회가 중요한 관심을 돌린것은 많

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하도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그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한 학습과 강연, 선동과 해설담화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배합하여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였으며 당이 발기하고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되는 이 운동에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는것이 곧 당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체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일정한 계기에서 충격을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되며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서게 된다.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계기를 잘 리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런것만큼 앞선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계기를 잘 리용하여 모범을 통한 교양을 잘하면 대중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비상히 높일수 있고 그들속에 신심과 의욕을 북돋아줄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서화학공장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모임을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달라붙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준비하였으며 모임이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도록 짜고들었다. 면밀한 준비밑에 우리는 이날의 수여식을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당 및 행정 책임자들과 근로단체일군, 직장,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다 참가한 구역적인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다른 단위의 일군 몇명에게 축하연설을 준비시켜 그것이 축하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중앞에서 자기의 결의를 표명하는 기회로 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는 성수가 나서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로 되게 하였으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지 못한 단위들에서는 자극과 충격을 받아 분발하여 일떠서게 하는 계기로 되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진행한 조직정치사업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많은 일군들과 광범한 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와 3대혁명기수들을 내세워주는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일수 있다.

우리는 여러가지 행사를 조직할 때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들고 앞장에 서도록 하였으며 모범적인 일군들을 주석단에도 앉히도록 하였다. 또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와 참관 사업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부터 보내도록 하였으며 구역안의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망들에서도 3대혁명기수들에게 먼저 봉사하게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정치적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물질적평가를 옳게 배합하도록 한것은 이 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3대혁명기수들을 당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수훈이나 표창사업이 제기되

여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된 회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부터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물질적평가도 그러한 기준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누구나 다 깊은 관심과 높은 열의,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구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앙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되였다. 경험은 사회적분위기를 옳게 조성하고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광범한 대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한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우리가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많은 일군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신심을 가지게 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구역당위원회는 우리 당이 밝혀준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모든 분야에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유리한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청산협동농장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 포괄하는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서화학공장에서는 문화혁명수행에 기본을 두면서 공업부문의 본보기를, 또한 잠진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데서 나서는 문제와 관련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전에 기초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십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전국적인 시범단위로 꾸리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청산리가 계속 시범단위로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도 시범단위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한 당적관심을 돌린것은 시범단위에 대한 지도에서 정치사상적지도에 기본을 두는것이였으며 해당 단위의 일군들을 잘 꾸려 그들이 시범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면서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였다. 우리는 청산리에 나가 초급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능력과 전개력이 있으며 농사물계에 밝은 사람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조직적대책을 세워주었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자립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한편 우리는 물질기술적보장대책을 안받침하는 사업도 소홀히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곳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깃든 불멸의 사적을 통한 충실성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진행하여 사상혁명결의목표부터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당에서 보내준 농기계들의 수리정비체계와 리용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새로운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 종합적기계화농장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청산리를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 잘 꾸리고 청산농업대학을 농장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역당위원회는 청산협동농장에 본보기를 창조한데 이어 강서화학공장에 공업부문의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력량을 집중하여 꾸린 시범단위는 그 전형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투쟁목표와 수행방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주며 신심을 안겨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뒤떨어진 단위를 추켜세워 본보기로 꾸리는것은 감화력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큰것이다.

우리는 조건이 유리하고 토대가 일정하게 마련되여있는 단위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곳에서도 모범과 경험을 창조하여 비록 조건이 불리하고 토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어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대중을 적극 발동하기만 하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인식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구역당위원회는 가장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운 단위들인 강서탄광종합기업소 8갱 굴진중대와 강서수지일용품공장 가방작업반에 힘을 집중하여 모범으로 꾸리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단위를 추켜세워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한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자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창조한 모범을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본보기를 창조한 단위의 훌륭한 경험이 여러 단위의 결의목표수행에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가치있는 경험을 방법론적으로 가르쳐주는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방식상학을 통하여 방법론을 배워주는 사업에 모를 박았다.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는 경우에도 구역당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모여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배우라는 식으로 한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실제적인 방도까지 대주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 청산리에서는 농업부문에서 결의목표를 단계별로 실속있게 세우고 집행하는 방법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이룩된 성과를 실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서화학공장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비롯한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결의목표실현정형에 대한 월총화방법,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의 리용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방식상학을 조직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실효도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실천투쟁을 통하여 구역당위원회는 하라고 지시나 하고 앉아서 평가나 하며 독촉만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면서 도와주고 이끌어줄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체득하였다. 참으로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 운동에서 도달하여야 할 목표에 대한 생생한 표상과 신심을 줄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법이였으며 지도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한것은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틀어쥐고나간 중요한 고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

은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입니다.》

당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참모부이다.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작전되고 포치되며 장악되고 집행된다. 때문에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야 이 운동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으며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줄수 있다.

우리는 우선 구역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에 많은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돌린것은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에게 자기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와 밀접히 결부시키고 그것으로 일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시키도록 한것이다.

당사업은 철저히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당사업의 성과는 곧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에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에 이바지 못하고서는 당사업을 바로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업은 마땅히 3대혁명수행을 위한 사업에 복종되여야 하며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대중적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와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과 해설담화를 자주 진행하여 일군들에게 당위원회의 적지 않은 힘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에 돌리고 그것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원리적으로 인식시키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잘해나가야 구역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납득시키였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인 강서화학공장에 부장이상간부들과 함께 나가 이 운동을 틀어쥐고나가면 당조직사상생활은 물론 혁명과업도 잘 수행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산 현실로 체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고 그것으로 일관시켜나가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게 하였다.

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을 발동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떠밀어주는것은 이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위원회의 여러 부서들이 힘을 합치고 보조를 맞추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통이 크게 해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서들의 월, 분기 사업계획이 철저히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작성되고 집행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매 부서들의 사업내용과 직능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고 분공을 주는데도 힘을 넣었다. 조직부일군들에게는 당원들의 당생활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으며 선전부일군들에게는 사상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근로단체부에는 다른 대중운동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되고 거기에 복종되여 진행되도록 할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이와 함께 주관부서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조직진행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처럼 사업내용과 직능에 맞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었을뿐아니라 그 수행정형을 수시로 장악하고 제때에 총화하며 끊임없이 재포치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한편 우리는 모든 부서들이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과정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주관부서에 집중시키도록 하였으며 당위원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모든 부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작전하고 긴밀히 협동하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장악과 통제는 당적지도를 실현하는 기본형식이며 당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지도는 항상 장악을 전제로 하며 통제를 동반하게 된다. 때문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그 실태를 환히 꿰뚫고 나타나는 편향과 부족점을 제때에 바로잡아줄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할수 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구역당위원회는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들과 일군들을 동원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실태에 대한 집중료해장악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는 질서정연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조직진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상적으로 보고받도록 하였으며 하부지도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실태료해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당원들을 만나 담화하고 사로청원들과 이야기하거나 분조에 들어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결의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나가고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것으로부터 그들과의 사업을 시작하는것을 철저히 생활화, 습성화하였다. 이와 함께 구역당위원회는 3대혁명소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그들을 통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일상적인 료해장악과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장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에 기초하여 대책과 방도를 바로세우고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자는데 있다.

구역당위원회는 료해장악된 실태에 기초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나가 이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내밀도록 하였다.

강서화학공장에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실태료해자료에 기초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이 공장을 추켜세워 3대혁명붉은기공장으로 만들데 대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구역당위원회가 밀어주고 이끌어주는데서 고무를 받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섰으며 마침내 3대혁명붉은기공장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매개 부서들의 역할을 높이고 협동작전과 련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당의 의도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으로 틀어쥐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이 운동이 내세우고있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책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책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

한 지도를 해당 부서나 아래일군들에게 만 맡겨놓지 않고 이 사업을 책임일군 자신이 직접 작전하고 포치하였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였다. 청산협동농장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농장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도와준 과정은 책임일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 교훈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짓자면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방도를 찾는것이 중요하였다.

방도는 과학적이여야 하며 실천적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에 기초하고 집체적협의를 강화할 때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고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갔다.

청산리농장원들속에 들어간 우리는 그들에게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의 본질과 그 관철의 필요성을 거듭 해설해주면서 농사의 주인은 다름아닌 농민들자신이며 나라의 쌀독은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수령 앞에 책임지고있다, 이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적인 본분을 다하자면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지어야 하며 그러자면 주인다운 일본새를 가지는것과 함께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자라는 로력을 기계가 대신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계발시키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도록 이끌어주었다. 협의가 계속되고 토론이 거듭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창발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논두렁만드는 기계만 만들면 거기에서만도 50여공수의 로력예비를 얻을수 있다는 세포비서의 반기가 나왔고 종합랑종기를 창안도입하면 그것으로 20여공수의 로력을 대신할수 있다는 분조장도 있었다. 뜨락또르동력에 의한 련결농기계식으로 논두렁만드는 기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되였으며 폐기된 농기계부속품들을 재생리용하여 종합랑종기를 만들겠다는 결의도 나왔다. 토론과정에 여러가지 방도가 제기되였고 수많은 예비들이 쏟아져나왔다. 실로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었고 힘은 군중에게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기발한 착상과 혁신적인 발기들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그것을 지체없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포함시켜 실현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에게 당적신임을 안겨주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그들을 기술혁신과제수행에로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창안제작한 농기계들을 임의의 시간에 마음대로 시운전해볼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도 보장해주었다. 구역당위원회가 밀어주고 책임일군들이 이끌어주는데서 고무를 받고 신심을 얻은 그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이악한 노력으로 마침내 간편하고 능률높은 논두렁만드는 기계와 종합랑종기를 창안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지원로력을 받음이 없이 자체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청산협동농장의 결의목표 실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현실은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당의 기대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 힘차게 투쟁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반양시켜 가까운 앞날에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함으로써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그 파국적후과

박 영 상

오늘 남조선공업은 미국독점자본에 완전히 예속되여있는 식민지공업으로 전락되였다. 경제에서 주도적부문을 이루는 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남조선경제생활전반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은 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그 파국적후과를 가리우기 위하여 그 무슨 《자립》과 《성장》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미국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여있는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공업이야말로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공업이며 그것이 날이 갈수록 남조선경제전반에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진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44페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은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경제 특히 공업을 그 주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공업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예속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의 공업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공업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무엇보다도 남조선공업이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종주국을 위한 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자립성이 전혀 없는 식민지공업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남조선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는 공업의 군사화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는 공업의 군사화는 침략전쟁의 준비와 전쟁수행에 적응한 공업체계를 수립하여놓고 그것을 저들의 군사적목적에 복종시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침략과 전쟁을 근본생리로 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국가들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종주국경제의 군사화에서 약점을 보충해주기 위한 식민지공업의 군사화이다.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경제를 개편하고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미제의 경제군사화정책에 남조선공업이 그 부속물로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공업이 미제의 경제군사화정책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강행하고있는 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그 동기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시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군사화가 제국주의독점체들에 의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모

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도로 진행된다면 남조선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이와는 달리 미제의 강요에 의해 그의 군사적취약점을 보충하기 위한 방도로 진행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라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파국적인 경제공황,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닥칠 때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를 군사화하는 길로 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반영한 독점자본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현상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는 남조선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미국경제의 군사화의 연장으로서 그 보충적수단으로 진행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필요한 군사적수요는 총량적규모에서 방대하며 다종다양하다. 미제는 오늘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과 100만에 달하는 괴뢰군을 유지하고있으며 이외에도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 괴뢰군예비역 등 1,000여만명이상을 헤아리는 준군사무력을 두고있으며 40여개의 주요군사침략기지와 200개이상의 군사시설물들을 구축하여놓았다.

미제는 이러한 대규모의 군사인원들과 군사시설물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량의 전투수단들과 군수물자들을 수천키로메터나 떨어져있는 미국본토로부터 수송한다는것은 현대전의 특성으로 보아 매우 불리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요구되는 전투수단들을 비롯한 군수물자의 일부를 남조선현지에서 직접 생산조달하게 함으로써 그 취약점을 보충하고있다.

남조선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처음부터 미국군수공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였다.

원래 군수공업의 창설과 발전은 군수공업 그자체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가장 정밀한 생산수단생산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공업은 전투수단생산에 필요한 자체의 물질기술적 및 재정적 토대를 못가지고있기때문에 현대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군수공업을 자체로 건설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미국군수공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다.

군수공업은 그자체가 엄격한 국가비밀로 되여있기때문에 군수독점산업에 한정되며 그것이 외래군수독점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종속관계는 보다 더 강한것으로 되게 된다. 특히 남조선은 무기생산에 필요한 기계공업이 보잘것없는 조건에서 공업의 군사적부속물화는 전적으로 미제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그 감독과 통제 밑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공업은 미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그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락되고말았다.

미제가 남조선공업을 군사적부속물로 만든것은 남조선이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투행동지대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정과 직접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설치하는 군사기지는 침략적군사전략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전초기지와 후방기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전초기지와 후방기지는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고있는 점에서는 일반적공통성을 가지고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면에서는 서로 구별된다.

전초기지는 직접적인 전투마당, 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이지만 후방기지는 전투행동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보급

기지, 보장기지이다.

과거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보급기지로 리용하였으며 조선의 공업을 본국에서 전투수단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부속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특수한 조건과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있는 군사전략적지위로 하여 처음부터 남조선에 전초기지로서의 의의를 크게 부여하였으며 남조선공업에 대한 군사적부속물화도 남조선의 전초기지의 지위에 맞게 강행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은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초기지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공업을 군사적으로 부속물화하여온 과정이였다.

그 결과 남조선공업은 현지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잠재력을 동원할수 있게 그 구조가 편성되였다. 다시말하여 남조선공업의 구조가 군수산업체계로 개편되였다. 그리하여 군수소비품의 생산과 일부 무기를 비롯한 전투수단을 생산하는 군수공업과 군사시설물구축을 물질적으로 뒤받침하는 중화학공업이 기형적으로 확대되여 공업이 미제의 군사적수요충족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식민지예속공업으로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공업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철저히 복무하는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또한 《단순임가공수출형》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으로 전락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공업을 저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과 함께 독점자본에 식민지초과리윤을 보장해주는 식민지임가공수출공업으로 전변시키였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침투의 필연적산물이기도 하다.

오늘 남조선공업은 독자적으로 그 어면 재생산순환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공업생산의 방향과 내용, 규모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시기 식민지나라의 공업발전을 정면으로 방해하면서 가공공업에 대한 투자를 거의나 하지 않았으며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광업이나 농산물 등 원료자원략탈을 위한 일차가공부문이거나 그 반출과 관련된 공업부문들에 한하였다.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공업정책도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상경제원조》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된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으로 남조선에 사독점자본을 들이밀어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면서도 외형상으로 남조선공업이 《성장》하는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조》정책을 강행하여왔다.

미제는 《근대화》, 《공업화》의 미명밑에 사독점자본을 침투시키고 그들에게 식민지초과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군수산업과 함께 수출산업을 위한 최종가공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이미 낡아빠진 기술까지 《협조》와 《기술제휴》의 형태로 넘겨주면서 단순임가공무역형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을 이식하는 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공업은 철저히 미국독점자본의 인위적인 책동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식되고 저들의 구미와 특색에 맞게 가꾸고 자래운 《단순임가공무역형》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으로 되고말았다.

《단순임가공무역형》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이란 미국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기계, 원료자재, 부분품 등을 관세없이 무한정 끌어들여 구매력을 잃고 거리에 넘쳐나는 값싼 현지로동력을 리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조립한 다음 거기에 상표만 바꾸어달아 본국과 제3국시장에 세금없이 재수출할것을 목적으

로 세워놓은 공업을 말한다.

오늘 남조선식민지임가공수출공업은 로동력만이 제것이고 로동대상과 로동수단은 미국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여있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생산이 진행되고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얻는것이란 오직 로동력을 혹사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임가공료뿐이며 남조선을 《독립국가》로 둔갑하기 위해 외래독점자본의 상표를 저들의 상표로 바꾸어단것뿐이다.

남조선공업이 식민지하청수출공업으로 전락된것은 우선 남조선공업이 수출일면에 철저히 복종되고있는데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립적인 공업은 자체의 원료, 자재, 기술에 의거하여 자국내 경제와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수출무역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공업은 해외수출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있는 심히 기형적인 공업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남조선공업은 민족의 부흥과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무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외래독점자본의 순수한 상업적목적에 리용되고있다.

남조선공업의 발전방향과 용량은 해외시장수요에 의해 규정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수출의 비중이 높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존률은 보통 10~15%를 정상수치로 보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존률은 40%, 수입의존률은 50%이상에 달하고있다. 결과 무역의존률은 무려 90%이상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공업이 기형적인 수출주도형경제이라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공업이 식민지하청공업으로 전락된것은 또한 원료, 자재, 설비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있는 예속적인 공업이라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이식된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원료, 자재, 설비들의 수입을 동반하게 된다.

남조선공업은 외래독점자본이 대주는 원자재를 단순임가공하는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인것만큼 남조선공업의 원자재해외의존률은 매우 높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은 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9페지)

원료, 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속성이 더욱 강화되는것은 필연적이다.

남조선공업의 높은 원자재해외의존률은 남조선공업이 얼마나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공업의 원자재해외의존률은 평균 70%이상이며 주요원자재는 90~100%이다. 남조선공업의 원료, 연료 해외의존률을 몇개 품종에 한해서만 보더라도 원유, 목화, 생고무, 양철, 유연탄 등은 100%, 철광석은 97%, 파고철은 70%, 유지는 87%, 밀은 97%, 강냉이는 94%, 소가죽은 90%, 통나무는 87%이다. 이밖에도 금액은 많지 않아도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도 수없이 많다.

남조선공업은 원료, 연료뿐아니라 기계설비의 부분품과 반제품의 의존률도 매우 높다.

남조선수입총액가운데서 원자재수입이 차지하는 몫은 1984년에 58%를 차지하였다. 결과 원자재와 설비의 수입총액은 1984년에 남조선전체수입총액의 90%에 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수출이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여도 수입이 그것을 더욱 빠른 속도로 앞질러 나감으로써 결국 대외채무의 루적밖에 가져온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경제는 수출이 늘면 수입도 따라서 늘어나고있다. 그것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기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출이 줄어들고있는데도 수입은 좀처럼 줄지 않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원자재의 수입—가공조립—수출의 도식체계를 이루는 남조선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은 대내시장, 민족시장의 수요와는 완전히 분리되여 별개의것으로 존재하고있다. 수출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탕진하며 수출일면적으로 공업구조전반을 기형화시킨것이 남조선공업의 가장 중요한 약점인것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공업이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인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공업이 식민지하청수출공업으로 전락된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분생산기지, 수출전진기지라는데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오늘 다국적기업은 한 나라와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본주의세계적규모에서 기업경영을 조직하고 전개하며 거기에서 최대한의 리윤을 얻는 국제독점자본의 기업경영의 새로운 형태이다.

다국적기업들은 독점적고률리윤을 얻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로동집약적《수출주도형》의 공업을 인위적으로 이식하고 그것을 저들의 세계적인 경영전략을 실현하는데 리용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공업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새끼회사, 분공장들을 이식하고 거기에 원자재, 부분품, 반제품을 들이밀어 현지의 값싼 로동력으로 가공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든 다음 그것을 본국과 제3국 시장에서 실현함으로써 막대한 초과리윤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은 국제독점들이 배를 불리울수 있는 좋은 생존수단이며 치부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국제독점자본의 세계기업전략의 전형적인 실현대상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남조선에 수출전진기지를 꾸리기 위해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는데 그가운데서도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

1984년과 1985년에만 하여도 미국의 다국적기업체들인 《제네랄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는 자동차공업부문에, 《아이비엠》, 《테레비오시스템》, 《휴렛패커드》, 《왕콤퓨터》 등은 전자공업부문에, 《노스롭 캐터펄러》는 기계공업부문에, 《굿이어》는 다이야공업부문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그 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조선의 식민지하청수출공업이 미국다국적기업들의 수출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식민지경제예속화정책을 강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공업은 군사부속물적인 공업으로, 략탈적인 《수출주도형》공업으로 굴러떨어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공업으로 되고말았다.

남조선공업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강행은 남조선경제에 심각한 파국적후과를 미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민족공업이 끊임없이 파산몰락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공업은 파산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여가고있으며 끊임없이 파산몰락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44페지)

미국독점자본의 침투에 따르는 군수공업과 식민지하청공업의 확대로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날로 령세화되여가고 있다.

민족공업의 파탄상은 우선 중소민족공업기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의 비

중이 날로 떨어지고있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 전체 공업기업소에서 중소공업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99.1%이던것이 1985년에는 96%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에 종업원수는 78.1%에서 50%로, 생산액은 66.3%에서 32%로 대폭 감소되였다.

그리고 중소공업기업체들의 규모가 해마다 더 령세화되고있다.

남조선민족공업기업체총수에서 종업원 5~9명까지의 령세한 기업들이 50%를 차지하고있으며 50명미만의 기업체수는 82%이상에 달하고있다.

민족공업기업이 령세화됨에 따라 그 기술수준과 경영형태의 락후성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민족공업기업의 절대다수는 락후한 수공업적기술에 기초하고있으며 가족로동에 의존하고있다.

기업체의 기술장비수준을 표시하는 기계장비률은 매판기업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며 자기자본비률은 10%라는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에 부채비률은 600%에 달하고있다. 이리하여 민족공업기업의 82%이상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있으며 그 가동률은 50% 수준에 있다. 특히 민족공업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직물업계, 식료업계, 염료업계는 가동률이 20~40% 수준에 있다. 민족공업기업들의 조업단축, 휴업, 폐업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만개에 달하였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하청공업으로의 전락은 또한 공업과 농업간,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단절시키고있다.

농업과 공업,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사이의 생산적면에서나 소비적면에서 호상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고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경제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공업과 농업간,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사이의 유기적련계를 이룩하지 못하고 그 원료를 종주국인 미국과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의 방직공업은 미국의 잉여목화에 거의 100%, 제분공업과 식료공업도 밀, 강냉이, 콩을 비롯한 원료를 미국의 잉여농산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그리고 남조선공업은 철광석, 동, 망간, 린회석 등 남조선에 매장되여있는 광석들을 개발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거의 전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공업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강행으로 남조선공업이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독점자본의 식민지하청공업으로 전락됨으로써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인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공업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유기적련계가 전면적으로 결여된 심히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절름발이공업으로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공업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가장 큰 파국적후과는 남조선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겨우 15만원 정도이며 10만원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 로동자들은 65%에 달하고있다. 특히 녀성로동자들은 남성로동자 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것은 그것을 최저생계비와 대비할 때 더욱 명백히 알수 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도시 5명 가족의 월최저생계비는 64만원이다. 이것은 현재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그 4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것은 다른 나라 로동자들

의 임금수준과 대비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남조선공업부문 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시간당 다른 나라 로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일본과 영국 로동자들의 7분의 1, 서부독일로동자들의 9분의 1에 불과하며 같은 수준에 있는 싱가포르로동자들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형편에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기아임금을 받고있을뿐아니라 긴 로동시간과 높은 로동강도, 가장 나쁜 로동조건에서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은 보통 16시간이다. 특히 외래독점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은 더 길다. 자료에 의하면 《마산수출자유지역》, 《구미공업단지》 등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18시간의 긴 로동시간을 강요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로동자들은 매우 나쁜 로동조건에서 일함으로써 항상 로동재해의 위협을 받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6년 한해의 로동재해 건수는 14만건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1분마다 로동자 한명이 로동재해를 입는다는것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리고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파국상으로 하여 민족공업과 중소기업체의 파산몰락으로 많은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생사기로에 있는 실업자 및 반실업자수는 700만명이 넘는다. 게다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준비책동으로 말미암아 《방위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세금징수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1965년에 2,454원이던것이 1986년에는 35만 9천원으로서 거의 150배로 늘어났다.

미제의 남조선공업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파국적후과는 앞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더욱 커질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보다 악화될것이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파국적위기는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하여 빚어진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그대로 남아있고 남조선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행위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공업은 파국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오직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괴뢰들의 사대매국적책동을 끝장내고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조국을 통일할 때만이 남조선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의 인민들은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조국강토에 참다운 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

리 승 혁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인류앞에 오늘처럼 절박한 요구로, 긴절한 과제로 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다.

핵우세로써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지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평화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으며 인류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시대의 이 엄숙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대오의 선두에는 사회주의력량이 서있다. 사회주의는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와 평화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류공동의 념원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35페지)

평화가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주의가 곧 다름아닌 평화를 숭고한 리념으로 하고있으며 평화를 상징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일찌기 하나의 사상조류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을 때부터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끊임없는 략탈전쟁으로 치부하는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류의 리상사회를 이룩하는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고상한 리념으로 내세웠다.

원래 침략과 전쟁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반동적인 통치계급들의 전횡과 지배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인민들을 정복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여왔다. 반동적인 착취계급들이 도발한 수많은 전쟁들은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특히 제국주의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식민지강탈과 세력권확장을 위한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쟁을 벌림으로써 세계의 귀중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무참히 파괴유린하였으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희생을 가져다주었다. 제국주의의 력사는 피로 얼룩진 침략의 력사이며 저주로운 략탈의 력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바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빚어진 침략전쟁의 죄악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없고 친선과 화목이 지배하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이룩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체현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인민대중을 종국적으로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나라와 민족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친선과 협조, 평화가 이루어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장본인은 제국주의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가장 악독한 형태는 침략전쟁이다. 나라와 민족이 제국주의에 예속되고 자주성을 짓밟힌

그러한 평화는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 노예적굴종의 평화이며 가짜평화이다.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평화라야 참다운 평화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한다. 사회주의는 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참다운 평화를 요구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견결히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평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온갖 착취와 억압, 지배와 예속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쟁을 산생시키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략탈, 침략과 전쟁에 리해관계와 관심을 가지는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 집단이나 조직도 있을수 없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동지적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대립이 없으며 사람들사이에 적대감과 증오감을 고취하는 그 어떤 요소도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이 모두다 같은 사회주의근로자로서 정치사상적으로 단합된 화목한 집단을 이루고있다. 여기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계급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가고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 인민들과도 단결하고 협조하며 친선과 화목을 도모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에게 지배와 예속을 강요하는 침략전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평화를 요구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힘있게 밀고나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평화적인 환경이 보장되여야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전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지연시키고 저애한다. 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숭고한 리념이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왔다.

오늘도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는것은 현시기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구우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가셔질수 없으며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쏘련은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현세기말까지 핵무기를 완전히 철페할데 대한 적극적인 평화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최근에는 전략무기와 우주무기 등 제반 문제들중에서 구라파에 있는 중거리미싸일문

도로 떼내여 그것을 제거할데
별적협정을 체결할것을 제기하

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
려하여 일관하게 투쟁하고있으며
의 전면적금지와 철저한 철폐를
고있다. 최근 중국은 쏘련과 함
태평양비핵지대창설에 관한 조약
정서들에 조인하였다.
한 조치들은 핵전쟁의 위험을 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려
나라들의 책임적인 립장과 평
적인 대외정책을 그대로 보여주
다.
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
켜나가는것은 핵군축을 실현하고
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
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나라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
기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비
평화 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를
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
뽈스까, 웽그리아는 구라파에서 긴
대를 완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을 지키며 중구라파에 비핵지대를
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다.
불가리아,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는
간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
시키며 발칸반도를 핵무기와 화학
기가 없는 지대, 외국의 군사기지가
는 평화와 선린의 지대로 전변시키기
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몽골은 일관한 평화애호적대외정책으
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업에 기여하고있다.
꾸바는 까리브지역과 중미주에서 미
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긴장
대를 완화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정책과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인 발기들과 건설적인 조치들은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전쟁광신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으며 세계 5대륙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을 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평화애호적인 정책과는 반대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군비경쟁을 날로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열핵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평화적발기들에 범죄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의 추진, 전략무기제한조약의 위반, 핵시험의 감행,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빈번한 전쟁연습소동, 남태평양비핵지대창설에 관한 조약의 의정서들에 대한 서명 거부 등 악랄한 도전적행동으로 맞서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이러한 상반되는 립장은 과연 누가 진실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있으며 누가 평화를 파괴유린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을 확고한 대외정책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입니다.》(《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단행본, 10페지)

조선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며 전쟁을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남에게 전쟁을 강요하거나

불행과 재난을 안겨준 일이 없다. 우리 인민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협조해나갈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를 기본리념으로 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지향이기도 하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이 기본리념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반제혁명력량의 폭넓은 단합을 이룩하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외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자주와 평화의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 과학적인 지도리념으로 된다.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지침으로 삼고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우리 당은 우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상의 모든 력량이 하나의 대오로 결속되여 제국주의전쟁세력에 대한 압도적우세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에 공동으로 맞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이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인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핵무기를 철페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림으로써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 강력한 반전평화옹호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 당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을 지지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고있다. 특히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의 국제적련대성의 뉴대를 더한층 강화하며 공동행동을 보다 조직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이 운동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정당한 주장과 발기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페의 실현, 모든 군사쁠럭의 해체와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의 철페 및 외국군대의 철거를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특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고있는 핵전쟁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고 지금 있는 핵무기들을 축감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할것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의 발현이며 어떻게 하나 새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진지한 노력의 표시이다.

우리 당의 진지한 평화애호적립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조선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져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도 돌이킬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들씌우게 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에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제기한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당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다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공명정대한 립장과 진지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련이어 다방면적인 북남회담을 발기하고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긴장완화를 위한 주동적조치로서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새로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이 모든 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데로 나갔다. 오늘의 정세에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연쇠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조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하고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인 정치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길을 명시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이 제안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하나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조선문제해결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평화애호적인 립장과 오랜 기간 꾸준히 기울여온 성의있는 노력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다.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 연단들에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는것은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오늘 인류앞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할 엄숙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인류가 핵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는가 아니면 평화를 수호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근원이며 평화의 파괴자이다.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더우기 구걸해서는 얻을수 없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를 반

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반전, 반핵평화옹호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핵무기증강책동과 우주군사화책동을 막고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철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수 있으며 세계평화는 공고한 기초우에서 유지될수 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참다운 세계평화는 온세계가 자주화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가 끝장나고 모든 나라, 민족들의 자주권이 실현되며 그 기초우에서 나라들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질때 이룩될수 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여 새 세계전쟁을 막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반전평화옹호력량인 사회주의나라들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겁다.

사회주의가 세계평화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전반적사회주의력량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세계평화는 수호될것이며 제국주의와 전쟁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념원은 실현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5호(루계 541호)

편집위원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5월 1일 발 행· 1987년 5월 3일

ㄱ—759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 호(542)

차 례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최신장비로 무장한 저들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15개 추종국가군대 그리고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으나 정의의 위업에 일떠선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영웅적인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견결히 싸움으로써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쳐부시고 우리 공화국을 튼튼히 수호하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였다.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조선반도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떠돌고있다. 쓰라린 패전사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있는 미제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평화롭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나라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는 오늘의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5페지)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에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생겨난것이다. 만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분렬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지지 않았을것이며 애당초 조국통일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민족통일문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그것은 국토의 남반부에서 미제의 지배와 강점을 종식시켜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되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된다.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다. 본의아니게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것은 한피줄을 나눈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이며 민족내부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는 결코 누가 먹고 먹히우는가 하는 문제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해와 신뢰에 기초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야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인민의 공통의 념원을 실현하는 민족내부문제를 외세를 개입시켜 해결할수는 없는것이며 더우기 동족끼리 싸우는 방법으로 풀어나갈수 없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전쟁에서 리득을 볼 조선인민은 북과 남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인민은 이제 다시 미제침략자들에게 롱락되여 전쟁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되며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이 전

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조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40여년동안 인공적인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을 안고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면서 통일된 조국을 갈망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민족의 념원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일찌기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대강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맞게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방안들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 1984년초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련이어 여러가지 북남회담을 발기하고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또한 작년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의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새로 내놓았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 모든 조치들은 갈라진 조국을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해결의 리정표로 된다.

그러나 《두개 조선》 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와 괴뢰도당은 우리의 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대결과 전쟁 로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긴장격화와 전쟁의 길은 민족의 재난과 자멸의 길이다. 조선에서 평화가 유지공고화되는가 아니면 긴장이 더욱 격화되여 전쟁이 다시 터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달려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전쟁과 대결 로선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수치스러운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겨레의 생사운명이 경각에 이르고있는 오늘 량심있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도 엄혹한 현실을 외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오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는 하루빨리 첨예한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으시고 조국통일의 길우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마련하시였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이 방안은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풀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것과 같은 문제들을 트의해결함으로써 군

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수 있게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중립국감시군을 만들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들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하게 하는것은 군사적대치상태를 완화하는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다면 좋은 분위기속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을 토의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을 외면하고 올해에도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 또다시 《힘에 의한 통일》을 떠벌이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사리에 맞지도 않는 거짓을 날조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우리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소동을 벌리고있으며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우리와 련결시켜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은 저들의 장기집권에로의 길을 열기 위하여 재야세력에 대한 분렬와해공세를 들이대고있으며 《쿠데타》몽둥이로 인민들을 위협공갈하고있다.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을 내놓은 이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북남사이에 어떠한 회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긴장완화를 위한 아무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직 대결과 긴장, 전쟁만을 추구하는 민족반역집단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모처럼 일정에 오른 북남대화의 실머리마저 끊어버리고 여러 분야의 북남회담들을 재개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막아버린 반민족적행위의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자면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를 완전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우리와 미국, 남조선당국의 회피할수 없는 의무이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은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실을 통하여 실증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의에 공식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힘》의 대결로 맞서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 힘의 방법, 군사적위협이나 전쟁의 방법으로써는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진심로 바란다면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장비들을 철수하여야 한다.

3자회담을 통하여 조선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오늘도 확고부동하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며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북과 남이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으며 온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려면 어차피 서로 먹고

않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른 나라를 통일하는외에 다른 길
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
울일것이다.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은 민족적화해와 신뢰, 평화를
모든 조선사람들의 단합을 요구
거족적인 사업이다. 북과 남의 모
국력량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지혜를 합친다면 오늘의 난국을
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이 하나의 목적에 기초하여
단결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을 한
방해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각층의 모든 인민들이 조국통일의
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
지금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는데 하물며 한피줄을 이어받은 우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합하지
않을 리유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각계각층 인
들의 총의를 모을수 있는 전민족적인
화의 마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과
의 각 정당, 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할것
제기하였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당, 단체들에 언제나 이러한 민족적
화의 문을 열어놓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

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반전평화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반전, 반미 투쟁은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세계의 진보적인류와 평화애호인민들이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분단 40여년의 력사는 미제야말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고통과 재난만을 강요하는 침략과 략탈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조선반도에서 계속 대결과 전쟁로선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며 침략전쟁을 즐기는자들은 결국 침략전쟁으로 망한다.

조선인민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

김 원 전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계승하고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전통적인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91페지)

한 민족과 인민의 혁명성과 위력은 중요하게 그들이 지닌 혁명정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그들이 높은 혁명정신을 지닐 때 남김없이 발휘된다. 견결한 혁명정신을 지닌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두려움을 모르며 대담하게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간다. 고상한 혁명정신은 사람들에게 불굴의 투지와 전투적기상,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충직하게 바쳐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원천으로 된다.

특히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높이 발양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승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혁명정신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이러한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만이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확고한 생활신조로 삼고 빛나게 계승하고있는 혁명정신은 항일혁명의 그날 백두밀림에 차넘치였던 가장 숭고하고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던 준엄한 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서 발휘된 백절불굴의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령도자를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높이 받들어나간 끝없는 충실성과 수령의 혁명로선과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기 나라 혁명은 철저히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높은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정신 그리고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견결한 반제투쟁정신 등은 백두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인민들이 혁명위업수행에서 반드시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항일혁명의 나날 높이 발휘되였던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절대적으로 높이 받들어나간 순결한 충성심이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하였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것은 결코 앞날에 차례질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

으로 체득하고 수령님을 굳게 믿고 돌어나가야 짓밟힌 조국의 운명을 구하고 조국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기때 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간고한 투쟁의 나 에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것을 혁명 사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여기 경애하는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데 언제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였다. 그들은 철혜고도에서나 적후에서도 결코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조국과 혁명,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용감히 싸웠으며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갔다.

수령과 혁명전사와의 끊을수 없는 혈연적인 뉴대속에서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가 자라났으며 참다운 혁명적수령관, 인생관의 전형이 창조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고결한 혁명정신은 커다란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는것이다.

항일혁명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혁명정신은 무궁무진한 원력을 지니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미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철저히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혁명하는 자각적인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완성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투사들로서 혁명의 앞길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을 가장 큰 보람과 긍지로 여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견결한 자주정신을 지니고 투쟁할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자기가 주인이 되여 굴함없이 투쟁할 때만이 혁명을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찾은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였다. 이러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였기에 그들은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도 혁명승리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강대한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수 있었다.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워야 하는 간고한 시기에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항일혁명선렬들은 결코 혁명가로서의 정치적신념을 굽힌 일이 없으며 혁명의 길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몰랐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이러한 높은 자주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의 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과 변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백두밀림에서 높이 추켜들었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감으로써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세기적인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생활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발휘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갈 때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가지는 위력은 또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지를 가지

고 만난을 뚫고나가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데 있다.

견결한 혁명정신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다. 혁명투쟁이 엄혹하면 할수록 그것을 반영하여 형성된 투쟁정신도 그만큼 견결하고 강의한 것이다.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은 투사들에게 온갖 난관과 시련을 대담하게 뚫고나가는 무비의 용맹과 불굴의 의지를 키워주었다. 그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을 강의한 의지와 투지를 안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며 용감히 싸워나갔다. 항일혁명선렬들은 바로 이러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일제의 대군을 족치는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였다.

우리 인민이 겹쌓인 난관을 헤치며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백을 가지고 억세게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와는 비할바없이 유리한 환경에서 혁명을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훌륭히 완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의 위력은 또한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게 하는데 있다.

혁명의 요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드팀없이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혁명전사의 고상한 품성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 수령의 명령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나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숭고한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투쟁의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한 항일혁명선렬들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혁명전사의 의리로,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였다. 이러한 고결한 혁명정신을 지니였기에 그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였다.

고도의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고있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이러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기질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에서 무수한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백두밀림에 차넘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에 그 사상정신적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밀림에 차넘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의 불패의 위력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간고한 항일혁명의 승리를 이룩한데 이어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새 사회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열정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그 숭고한 투쟁 정신과 기풍을 그대로 본받기 위한 사업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거창한 광복거리 건설장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영웅적위훈들과 비약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전사회적인 혁명정신으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정신으로 되고있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미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받아안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려는 혁명적 지향과 기풍은 우리 량강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속에서도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량강도에는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혁명전적지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비롯한 많은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이 자리잡고있다. 여기에는 조선혁명의 밝은 앞날이 개척되던 시기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그 숭고한 정신세계, 견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그대로 차넘치고있으며 그것들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그대로 본받고 구현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새로운 혁명적기상과 기풍이 높이 발양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특히 혜산청년광산과 운흥광산, 유평림산사업소와 연암림산사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에서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이 그처럼 거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실천투쟁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혁명적재부는 수령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개척되던 시기에 마련된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하는것을 주체혁명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혁명대오의 혁명성과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사람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귀중한 혁명적량식으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내세우시였다.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당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였으며 일생을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친 항일혁명선렬들을 적극 내세우고 전체 인민들이 그들의 고결한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계승되고 찬란히 꽃펴나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은 우리 당이야말로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위대한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투쟁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03페지)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창조된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고수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계승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견결한 전통적인 정신이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과 비약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의 혁명성과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매우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거창한 과업을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긴장한 환경속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투쟁에서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그 투철한 립장과 자세로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혁명적당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여기에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다그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고결한 충성심을 그대로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굳게 뭉쳐 당의 기치따라 전진할 때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창조될것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더욱 빨리 전진할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

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되며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갈 때만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옳게 이어받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패의 위력과 생명력을 지니고있는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백두의 혁명정신을 투쟁과 생활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백두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의 기저에 놓여있는 근본사상이다.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숭고한 정신적풍모를 지닐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 그 어떤 시련도 용감히 뚫고 언제나 승리해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으며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하는 사업은 중요하게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당의 향도밑에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길에서 우리 사회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투쟁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진의 발걸음을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인 제3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전망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날것이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창조적위훈과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드팀없이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위대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

정 탁 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보람찬 길을 걸어왔다. 이 로정은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온 자랑찬 행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계속혁명의 기치이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당의 이 의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강철의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상의지로 억세게 살며 일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심각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사회적변혁과 자연개조를 동반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위업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살며 일하는 혁명적의지를 높이 발휘할때만이 승리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공산주의운동의 오랜 력사는 옳바른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적의지를 지닌 인민은 필승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은 무력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겨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인민대중이 옳바른 지도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혁명적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는 혁명사상은 그것이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오랜 력사에 걸쳐 착취자들에게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혁명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

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
무기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요
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혁명투쟁
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주체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
본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
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주
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
적으로 살아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
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으로서 우리 시대 혁명하는 인민
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
야 할 립장이며 공산주의운동에도 전적
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활동방식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
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
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
의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
을 지키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맑스-레
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
가자》, 단행본, 7페지)
공산주의운동은 원래 자주적인 운동
이다. 그것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
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신념
에 따라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인민대
중이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
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
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따

라 풀어나가는 주인다운 립장을 가져야
한다. 제 정신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가
아니다. 혁명가들이 신념이 없이 남의
풍에 놀게 되면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
할수 없게 되고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
게 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로동
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보여준 심각한
교훈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문제
를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
이 자주적인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에도
맞으며 혁명하는 인민들이 자기의 책임
과 본분을 다하는것으로도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운동은 또한 지난 시기와는 달
리 오늘에 와서는 민족국가단위로 진행
되고있다.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의 이
러한 특성은 매개 나라 인민대중이 주
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
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에서 매개 나라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
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
게 제힘으로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확고
한 립장과 혁명적의지를 가지는것은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론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이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
서 진행되기때문에 나라들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도와줄수 있으며 그것이 혁명
위업을 추진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혁명투쟁에서 외부의
지원은 보조적역할을 할뿐이지 그것이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줄수는 없는것이
다.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며 제힘으로 풀
어나가겠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지 못
한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크
다 하더라도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
킬수 없다.

혁사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하겠다는 정신이 없이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가지게 되면 자기 운명이 롱락당하고 파멸에로 나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경이 있고 나라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인민이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풀어나가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가질 때 자기 나라 혁명운동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의지를 지니는것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지금 우리 혁명은 지난 기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위대한 혁명이며 아직 그 누구도 실현해보지 못한 어렵고 생소한 사업이다. 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예견할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게 되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데 있다. 이외에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어떤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안팎의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제기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제힘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해나가야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앞당길수 있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의 웅대한 새 전망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에도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활동방식으로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해온 전로정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가 높이 발양된 자랑찬 로정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한 결과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있습니다.》(《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직 주체사상만을 신봉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는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에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서 일관성과 원칙성을 튼튼히 견지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주적립장에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로선과 정책을 세울 때라야만 인민대중의 지향과 혁명의 리익에 맞는 가장 옳바른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다. 해방후 전당, 전국, 전군 로선을 롯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명을 위하여 제시된 제반 로선과 정책,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공 화로선, 인간개조방침과 온 사회의 테리화방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명로선 등은 우리 당이 언제나 우리 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이 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기존명제에 애됨이 없이 독창적으로 세운 로선과 책들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독자 인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제시된 우리 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인민 일관성과 원칙성을 가지고 혁명투쟁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 원천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우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또한 자력갱생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표현 되고있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의 하나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혁명적립장의 발현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게 된다.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은 걸음마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매우 간고하고 준엄한 나날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제힘을 굳게 믿고 싸워나감으로써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사회주의민족문화를 건설할수 있은것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상의지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체득된것이기때문에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지닐 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 나라의 융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세게 가져야 한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오직 주체의 사상의지로 살며 싸워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공산주의에로의 지름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다는 확신, 주체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침이다.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여야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다. 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 정책을 잘 모르면 옳고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고 혁명임무를 자신있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매 시기 제시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과 당정책 학습의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다. 여기에는 주체사상의 본질과 원리,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 정책들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진다.

사람들속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자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려는 혁적의지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 위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 자부심을 가질 때 높이 발휘하게 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자 깔보고 남을 떠받드는 사대주의와 자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무시하는 민족 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 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적극적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힘있게 벌 나가야 한다.

주체의 사상의지로 살며 일하는 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강의한 혁명적 지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는데서 현된다. 우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 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 정신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 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에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주체사상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 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일군들은 높은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김 히 택

혁명가에게 있어서 인민성은 가장 고결한 품성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앙양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날을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오늘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당의 령도적권위를 더욱 높이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509페지)

인민성이란 말그대로 인민에 대한 충실성,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닌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일을 해나가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 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이다.

인민성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혁명적군중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숭고한 품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인민성과 떨어져서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께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인민성이 강하면 그것이 곧 당성, 로동계급성이 강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것으로 된다.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의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떠나서 혁명이란 무의미하며 그들의 역할에 의거하지 않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결국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데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충복답게 일해나가는 높은 인민성을 지닐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위업수행에 몸바쳐싸워나갈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또한 당과 대중의 련계를 강화하며 당의 두리에 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과 당의 위업 수행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정신과 인민적풍모는 당과 대중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과 대중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은 당의 인민적인 정책의 집행자이다. 당이 아무리 옳은 인민적인 정책을 세워도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할수 없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다.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녀야 옳은 군중관점을 가지고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특히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비상히 두터워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인민성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고수하며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또다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거창한 작전을 펼치시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도는 비상히 높고 당의 령도적권위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커질수록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가지고 당의 인민적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만 당과 대중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밑에 누구나 다 국가사회제도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 병이 나면 치료받을 걱정이 없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참다운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는데서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해당 초소를 책임진 일군들이 어떠한 정신과 풍모를 가지고 인민대중과 사업하며 그들을 대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에 상응하게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고 일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더욱 빛나게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충복이라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은 대중의 조직자, 교양자이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입니다.>

지도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서 나왔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교양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인민의 충복이란 인민을 위하는 깨끗한 량심,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일군에 대한 가장 고귀한 칭호이다.

일군들이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옳은 관점을 가져야 언제나 인민적인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수 있으며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돌보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평천구역당위원회가 지난 기간 사업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민의 충복이라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 및 행정경제지도 일군들이 높은 인민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추동력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는것과 함께 지도일군이란 어떤 벼슬자리가 아니라 인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였으며 그들에게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설계하고 조치하거나 일거리를 하나 만들고 풀어나가도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구역안의 일군들속에서는 공명과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유익하며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일이라면 아무 일에나 몸을 적시고 성실히 일해나가는 높은 인민성이 발휘되게 되였다.

구역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나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구역살림살이의 호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사업과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편리하게 만들며 그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겠는가에 대하여 걸으면서도 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사색을 거듭하여왔으며 그리하여 당이 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그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자신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이악하게 짜고듦으로써 수많은 돼지를 기를수 있는 돼지목장과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을 매우 짧은 기간에 속도전의 방법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리고 고층주택이 갑자기 늘어나 일시적으로 긴장했던 음료수문제도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할수 있었으며 안산을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집행할수 있었다. 또한 2년 남짓한 기간에 구역적으로 인민소비품 가지수를 수십배로, 그 생산액을 급격히 올리고 최근년간 인민경제계획과 수출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을 초과수행한것 등도 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구역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 결과이다.

일군들이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옳은 자세를 가지는것이다.

인민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에서 발휘되여야 하며 그것은 특히 일군들이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인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일군들은 응당 인민들과 한가마밥도 먹을줄 알며 슬픔과 기쁨도 그들과 함께 나눌줄 알아야 한다. 군중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편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군중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을 위하여 일할수 없으며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될수 없다. 일군들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그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때 군중이 일군들을 진심으로 따라오게 할수 있고 따라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인민들과 고락을 한다는것은 결코 그들의 슬픔에 동정이나 하고 그들의 기쁨에 공감이나 표시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줄 알며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려는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은 특세를 쓰는것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당의 권위와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고 당이 대중을 령도해나가는데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당의 권위를 리용하여 특세와 특권을 부리는 일이 나타날수 있다. 이것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반인민적인 착취계급의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일군들속에서 군중우에 올라앉아 세도를 쓰거나 특혜를 바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청백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이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적품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애지중지 키워나가는 심정으로 아래일군들과 군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풍모를 키우도록 사상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혁명가는 맨밥에 된장을 찍어먹어도 혁명사업만 할수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군들이 그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언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검박하게 살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특세를 부리거나 자기 기관, 기업소 사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업을 특수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근로자들과 고락을 같이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대중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불러일으킨 중요한 경험은 평양제사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다. 1960년대초에 인간교양개조의 영웅으로 알려졌던 이 공장 초급당비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며 천리마운동의 세찬 불길을 일으키던 때처럼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함으로써 종업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이 80년대진군을 다그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그는 자주 합숙식당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을 다 내지 않는 조사공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것으로 타산하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도 해보고 그들의 아픈 문제도 풀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신입로동자들을 공장합숙에 많이 받아들이는 날이면 합숙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자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합숙생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하도록 필요한 조직사업도 하였으며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것이 로력혁신자들에게 먼저 차례지도록 하였다. 하기에 로동자들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심정으로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초급당비서를 존경하고 따르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3대혁명수행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인민성은 인민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타난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온갖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당의 올바른 정책과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우리에게는 인민

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여있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한 경제적밑천과 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적극 동원리용한다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훨씬 늘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얼마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감사와 크나큰 배려와 신임을 받아안은 우리 구역의 경험은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것이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이라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인민생활을 급격히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일군들속에서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 곧 우리 구역 일군들이 당의 크나큰 배려와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우리는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의 본분이며 의리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그들이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깐지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우리는 구역실정에 맞게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구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기 위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모를 박았다. 지방공업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기 위하여 구역에서는 수많은 원료기지를 꾸리는것과 함께 페설물,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폐설물, 부산물로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만들어 당의 뜻을 받들어나갈것인가, 어떻게 하면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더 높이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의 량을 모조리 따져보기도 하고 《8월3일인민소비품》설계도안현상모집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구역의 책임일군들자신이 직접 주방도구설계도안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도안을 만들어내게 하는 등으로 모든 일군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 방법론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구역에서는 많은 강냉이오사리를 화학처리하여 고급중절모자와 고급실내화, 방석, 구럭 등을 만드는가하면 밥곽폐설물로 질좋은 부채를, 연필생산과정에 나오는 나무대패밥으로는 각종 농립모를, 천쪼박으로는 고급천장화와 구두, 각종 신발을 만드는 등 수많은 예비를 찾게 되였다. 또한 화력발전소일군들은 발전소굴뚝연기에서 탄산가스를 뽑아 액체탄산과 고체탄산, 종조를 생산하여 식료혁명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으며 오수정화사업소에서는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많은 주민세대들에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석탄과 석유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속에서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을 세우는데서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가 깊은 주의를 돌린것은 상업, 량정, 도시경영 등 인민들의 식의주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리는 모든 일군들속에서 인민성을 높이도록 하는것이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인민봉사부문 당조직들과 짜고들어 구역안의 모든 봉사일군들자신이 당의 뜨거운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다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개선하며 봉사성을 높여 봉사혁명을 일으키도록 강한 투쟁을 벌리겠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직매점초급당위원회는 봉사일군들에게 눈속

에서도 끼니거리를 찾아내여 전우들의 식사를 보장한 항일유격대의 작식대원들을 따라배운다면 주민생활에서 그 어떤 불편도 없게 만들수 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인민생활에 편리를 줄수 있는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봉사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상품수요연구와 상품확보, 상품배정과 공급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직매점에서는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으로부터 판매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수요조사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수요를 알아보고있을뿐아니라 다른데서 질좋은 상품을 보면 그것처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해주자고 하면서 공장, 기업소에 찾아다니며 생산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하는 좋은 미풍을 발휘하고있다.

일군들이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인민성은 일군들이 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높아진다.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일하는 일군이라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의욕도 가지게 되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모든 일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은 대중의 리익을 위해 적극 투쟁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높은 인민성을 지닐수 없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군중을 잘 알수 있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당의 방침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줄수 있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이 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책임일군이건 지도원이건, 당일군이건 행정경제, 근로단체 일군이건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자료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판단하며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구역당 책임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으면서도 약한 고리로 되여있는 단위들에 나가 군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면서 그들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 우리는 아래실정을 더 잘 알게 되였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과 묘술도 찾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며 일할 때 인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이 가리키는대로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심정을 가지고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풀어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리 주 설

오늘 우리 인민은 로동당시대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로동당시대는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륭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수천년동안 압박과 천대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향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자주권을 가진 당당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전인미답의 길을 앞장서 헤쳐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로동당시대에 자신의 처지에서 일어난 이 력사적전변에 대하여 남다른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조국을 오늘과 같이 빛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로동당시대에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 *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민족적자존심,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9～40페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민족의 훌륭하고 우수한 모든것에 대한 자랑과 자기 민족의 힘을 믿으며 그 밝은 앞날을 확신하는데로부터 가지게 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룬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마는 그것을 깊이 간직한 민족과 인민은 불패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자주정신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민족자주정신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민족자체이며 민족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신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생명이라면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자주정신, 민족적자주성은 생명이다. 민족자주정신이 없으면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 허무주의에 빠져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수 없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할수 있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해야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있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민족자주정신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할 때 높이 발휘된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자기 민족의 불패의 힘을 확신하는 크나큰 자부심은 민족자주정신을 낳게 하는 사상적원천으로 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의 구체적발현이다.

애국심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지녀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룬다. 혁명은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민족과 인민을 잊어버릴수 없다. 자기 민족과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참다운 애국심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그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의 넋을 깊이 간직할 때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애국심이 강한 인민이며 이러한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패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적자존심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오래동안 남에게 예속되여 살아온 작은 민족일수록 그것이 더욱 강해야 한다. 작은 민족이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할수 없으며 다른 민족에게 예속당할수 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며 자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나라 민족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형성되는 사상감정이다. 오늘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로동당시대와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직접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향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 인간해방위업의 영광스러운 새 력사를 펼쳐놓은 로동당시대에 사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커다란 자랑이다.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이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탁월한 수령을 모신 긍지이며 자랑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자기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력사발전에서의 민족의 지위와 역할은 수령의 령도밑에 높아진다.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이것이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제국주의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억눌려살았으며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쓰라린 실패만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하던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되고 자주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며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주체의 조국으로, 우리 당은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우리 인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자랑떨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이 위대한 당으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인민으로 온 누리에 자랑떨치는 영광을 지닐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망국의 비운속에서 기약없이 헤매였을것이며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투쟁과 전진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 자랑과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확고한 신념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이것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지닌 가장 높은 형태의 긍지와 자부심인것이다.

자주적인민으로 살며 혁명하고있는것은 로동당시대에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또하나의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자주적인 인민, 독립국가의 떳떳한 자주권을 가진 인민으로 되는것은 모든 민족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며 념원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자주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장구한 기간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지배와 예속, 사대와 굴종의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자주의 새세상을 일떠세우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전진하는 로정에서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우리 식으로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지름길을 열어놓았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길을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어느 민족이든지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뿌리깊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시대적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주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력사적로정은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로정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기치밑에 자기들이 선택한 자주의 길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길로만 꿋꿋이 전진하여왔다. 그 과정에 우리 인민은 비록 난관과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고 피땀도 많이 흘렸지만 자신들이 걸어온 행로에 대하여 떳떳이 생각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주정신이 매우 강한 민족으로 되였으며 주체의 신념이 확고한 인민으로 되였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우리 식대로 살며 이 길에서만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정신이며 견결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의 주체의 신념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공갈에도 절대로 굽어들지 않으며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건드리거나 모독하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날 사대와 굴종 사상에 빠져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돋보던 인민이 이처럼 떳떳한 자주적인민으로 된것은 참으로 로동당시대의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다.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혁명과 건설

의 승리적전진, 민족적번영을 위한 끝없이 귀중한 재부를 가진것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부에 기초하여 간직되게 되는 사상감정이다.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재부들은 그 민족의 위력을 보여주며 그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쟁취한 승리와 전취물이 크고 시대와 력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재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민족의 긍지는 더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생겨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힘이 없어서 약육강식의 제물로 되고 온갖 불행과 굴욕을 강요당한 민족과 인민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 인민도 지난날 뒤떨어지고 힘이 약했던탓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에 긍지높이 자랑할수 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들을 우리 시대의 세계개조의 위력한 무기인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것은 로동당시대에 마련된 우리의 끝없이 귀중한 재부들이다.

우리 인민이 쟁취한 전취물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한것이다. 수령, 당, 대중이 혈연적뉴대를 이룬 불패의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 있다. 이제와서는 우리 민족이 그 누구도 감히 숙볼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이것이야말로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오늘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 양양한 혁명의 전도를 가지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11폐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 민족의 빛나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그 전도가 밝을 때 더 깊이 간직되게 된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미래가 귀중하며 그것이 없는 민족은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을수 없다.

민족의 미래는 혁명의 장래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다. 그것은 혁명투쟁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개척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그 전도가 밝을 때라야 인민들이 자기 민족의 찬란한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 살며 싸워나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이며 그것은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뛰여난 자질과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우리 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

와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에 의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굳건히 계승할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조국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확고한 의지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우리 당의 위대성과 현명한 령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대가 굿굿이 이어지며 그것이 빛나게 완성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 우리 혁명의 전도는 휘황찬란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크다.

참으로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시대의 진로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주체의 나라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된 긍지와 자부심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깊이 간직하여야 할 끝없이 귀중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긇임없이 심화되며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 위업이다.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한 인민들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대손손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 로동당시대에 사는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였기에 치렬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창조와 건설투쟁의 힘겨운 행로를 걸어오면서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난관과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굿굿이 싸워올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긇임없이 빛내일수 있었다.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오는 행정에서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하며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높이 들고 나가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고수되고 우리 조국이 빛나게 된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진리를 가슴깊이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문제와 혁명화, 로동계급화

신 언 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인테리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를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 그 해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이 집대성되여있고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해결의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적로작은 그 위대성과 정당성,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 인테리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우리 시대 인테리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 *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인테리도 인민대중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테리는 혁명에서 교량적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볼수 없습니다. 인테리는 혁명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06~607페지)

인테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이다. 인테리는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교량적역할을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테리는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새 사회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인테리들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지식과 기술은 자주적인 사상의식, 혁명적세계관과 결합될 때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바로 인테리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문제가 인테리문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인테리문제는 혁명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정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에는 인테리문제가 주로 진보적인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편, 혁명의 편에 쟁취하여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문제로 제기되였지만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시기에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는것과 함께 낡은 사회에 복무한 인테리,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로동계급에게는 자체의 민족간부가 적고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한 인테리, 오랜 인테리들이 많이 있게 된다.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는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오랜 인테리문제를 잘 풀어야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새 인테리들을 키우는 사업도 잘할수 있다.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의 계급적처지로부터 생기는 약점으로 하여 저절로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길에 나서지 못한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그 당의 령도밑에서만 참다운 삶의 길로 나갈수 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 때 그들을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로 개조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이 실증하여준다. 주로 부유한 가정의 출신들인 우리 나라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민족적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므로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사상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꾸준히 교양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였으며 인테리의 이중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도 인테리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도 계급적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적대적요소의 영향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인테리문제가 계속 남아있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전반적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지만 이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적대적요소의 영향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작용하게 된다. 적대적요소들은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의 리용물로 될수 있기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문제가 있게 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원래 여러 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고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이 갈라진 결과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는 그를 낳게 하는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게 된다. 물론 앞으로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가 완전히 없어지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실현되면 그때에 가서는 인테리문제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지 않을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인테리문제

는 본질에 있어서 인테리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 인테리대렬의 기본을 이루는 오랜 인테리들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길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의 이중성으로 하여 항시적인 동요를 면할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누구에게 복무할것인가가 문제로 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 와서는 오랜 인테리들이 어느 계급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된것만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새 인테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근로인테리들이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사상수양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는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창조적역할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는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되는 인테리문제를 옳바로 풀수 있는 중요한 방도는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를 하나의 사회적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한 고리로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인테리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되게 할수 있다. 인테리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싸워나갈 때 진정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보람있게 바칠수 있으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테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상이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으로 병들고 타락한 인테리는 일신의 안일과 향락밖에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의 생활경위와 또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요소도 많이 가지고있는 인테리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가장 옳바른 방도는 혁명화, 로동계급화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되는 인테리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모든 인테리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인테리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사상개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위

력한 수단이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그자체내에 인테리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 작용하는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있으며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인들을 다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때 모든 인테리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또한 그들의 역할을 높이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해결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학졸업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키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여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사회적평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인테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테리들이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창발성, 적극성을 내여 일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는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인테리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최대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와 함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틀어쥐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또한 인테리문제해결에서 발로될수 있는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그것을 옳바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를 그 어떤 편향이 없이 정확하게 해결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면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좌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면 인테리들을 믿지 않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수 없게 된다. 또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도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할수 있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대렬의 구성이 변하고 인테리의 사회정치적처지가 달라진것만 보면서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면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 사회발전에 막대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만일 인테리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당과 혁명도 모르고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쓸모없는 인간으로 된다면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되는 인테리문제를 아무런 편향도 없이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되는 인테리문제를 혁명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밝혔을뿐아니라 탁월한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되게 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되는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인테리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지도를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한 부분이지만 저절로 그 지위를 고수하고 역할을 다하는것은 아니다. 인테리를 포함하는 인민대중은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서만 력사발전의 중심에 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역할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테리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투쟁대오에 결속시킨다. 인테리들이 사회발전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근본 요인, 담보는 로동계급의 당의 옳은 지도에 있다. 인테리들은 로동계급의 당의 옳은 지도를 받을 때 시대의 요구와 투쟁위업의 정당성을 파악할수 있으며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로 나갈수 있다.

인테리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빛나는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모든 인테리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값있게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것이다.

인테리의 참다운 사회적가치와 존엄은 그들이 어떤 령도를 받으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여나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인테리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정치적보호를 받을 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값있게 빛내일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인테리들에게 혁명화의 보람찬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값있게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이 현실에서 배우며 본신혁명과업의 수행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이 혁명화를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가도록 하고있을뿐아니라 인테리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주고있다. 또한 인테리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충성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늘 보살펴주고있다. 인테리들에 대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믿음과 정치적보호는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이 한가지를 생각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오직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하는 근본원천, 결정적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인테리들이 혁명과 건설,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그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인테리들은 당의 정치적보호를 받을뿐아니라 과학탐구와 창조활동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받아야 정신적창조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에게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바른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과학탐구와 창조활동을 마음껏 해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다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과 과학기술의 새로운 추세에 맞게 인테리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로 높이기 위한 온갖 조치와 대책을 취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칠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힘을 주었으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서는 인테리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인테리들의 역할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독창적인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테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공고화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나가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인테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끝없는 보람으로 여기고있다.

인테리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기풍이 확고히 서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그들속에 남아있던 개인주의, 리기주의, 공명주의, 소심성 등 온갖 낡은 사상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수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과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은 금임없이 발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테리들이 로동자, 농민과 함께 당의 구성부분으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언제나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온 우리의 인테리돌앞에는 오늘 당이 제시한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우리 인테리들앞에 나선 이 성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으며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다.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불멸의 기치인 주체사상으로 우리 인테리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식대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갈수 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인테리들은 나라의 과학과 기술, 민족문화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계급페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

서 봉 창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확고한 신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옳게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이 중요하게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문제로 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계급페절문제를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8폐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그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일정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람은 사회와 자연 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상문화적조건과 사회적조건, 자연적환경은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을 규정해주는 3대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여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 되여야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할수 있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이러한 조건들가운데서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은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이다.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존과 발전은 주로는 그들이 살며 활동하는 사회정치적조건에 의하여 규제되며 제약된다.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정치적조건에서 살며 활동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이러저러하게 달라진다.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들은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히게 된다. 사람은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주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주성을 사회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다. 사람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기만 하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필요되는 다른 모든 수단과 조건을 마련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신을 위한것으

로 만들수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낮았던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사회의 일부 성원들만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도 사회세력에 따라 그 소유 정도와 형태는 구체적으로 서로 달랐다. 이러한 사회적조건에서는 사회성원들사이에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이 실현될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사회세력도 자주성을 제대로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사회정치적평등은 오직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가짐으로써만 완전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소유한 사회적조건이 다름아닌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계급자체가 페절된것이다.

원래 계급은 민족이나 다른 사회적집단들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본질적차이에 의하여 구별되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결부되여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차이와 관련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만들고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며 그 소유관계를 규제하는것도 사람인만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는 그 사회에 있는 계급자체에 의해 규정된다. 계급사회의 력사는 매 력사적단계들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결국에는 소여계급자체가 체현하고있는 요구와 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천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계급이 체현하고있는 요구는 민족과 같은 다른 사회적집단이 가지는 요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민족이 가지는 요구는 사람들의 피줄과 언어, 문화생활과 지역에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요구이라면 계급이 가지는 요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로부터 생기는 요구이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계급의 요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예속시킴으로써 실현될수 있는 요구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면서 동시에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서의 서로 다른 소유관계가 발생되였으며 사람들사이에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였다. 계급이 발생하고 사람들사이에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생겨나면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곧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서는 계급자체를 페절하기 위한 투쟁으로 번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지난 력사적시기 어느 계급도 자체의 제한성으로 하여 계급페절의 구호를 들지 못하였다.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계급페절의 구호를 들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계급은 오직 로동계급뿐이였다.

로동계급의 해방투쟁에 의하여 비로소 착취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까지도 없어지게 되며 종당에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집단으로서의 계급자체가 페절되게 된다. 계급자체가 페절되면 사람들은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평등한 소유자로서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발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계급자체를 페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나 사상문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사람은 일정한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 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존재인만큼 그들의 생활은 물질적조건과 사상문화적조건의 영향도 받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수단이나 사상문화적조건을 제대로 보장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지로 누리려면 사회적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생활수단이나 자주적인 사상과 건전한 문화를 가질수 있게 되여야 한다.

물론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물질적생활수단이나 사상문화적조건을 제대로 보장받는가 못받는가 하는것은 생산력이나 사상과 문화의 발전정도와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물질적생활수단이나 사상문화적부가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실지로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살고 활동하는 사회정치적조건에 의하여 제약되게 된다.

만일 사람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그들이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없으며 선진적인 사상과 진보적인 문화도 향유할수 없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적인간의 초보적인 생활상 요구마저 실현해나갈수 없는것은 결코 물질적생활수단이나 정신문화적재부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는 물건도 적지 않고 과학과 기술도 비교적 발전하였지만 근로대중은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낸 물건, 부의 노예로 되고있으며 반동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억압과 착취가 없어진 다음에도 일정한 기간 사회정치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비록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물질생활에서나 사상문화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받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서로 차이나는것도 실제로는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정치적 지위와 역할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것이다.

사회에 압박과 착취가 있거나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지위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조건은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집단으로서의 계급이 존재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에 계급이 존재한다는것은 국가주권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단일화되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있게 되거나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정치적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계급적대립과 계급적차이를 소멸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계급이 폐절되면 사람들은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누구나 다 유족한 물질생활조건과 건전한 사상문화적조건을 평등하게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나 사상문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 리유가 있다.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자주성실현의 근본조건으로 된다.

세계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힘은 다름아닌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창조력이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력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창조력을 결코 대신할수 없다. 사람은 주로 자체가 체현하고있는 창조력에 의

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활동을 벌리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기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창조력을 어떻게 강화하며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힘의 크기와 리용의 효과성정도는 그 사회를 이루는 매 성원들의 발전수준과 함께 중요하게는 그들사이의 사회적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린다. 사회가 서로 분렬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는 불가피적으로 사람들의 발전이 저애를 받게 될뿐아니라 사회의 창조력이 합리적으로 결합될수도 효과적으로 리용될수도 없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발전이 억제되고 사회의 창조력이 랑비되고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그 사회에 사회관계가 그만큼 불합리하게 되여있다는것을 스스로 말해주는것이다.

사회성원들사이의 분렬과 대립을 사회적으로 조건짓는것은 다름아닌 계급이다. 계급이 가지는 요구와 리해관계는 처음부터 대립적성격을 띠였다. 그렇기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그 사회가 불가피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사회세력들로 분렬되지 않을수 없게 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로동계급과 농민이 계급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그들사이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마련이다. 사회관계에서 사회성원들사이의 대립과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결국 계급자체를 폐절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사회의 창조력의 발전과 리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이 실현되여야 그들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하나로 일치되고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의 창조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그것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모든것은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재난과 참화를 들씌우던 계급적 지배와 예속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쟁이며 온갖 형태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출현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처음부터 계급폐절의 과업을 제기하고 해명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계급의 폐절에 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계급폐절의 본질문제를 밝힌 시정연설의 명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를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력사적로정에서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목표의 하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평등을 완전히 보장할수 있도록 계급적대립을 없앨뿐아니라 나아가서 계급적차이까지도 없애고 계급자체를 폐절하여야 마련

된다. 그러므로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서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목표로 된다. 계급의 폐절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서 달성하여야 할 전략적목표로 된다는것이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공산주의위업수행의 력사적단계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합법칙성에 따라 리해하고 전개할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 사상은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자면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을 실현할수 있도록 그들의 사상과 기술, 문화를 개조하여야 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비롯하여 사회관계도 변혁하여야 한다.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옳바로 풀수 있는 근본 원칙과 방도는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라는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자주적계급인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합법칙성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주인인 인민대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계급폐절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계급적 대립과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참으로 계급자체를 폐절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 사상은 계급폐절의 기초원리를 주체적으로 밝힌것으로서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과학적인 지침으로, 혁명적인 무기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함으로써 계급적대립을 청산한 우리 혁명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없어진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밝혀주신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한편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며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업의 관리운영수준을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더욱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준 력사적인 국내 진공작전

—보천보전투승리 50돐에 즈음하여—

백 학 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에서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여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신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재생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끌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령도자의 위업에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에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내 진공작전의 나날에 뿌리깊이 심어주신 필승의 신념이 깃들어있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포악한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찬 앙양에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이 어떻게 뿌리깊이 마련되였는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되며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우에 찬란한 공산주의지상락원이 건설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조국광복의 위업을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력사적인 국내 진공작전,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투쟁의 국내에로의 확대발전은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며 일제식민지통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68폐지)

보천보전투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동시에 실현해나가기 위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혁명전쟁의 주인은 다름아닌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였으며 독립되고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이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는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항일혁명전쟁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이고 일제식민지통치체계에 결정적타격을 주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국

경지대와 국내에로 확대해나가는것을 항일혁명전쟁의 일관한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우시였다. 이 방침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결심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으며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배합하여 조국광복의 승리를 보다 앞당길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였다.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조국광복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면서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리며 투쟁무대를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30년대 중엽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급속히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인 백두산혁명근거지를 창설하고 국경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시는 한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고 그 조직망을 국내 깊이에 늘이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서강회의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시고 적들의 정치군사요충지였던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1937년 6월 4일 밤10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림천가의 백양나무밑에서 울리신 한방의 신호총소리로 보천보전투가 개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이 벌어져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이 불타오르고 보천보의 곳곳에 인민들을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 포고문과 격문, 삐라들이 살포되였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불길이 타번지고 승리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연설을 하시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고 그들의 반일의식을 더욱 높여주시였다.

보천보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구시산과 간삼봉에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때려부심으로써 국내 진공작전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으시였다.

력사적인 국내 진공작전,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세련된 령군술의 대승리이다.

전쟁과 전투의 승리는 군대를 이끌어나가는 령장이 지닌 전략전술과 령군술의 비범성에 크게 달려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로 원정한 전로정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출귀몰하는 전법과 령활한 군사예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실전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영광스러운 행로였다.

가장 현명한 국내 진공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원정부대의 편성과 직정정찰로부터 전투준비에 필요한 모든 군사문제들을 주도세밀하게 풀어나간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압록강을 감쪽같이 건너 적의 정치군사적요충지의 하나인 보천보에 도사리고있는 적들을 일격에 소멸하고 따라오는 놈들을 구시산에서 매복타격하였으며 간삼봉에서 또다시 적의 대부대를 포위섬멸한 령활한 전법과 전술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주체적인 유격전법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천리혜안으로 통찰하시고 령활무쌍한 전법과 천변만화하는 유격전술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국내 원정부대는 놈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써 압도하고 용약 국내에로 거침없이 진출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

월한 전략전술앞에서 일제가 《철벽》으로 다져놓은 국경경비진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정예》를 자랑하는 일제의 대병력도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그 어느 병서에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탁월한 령군술과 독창적이고 기묘한 유격전법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에 그처럼 빛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대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혁명군대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의 힘이 낳은 위대한 승리이다.

전쟁의 운명이나 전투에서의 승리는 중요하게 령장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시작된 혁명대오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 그날부터 보다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으며 그것은 언제나 일제를 때려부시는 전투마당에서 승리를 가져올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다. 이 길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수령과 조국, 인민을 위하여 총을 잡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끝없는 충실성과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혁명군대와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혈연적련계를 맺었다. 군대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관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광복위업에 헌신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의지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간고하고도 장구한 항일혈전의 나날에 형성된것으로 하여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 군민단결을 가져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길이 민족재생의 길이며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싸워나가는 여기에 조국광복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 위대한 수령님의 국내 진공작전방침을 훌륭히 관철해나갔다.

우리 인민들은 적들의 야만적인 테로행위와 삼엄한 감시를 헤치며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조선인민혁명군에 식량과 천, 신발 등 수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주었으며 보천보에 주둔한 적들의 병력배치정형, 국경지대의 주민구성과 그들의 사상동태에 이르기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에 제공하여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의 물심량면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 진공작전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국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의 빛나는 성과를 열광적으로 축하해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성심성의로 원호해나섰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의 나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단결하고 그 힘이 과시되여온 력사적인 나날이였다.

실로 력사적인 국내 진공작전과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옳바른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의 힘이 가져다준 위대한 승리였다.

보천보에로의 국내 진공작전의 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굳게

안겨준 력사적인 승리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88～289페지)

보천보전투를 전후한 시기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검은구름이 더욱 무겁게 뒤덮여있었다.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온 삼천리강토를 군대와 헌병, 경찰망으로 뒤덮고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비롯한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여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도처에 《신궁》과 《신사》를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에게 《일본정신》을 강제로 불어넣어 조선인민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말살하려고 꾀하는 한편 조선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었다. 또한 놈들은 대륙침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북선개척》이란 간판을 걸고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깡그리 빼앗아가고있었다. 조선은 말그대로 암흑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고 학대와 주림 속에서 허더이는 인민들의 원한과 신음소리가 높아가던 암담한 시기에 보천보의 밤하늘에 거세차게 타오른 불길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준 불멸의 홰불이였다.

보천보전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오직 승리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신 때부터 형성되고 굳세여진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지난날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던탓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은 모든 승리의 상징이였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였다.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수난에 찬 민족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암담한 시기에도 우리 인민이 희망과 신심을 안고 살아나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드시 조선을 독립해주실수 있다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였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시여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감격과 기쁨은 하늘땅에 넘치였고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차넘치었다.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조국땅에 모신 그때 우리 인민은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공헌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드거운 흠모의 정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하늘로 날아다니시면서 왜놈들을 족치신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조선을 굽어보시다가 보천보에 날아오시여 왜놈들을 요정내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며 산을 주름잡아 다니신다.》 등 전설적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억세게 살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고 조국은 기어이 광복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 수많은 애국적청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항일유격대를 찾아떠났고 광범한 반일군중은 물론 공산주의자들을 멀리하던 민족주의자들까지도 거족적인 반일항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보천보전투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일제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겨주었다.

자기의 혁명군대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키우신 영용한 무장대오,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혈로를 헤치고나아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전과가 이룩되자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대륙침략전쟁을 서두르면서 우리 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놈들이 1936년 10월 《도문회담》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과 국경봉쇄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여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를 경찰망조밀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 혁명군을 《완전소멸》했다는 거짓선전놀음까지 벌린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고 인민들속에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일제침략자들의 전대미문의 폭압정책과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발악적인 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속에서 허덕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보천보에 타오른 혁명의 불길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으며 우리의 혁명군은 일제놈들이 떠벌인 《창해일속》이 아니라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일본놈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라는것과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앞에서 쥐도 새도 나들지 못한다고 큰소리를 치며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적들의 국경경비진이 어떻게 무너지고 《강대성》을 자랑하던 《무적황군》의 신화가 어떻게 깨여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되였다.

보천보전투는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시위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보천보가 해방을 맞이하였던것처럼 오래지 않아 조국이 광복된다는 희망과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에로의 진공작전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멸망을 더한층 촉진시켰다.

보천보전투가 있은후 당시 혜산경찰서 서장놈이 《…생각하면 보천보사건에 관하여서는 천날에 걸쳐 베여낸 새초를 한순간에 재더미로 만든것과도 같은 감정이였다. …

아아 6월 5일! 일생 잊지 못할 슬픈 기념일로 되였다.》고 비명을 지른것을

통해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놈들에게 얼마나 큰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긴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투쟁의 홰불로 심어져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대중투쟁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쳐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에 떨쳐나 일제의 반인민적책동을 파탄시키며 민족적기개를 높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이 인민들의 대중투쟁과 밀접히 배합되여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서고 일제의 패망은 적극 다그쳐졌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당시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함께 파시즘과 대륙침략의 주되는 세력으로 등장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국제제국주의침략세력을 약화시키고 일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파쑈투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그것은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게 탁월한 수령의 령도따라 손에 무장을 들고 단결하여 싸우면 그 어떤 원쑤도 때려부시고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참으로 력사적인 국내 진공작전과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고 우리 인민과 싸우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의 홰불로 찬연한 빛을 뿌리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심어주신 필승의 신념을 안고 장구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우리 인민은 오늘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걸어온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제기되여있었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로정우에서 우리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간직한 신념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고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할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이러한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차례진다는 그것이였다. 이 신념과 의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빛내이고 자신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었고 번영하는 오늘의 조국에 안겨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조국광복의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과 수령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직 자기 당과 수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정치적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혁명하는 여기에 수령의 혁명전사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들의 영예가 있고 보람이 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신심드높이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박 영 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이며 사업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오안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감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자랑찬 장을 기록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 땅우에 세기적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 깊은곳에 자리잡고있으며 우리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 난관앞에 주저앉으며 투쟁을 포기하는 나약한 태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제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려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바로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자기 힘에 대한 굳은 확신과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혁명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이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언제나 높이 발양하여야 할 투쟁기풍으로 되는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높이 발휘되었으며 간고하고 준엄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다져지고 그 생활력이 빛나게 확증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해방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구걸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달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9~30페지)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가장 간고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된 피어린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첫 무장투쟁으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을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유격대오를 뭇고 전략전술을 작성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격전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실지 투쟁과정에서 하나하나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한 유격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투쟁조건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제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항일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그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해나가도록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대원들을 자력갱생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제작하신 《연길폭탄》과 그 제작과정에 보여주신 자력갱생의 숭고한 모범은 우리 유격대원들을 한없이 감동시켰으며 자력갱생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정세가 긴장하고 애로와 난관이 겹쌓일 때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과 항일유격대원들을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첫걸음부터 간고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는 일제의 탄압책동이 극심해지고 검거선풍은 그칠새 없었으며 각성되지 못한 군중들은 반혁명의 탄압에 겁을 먹고 위축되여있었다. 반일공동전선에서 어깨겯고 싸워야 할 반일부대들은 일제의 리간책동과 정치적락후성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면서 모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여기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모험주의적책동까지 겹쳐 혁명의 전도는 실로 암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앞에 난국이 드리운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확신밑에 자신께서 당하시는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무장투쟁로선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난국을 한몸으로 헤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유격대원들의 심장에 깊이 심어주신 혁명의 넋이였다. 이 혁명정신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격대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전개방법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자력갱생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그 어떤 조건타발도 없이 이악하게 달라붙어 집행한데서 표현되였다.

주인다운 일본새와 높은 책임성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책임성이 없는 사람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할수 없다.

항일유격대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게 된것은 유격대원 모두가 조선혁명의 주인은 다름아닌 자기들자신이라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간직하고 자력갱생하며 간고분투하는 혁명정신으로 줄기찬 투쟁을 벌린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성스러운 위업의 담당사가 바로 자기들 자신이며 담당자이기에 제힘으로 일떠서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높은 혁명적자각과 주인된 립장을 지니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을 굿굿이 걸어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세계제패를 꿈꾸면서 대륙침략을 확대해나가는 강도 일제와 맞서싸우는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혈전의 길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남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제힘으로 온갖 시련을 헤치면서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과 방침들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이 철저하였기에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이라도 영예롭게 생각하였으며 그 어떤 리유와 구실, 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혁명과업이 어렵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조직의 두터운 신임으로 알았다. 혁명과업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제힘으로 끝까지 수행하고야만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자체로 탐구해냈으며 그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썼다. 그뿐아니라 그들은 일단 집행방도를 찾으면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1936년초, 항일유격부대의 전투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백발의 작탄을 단 며칠사이에 제작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한 병기창일군들에게는 그 어떤 보장조건도 없었다. 시간은 부족하였고 적의 《토벌》공세는 악랄하였다. 그러나 병기창일군들은 보통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였으나 전투를 하자면 작탄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작탄은 누가 가져다 주는것도 아닌것만큼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사선을 헤치며 모진 신고를 이겨내면서 작탄제작에 요구되는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여 기어이 명령을 수행하였다. 현대적인 공업과 아무런 련계도 가질수 없었던 깊은 산중에서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연길폭탄》을 맨주먹으로 만들어낸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임무를 받든지 아무리 간고한 환경에서도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 어떤 조건타발도 없이 제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왔다.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또한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집행하는 일본새에서 표현되였다.

아무리 어려운 과업, 그 어떠한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이악하게 달라붙어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유격대원들의 혁명적기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신념에서 나온것이였다.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기가 죽어 뒤걸음을 치며 적정과 타산을 앞세우는것은 투항주의의 표현으로서 이것은 유격대원들의 사고방식, 사업전개방법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은 항일유격대오안에 차고넘치는 하나의 투쟁기풍이였다.

1937년, 항일유격대의 어느 한 부대의 재봉대는 사령부로부터 일주일사이에 많은 비선을 지어야 할 무거운 과업을 받게 되였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밖에 없는 재봉기바늘이 부러졌다. 재봉기바늘을 얻어올데도 없었고 그렇다고 손바느질만으로는 도저히 명령받은 기일을 지킬수 없었다. 이러한 때 재봉대원들의 심장은 주저와 동요, 흥정이 아니라 명령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끓었다. 그들은 고심끝에 돗바늘을 재봉기바늘로 개조하여 걸린 문제를 풀고 제기된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있는곳이면 어디에나 있었다. 설비를 갖춘 병원이나 의료기구도 없이 부상자들과 로약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항일유격대의 군의일군들의 애로와 난관이란 형언하기 어려운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앞에 주저앉거나 조건에 빙자한것이 아니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밀림속에서는 밀림속에 있는것을, 평지대와 강가에서는 거기에 있는것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치료사업을 보장하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난관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였다.

항일유격대오안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가는데서 높이 발현되였다.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일관한 관점이며 원칙이다.

조금만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제힘으로 하려하지 않고 남을 쳐다보면서 손쉬운 방법으로 하려는것은 남에게 붙어살려는 외세의존사상의 표현이며 제힘을 믿지 못하는 사대주의사상의 표현으로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조밑에 투쟁하였으며 거기에서 혁명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왔다.

그들은 제기된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것이라 하더라도 제힘으로 풀어나가야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동원할수 있으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벌리던 첫시기에 유격대에 있어서 무기를 마련하는것이 가장 절박하고도 어려운 과업이였다.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자면 무엇보다도 무기가 있어야 하였다.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들은 야장간에서 벼릴수 있다 하더라도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일제침략군을 상대로 하는 싸움인것만큼 이것만으로써는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외부의 원조를 받아서 무기도

사들이고 수류탄공장 같은것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기를 마련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반일대중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를 해결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기획득방침을 받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일제군경초소와 악질지주, 친일관료배들이 가지고있는 무기들을 빼앗아 유격대의 무장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드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혁명대오안에 빛나게 구현되고 높이 발휘된 자랑찬 투쟁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것으로 하여 매우 심오하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전통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본받아야 하며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야 할 한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짧은 력사적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제3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없을수 없다.

더우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정세는 긴장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한 길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간고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되며 오직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전투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그 어떠한 방대한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체득한 귀중한 경험이다.

우리는 당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굳은 신념과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확고한 신념은 모든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무슨 문제든지 제힘으로 해

내고야말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묘술과 방도가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혁명의 요구라면 무조건 해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방대한 과업이 제기될수록 우리는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싸워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힘으로 적극 찾아내고 만들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성스러운 길이 있는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기풍을 철저히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나라와 사회의 재산에 대한 애호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기초의 하나이다.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과업이 무겁고 조건이 불리하여도 주저앉지 않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고비고비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영웅적자욱을 새겨갈수 있은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강도 일제의 식민지철쇄에 얽매여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이 꽃핀 광복된 새 조선을 안겨주려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이 깃들어있었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 중요한 혁명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알뜰한 살림살이 기풍과 깐진 일본새를 따라배워야 한다. 풍족하고 넉넉할수록 더욱더 절약하고 깐지게 생활을 꾸려나가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높은 실무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알지 못하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없는것을 찾아내려고 하여도 알아야 하고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타개해나가려고 하여도 방도를 알아야 한다. 밤을 새우고 힘내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자력갱생할수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일하는것은 결코 자력갱생의 기풍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문제가 한시도 미룰수 없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심장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투쟁정신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

한 정 철

당의 활동방식에 관한 문제는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적 원칙에 대한 문제이다.

당의 활동방식은 당활동을 무엇으로 일관시키고 당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이며 따라서 당의 활동방식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당의 공고발전과 당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고유한 활동방식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의 본성적요구대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이며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신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22페지)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한다는것은 당의 모든 활동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당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어떤 사업이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자면 그것이 당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그러한 활동방식이라야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될수 있다.

당의 본성이란 당이 로동계급의 당으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게 하는 본질적특성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조직이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권력이 아니라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의거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며 명령과 호령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불러일으키며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손잡아이끌어주는 방법으로 대중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한다.

당의 이러한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을 떠난 당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당의 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인 당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는 도대체 당사업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당의 활동이 진행될수 없는것이다. 당의 활동은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사람을 움직이고 발동하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방법으로는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불러일으킬수 없고 강압적방법으로는 광범한 대중을 당의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없다. 오직 당의 모든 활동이 당을 구성하고있는 간부들과 당원들, 당의 지반을 이루는 군중과의 사업으로 일관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의 활동이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는것으로 될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당활동을 진행하는것은 당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당의 활동은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당의 활동방식은 당이 어떠한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그것을 어떤 력량에 의거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는 사업만이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은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는 사람,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사람,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 능동적역할이 없이는 력사의 발전과 사회적진보,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간부들의 조직지도능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그리고 광범한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진행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이 로동계급의 당의 숭고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방식으로 된다는데 있다.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당의 기본기능을 이루며 당의 모든 활동은 곧 정치활동이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인것만큼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으로 되며 당의 정치를 실현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사람,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바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정치활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의 근본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의 이 근본요구는 오직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수단으로 되며 기본방식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며 인민대중의 위력은 조직적단결에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하나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력량에 의거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정치를 실현해나가게 된다.

사람은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이며 당의 정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정치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활동의 참다운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인민대중의 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의 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되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것은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체계와 방법들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 관한 리론이 과학적토대우에서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진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원리들을 빛나게 계승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수많은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우리 당의 적극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던 편향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당사업이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진행되고 당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조직되고 세련된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 사업과 활동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전환, 이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정연한 사업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단결의 강력한 보루로 튼튼히 다져놓은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지난 기간 자강도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는 모든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농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세포비서들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적분공을 조직하며 어떤 시기, 어떤 경우에도 분공조직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의 분공안이 수록된 참고자료를 만들어주고 세포비서들이 그것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결과 당적분공이 실속있게 조직되여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당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는 또한 여러가지 계기를 잘 리용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도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만나 담화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입당한 날자에 당원들을 만나 입당후 오늘까지의 당생활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입당할 때의 결의와 맹세를 끝까지 지켜 당과 수령께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의의있는 기념일들과 명절들을 전후하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만년장수와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여드리려는 도내 인민들의 충성심은 가장 열렬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으로 되고있으며 참다운 충실성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도안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꽃펴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일군들앞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임무로 하고있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은 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이 세워준 사람과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료해파악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에서 첫공정은 사람들을 료해하는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사람과의 사업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사람을 모르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에 대한 료해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아래에 내려가는것이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늘 접촉하는것이다. 가까이 앉아야 정이 통한다는 말도 있지만 당일군들이 자주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담화도 하고 일도 함께 해보며 의견도 자주 들어보아야 서로 친숙해지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사상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전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정확히 료해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있게 분석해보고 해부학적으로 갈라보는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다. 당일군들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되여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며 여러가지 요인들과 측면들로 이루어지고 각이한 정황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료해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 그것을 일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과 여러가지 요인들을 밀접히 련관시켜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면서 그 본질을 명백히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료해된 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확인해보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람을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대하고 평가하는가 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선결조건이며 옳은 평가기준을 정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로 된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성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본인의 충실성을 기본으로 보는것이다.

혁명은 성분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을 가지고 한다. 물론 성분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영향을 주지만 그자체가 사상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성분이 아니라 현행에서, 다시말하여 그가 오늘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유일한 기준으로 되며 혁명가의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을 규정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그러므로 성분에는 관계없이 본인이 현재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이고 당과 수령께 충실하면 그런 사람은 혁명가로 보아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성분을 본위로 하지 말고 현행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사람을 대하는데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상적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진지하고 책임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또한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일을 맡기며 사업을 통하여 검열하는것이다.

믿음과 검열,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되며 요구로 된다.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시킬수 없으며 부단한 검열을 통하여 료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확고히 믿을수 없다. 대담하게 믿고 일을 맡긴 다음에는 부단히 검열하고 료해하면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때 사람들은 우리 당을 더욱 신뢰하게 될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확고히 믿을수 있게 될것이다.

원래 믿음에는 마음이 따르는 법이다. 당세도에는 아첨이 따르지만 믿음과 사랑에는 마음이 따른다. 믿음은 충

성을 낳고 불신은 반역을 낳는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다 혁명가로 만들자면 사람들을 철저히 믿어야 하며 믿고 일을 시키면서 검열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을 믿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안겨주는것이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이 제기되면 외면하거나 멀리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믿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믿음 그자체가 곧 힘있는 교양인것만큼 당일군들이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담하게 실천적믿음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당의 정치적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열성적으로 일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믿고 사업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충성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일군들이 고상한 인간성과 인정미를 지니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일군들이 인간성과 인정미를 얼마나 소유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공산주의적 인간애와 인정미를 소유하지 못한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기사, 인간심리의 전문가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당일군은 높은 당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과 인정미를 지녀야 외유내강한 품성을 자신의 기질로 만들수 있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당일군에게는 인간성과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당일군의 향기는 곧 인간성과 인정미이다. 인간성과 인정미는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되게 하는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존엄있고 아름다울뿐아니라 인[...]을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사들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누구보다 더 고상한 인간[...]의 정신을 지니고 사람들을 뜨거운 [...]장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사람들[...]랭담하게 대하고 사람들의 운명에 [...]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심한 당일군은 참다운 인간, 진정한 [...]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없으며 혁명을 [...]하여 몸바칠수 없다. 당일군들은 [...]어디서나 대중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로 알고 대중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로 여기며 그들을 선생으로, 스승으[...]존중하고 친근한 혁명동지로 아끼고 [...]랑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뜨겁고 살[...]게 대해주고 친혈육처럼 돌봐주고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조직에 전[...]로 의거하게 되며 어머니가 앉아[...]방문을 열듯이 당위원회의 문을 스스[...]없이 열고 정다운 마음으로 아무때[...]찾아오게 될것이다. 당일군들은 어느[...]누구든지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과 [...]음속 깊은 사연도 다 이야기할수 있[...]록 당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하며 울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웃으[...]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뜨겁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들에 대한 열렬한 [...]랑을 지닌 참된 인간이 되여야 [...]며 사람들의 운명과 그들의 전망문제[...]지도 전적으로 안아말아나서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과의 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온 [...]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현해나가야 할것이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김 창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일련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59폐지)

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과 함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농업발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고 일찌부터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이 내놓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사제일주의방침은 농업생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일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은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돌릴것을 요구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인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먹는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으로서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먹는 문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에 대한 늘어나는 사회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근본방도, 결정적인 고리는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업생산물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경공업에 원료를 충분히 대주고 공업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특히 최근년간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

독을 가득 채워야 그 어떤 자연피해가 있어도 그것을 주동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으며 많은 량곡예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여유있게 꾸려나갈수 있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나라의 자주권도 튼튼히 지킬수 없고 대외관계에서 발언권도 똑똑히 세울수 없게 된다.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농업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여야 근로자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더우기 오늘 우리앞에는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식의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비롯하여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농업생산을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할 때 인민들의 식의주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는 매우 높은 목표이며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야 한다.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생산을 더욱 집약화하여 단위면적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야 한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나라에서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투자를 더욱 늘여야 한다.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한편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 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지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농업부문에 힘을 넣어야 하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은 농촌경리부문에만 해당한 투쟁과업이 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농사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는 중대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옳바로 실현해나갈때만이 우리 당이 의도하는대로 농업생산을 굽임없이 늘여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뿐아니라 농업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여 농업부문에 힘을 넣어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이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면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뜨

락또르와 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다.

농업을 공업화하는 문제는 기계기술수단들을 직접 생산하는 공업부문에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보장할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농업과학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영농사업에 필요한 기술수단들과 영농자재의 보장정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농업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한편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할수록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농업을 공업화하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생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농업을 공업화하는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농사제일주의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농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알곡문제해결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로, 농촌경리에서의 기본문제로 규정하시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알곡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집약적으로 천명한것으로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의 강령적지침이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우리 당의 구호는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소 농업전선의 진두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농업부문에 힘을 넣은 결과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기술개조가 적극 추진되고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이 널리 도입되여 농업생산이 빨리 늘어나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농사일을 대신하고 대부분의 영농작업이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농업생산이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되고있다.

최근년간 이상기후현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였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식량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건에서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구호를 들고 먹는 문제에서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구호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농사제일주의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농업생산에서 계속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당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앞에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을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06페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농사에 철저히 복종시키는것이다.

농사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농사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생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자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되여있고 농촌경리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온 투쟁경험이 있는 조건에서 농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질수록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만약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를 차요시하거나 농촌을 홀시한다면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없다. 농사에 힘을 넣는것은 한두번만 하고 그만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으로서 여기에서는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온갖 그릇된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극복하여야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당 및 국가 경제기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제일주의방침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 체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농촌사업을 진심으로 돕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것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영농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조건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면 그만큼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촌에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이다. 농촌에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구색에 맞게 많이 생산하여 제때에 보내주어야 지금 있는 땅에서 농작물의 단위당 소출을 부쩍 높일수 있고 간석지건설과 새땅찾기를 통하여 늘어나는 논밭에 비료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비료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화학비료공장건설을 다그쳐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논밭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은 국가투자를 늘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뜨락또르와 모내는 기계, 모뜨는 기계, 벼베는 기계, 낟알터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야 힘든 영농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철을 다투는 방대한 농사일을 제때에 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며 영농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특히 디젤유와 휘발유, 농약과 박막, 다이야를 비롯한 영농물자보장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더욱 힘있게 지원하는것이다.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기본사상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을 힘있게 지원해야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중요한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낄수 있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튼튼한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와 영농자재들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최우선적으로 생산하여주는 한편 내부예비를 찾아 중소농기구도 만들어주고 거름도 생산하여 보내주며 바쁜 농사철에는 전체 인민이 로력적으로 실속있게 도와주어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농장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를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에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것이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할수 없으며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없다. 그러므로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내고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며 랭습지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여 논밭의 지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씨붙임을 제철에 잘하며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며 논밭 김매기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비료주는 량을 바로 정하고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비료를 제때에 치며 김매기에 힘을 넣어 김을 말끔히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논물대기와 밭관수를 잘하며 병충해와 비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육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종자개량을 잘하는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으며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좋은 품종을 만들어냄으로써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산성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는데서 협동농장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이미 마련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협동농장규약대로 진행하며 농장관리운영에서 민주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촌에서 로력관리를 잘하여 농촌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농촌로력을 고착시키고 그것을 다른 부문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 농촌로력을 영농사업에 집중하여 농사일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는 농업생산이다.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농촌로력을 동원하거나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비롯하여 농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자면 협동농장의 관리로력과 비생산로력을 극력 축소하여 농업생산부문에 돌리며 농사철에 여러가지 사업을 벌려놓고 농촌로력을 랑비하거나 농사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며 의무로력일을 무조건 수행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것이 중요하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잘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수리정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농기계들을 농업생산에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침땅의 리용과 관리에서 토지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농업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농사를 잘 짓자면 토지부터 농업생산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토지를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보다 많은 토지를 부침땅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영농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이 영농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박력있게 내밀며 그것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면 할수록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 특히 당조직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록 농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사업과 관련된 단위의 당조직들은 영농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는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영농사업전반을 공정별로 장악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잘해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면서 영농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해야 한다.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당이 밝혀준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새 전망계획 수행의 중요방도

리 정 용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동로동과 경제활동과정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결합시키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보다 적은 지출로 보다 많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생산단위들사이의 균형과 생산적련계를 잘 보장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는 경제가 발전하여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여 공동로동의 범위가 늘어나고 수많은 생산단위들사이의 기술경제적, 생산소비적 련계가 보다 더 복잡해지고 밀접해질수록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휘황한 설계도인 제3차7개년계획 수행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객관적현실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것을 요구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9~20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지고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야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 수많은 생산단위들과 그 내부 생산공정들사이의 련계를 잘 맞물리고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여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는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생산수단의 량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이 량적관계를 잘 맞물리는것은 결국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 경제의 계획적인 발전과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경제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방대한 물자자원이 움직이게 되는것만큼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잘 보장하여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나라의 모든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생산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나갈수 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만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인 보장사업과 생산지휘를 잘 짜고들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맡겨진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정확히 수행할 때 전반적인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계획된대로 주고받을수 있으며 협동생산을 원활히 진행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 나라의 전반적인 인민경제적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새 전망계획의 수행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는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늘이며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더욱 개건하고 전력과 석탄, 강철, 유색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과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이 요구된다. 새 전망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국가적투자를 더욱 늘이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와 자금을 더 들이지 않거나 적게 들이면서도 생산을 늘이고 생산능력확장과 식의주문제해결을 위한 기본건설을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과학기술발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잘하면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일하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예비동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예비들을 많이 탐구동원하여 로력과 물자, 자금의 지출을 극력 줄이면서도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으며 축적을 증대시켜 새로운 생산적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수록 사회주의경제제도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속 무진장하게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예비들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이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로력적성과로 확고히 전환시켜 새 전망계획의 수행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이다. 생산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되며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만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게 된다. 물론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이 생산에서 노는 역할이 비할바없이 커지고있지만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기계설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루는것은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를 옳게 발동시킬 때 생산과 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적성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굼임없이 추동할수 있다. 경제지도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제기된 과업과 대상의 수준에 맞게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원료와 자재를 비롯한 생산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줄 때 모든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능력껏 일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로력적열성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을 굼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는 여기에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개선이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가지는 중요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우리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여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9페지)

현시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은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에는 당의 령도와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실시하는것으로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자들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하며 경영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짜고드는데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요구와 지침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대로 경제를 지도관리하여야 경제건설에서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을수 있으며 대중의 지혜를 적극 발동하고 생산조직과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여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데서 정치사업과 행정경제조직사업, 집체적지도와 통일적지휘를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한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우리앞에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곧바른 길로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그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는데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제관리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옹호고수하고 관철하는데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현시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더 잘 관철하는데서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모든 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리규범에 따라 일치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경영활동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생활력을 적극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건설정책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관리규범을 더욱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정된 제도와 질서대로 로동생활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련합기업소들을 옳게 관리운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련합기업소는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업소조직의 기본형태이며 국가의 계획적관리운영의 기본단위이다. 련합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기업관리에서 집체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기초하여 생산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며 련합체에 망라된 모든 기업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련합기업소들사이에도 긴밀하게 협동하며 창발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련합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의 모든 사업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바로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하며 련합기업소들에 대한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련합기업소들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밑에 자체로 계획을 바로세우고 협동생산조직, 자재보장, 수송조직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지고 하며 련합기업소와 그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리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을 창발적으로 효과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것을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야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생산조직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에서 나서는 방대한 계산을 신속정확히 할수 있으며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적은 지출로

더 많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자면 우선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정확한 계획은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 관철의 첫공정이며 정확한 계산과 통계는 경영활동과정과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경제관리개선의 효과적인 방도와 대책을 찾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계획화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구현하며 생산의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객관적현실을 그대로 파악할수 있도록 계산과 통계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정확한 계획과 계산, 통계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산기와 같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도입하여야 방대한 경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최량방안에 기초한 경제적타산을 잘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낼수 있다.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자면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데도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당의 정책적요구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그것을 적절히 리용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적공간들을 적절히 리용하여야만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이 사회적생산을 빨리 늘이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지휘성원이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이다. 우리 당은 경제지도일군들을 믿고 그들에게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맡겨주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얼마나 패기있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중요하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에서 표현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대오의 앞장에 서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며 힘있는 정치사업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특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면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늘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생산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장악할수 없으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

김 재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위대한 경제건설리론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은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427페지)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서의 자립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경제생활분야에 새롭게 제기한 요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나갈데 대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여 세운 경제건설원칙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자립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리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통하여 축성되는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과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내용, 그 발전로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493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우선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매개 나라 인민들 자체의 힘, 민족주체적힘으로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고도의 종합성과 자립성이 보장된 경제단위를 축성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다양한 물질적수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물질적수요는 매개 민족국가의 정치적자주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 민족국가단위로 해당한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야만 원만히 충족될수 있다. 이로부터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자체의 힘, 민족주체적힘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은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힘, 민족주체적힘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추진되며 필연적으로 고도의 종합성과 자립성이 보장된 주체적경제단위를 축성하는데로 나아가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근본성격과 함께 그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건설하자면 인민경제의 구조적종합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경제의 과학기술적토대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자체생산으로 충족시키는것을 목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만큼 그것을 건설하는데서는 부문구조면에서 기형성과 편파성을 허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경제부문들을 다방면적으로 전개하고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구조적 다면성과 종합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건설하는데서는 생산의 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로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시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에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개진된 민족경제가 그에 상응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국내의 물질적수요를 주로 자체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을 정도로 경제부문들이 전개되여있으며 모든 생산부문들이 기술적락후성을 기본적으로 가시고 현대적기술로 재장비된것으로 특징지어지는것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 이미 마련된 경제단위를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단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구조적종합성과 과학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화, 현대화되였을뿐아니라 고도로 과학화된 경제단위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자주성과 대치되는 사회경제관계들이 허용될수 없

다. 경제에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종합성과 자립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이건 발전된 나라이건 할것없이 그 어느 나라 인민들이나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는 오직 자립적민족경제건설, 경제적자립의 길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다.

주체의 자립경제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통하여 축성되는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옳바른 경제전략을 세울수 있는 확고한 과학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위한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주체의 자립경제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근본원칙의 하나는 자력갱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2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본질과 그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천명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자신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주체적력량과 자체의 자원으로 해나가는것이 자력갱생이다.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만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자금과 자기 인민의 로동에 확고히 의거하여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주체의 자립경제리론이 밝혀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주체화되고 현대화되였을뿐아니라 과학화된 경제단위로 축성되여야 하는것만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추진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주체화를 떠난 현대화, 과학화는 인민들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목적에 부합될수 없으며 현대화, 과학화를 떠나서는 주체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옳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자기나라 경제건설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

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밀고나가는 주체적립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과적실현을 확고히 담보한다. 이 로선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에서의 발전속도를 높이고 물질적생산의 기본부문들인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호상관계, 축적과 소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확대재생산과정이 안전한 토대우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며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단위를 빨리 축성할수 있게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합법칙성, 그 실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민족국가단위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는 력사적시기에 경제건설에서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이 제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이 자주성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제힘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마련해나가는 옳바른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지금까지 인류경제사상사에서는 경제건설문제에 관한 이러저러한 사상, 리론이 제기되였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과 함께 민족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지방적폐쇄성의 울타리를 벗어나 민족국가적인 단위에서 련결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범위로까지 그 련계의 뉴대가 확대됨에 따라 전사회적범위에서의 경제생활운영문제, 경제건설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것들가운데서 많은것들은 한갖 주의, 주장에 그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나라들의 위정자들에 의하여 정책화되여 나라의 경제생활을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조절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또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반동적인 부르죠아경제리론은 례외없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대변한것이였으며 자기 나라 근로인민대중과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보다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경제를 복종시키기 위한것이였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근로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제힘으로 마련해나가기 위한 투쟁의 참다운 지침으로 되는 경제건설리론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은 인류의 경제사상사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경제건설의 진로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경제건설리론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참답게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또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이 밝혀주는 경제에서의 자립의 길은 공산주의경제에 도달하는 가장 곧바른 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자주성과 대치되게 대외에 의존하여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상응하는 경제, 공산주의경제에 이르자면 경제에서의 대외의존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인류에게 예속경제로서의 식민지경제, 대외의존적인 경제로서의 제국주의경제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제국주의경제, 식민지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갈수 없다.

그런데 경제에서의 대외의존성은 자본주의제도를 없애면 곧 극복되는것이 아니다.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공정한 국제경제관계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발전된 경제를 결코 건설할수 없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상응한 경제에서 고도의 종합성과 자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는것은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높지 못한 나라 또는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할것없이 그 어느 나라 인민들의 경우에도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요구이다.

튼튼한 자립경제를 건설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경제건설분야에서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빨리 올라설수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리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 빛나게 구현되여나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본질과 지위, 경제건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경제건설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부문구조의 다면성과 기술장비수준에서 그리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적토대면에서 매우 높고 공고하며 생활력있는 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이룩하여왔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서해갑문과 같은 대기념비적창조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기술문명의 상징인 정밀도높은 전자계산기와 로보트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요구

되는 갖가지 일용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고 건설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토대의 위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총적방향을 밝혀준다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은 그 성격과 목표 그리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다.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은 다같이 이미 마련된 민족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마련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면하여 우리는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우리는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과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오직 우리 식대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은 우리 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부

최　　재　　현

한 민족이 이룩한 문화적창조물의 가치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인류공동의것으로 공인되고 널리 활용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며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귀중한 문화재부로서 빛을 뿌리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제된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으로 또다시 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였으며 인류문화사는 이 위대한 창조물의 탄생을 우리 시대의 특출한 사변으로 아로새기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창제된 무용표기법은 무용표기연구집단이 15년간에 걸치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실천적검증을 통하여 완성한 로동당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부이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자모화된 무용문자를 일정한 원리와 방법에 따라 결합시키면서 무용작품의 모든 형상적요구들을 원만히 기록할수 있게 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새로운 무용표기법은 춤동작을 비롯하여 무용구도, 여럿이 추는 무용에서 무용수들의 상대관계, 소도구의 리용방법, 무용동작의 시간적길이 등 무용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일목료연하게 기록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이 창제됨으로써 무용예술의 창작방법과 창조체계, 무용작품의 보급과 보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무용 교육과 연구사업을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실로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도 계속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되며 사회주의무용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혁명으로 된다.

*　　　*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무용표기법을 만드는것은 무용예술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이 새로운 시대는 문학예술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무용예술도 인민대중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창조되고 전적으로 그들에게 향유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져 영화와 문학, 가극과 연극, 음악과 미술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 비위와 정서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그의 적극적인 창조자, 진정한 향유자로 되고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 무용예술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용예술이 과학화된 자기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있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무용예술은 음악과 함께 그 어느 예술형태들보다 일찌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로동과정에서 나와 생활속에서 발전하여온, 인민에게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그러나 무용예술은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기는 예술로 발전하여오면서도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제한되지 않은 시공간속에서

다양한 예술적률동으로 보여준다는 특성으로 하여 문학이나 음악에서와 같이 글로 쓰거나 악보로 기록하는 과학적이고 통속적인 표기수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인간생활과 깊은 련관속에서 발전하여오면서도 오랜 세월 과학적인 표기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무용예술은 창작방법과 창조체계, 보급에서 낡은 구전식전수방법을 답습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무용예술분야에서는 인류사회발전의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창조된 수많은 훌륭한 민족무용유산들이 류실되였으며 무용교육과 과학연구 사업은 경험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인민들이 무용예술을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리해하고 받아들이며 자기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이것은 무용표기법의 창제를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무용표기법을 만드는것은 훌륭한 무용작품들을 널리 보급하고 먼 후날까지 길이 전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무용작품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는것은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이 사업은 무용작품의 보급에서 수공업적인 낡은 방법을 없애고 과학적인 무용보를 통해서만이 그 시간성과 대중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시각적이며 직관적인 예술인 무용은 한번 추고나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희미하게 남아있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우수한 무용작품들을 길이 보존하며 후대들도 그것을 잘 알고 되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용표기법을 만들어내야 하였다.

더우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이 빛나게 수행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고있는 우리의 자랑찬 현실은 무용예술을 과학적토대우에서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영화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돌파구로 하여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이 보람찬 나날에 무용예술분야에서도 4대명작무용들인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사과풍년》, 《키춤》이 창조된것을 비롯하여 《피바다》식혁명가극의 무용들, 음악무용이야기와 음악무용서사시의 무용과 같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무용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무용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전반적인 높이에로 끌어올리자면 반드시 무용예술분야에서 새로운 창작 및 창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무용작품을 손색없이 보존하고 후세에 넘기는 사업도 잘하여야 하였다.

무용예술앞에 나선 이 력사적과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해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용예술의 특성과 무용예술발전의 요구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을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무용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 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서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을 창제할데 대한 현명한 발기를 하시였다.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을 창제할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위대한 발기는 력사적

오로 내려오던 무용예술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결심의 엄숙한 선언이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용표기법을 기어이 연구완성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복무시키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구현되여있었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창제할데 대한 위대한 발기를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용표기법을 만드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무용표기법의 본질적특성, 그 연구완성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무용표기법의 창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유능한 무용가, 교원, 안무가들로 강력한 무용표기법연구집단을 꾸려주시고 새로운 무용표기법의 연구완성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조건들을 다 마련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 뜨거운 사랑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새로운 무용문자를 창제하는것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자모결합식으로 된 무용표기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제된 새로운 무용표기법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무용표기법이다.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이라는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무용표기법, 다시말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만들어지고 써먹을수 있는 우리 식의 무용표기법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춤동작에 토대한 무용표기법이라야 우리 혁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우리의 무용작품을 창조하고 표기하는데 편리한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민족무용은 그 어떤 민족무용보다도 우월하다. 우리의 민족무용은 서정적이면서 팔을 많이 놀리며 률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것으로 특징적이다. 우리 무용은 웃몸의 움직임이 다양하고 풍부할뿐아니라 기백이 있고 팔과 다리 동작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여있다. 우리 나라 민족무용은 민족적특성이 뚜렷하면서도 현대화되고 발전한 무용으로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그러므로 무용표기법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춤동작에 토대하여 만들어져야만 주체가 철저히 서고 현대화된 무용표기법으로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용표기법이 다른 나라의 춤동작을 표기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서는 그 가치가 크지 못하다.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은 마땅히 우리 나라의 춤동작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춤동작들도 다 표기할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무용표기법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무용표기법의 참된 가치가 그 어떤 민족춤동작이든지 다 표기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나타나기때문이다.

춤동작은 민족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지역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나라의 춤은 손과 팔을 많이 놀리고 또 어떤 민족의 춤은 발을 많이 놀리며 그 놀리는 본새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무용표기법은 어느 한두개의 특정한 민족무용만을 표기하는것으로 되여서는 그 보편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모든 춤동작을 다 표기할수 있는 무용표기법을 만들려면 가장 발전된 춤동작에 토대할뿐아니라 모든 무용들에 다 적용되는 원리적문제들을 찾아내고 무용예술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민족무용이 각양각색이면서도 춤동작의 요소와 진행원리,

생리적기초에서는 일반적공통성이 작용하기때문이다.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은 무용예술의 특성과 무용예술발전에 맞는 표기법일뿐아니라 과학성과 인민성이 확고히 담보된 표기법이다. 여기에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모든 과학이 다 그러한것처럼 무용표기법도 자기에게 고유한 과학적인 원리가 작용한다. 무용표기법이 과학적리치에 맞게 만들어져야 세계화된 무용표기법으로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무용도 다 표기할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무용표기과학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무용의 구성요소들을 해부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기호화하는 한편 서로 결합시키는것은 무용표기법을 과학적으로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무용예술이 률동학, 인체해부학, 기하학, 력학, 도형학 등 여러가지 학문들의 종합체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무용표기법을 엄밀한 과학적기초우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용표기부호들은 비유하여 말하면 언어학에서의 자모와 같습니다. 자모들이 서로 결합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루듯이 무용표기부호들도 기본적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여러가지 형태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무용동작을 표기할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무용표기법을 완성하는데서 무용의 요소들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과학적인 표기법을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무용은 사람의 예술적률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공간속에서 자유분방한 움직임으로 진행된다. 무용예술의 이러한 특성은 사람의 몸움직임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간요소들을 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새로 창제된 무용표기법은 무용이 사람의 몸움직임을 통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예술형태라는데로부터 몸움직임을 4가지의 형태와 11가지 놀림으로 갈라놓고 그것을 모음적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무용이 공간속에서 자리와 방향의 변화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12개의 자리부호와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로 제정하여 그 자모들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방법으로 어떤 춤동작도 원만히 표기할수 있게 하였다.

무용표기법이 과학적인것으로 되자면 무용의 제요소들을 옳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표기수단의 하나인 표기부호를 자모화된 무용문자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500여년에 걸친 무용표기연구력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수많은 문예학자들과 무용예술인들은 무용을 표기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무용표기법이 나왔으며 그것들은 무용예술을 과학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지난 시기의 무용표기법들은 주로 춤동작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약속된 수자, 음악기호로 표시하였는가 하면 추상화된 부호를 써왔다. 이러한 표기부호들도 춤동작을 공간속의 위치들에 몸부위들이 놓이게 되는 자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기본원리로 하였다. 그런가 하면 춤동작을 덩어리채로 략칭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몸부위들을 세분화하여 공간속의 위치들에 맞추어 표시하는 표기법은 어차피 복잡성을 피할수 없고 춤동작을 덩어리채로 략칭하여 표기하면 부단히 새롭게 생겨나는 춤동작들을 모두 정확히 표기할수 없게 된다.

지난 시기에 만들어진 무용표기법들의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률동적인 움직임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부하여 기본적인 무

용표기부호들을 설정하여 정연한 부호체계를 세우고 그 결합방법을 옳게 탐구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력사적인 과제는 표기부호들을 자모식문자로 만들며 그것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바로 지난 시기 무용표기법연구에서 나타나고있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을 명확히 꿰뚫어보고 무용표기부호를 자모식문자와 같이 만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이 세기적인 과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열쇠를 마련하여주었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표기부호들을 자모식문자와 같이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지난 시기 무용표기법연구에서 나타나고있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전혀 새로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무용표기법으로 창제될수 있었다. 실로 무용표기부호들을 자모식문자와 같이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의 무용표기법으로 하여금 종래의 무용표기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리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완성된 표기법으로 창제될수 있는 비결을 밝혀준 위대한 발견으로 된다.

무용문자의 과학성과 론리성이 보장되자면 서체학적으로 완성되여야 할뿐아니라 쓰기 편리하고 보기 좋으며 결합이 잘되면서도 적은 수의 자모로 많은 뜻을 표현하여야 한다.

우리의 무용문자는 사람의 몸움직임의 표상을 강하게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되여 무용의 형상적의도를 충분히 표현할수 있게 되여있다.

무용표기법이 과학적인것으로 완성되자면 춤동작뿐아니라 무용구도, 여럿이 추는 무용에서 무용수들의 상대관계, 소도구의 리용방법, 무용의 시간적길이 등을 모두 표기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춤동작만을 표기할수 있는것은 과학적으로 완성된 표기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무용은 무용수가 무대우에서 일정한 구도를 그리면서 진행되며 또한 여럿이 호상 일정한 관계속에서 진행된다. 무용에는 소도구도 리용되고 춤동작은 일정한 음악적길이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모든것들을 다 정확히 표기할수 있는 무용표기법이라야 과학적인 표기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무용예술의 이러한 모든 형상 수단과 요소들을 종합적이면서도 일목료연하게 하나의 부호체계로 표기할수 있도록 창제됨으로써 과학리론적완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무용표기법을 통속화하고 실용성있게 만드는것은 무용표기법창제의 목적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무용표기법을 만드는 목적은 이미 창작된 무용작품을 기록해두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용작품창작에 써먹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안무가들이 창작실천에 적용하자고 해도 그렇고 광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울수 있게 하자고 해도 무용표기법은 통속화되고 실용성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전문가들은 물론 누구나 다 쉽게 배울수 있고 써먹을수 있는 가장 통속적인 표기법이다. 여기에 새로 창제된 주체적인 무용표기법의 특성의 다른 하나가 있다.

무용표기법이 통속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표기부호의 수와 그 결합원칙에서 표현된다. 표기부호의 수가 많고 결합원칙이 복잡하면 그자체는 물론 결합되여 나타나는 부호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아지고 까다롭게 된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것만큼 표기부호의 수가 많고 까다로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리해할수 없을뿐아니라 설사 처음에는 쓴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표기부호의 수를 극력 줄이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결합원칙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그것을 쉽게 리해하고 써먹을수 있게

되여있다.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또한 음악에서 악상요구들을 《서정적으로》, 《느리지 않게》, 《박력있게》와 같이 글로 악보에 표현하듯이 무용작품의 양상과 정서적 감정, 특수한 생활동작들은 간단히 글로 써넣도록 함으로써 표기법의 높은 통속화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과학성과 통속성이 확고히 담보된 가장 인민적인 무용표기법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무용표기법이 창제됨으로써 사람들이 그처럼 해결을 바라던 세기적인 과제가 훌륭히 풀리게 되였으며 20세기 인류문화의 보물고는 더욱 빛나게 되였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무용작품창작에서 낡은 구전식전수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창작방법과 창조체계를 세울수 있게 하였다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안무가들이 자기의 창작적구상을 무용보표에 옮긴 다음 무용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무용예술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지난 시기에는 안무가들이 작품을 창작하려면 많은 무용수들을 무대우에 세워놓고 여러번 반복동작을 시키면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안무가가 무용수와 무대가 없이도 창작적충동을 받는 그 순간에 춤가락들을 무용보표에 기록하여 무용대본을 창작할수 있게 되였다. 무용배우들도 안무가가 만든 무용보를 가지고 혼자서 숙련한 다음 안삼불에 참가함으로써 힘겨운 육체적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였을뿐아니라 창조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되였다.

새로운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또한 인류가 력사적으로 창조해놓은 귀중한 무용유산의 류실을 막고 무용작품을 영구히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또한 무용예술작품의 보급을 대중화할수 있는 확고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며 무용예술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새로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사람의 몸움직임의 특성과 률동학적인 요구를 가장 훌륭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새로 창제된 무용표기법은 무용뿐아니라 교예, 예술체조, 집단체조, 빙상휘거, 치료체육 등 여러 분야에도 훌륭히 적용하여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주고있다.

자모식 무용표기법은 그 과학성과 실용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무용예술작품 창작과 창조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이미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에 나오는 방대한 무용작품들도 무용총보를 가지고 10여일동안에 원상대로 재현하여 공연하였으며 중요행사들에서 외국무용들도 무용총보로 재현하여 그 생활력을 확고히 검증하였다. 하기에 우리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을 본 유네스코의 한 책임일군은 《나는 무용표기법과 같은 어려운 발명은 구라파에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세아의 조선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무용표기법을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무용표기법을 만들도록 직접 발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분이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을 알고 감동을 금치 못한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참으로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제는 우리 당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결실이며 그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할 우리 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부이다.

우리는 이 귀중한 문화재부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무용예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주체의 무용예술로서의 전투적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군사파쑈통치는 민주주의와 량립될수 없다

박 동 근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통치의 존폐를 둘러싸고 민주와 파쑈, 애국과 매국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고 군사파쑈통치의 종식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전두환일당을 타도하자》, 《중대결단을 철회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고 웨치면서 련일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있으며 재야민주세력과 민주인사들, 량심적인 종교인들도 롱성과 항의성명, 서명운동 등으로 전두환괴뢰의 《호헌론》을 배격하고 현행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고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군사파쑈통치의 종식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는데 당황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힘으로 누르기 위한 파쑈폭압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는 한편 현군사파쑈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할수 있다는 궤변을 또다시 퍼뜨리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아무리 군사파쑈독재에 민주주의외피를 씌우려고 하여도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추악한 본질을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남조선에서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계속되는 한 사회의 민주화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군사파쑈통치는 량립될수 없습니다.》(《쿠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0페지)

군사파쑈통치는 그 본질로부터 민주주의와 량립될수 없다.

군사파쑈독재란 제국주의나라들과 식민지나라들에서 반동적군인들이 직접 정권을 틀어쥐고 조그마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인민들을 총칼로써 통치하는 파쑈독재이다. 다시말하여 군사파쑈독재는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근로인민대중을 다스리기 위하여 꾸며진 가장 횡포하고 공공연한 폭력적통치형태이다.

그러므로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량립될수 없으며 서로 부정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군사파쑈통치는 온갖 민주주의의 완전한 부정에 토대하여 발생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철저한 말살을 그 사명으로 하고있다.

군사파쑈독재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조아민주주의나 의회주의와 같은 종전의 방법으로는 저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할수 없으며 오직 총칼을 휘두르지 않고서는 배겨낼수 없게 되였을 때 마지막으로 들고나오는 통치수단이다.

지난날 이딸리아의 무쏠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도죠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나라들과 식민지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군사파쑈통치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력사상에 출현한 모든 군사파쑈통치는 그 어느것이나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형식적인 부르조아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리고 그 페허우에 군림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흔적마저 없애버리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8.15후 오늘까지의

ㅏ조선현실이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리승만파쑈독재체제를 조작하는것으로부터 처음의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시작하였으며 19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27년동안 공공연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일관하게 실시하여왔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식민지통치의 가장 흉악한 형태이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쑈통치의 전형이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동시에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의 가장 파렴치하고 공공연한 테로독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유지되고있는 남조선에서의 군사파쑈통치는 식민지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서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은 특히 그 횡포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비길데 없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군사파쑈통치이다.

전두환파쑈정권은 총칼로 괴뢰정권을 가로챈 때로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군사파쑈무리들은 선행 그 어느 식민지괴뢰보다 더 방대한 파쑈폭압력량을 꾸려놓았다. 괴뢰군을 100만명으로 늘이고 경찰무력을 해마다 증가시켰을뿐아니라 《안기부》등 정보특무망을 정비개편확대하고 기관원, 정보원들을 대폭 늘이였다. 또한 《반공국시》에 기초하여 종래의 파쑈악법들을 한층 더 개악하였다. 전두환역도는 괴뢰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부터 7년으로 늘이고 그 선출방법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에서 괴뢰헌법을 뜯어고치였으며 뒤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의 《법》들을 전면개악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전두환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방대하게 꾸려놓은 폭압력량과 《법》질서의 예봉을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리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탄압의 예봉은 특히 현행괴뢰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고치고 《정부》를 자기 손으로 선출하려는 각계층인민들의 《개헌》투쟁을 봉쇄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호헌》이요, 《합의개헌》이요, 《중대결단》이요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욱더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한해동안에 괴뢰경찰은 100여만명을 립건하였는데 이것은 1986년에 40명에 1명 비률로 남조선인민들을 붙들어갔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에 학원시위, 로동현장《위장》침투, 《좌경》 등 각종 민주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괴뢰경찰에 검거된 수는 총 7,250명이며 그중 4, 610명이 구속되였다. 이것은 1985년에 비해볼 때 256.5%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특히 구속된 학원운동관계자수는 3,068명으로 전해에 비해 340.5%나 된다.

이와 같은 파쑈탄압은 올해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고있다. 괴뢰도당은 지난 5월 6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에만도 괴뢰경찰 3만 7천여명을 동원하여 대학들을 《정밀수색》하고 이른바 《보안사범》 2,567명을 검거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많은 사람들을 립건, 구속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학살하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미국무성인권보고서에서마저 남조선에서 지난해에 7~8건의 경찰정보고문살해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1월 14일에 있은 박종철학생의 고문학살사건은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이

와 같은 고문살해사건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또한 표현과 언어의 자유를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다. 수많은 출판물을 페정간시키고 구두, 서면으로 정기적으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있으며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자금의 거부, 학교행정부로부터의 사표압력, 승진중단, 서면사과 등 각종 압력과 처벌을 가하고있다. 로동운동관계자들에 대한 체포, 투옥 선풍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제반 사실은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는것을 현실로써 립증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제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군사독재와 민주주의는 량립될수 있는듯이 떠들고있을뿐아니라 현군사파쑈체제를 그대로 연장하는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까지 떠벌이고있다.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의 《량립론》은 반민주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적궤변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의 《량립론》은 무엇보다도먼저 그것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로서의 현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유지강화할것을 목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추구하고있는 당면 최대의 전략적목표는 남조선의 정치적안정을 보장하며 남조선을 계속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 식민지로 유지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추구하고있는 이 전략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현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있다.

《힘》에 의거한 미제의 세계전략 및 아세아중시정책은 그 전략의 본질로부터 군사파쑈적인 식민지괴뢰정권을 필요로 하며 군사파쑈적인 식민지괴뢰정권이야말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고스란히 받아물수 있다. 그런데 군사파쑈통치는 그 저주로운 죄악의 력사로 하여 인민대중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놈들은 군사파쑈통치에 《평화적정권교체》의 《선례》라는 색다른 딱지를 붙여 인민들의 눈을 현혹시켜보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의원내각제개헌》이요 뭐요 하면서 군부독재를 연장하기 위하여 들고나왔던 저들의 연명책이 통할수 없게 되자 다시 본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현행《헌법》대로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하는것이 민주주의에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길로 된다고 하면서 마치도 현 군사파쑈통치가 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현행괴뢰헌법이 민주주의에로의 길을 터놓고있기나 하는듯이 떠들고있다. 이것은 군사파쑈통치에 민주주의적분칠을 하여 전두환군사파쑈통치를 미화분식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안정된 유지를 꾀하여보려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의 《량립론》은 또한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과 군사파쑈독재의 영구화를 노리고있다.

오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꿈은 군부독재의 연장이며 그를 영구화하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현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연장하고 영구화함으로써만 미제의 지시밑에 괴뢰군부에 의하여 단행된 광주인민대학살의 책임을 묻어둘수 있으며 전두환괴뢰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대한 대중의 의혹도 의혹대로 계속 쌓아둘수 있는것이다.

만일 대중의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고 괴뢰대통령을 직접 뽑을수 있게 된다면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선거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따라서 괴뢰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이것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장기집권도, 군부주도하의 《평화적정권교체》도 이룩할수 없게 할것이며 나아가서 전두환괴뢰정권의 《정통성》도 재검토하고 거부하게 될것이며 궁극적으로

는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두환괴뢰도당은 《개헌》론의의 파탄, 민주화과정의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들씌우고 신민당이 내부분쟁으로 분렬되게 된 틈을 리용하여 일체의 《개헌》론의를 중단시키고 군사파쑈적인 현행《헌법》대로 다음번 《대통령》을 정할 선거를 할데 대한 《중대결단》을 내린것이다. 《개헌》론의를 중단시키고 그것을 비법으로 선포한 전두환괴뢰의 4.13조치는 미제의 사촉과 괴뢰군부의 뒤받침을 받은 전두환군사깡패도당이 단행한 또 한번의 쿠테타로서 그것은 제1, 제2의 쿠테타로서 동족의 피바다우에 세워놓은 현 군사파쑈독재를 어떻게나 부지하고 연장해보려는 제3의 쿠테타라고 할수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군사파쑈통치와 민주주의의 《량립론》은 다음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무마거세하려는데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군사파쑈체제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군사파쑈통치에 민주주의의 너울을 씌움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창끝을 피하고 현 군사파쑈정권하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할수 있는듯한 환상을 퍼뜨려 그들의 반파쑈민주화와 반미자주화, 통일을 위한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있다.

지금 전두환군사파쑈도당과 민정당패거리들이 들고나오고있는 《민주방식》과 《합헌절차》에 의한 《후임대통령후보》의 지명,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의회 의원선거》, 《최저임금제》와 《의료보험제》의 실시 등 기만적인 여러 경제 및 복지 시책의 선포, 괴뢰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의 《선거》 등에 대해 떠들면서 그것이 마치도 민주주의의 점차적실현,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리정표》로나 되는듯이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보다 악랄하고 횡포한 군사파쑈통치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군부독재의 연명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두환괴뢰의 이른바 《중대결단》은 현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연장하고 군부독재를 영구화하려는 저들의 속심을 공공연히 선포함으로 하여 엄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현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책동은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더욱 긴장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개헌》을 비법으로 선포하고 민주인사 김대중을 자택에 장기연금하였으며 경찰, 검찰로 하여금 《사회혼란요소》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하도록 련이어 명령하고있다. 이와 함께 반전두환인물들에 대한 령장없는 체포련행, 고문과 구속조치가 더욱 빈번해지고있다. 이리하여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더욱더 유린말살되고있다.

전두환괴뢰의 《중대결단》이 몰고 온 이와 같은 정치적긴장상태에 대하여서는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과 미국과 일본의 적지 않은 인사들도 응당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사회적혼란은 사회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인 조치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대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군부독재의

영구화를 꾀한다면 남조선에서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것이다.

현 군사파쑈통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책동은 파쑈와 예속, 분렬을 심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군사파쑈통치는 미제의 식민지정책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그것은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며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과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동북아세아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안아올 요인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사파쑈통치가 연장된다면 미제에 의한 남조선의 식민지화, 군사침략기지화는 한층 더 심화될것이며 오늘의 비극적인 민족분렬상태는 더욱 지속될것이고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은 더욱 증대되게 될것이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위한 투쟁은 한층 더 드센 파쑈공세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인민대중의 정치적 무권리와 물질적 및 문화적 빈곤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게 될것이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하고 긴박한 정세는 하루빨리 군사파쑈통치를 종식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종식시키고 사회를 민주화하려면 반미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비호해주고있으며 그의 영구화를 배후조종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의 식민지지배가 계속되고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남아있는 한 사회의 참다운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는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며 선결적인 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야 한다.

군사파쑈통치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모든 파쑈악법을 폐지하고 폭압통치기구를 없애버려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정권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정권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발전도상 나라들앞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

정　　송　　남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평양에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가 열리게 된다.

제8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결정에 따라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남남협조의 현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미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광범하게 토의하게 된다. 쁠럭불가담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있게 되는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는 남남협조를 폭넓게 발전시키는데서 뜻깊은 회합으로 될것이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야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을뿐아니라 현 국제경제체계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습니다.》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예속과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려는 공동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자주성과 평등, 유무상통과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다방면적으로 진행되는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협조관계는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략탈적인 경제관계나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들사이의 예속적인 경제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이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과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업발전이 미약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이며 공업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제국주의자들이 풍부한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건설한 기형적이며 편파적인 공업이 있을뿐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나라들에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자재, 기술도 모자라며 기술인재도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해나간다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서는 자금과 자재, 기술을 능히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방대한 인적자원과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100여개에 달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가지고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만 교류하여도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이 많은 경험과 기술을 소유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서로 유무상통하며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한다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부족되는 자금과 기술, 원료와 자재를 능히 자체로 해결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방도로 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공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적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날수 없을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국제경제관계분야에서 지배와 예속, 불평등에 기초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등과 호혜, 자주성에 기초한 새 제도와 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며 그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협상력과 대항력을 높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요구를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원료연료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통하여 협상력과 대항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곤경에 몰아넣을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곤경에 빠져 다른 출로가 없을 때 그들은 싫든 좋든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정세가 더욱더 악화되고 국제경제체계의 개편을 위한 남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것과 관련하여 발전도상나라들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1980년대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제국주의나라들이 실시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고금리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의 10년사이에 3,324억딸라로부터 1조 350억딸라로 늘어났다. 지금 자본을 수입하고있는 131개의 발전도상나라들가운데서 123개 나라가 채무부담을 걸머지고있으며 그가운데서 61개 나라는 당장 채무리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대외채무를 물기 위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인민들의 생활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다. 1980년부터 1985년사이에 발전도상나라들의 년평균경제장성률은 1.95%로서 1960년부터 1980년사이의 년평균경제장성률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아프리카와 중근동,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경제가 감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생산의 침체와 감퇴로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의 인민들이 혹심한 기아와 함께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어려운 경제형편은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인한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계속하고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기아와 빈궁, 질병에서 벗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체계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은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메히꼬의 깐꾼에서 진행된 남북수뇌자회의와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된 제6차유엔무역개발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남북협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공정한 요구를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 《원조》와 《협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략탈하고있다. 최근 4년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공업국가들이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리윤의 형태로 긁어간 재부만 하여도 무려 1조 1,460억딸라에 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으며 정치적독립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적해방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선사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상이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살아나갈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바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힘으로 살아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지난 기간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적지 않은 일들을 하였다. 여기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언제나 중추적이며 촉매적인 역할을 놀았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경제적해방을 이룩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적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유엔총회특별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해당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새로운 국제협조기구들도

초치되였다. 이것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이룩한 고무적인 성과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발기에 의하여 남남협조에 관한 전략과 정책적지침들이 마련되고 경제협조행동강령이 채택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협조계획이 추진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중해지역에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쌍무적, 준지역적, 지역적 협조가 발전하고있으며 남남협조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남남무역은 1971년부터 1981년사이에 122억딸라로부터 1,522억딸라로 늘어나 10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남남투자는 1971년부터 1983년사이에 400억딸라에 달하였으며 그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외국에 대한 투자액의 거의 6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남남협조의 현 실태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호상협조에 대한 념원과 요구, 방대한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그 성과가 적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동으로 협의하여 남남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졔니에〉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현시기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남남협조의 위력과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날수 있도록 옳바른 전략과 정책을 세우는것이다.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경제적해방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위업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적성격을 띤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민족적리익과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매개 나라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남남협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남남협조가 이러한 원칙적요구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그 위력과 생활력을 충분히 과시할수 있으며 착실하게 실현될수 있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호상협조와 련대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남남협조의 위력과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나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고있다.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목적 및 리해관계의 공통성은 이 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유무상통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호상협조와 련대성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앞선 나라들과 자원, 자금이 풍부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경제적난관을 겪는 나라들을 사심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호상협조와 련대성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수 있고 남남협조를 실제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남남협조의 위력과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호상리익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남남협조는 어디까지나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그것이 매개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리익을 가져다주어야 그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만약 남남협조에 관한 행동강령이나 계획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경제적리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나라도 거기에 참가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남남협조에 관한 행동강령이나 계획들은 매개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의 요구와 경제적리익에 맞게 작성되여야 하며 협조실현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다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리득을 얻는것으로 되여야 하지 어떤 참가국은 리득을 보고 어떤 참가국은 손해를 보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남남협조를 통하여 참가국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 도움을 받고 경제적리득을 얻는다면 모든 나라들이 남남협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남협조는 견고한 토대우에서 계속 확대발전될것이다.

협조의 대상과 형식, 방법을 옳바로 설정하는것은 남남협조의 위력과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경제발전과 자원의 분포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부터 남남협조에 대한 관심과 리해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남남협조에 다같이 참가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수준과 자원의 분포 등에서 각이한 나라들이 다같이 남남협조에 커다란 관심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협조의 대상과 형식, 방법을 옳바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남남협조의 대상과 형식, 방법은 참가국들의 리해관계와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하는것이 유리하다. 남남협조의 대상을 설정하는데서는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나라들끼리 먼저 협조를 실현해나가면서 그밖의 나라들도 차후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협조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의 희망과 조건에 따라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에로, 개별적인것으로부터 포괄적인것에로, 쌍무적인것으로부터 다무적인것에로 점차 폭넓고 깊이있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이 합리적이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현실적으로 긴요하고 가능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가지 문제씩 해결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협조를 실현하는것이다.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남남협조는 한꺼번에 모든 분야에서 다 실현할수 없는 방대한 사업인 동시에 또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릴수도 없는 절박한 사업이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인민들을 빈궁과 기아, 병마에서 해방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가능한 문제로부터 협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당면하게 식량 및 농업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빠른 시일안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합작과 합영, 기술교류를 통하여 관개공사를 하고 농법을 개선하며 종자, 비료, 농기계, 농약, 기술 문제를 풀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이 합영의 방법으로 관개공사와 농사를 하여 식량생산을 늘이는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합영의 방법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의

정신과 호상리익의 원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활력있고 전망성있는 협조형식으로 된다.

당면하게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이 남남무역을 발전시키고 금융 및 통화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남남무역을 발전시키고 금융 및 통화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압력과 봉쇄책동을 물리치고 자체의 넓은 시장에 의거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기술적 수요를 제힘으로 충족시키며 남남협조 실현에서 난관으로 제기되는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호상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특혜제의 세계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재정금융협정을 체결하고 재정금융기관들 호상간에 긴밀히 협조하며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련대성기금, 1차산품종합계획을 위한 공동기금, 통화, 개발 및 안전기금, 남은행 등 공동금융기관들의 창설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이밖에도 공업, 보건, 교육,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인 남남협조의 발전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남남협조를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최고위급에서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호상협조의 방대한 가능성을 탐구개발하여 유무상통하기 위한 정치적공약을 하고 매개 나라들에서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최고위급에서 수시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가지고 남남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직접 중요한 협조협정을 체결할수도 있을것이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위한 수뇌자회의를 소집하는것이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남남협조를 위한 수뇌자회의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련대성과 호상협조를 촉진하는데 강력한 담보를 주는 최고위급회의로 될것이며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남남수뇌자회의소집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의소집을 위한 조건을 성숙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정치적단결을 강화하고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적극적인 발기들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농촌경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식량문제해결과 자립경제건설을 적극 협조하였다.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 회의에서 채택되는 선언과 행동강령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자유의 섬》 꾸바를 찾아서

김 수 천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이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 《꾸바 쏘찌알리스따》사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한것은 지난 2월중순이였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씨비리대륙을 횡단하여 모스크바와 아일랜드, 카나다를 지나갈 때에는 어디나 온통 눈이 덮이고 추운 날씨였는데 꾸바는 우리 나라의 한여름과도 같이 무더웠다. 기온은 섭씨 28~30도를 오르내리고있었다.

늦은 저녁에 아바나비행장에 도착한 우리는 곧추 숙소로 향하였다. 차창을 통해 안기는 아바나시의 야경은 아름다왔다. 꾸바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하듯 키높은 빨마나무와 야자나무를 비롯한 남방의 특유한 나무들이 해풍에 가볍게 설레이고 거리들은 오가는 사람들과 승용차들로 붐비고있었다. 아바나시가 창조와 열정으로 들끓고있다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거듭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인민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인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개척하고 령도한 꾸바혁명은 지구의 서반구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꾸바땅을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자유의 섬〉으로 전변시켰습니다.〉(《조선인민과 꾸바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단행본, 3페지)

우리가 꾸바에 머무른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에 아바나시와 싼따아고 데 꾸바, 삐나르 델 리오주의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그리고 우리와 만난 다정하고 친근한 많은 벗들의 말을 통하여 《자유의 섬》 꾸바땅에서 이룩되고있는 창조적변혁들과 열정적이고 용감한 꾸바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지향에 대하여 깊이 리해할수 있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 꾸바에서 받은 가장 깊은 인상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꾸바인민이 창조적로동과 헌신적투쟁으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였다.

우리와 만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당의 령도밑에 꾸바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혁명전에 꾸바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밑에서 아무런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꾸바의 공업,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주요명맥은 미국독점자본가들이 틀어쥐고 그것을 저들의 부속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꾸바인민은 자체의 민족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자연경제적조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리용할수 없었다. 미제의 경제적략탈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는 심히 보잘것없었고 인민들은 실업과 빈궁, 만성적인 기아속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전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오막살이와 초막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였으며 도시주민들도 초보적인 위생조건도 없는 판자집과 로천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였다.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는 꾸바의 교육문화분야에도 심각한 후과를 남겨놓았다. 학령기의 아동들가운데서 35.1%가 학교에 가지 못하였고 취학한 학

생중에서 중등교육을 완전히 마친 학생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꾸바의 혁명적이고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문화는 유린되고 퇴폐적인 양키문화가 판을 치게 되였다. 실로 꾸바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빚어낸 후과는 컸다. 그러나 혁명승리후 꾸바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가 말끔히 가셔지고 커다란 진보와 번영이 이룩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꾸바에서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년평균 사회총생산은 7.3%, 공업생산은 8.8% 장성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농업생산도 훨씬 늘어났다.

꾸바인민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꾸바 당과 정부가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려온 결과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각급 학교들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에서 공부하고있다. 대학을 졸업한 수십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꾸바 당과 정부의 옳바른 보건정책에 의하여 꾸바의 모든 사람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최근에는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가정의사담당제》가 꾸바의 도시로부터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도입되여 주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효과적으로 주고있다.

꾸바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꾸바공산당의 옳바른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꾸바인민의 창조적로동과 헌신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꾸바인민이 혁명승리후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꾸바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이 당 제3차대회가 제시한 제3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부터 축원하였다.

우리는 꾸바를 방문하면서 꾸바당과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리던 시기의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통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꾸바인민은 오랜 기간 외래침략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무장투쟁이였다.

우리는 꾸바의 동남부에 있는 싼띠아고 데 꾸바를 참관하면서 미제와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한 이 나라 혁명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가 싼띠아고 데 꾸바에 도착한것은 2월 21일 아침이였다. 주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주당초대소로 안내하였다. 우리는 주당초대소에 려장을 풀고 싼띠아고 데 꾸바시를 돌아보았다. 구릉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이 도시는 남방식물이 우거진 특이한 풍치로 하여 한결 산뜻하고 아름다와보였다.

주당위원회의 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싼띠아고 데 꾸바는 꾸바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도시의 하나이며 특히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들이 활동하던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라고 한다. 사실 그러하였다. 싼띠아고 데 꾸바는 이 나라 혁명가들의 무장투쟁의 근거지 씨에라 마에스뜨라산과 직접 잇닿아있었고 시내와 그 주변에는 박물관들과 사적지들이 많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7.26》박물관을 참관하였다.

《7.26》박물관은 바띠스따통치시기의 몬까다병영이였다. 우리가 이 박물관에 들어서니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몹시 붐비고있었다. 《7.26》박물관에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의 수많은 혁명가들이 미제와 그 주구 바띠스따독재를 뒤집어엎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린 력사를 보여주는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꾸바인민의 투쟁의 력사를 잘 알수 있었다.

꾸바인민이 낳은 위대한 혁명가인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혁명의 성격과 력사적경험, 당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로선은 무장한 원쑤에 대해서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떠한 강대한 적이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 세기적인 굴종과 예속에서 벗어나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다.

이 로선에 기초하여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애국적인 로동자, 농민, 학생, 청년 인테리들로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1953년 7월 26일 싼띠아고 데 꾸바의 교외에 있는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였다. 몬까다병영에서는 혁명군과 바띠스따정부군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는 혁명군의 실패로 끝났으며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7.26운동》참가자들이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7.26》박물관에는 그때의 전투장면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박물관의 어느 한 방에서 《력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것이다.》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투쟁한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법정투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법정투쟁에서의 승리와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하여 혁명가들은 석방되였다. 그후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메히꼬로 망명하였다. 메히꼬에서 꾸바의 혁명가들은 국내외의 애국적인민들과 련계를 맺고 조국해방원정부대를 편성하였다. 1956년 11월 25일 82명으로 구성된 원정부대는 《그란마》호를 타고 메히꼬를 출발하였다. 11월 30일 싼띠아고 데 꾸바에서는 《그란마》호의 상륙과 때를 같이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혁명군과 무기를 만재한 《그란마》호는 까리브해의 심한 파도와 기계고장으로 약속한 날자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란마》호가 12월 2일 베런구장어구에 겨우 도착하였을 때에는 무장폭동은 이미 실패하였고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혁명군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정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추격하는 적들과 계속 전투를 하면서 씨에라 마에스뜨라의 최고봉인 투르끼노산정에 오른것은 12월 25일이였다. 산정에 모인 사람은 12명이였으며 무기는 겨우 7정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투르끼노산정에 봉화를 울리고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때려엎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목숨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휘밑에 혁명군은 씨에라 마에스뜨라 지대에 있는 적들의 초소를 습격하고 무기를 로획하였으며 혁명군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혁명군은 1957년에는 300명으로, 그 다음해에는 6,000명의 대부대로 장성강화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를 미제와 바띠스따의 폭정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하여 1958년 8월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각 부대들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고 적들을 계속 타격하면서 커다란 전과를 올리였으며 마침내 1959년 1월 1일 꾸바해방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해설원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꾸바혁명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로정을 걸어왔으며 꾸바땅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혁명가들의 고귀한

피와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가 《7.26》박물관참관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저녁노을은 붉게 타고있었다.

우리는 번영하는 오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이 나라 애국렬사들의 숭고한 뜻을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더욱 활짝 꽃피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을 떠났다.

우리가 꾸바를 방문하는 과정에 받은 인상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우리는 꾸바에 머무르는 기간에 조선과 꾸바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불패의것으로 굳게 다져지고 날을 따라 더욱 강화발전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꾸바동지들은 지난해 3월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뜻깊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신데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인민이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그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한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 혁명전통 및 선전부의 한 책임일군은 《꾸바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지도자들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마련되고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이 친선관계는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싼띠아고 데 꾸바와 삐나르 델 리오주를 참관하였을 때에도 그곳 일군들에게서 들을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꾸바의 동지들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 특히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예술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면서 그러한 위대한 성과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에 의해서 이룩될수 있은것이라고 감탄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꾸바동지들의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조선과 꾸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영원히 변함없이 숭고한 높이에서 꽃펴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은 꾸바에 머무르는동안 친혈육의 정으로 우리를 환대하여주었으며 아무러한 불편도 없이 방문의 나날을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도록 온갖 조건과 편의를 보장하여준 꾸바 쏘씨알리스따사동지들과 여러 방문지들에서 알게 된 꾸바동지들의 따뜻한 친선의 우정을 잊을수 없다.

우리는 꾸바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형제적꾸바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이 나라를 떠났다.

근로자 1987년 제6호(루계 542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6월 1일 발 행• 1987년 6월 3일

ㄱ—75153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70전